

한국 약학교육의 발자취



한국 약학대학 원로교수 20인의 회고

Memoirs of 20 Senior Professors of College of Pharmacy in Korea

대한약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Celebrating 75th Anniversary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한국 약학교육의 발자취

Senior Professors' Odyssey in Pharmacy Education



사단
법인 대한약학회 약사분과학회
PHARMACY HISTORY DIVISION,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한국 약학교육의 발자취』를 펴내며

우리나라의 근대 약학 교육은 1915년에 설립된 조선약학강습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약학 및 약계 전 분야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에서 1982년 이전 설립된 20개 약학대학 원로교수로부터 약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황폐화된 교육 여건과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도 배움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원로 교수님의 고달픈 행적이 처절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각종 실험 기자재가 부족한 열악한 현실을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가 느껴져 숙연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터를 잡고 땅을 일구어 정성스럽게 키워내신 약학교육을 앞으로 후배들이 어떻게 잘 가꾸어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2014년에 창립된 약학사분과학회는 우리나라 약계의 역사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약학회 분과학회로서는 유일하게 학회지인 『약학사회지』를 2018년에 창간하여 매년 1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약학의 역사는 우리 역사와 맥을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약학사분과학회에서는 고대 및 근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최근 약학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해나가는 고현학(考現學)적인 접근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약계 원로의 구술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약계 원로 구술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계 전 분야 원로들의 구술을 녹취하고 정리하여 『약학사회지』에 게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약계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려고 하오니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단행본은 대한약학회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홍진태
회장님의 물심 양면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간 단행본의 발간을 위해 협조해
주신 20개 약학대학 원로 교수님과 전·현직 학장님 및 관련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구술된 녹음을 녹취록으로 옮겨준 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역사관
박주영 학예사를 비롯하여 각 대학 녹취록 제작 담당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
니다.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 회장 김진웅

원로교수 20인의 회고록 발간을 기뻐하며

민속박물관에 가 보면 옛날에 흔하게 볼 수 있던 지게, 호미, 삽, 명에나 등잔 같은 물건들이 '선조들의 유물'로 대접받아 전시되어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구 세대에게는 눈길을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평범하기만 했던 이런 물건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날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 주변에 흔한 물건들도 세월이 지나면 귀중한 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물건들도 이미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복, 정성분석 실습용 실험상자, 가리방, 철필(鐵筆), 등사기(謄寫機), 프린트물, 청사진(靑寫眞), 논문 발표 용 괘도(卦圖), 슬라이드, 빔 프로젝터, OHP 등 잠시만 꼽아봐도 사라진 품목이 수십가지에 이릅니다. 추억이 서린 이런 물품들은 이미 웬만한 박물관에 가서도 만나보기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계의 여러 선배님들의 행적도 기록으로 남은 것이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저는 2020년에 故 홍문화 교수님의 평전(評傳)을 쓴 바 있는데, 이는 당대 최고의 명사(名士)이셨던 홍 교수님이 후학들로부터 완벽(?)하게 잊혀지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약학사분과학회는 2014년 창립된 이래 2022년말까지 총 18회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18년부터 매년 『약학사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학사회지』의 창간사에서 “우리의 약학사 연구 현황은 연구의 첫 재료가 되는, 과거에 대한 기록과 자료의 집적(集積) 단계부터 매우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늘 자료와 기록의 빈약함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둘러보면 우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기록과 자료 수집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약학사분과학회는 이와 같은 반성에서 탄생된 학회입니다”라고 하며 약계의 모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약학사분과학회는 고려나 조선시대 같은 먼 과거의 약학사를 연구함에 앞서 아직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생존해 있는 최근세 및 현재의 약학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이 책의 발간도 분과학회의 이러한 철학과 신조(信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책은 전적으로 약학사분과학회의 2대 회장인 김진웅 명예교수의 기획과 진두지휘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20개 약학대학의 원로교수 한 분씩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각 인터뷰를 주선하고 내용을 원고로 정리하여 보내주신 각 대학 학장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체제의 통일성 등에 부족함이 없지 않지만, 이 책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근·현대 약학 교육의 역사 자료로서 그 가치를 더해 갈 것입니다. 일견(一見) 평범해 보이는 기록도 결코 그 끝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고록이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록 남기기’ 작업이 교육·연구계를 넘어 범약계로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 취지를 적극 이해하시고 물심 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약학회 홍진태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약학사분과학회 초대회장, 현 명예회장 심 창 구

한국 약학대학 원로교수 20인의 회고

존경하는 대한약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약학회 회장 홍진태 입니다.

지난 2021년은 우리 대한약학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대한약학회가 학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5년간 많은 선배 약학자들께서 대한약학회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각 지부 및 분과학회들의 역사를 정리, 기록하여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 지부·분과학회의 역사』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함께 기획되었던 것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우리결을 떠나가시는 우리나라 약학의 태동과 정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약학자들에 대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수집과 정리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 약학교육의 발자취』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 전국 20개 약대의 원로교수님들이 겪어 오신 우리의 현대사와 사회적 변화, 각 약학대학들의 역사, 그리고 그 당시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약학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온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직접 대담을 통해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아마 이 책을 받아 보시는 분들께서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약학계의 초창기나 각 약학대학 태동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며, 한편으로는 약학인이 가져야 할 약학계 역사에 대한 인식과 선배들의 헌신적 공헌의 역사의 바탕위에서 더 큰 미래를 이루어 나가야 할 사회적 사명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약학교육의 발자취』의 기획과 자료 정리 그리고 발간작업들을 맡아주신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의 심창구 명예회장님과 김진웅 회장님, 그리고 자료 수

집에 도움을 주신 각 약학대학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약학계의 기록과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길이 보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뒤를 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약학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대한약학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대한약학회 제52대 회장 홍진태

차례

발간사

약학사분과학회 회장 · 김진웅 2

축사

약학사분과학회 초대회장, 현 명예회장 · 심창구 4

(사)대한약학회 제52대 회장 · 홍진태 6

구술사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 신관석 11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 정용자 27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 김신규 39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 최윤수 47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 정기화 69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 전인구 87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 임광식 149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 이숙연 159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이상섭 183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 함원훈 219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 황규자 231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 허근	253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 은재순	263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 안년형	275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 김춘미	285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 천승훈	295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 최준식	335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허인희	349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 안병준	361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 노재섭	379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의 설립과 발전

신관석

1. 태동기(1978~1982년)

강원도민과 강원대학교의 오랜 염원이었던 약학과 신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70년 중반부터 주왕기 교수(사범대 체육학과) 등이 대학 본부에 약학과 신설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학교 당국은 1980년부터 문교부에 약학과 신설 요구를 요청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당시 전국 20개 국립 및 사립 약학대학(약학과)이 인가되어 있었는데 강원지역과 전남지역에만 약학과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도민들 불만이 컸다.

강원도는 특히 낙후지역으로서 무약촌이 많아 도민들의 보건의로 혜택 면에 있어서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병원은 물론이고 약국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도민들이 질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대학교에도 의과대학이 설립되어야 하나 당시에는 의과대학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강원도민의 자녀 중 약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은 부득이 전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값비싼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하여 공부해야 했으며 그러다 보니 약국개설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강원대학교에 우선적으로 보건의로 계통의 학과 중에 약학과를 신설하자는 학내 여론이 많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의학과, 간호학과, 수의학과 등을 신설하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태산준령이 많은 산악지형으로서 그야말로 생약 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약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천연생리활성물질 창출 및 천연물 신약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적지이다. 이 같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약학대학이므로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개발 측면에서도 약학과
의 신설은 도민의 열망이었다.

다행히 본교에는 당시 사범대 체육학과에서 보건학과 생리학을 강의하는 주왕기 교
수 같은 약대출신 교수가 있어서 약학과 신설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이상영 교무처장 등 약학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수들의 도움도 컸다. 그러나 강원
대학교에 약학과의 신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다. 우선 약사직능 단체인 대한약사회
가 지속적으로 약대 정원증원 및 약대 신설 같은 약사 인력 수급 계획의 변화를 강력
하게 반대하였으며 심지어는 감축을 건의하는 형편이었다. 1980년 현재 전국에는 13개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원은 약 1,100여명 수준으로서 1976년도 보건사회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약사는 인구 1만 명당 5.8명으로 선진 외국과 비슷하고
반대로 의사는 인구 1만 명당 5.8명으로서 모자라는 편으로 분석되어 있어서 정부 당
국에서도 약학과의 신설을 꺼리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볼 때 약학과가 없는 강원도와 사립만 있는 전라남도에 약학과
의 필요성이 정서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보건사회부와 문교부가 약사
인력 배출의 강력한 억제방침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약학과의 신설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다.

2. 여명기(1982~1983)

그러나 때는 왔다. 학교 당국은 1981년 2월 문교부에 약학과 40명 제약학과 40명
정원의 약학대학 신설을 요구하였고, 1981년 10월에 약학과의 신설인가 발표가 났다.
당시 강원대학교와 전남대학교 두 군데가 동시에 신설이 되었는데 전남대학교에는 정
원을 약학과 30명, 제약학과 30명 등 총 60명으로 하여 약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으로
파격적으로 인가해주었다. 그러나 강원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 내에 약학과로서 정원
40명으로 인가받아 특정 지역과 너무나 차별되는 대우를 받았다. 이로써 자연과학대학
내에 설치된 약학과는 향후에 약학대학으로 독립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다. 어쨌든 1982학년도가 약학과가 신설되는 학년이므로 대학 본부에서는 1981년 10월 약학과 설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담당할 교수로 사범대학 주왕기 교수와 한용남 교수에게 약학과 창설 업무를 맡기게 된다.

우선 약학과와 의과과정을 만들게 되는데 전국 20개 약학대학(약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약학과와 의과과정 편성계획에 착수하였다. 약학은 생물과 화학이 고루 반영되고 인체의 질병과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 개발 및 응용에 관한 학문이므로 이러한 분야들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교과과정을 1차 편성하게 되었다. 총 이수학점은 140학점으로서 당시 자연 계열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나 약학 계열로서는 타 대학에 비교하여 다소 적게 편성하였다.

3. 창설기(1982-1984)

1) 약학과와 출범

1982년 2월 28일 ‘국립대학 설치령’에 의해 강원대학교에 약학과가 신설되었다. 강원도 내의 유일한 약학전문교육기관이 고고의 성을 올린 것이다. 이는 강원도의 기쁨이자 강원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또 하나의 기쁨이 된 것이다. 당시 지역 언론 보도에도 강원도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요람이 될 강원대학교 약학과의 탄생을 크게 다루면서 축복하였다. 약학과의 초대학과장으로서는 당시 사범대학 체육학과에 생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주왕기 박사가 1982년 3월 1일 자로 임명되었다.

당시 교과과정 편성 등에 참여했던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한용남 교수는 약학과 부임을 고사하여 화학과에 잔류하였고 계속 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로 전직하였다.

드디어 다수 강원인의 인재들이 약학에 입문하고자 모여들었다. 1982년



그림 1. 자연과학대학 시절.

3월 1일 약학과 신입생 40명이 정식으로 입학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요람 탄생이 현실화된 것이다. 제1회 입학생 중 강원도 출신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고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영재들로서 이후 약학과 입학생들은 강원대학교 신입생 중에서 자연 계열 또는 전체 수석을 도맡아 하게 된다.

2) 자연과학대학 내 약학과의 교육

1982년 3월 자연과학대학 내 약학과가 설치되자 대학에서는 자연대 3호관 3층과 4층(총면적 518.9m²)을 약학과 사용 공간으로 배정하여 교육을 개시하였다. 당시에는 학과사무실, 강의실은 준비되어 있었으나 학생실험실과 교수실험실은 아무런 실험 연구 장비도 없이 텅 비어있는 형편이어서 시급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던 시기였다. 전공 교수도 확보되어있지 않았으나 당시 1학년은 주로 교양학부 교육을 받으므로 차근차근 충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약학과의 교육목표는 강원대학교의 실사구시 정신과 직능교육 그리고 약학 연구를 통한 인류복지 구현을 담기로 하였다. 당시 약학과의 교육목적은 ‘약학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과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여 의약품의 개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국민 보건의 향상에 책임있게 봉사할 수 있으며 약학 분야의 연구수행 능력을 함양한 전문인력으로서의 약사를 배출한다’였다.

이를 위하여 약학과는 비록 뒤늦게 강원도 내에 성립되었지만 타 지역 약학대학에 못지않은 인재를 키우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약을 새롭게 창조하는 창약,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용약 정신을 함양하고 생명 의식을 바탕으로 한 윤리관이 확고한 약사 인력을 키우기로 하였다.

또한 제1회 입학생은 선배가 없는 기수이므로 당시 재직 교수와 조교가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과 밀착하여 멘토 역할을 하였으며, 따라서 교수와 학생간의 잦은 미팅과 야외 행사 등 가능한 한 사제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열의 있는 약학교육을 시도 하였다. 학생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가급적 빨리 조성하기 위하여 대화 기회도 많이 가졌으며 축제 행사도 함께했다.

당시 1회 학생들은 약학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약사 국가고시 대비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 그러나 당대 지역 최고의 자연계열 인재들의 모임인 약학과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올바로 시키기 위하여 「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그림 2. 1회 졸업생(1986년).

학내 유명 교수는 물론 전국과 지역을 망라한 저명 학자를 초빙하여 주로 자연과학 및 인문학 분야를 망라한 특강이 개최되어 100여 회 정도 1986년까지 계속되었다. 초기의 주요 연제와 연자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1회는 박용수 교수(이후 강원대총장으로 재직)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연제로 강연하였다. 제3회는 ‘The Spirit of Pharmacist’라는 제목으로 주왕기 교수, 제9회 ‘Clone과 핵이식’ 김정익 교수, 제15회에는 오동일, 최광덕 교수가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제16회 ‘강원인과 역사의식’ 김영기 강원일보 논설위원, 제20회 ‘약사의 사회 진출’ 윤대순 강원도약사회장, 제22회 ‘한국산 약용식물의 약학적 이용현황’ 이우철 교수 등 당대 최고의 연사들이 강연에 나섰다. 당시 예산 부족으로 강사료는 지급하지 못하고 개인 ‘장서인’을 파서 선물로 드렸다. 이후 유명 강사들의 강연이 계속되었고 약학도들의 교양 및 지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쉽게 교육여건이 바뀌어 100회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3) 창설 초기 교과과정의 개요 및 특징

1982년 개시된 최초의 약학과 교과과정은 졸업 이수 학점 140학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필로서 유기약화학 및 실험(I, II), 생약학 및 실험(I, II), 생물화학 및 실험(I, II), 약리학 및 실험(I), 약제학 및 실험(I), 위생화학 및 실험(I) 등이 필수과목으로 되어있고 약제학 및 실험(II), 약리학 및 실험(II), 약품분석화학 및 실험(I, II), 위생화학 및 실험(II) 등은 선택과목으로 되어있어 국가고시 과목이 전공선택으로 되어있어 향후 학생들의 수강 신청에 따라 국시 준비에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였다. 이에 학과장인

주왕기 교수의 지시에 따라 시급히 교과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개정의 골자는 졸업 이수 학점을 16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시 과목을 두 학기 걸쳐 5학점(약물학, 약제학은 6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국시 과목 이외에 꼭 필요한 생리학, 해부학, 약품물리화학 등 중요과목은 필수로 2학점을 배정하여 편성하였다. 기타 최신 학문들은 선택과목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이 새로운 교과과정은 비록 198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1982학번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다.

4) 교수 채용과 교육내실화

전기한 것처럼 1982년 약학과 신설 당시 교수요원은 주왕기 교수뿐이었다. 그러므로 신입생이 전공 교육을 받기 전에 시급한 분야의 교수 확보가 관건이었다. 주왕기 교수는 이 점을 대학 본부에 건의하여 당시 이상주 총장으로부터 특별채용 교수정원 2인을 확보하였다. 해당 전공 분야는 생약학 1인, 유기제약 1인이었다. 일반공채보다 특별채용을 택한 것은 신설학과인 관계로 교육 실무경험이 있는 학자 1인과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인재 교수 1인을 영입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오랜 생약 연구를 해왔으며 우리나라 약용식물학 분야의 권위자로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재직 중인 김창민 박사를 특채하기로 하였다. 또한 독일의 본 대학에서 유기제약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신진학자인 신관석 교수를 특채하기로 하였다. 학교 당국에서도 약학과와 특채계획을 승인하여 약학 분야의 중요한 두 분야인 생약학과 유기제약학 담당교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창민 교수는 2월 28일 부임하였으며 신관석 교수는 3월 16일 부임하였다. 당시 외국 박사 학위취득 교수요원들이 많지 않았고 각 대학에서 국제적 인재 영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관석 박사가 학교 당국의 국내 정착지원금을 수혜받으면서 임명되었다.

김, 신 교수가 부임하자 약학과는 다소 활기찬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약학과를 교실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주왕기 교수는 약물학교실, 김창민 교수는 생약학교실, 신관석 교수는 유기제약교실, 허문영 강사가 임시로 분석화학교실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교실 활동(연구 및 토론 등)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학년 지도 교수로서 1982학번 제1회 학생은 주왕기 교수가 맡기로 하고 새 학년이 들어오면 이어서 김창민, 신관석 교수가 학년 지도교수를 맡기로 하였다.

학생들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 1982년 가을에 축제인 제1회 팜 페스타를 신설하여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팜 페스타는 순수 학생자치 행사로서 내용은 연극, 음악 등 공연 중심이었는데 행사 타이틀은 약학라틴어를 가르치는 신관석 교수가 명명하였다. 이 축제는 약학과 입학생이라는 수재들이 펼치는 신선한 내용으로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백령회의관(현재 실사구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이 행사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강원대학교 약학과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 행사로서 학내·외에 각인되어 있다.

5) 교육기자재의 확보와 운영

1982년에는 문교부로부터 영국 교육차관(ECGD)에 의한 실험 실습 기자재의 예산 배정(\$260,398)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학과가 신설되자마자 기자재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한 신설학과로서는 무척이나 기쁜 일이었다. 전기한 것처럼 아무 시설도 없는 신설학과인 약학과에 교육차관을 배정받은 것은 천우신조였다. 이것도 사용처가 약학 계열로 꼭 찍혀 나와 자연 계열 교수들의 부러움을 샀다. 약학과에서는 이 귀한 자금으로 우선 학과 공동장비와 개인 교수의 연구 장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매 준비를 시작하였다. 모든 작업은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공동장비로서는 GC, HPLC, IR, UV/VIS, AA 등이었으며 개인장비로는 physiograph 등을 외자 구매 진행하였다. 학생 및 교수들은 기기가 도착하는 날만을 기다리며 꿈에 부풀었다. 공동장비는 4층의 실험실에 대형장비 별로 별실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으며 개인장비는 각 교수연구실에 배정시켜 관리토록 하였다.

4. 정착기(1985-1988)

약학과 신설 이후 어느새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전임교수는 불과 세 사람뿐이었으며 개설강좌 중 전임교수가 확보되지 않은 강의는 시간강사가 위촉되어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교수정원을 1명 배정받아 위생화학 분야 공채를 시도하였으나 책임자가 없었고 1985년 9월에 허문영 박사가 위생화학 분야에 정식으로 조교수로 임명되어 분석화학에 이어 위생화학 강의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교수요원은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므로 계속 충원 시도를 하였다. 1986년 3월에는 생화학 담당 김현표 교수가 공채로 채용되어서 강의에 임하게 되어 약물학, 생약학, 유기제약, 위생화학에 이어 생화학분야가 충원되어 그런대로 약학교육의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1986년 1월 10일 실시된 약사 국가고시에서 제1회 졸업생이 100%의 합격률을 나타내어 본인들은 물론 학교 당국과 지역사회에 큰 기쁨을 주었다. 한편 재학생들도 역사가 짧은 약학과임에도 국시 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후 10여 년 연속 약사 국시 100%를 달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일부 불합격생도 나타났다. 그러나 항상 전국 상위권이었으며 평균 이상의 합격률을 나타내었다. 1986년 11월 29일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약학과가 신설되어 1987년부터 대학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7년 11월 25일에는 종합약학연구소가 개소되어 주왕기 교수가 초대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종합약학연구소는 강원대학교 약학과 교수와 대학생들의 연구역량을 집대성하는 기관으로서 신약개발, 임상약학, 기초약학과 응용약학까지 다루는 종합약학연구소로서의 면모를 구성하게 되었다. 종합약학연구소는 1989년 『약학 연구』라는 학술지를 창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1995년 2월 23일 약학과 제2대 학과장에 신관석 교수가 임명되었다. 3년 연임한 직전 학과장인 주왕기 교수에 이어서 학과장을 맡은 신관석 교수는 특유의 세심함과 꼼꼼함으로 약학과를 운영해 나갔다. 한편 1988년 문교부로부터 OECF 교육차관 약 112만 불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약학과는 앞서 도입된 ECGD 교육차관에 의해 도입된 기자재를 보태 총 138만 불의 기자재를 확보하게 되는 경사를 맞이하고 이에 도입된 주요

기자재는 NMR, GC/MS 등이었다.

1987년 3월 1일 손영택 교수가 약제학 담당 교수로 발령받았다. 1988년에는 약학대학 재학생인 이은주양이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1995년에는 IBRD차관 약 91만 불을 배정받아 기기 도입을 착수했다. 한편, 1989년 3월 1일 병태생리학 전공으로 김형춘 교수가 임명되었고 동시에 약품분석학 전공으로 김정호 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동안 ECGD 교육차관 기자재가 도입되어 설치, 운영 중이고 OECF, IBRD차관도 배정받았으며 교수요원 8명을 확보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약학과 졸업생도 전원 약사고시에 합격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나왔다. 앞으로 약학과와 약학대학으로의 승격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처럼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였다.

5. 발전기(1989~2000)

1988년에 문교부에 약학대학 신설요청을 하였다. 자연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약학과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그동안 이질적인 대학 내의 한 학과로 존재하여 약학교육의 운영에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드디어 1989년 3월 1일부로 약학과와 약학대학 승격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약학과와 주왕기 교수와 김창민 교수, 신관석 교수, 허문영 교수 등 전 교수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초대 약학대학장으로는 주왕기 교수가 1989년 3월 1일 취임하였다.

약학과와 약학대학의 차이점은 그간의 약학과가 자연과학대학 내 소속되어 한 개의 학과로서 편제되어 있어 독립 행정요원도 없었고 행정실도 없어서 예산집행이나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약학대학으로 승격되면 약학대학장이 강원대학교 13개 단과대학장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교무위원으로서 학교 최고 심의기구에서 활약하며 독립행정실과 독립된 대학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게 된다. 학생회도 단일학과 학생회에서 단과대학 학생회로 승격되어 활동하게 되는 등 교수, 학생,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이제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으로 되어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대학 행정으로 전국의

20개 약학대학과 어깨를 겨루며 경쟁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학회 참석을 위해 서울을 다녀오는 도중에 약학대학 승격 뉴스를 접하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1989년 9월 26일부터 3일간,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인 제7회 팜 페스타가 개최되었다. 생약탕제, 만화전시회, 바자회, 민속놀이경연, 임종철 건강사회실천협의회장 초청 '올바른 약사의 길' 강연회 등이 개최되었다. 1990년 6월 18일에는 부속 약초원이 설립, 개원되었다. 김창민 교수가 약초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약초원은 학생들의 약용식물교육의 산실로서, 지속적인 식물 관찰과 재배를 통하여 천연물 신약개발 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개원되었다.

약학대학 승격과 함께 필요성이 먼저 대두된 것이 약학대학 독립건물 신축 건이었다. 이를 위해 약학대학 교수들은 단독 건물신축을 건의하여 약학관 신축계획(3,715m²)을 하게 되었다. 약학관의 건축계획은 강의실, 학생실험실, 교수연구실, 교수실험실, 세미나실, 공동실험실, 학생독서실, 기타 서비스



그림 3. 1992년 신축 후 첫 겨울.

공간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학교 본부 시설과와 협의 하에 현재 산림과학대학 자리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약대도 모르게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의 자리인 동물생명과 학대학 앞 도로변에 자리 잡게 되었다. 구성원들의 아쉬움 속에 1991년 8월 건물이 드디어 임시 완공되어 자연과학대학으로부터 우선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비품비 약 1억 원을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하여 신축건물의 기자재 설치와 실험실 환경조성 및 강의실을 완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학관 앞 정원에는 당시 김창민 학장의 능력으로 여러 제약회사와 춘천시약사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약 1천여만 원의 기념식수 기금을 마련하여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을 식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강원대학 내 단과대학의 조경으로서 으뜸가는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1992년 3월 약제학 담당 교수이던 손영택 교수가 타교 진출을 이유로 퇴직하였으며 1993년 3월 신관석 교수가 제3대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해 8월 이범진 교수가 약제학

교수로 부임했다. 1993년 9월 7일부터 보사부 발표 약사법 개정 시안에 대하여 의약 분업 완전 실시를 요구하며 약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시작되었다. 1995년 3월에는 제4대 학장으로 주왕기 교수가 초대학장 임명에 이어 다시 임명되어서 취임하였으며 1997년 3월에 허문영 교수가 제5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해에는 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전국 약학대학 평가가 있었는데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평가위원 실사를 거쳐 전국의 약학대학들과 나란히 우수학과로 평가되어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역량 및 연구역량 평가에 있어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었다. 1997년 5월 23일에는 강원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약대 교수일동(8명)이 학교발전기금 5천만 원, 약대 동문회에서 2천만 원을 기탁했다. 1998년 3월 18일 유기약화학 교수로 박해일 박사가 임명되었다. 1999년에는 김현표 교수가 제6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6. 도약기(2000~2010)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의 새해가 밝았다. 1982년 강원대학교 약학과로서 창립된 지 18년이 지났으며 곧 20주년을 맞게 되는 시점이 온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말이 있지만 20년이야말로 짧은 세월은 아니었다. 약학과가 약학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설립 당시 교수 1인이 9명의 교수로 증원되었으나 전국 약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교육 연구 인원이 적은 편으로서 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다.

2001년 3월 김형춘 교수가 7대 학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강원대학교 행정 개편에 따라 약학대학 행정실과 동물자원대학 행정실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에는 약학대학 2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동문회 발전기금도 기탁되어 20주년 기념행사를 빛냈다. 발전기금은 전기한 것처럼 1997년 5월 교수 일동이 일금 5천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그 후 동문회에서 2천 5백여만 원 등 2012년 현재 모금액은 약 1억 3천 6백만 원으로서 저조한 편이다.

2003년 3월에 김경호 교수가 제8대 학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03년 11월 14일 우리 대학과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와 교류 협력을 체결하였다. 2004년 3월 22

일에도 일본 규슈대학교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의 글로벌화에 힘을 썼다. 한편 2004년 3월에는 제1회 동문인 권용수 박사가 생약학 교수에 임용됨으로써 동문 교수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권용수 교수는 약학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일본의 대학에서 포스트닥을 했으며 본교에서 조교, 시간강사로서 기여를 많이 해왔다.

2005년 3월에 이범진 교수가 제9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2005년 3월 30일 홍천군 동면과 농촌 사랑 자매결연을 맺고 강원대 약학대학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92년 3월 완공된 약학관의 면적이 비좁아 교육 및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학교 당국에 건의한 결과 일단 건물 증축을 하기로 하였다. 증축 재원은 약대생들의 자율적 경비와 약대 발전기금과 기성회비 매칭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소정 금액을 거두어 건물 증축기금에 보냈고 약대 발전기금 1억 원 등과 기성회 재원으로 2006년 10월 16일 기공하여 2007년 8월 24일 증축이 완료되었다. 건물구성은 제약 공정실, 실습약국, 학생독서실을 1층에 배치하고 2층에는 교수연구실 3개소, 교수실험실 2개소를 배치하였다. 3층은 대형강의실 1개소와 의약정보실, 교수연구실을 두어 그동안의 공간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건물 협소로 인한 공간 부족은 실험실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998년 2월 19일 약품 분석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2004년 12월 9일 약화학실험실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뼈아픈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약대 2호관 신축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05년도 약학대학 평가에서 실사 준비 불충분과 평가위원 구성의 문제점으로 최하위인 보통 판정을 받아 구성원들과 졸업생의 실망이 컸다.

2007년 2월 27일 약학과와 약학대학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약물남용 연구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주왕기 교수가 정년퇴직을 하게 됐다. 동시에 초창기 부임 때부터 교육과 연구, 특히 한약 분쟁 시 한약사 조제시험 입안 및 출제, 한약 관련 서적 발간 등에 많은 공적을 쌓은 김창민 교수도 정년퇴직을 하였다.

2007년 3월 박해일 교수가 제10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어서 2007년 8월 24일



그림 4. 2007년 약학대학 전경.

약학관이 증축(867m²) 완료되었다. 2008년 2월에는 동문 출신 교수로서 신은주 박사가 임용되었다. 신 교수는 약학대학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교수로서 의미도 컸다. 2009년 3월 권용수 교수가 제11대 약학대학장으로 임명되어 이 또한 동문 교수의 학장 임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9년 6월 5일 종합약학연구소 주최로 동문 과학자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과학자들이 모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2010년 3월 15일에는 당시 하버드대학에서 포스트닥을 마친 고현정 박사가 미생물과 면역학 담당교수로 부임하였다. 2006년 1월 13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약학대학의 학제가 6(2+4)년제로 바뀌었다. 2009년 1월에는 약학대학 6년제로 출범하였지만 2년간의 예비약학교육을 받은 학생을 기다려야 함으로 신입생을 향후 2년간 뽑지 못하게 되었다. 권용수 학장은 약학과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 증원하는 요청을 교과부에 제출하여 기어코 승인 받음으로써 6년제와 발맞추어 약학대학 50명 정원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관석 명예교수

학력

- 1971. 0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1979. 12. 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석사
- 1982. 10. 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 1983. 03.-2012. 02.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1985. 1998. 1992. 독일 Bonn 대학교 객원연구교수

- 1987. 03.-1989. 02. 강원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장
- 1991. 03.-1993. 02. 강원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소장
- 1991.-2012.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
- 1993. 03.-1995. 02.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95. 03.-1997. 02. 강원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장
- 2004. 01.-2005. 12. 대한약학회 약품분과 분과회장
- 2004. 04.-2006. 03. 강원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소장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정용자 교수의 약학 인생

정용자

- 일시: 2022년 6월 14일
- 장소: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실
- 대담자: 강재선 학장, 김혜경 교수
- 녹취 및 정리: 김우영(경성대학교 조교)

김혜경(이하 김): 오늘 경성대학교 정용자 명예교수님과 경성대학교 강재선 학장님 자리 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약학사분과학회에서 마련한 이 자리는 정용자 교수님의 인생과 약학대학에서의 경험과 후학들에게 남기시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서 약학계와 경성대 약대 동문과 후학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재선(이하 강): 정용자 교수님께서서는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신 후 1984년부터 2008년까지 24년간 경성대학교 약대에서 생화학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경성대학교의 약대 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녹취를 통해 약대 후학들에게 귀한 기록 남겨주시길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성장해 오신 과정과 약학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부터 부탁드립니다.

정용자: 1950년 6월 25일 그 다음 날, 장남인 남동생이 태어나고 기뻐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따라 태어나서 백일도 안 된 남동생, 여동생이 언니 한 명과 (부모님은 전쟁을

피해 간 것이었지만) 멋모르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마산에서 한 밤 자고 갈아타서 이반성역에 내려 30리 길을 걸어 걸어 지금은 진주시가 된 고향 지수로 향하였습니다.

딸 다섯에 막내 장남, 그 당시에는 장남의 존재 여부가 부모님과 누나인 우리들의 운명이 달린 사안이었음은 모르고 지난 시기, 3학년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조부모가 계신 곳으로 어머니를 따라간 거였지만 사실상 전쟁을 피하러 간다는 게 전쟁 맞으러 부산에서 지수로 간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 고향집 사랑채는 인민군 사령부가 되어, 인천상륙작전 이후 점령지가 수복될 때까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낸 이 삼 개월의 추억이 현재의 어린 시절 기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몇 달 후 수복된 가을에는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는 군 병원이 된 상태였고, 집에도 방 하나에 한 가구씩(방 2, 부엌, 쪽방뿐이었지만) 부엌, 창고까지 피난 온 친척들이 방 구할 때까지 지냈지요. 학교생활은 수정산에서 임시교사랄 것도 없이 산 위에 나무 세우고 칠판 걸어 나뭇섬 배운 기억, 4학년 말부터 이리저리 텐트 친 임시교사에서의 수업들, 이도 옮겨가며 지내다 5학년 말쯤 되면서 수업을 하는가 싶더니, 6학년이 되어서야 공부를 했다는 기억이 추억 속에 남아 있어요.

고향에서 지내며 언니 따라 학교에 간 것이 이른 입학이 되었는데, 2학년에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전학하게 되면서 1학년 때 학교 옆 개울가에서 친구들과 도시락 나눠 먹던 일, 다음은 지수에서 부산으로 전학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즈음, 할머니 홀로 시골서 외로우시다며 방학도 되기 전에 고향 지수에 보내졌던 일, 그리고 학교에서 구구셈하던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전쟁과 더불어 산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보냈던 것과 물 길는 일들, 이들이 어린 시절 추억의 대부분이에요. 중학교 시절엔 체육 선생님의 눈에 들어 학교 운동선수로 시간을 보냈고, 이때 큰 언니의 대학 입시 학과 선택에 끼어든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큰 사건이 되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큰 사안이었는데 아주 쉽게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었어요. 이 학문을 하는 동안 내가 다시 태어나도 약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을 만큼, 나에게 좋은 학문이라 생각되었으니까.

교수예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교수셨던 부친이 좋아보였고, 그리고 ‘언니들이 모두 교수를 한다니 나도.’ 하는 마음으로 대학 때부터 교수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여자라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학생 때는 가능한 듯 보였으나, 거역할 용기는 없으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도 하고 이것이 내 학문에의 직진을 방해하는 여러 사안들을 만나게 했고, 선택 방향을 우회하게 했어요. 그러나 국가재건이 대학의 수요를 높여 기회를 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 본관: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금곡리 1217
- 출생: 서울
- 성장: 진양군 지수초→부산 수정초→경남여중
- 부: 교수→학장→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 사무국 사무국장→교수→총장 (모: 무학)
- 본인의 형제(언니 셋, 동생 둘-육 남매 모두 교수, 정확히 여동생은 한국 의사, 미국 전문의 개원의, 미국 시민)
- 본인의 가족: 3남 2녀. 의사와 교수(작은 여식-이른 결혼, 부군 의대 교수)
- 손자·손녀: 각 2명 또는 3명(총 12명)
- 시부: 교수, 정년 후 부산대학교 명예박사, 명예교수, 정신문화교육원 초빙교수
- 시댁 형제: 슬하 2남 4녀(의사 1, 박사 교수 1, 약사 3, 부군 교수 1)

성장 과정과 약학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중조부모, 조부모, 부모님과 함께 시골 고향 지수에서 자란 기억과 외가의 조부모와 외삼촌과 지내던 일, 그리고 외가 오빠에게 자전거 배운다며 넘어졌던 몇 번의 외가 나들이, 6·25전쟁 이전의 추억으로 간간이 집에 오신 외삼촌에게 “서울 보여준다”라며 귀 당김 당하던 일을 제하면, 어머니 따라다니며 뛰놀던 추억과 전쟁과 어우러진, 수 정산을 오르내리며 물 길던 일, 임시교사 생활, 빨래터 찾아다니기 정도다. 중학생이 되면서 간간이 집 청소하고 빨래하기, 방과 후면 체육선생에 불려가 운동 연습하기가 주된 일이었다. 그러면서 공부가 더 쉽다는 생각에 선패의 부름이 없는 3학년부터

책을 들기 시작해서 고등학생 때는 시험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고는 대학원을 가기 위해 제2외국어를 해야 하다 보니 나름 공부했다. 당시에는 석사과정 후의 앞날도 약속되어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대학원 석사과정 후 결혼하여 '시집'이란 것이 생기면서, 같은 교수이셨던 시부의 며느리 교수에 대한 거북함에 부딪치면서(결혼 조건에 내세웠던 것이어서 직접 반대는 없었으나) 시누이가 하던 약국도 받아서 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연년생 삼남매와 연이은 자녀를 돌볼 시간 또한 갖게 되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여기저기 시간강사 나가고, 교육받으면서 간호조무사, 운전과 조리 자격·면허를 획득하여 요리와 영양을 기반으로 한, 입원환자 신속 관리가 되면서(당시에는 운전면허시험과목에 차 수리·정비와 운전법규가 포함되어있어 운전면허취득자가 적었고, “여자가 차를 몬다”라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들도 구경나오는 때였다) 나의 선택에 대한 호소력에 힘을 얻고, 사회의 변화에 편승하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약학대학에의 진학 동기는 우연히 언니들의 대학 선택과정에서, 또 어머니의 영향이었다. 공부하지 않던 본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언니 사이에 끼어들어 “나는 ○○학과에 갈 거야”라며 언급했다가 “공부하기 싫으니 그 학과를 선택한다.”라는 말에 “공부하는 학과는 어디야?”라고 반문한 것이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약학과!” 하시는 말씀에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답한 것. 이것이 나에게 삶의 기회를 쟁취하게 했고, 나의 삶을 인도했다. (어머님께서선 약대를, 아버님께서선 의대를, 그러나 아버님께서 서울대에는 안 보낸다고 하시니 “의대 가겠다”라던 언니 둘은 ‘각자 아버지 대학 아버지 학과’로 답하면서 각각 다른 학과를 선택했고, 부산대학교만 생각했던 동생들만 의과대학을 가게 되었다고 사료.)

약학대학 재학시절 기억에 남는 일

1960년 입학 당시 약학과는 의과대학 소속이었고, 의과대학은 서구 아미동에,

약학과는 장전동에 자리하고, 약학대학은 없고 건물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기초교양과 몇몇 기초과목은 다른 대학교수가 주로 담당하고 의대 교수 강의는 조교가 와서 이말 저말 하다 출석 부르다 말다 하는 정도의 강의로 끝났고, 교양과목도 비슷했다. 당시 부산대학교의 장전동 금정산 캠퍼스는 동래전철역에서 두 정거장 정도 거리에 있었고, 약대 강의실까지는 대학에 들어서서도 인문대학, 공과대학을 지나 산등성이에 있어 동래전철역에서 학교까지 그리고 강의실까지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리던 터라 종일 뛰다시피 하고 다녀야 했으니, 추억이라면 ‘매일 학교 가고, 쉬는 시간이면 다음 강의실을 찾아다닌 것’이라고나 할까?

대학 입학하자 4·19혁명, 다음 해 5·16쿠데타가 일어났고, 학생들의 데모 또한 끊이지 않았으니 ‘혼돈과 인내의 시간이었다.’라면 젊은이의 응석이 될까? 그랬다. 5·16 이후에는 실험이라도 해주려는 분위기로 되어가고, 교양수업에서 전공과목이 늘면서 배움에의 기대 또한 늘어갔다. 실험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렛과 비커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실험이 시작됐고, 약학과 교수들은 대부분 잘 가르쳐 주셨기에 실험 기구 자체 부족은 당시로서는 별일 없이 넘어갔다는 기억이다. 실험기구들은 학생 개인 관리 책임하에 있다 보니(학교에서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학생에게 맡겼다고 생각), 100여명 학생이 한 방에서 북적이고(분반해도 50여명), 실험하는 것은 기구 관리며 실험 자체도 어려워서 ‘실험한다.’라기보다 ‘본다’라는 수준이었다. 또한 유리로 된 실험기구들이 통 안에서 깨지고 없어지는 일이 다반사여서 난감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3학년이 되면서 교수연구실 도움 학생의 실험기구 씻기. 실험 과정 챙기기로 차츰 약학에 대한 방향이 확립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전공과 외국어 공부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어 갈 즈음, 전국 약학대학 학생 연구발표회에 연구발표 하라는 지시에 따라 ‘Soybean 발아에 따른 성분함량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1963년 10월 발표. 4학년은 대학원 시험 준비, 약사고시 13과목 준비로 훨씬 바쁘게 지나갔다는 추억이라기보다 기억이다.

당시 추억이라면 여고 동문회에서 봄이면 딸기밭 가고, 가을이면 산성이나 약대생들과 한 두 번 등산간 정도. 그 후 대학원 입학하고 부산대학교 『효원집』(교지)에 투고 의뢰가 있어 ‘아미노산의 역할과 작용’ 관련 내용을 게재, KBS 방송에 제약회사 개발

제품인 요구르트에 대한 발표, 그리고 결혼, 출산 등 일상생활에 추억거리랄 것도 없이 흘러간 세월이었다.

약대 졸업 이후 교수가 되기까지

- 1964년 5월~1965년 10월 제약회사 약품 개발부(요구르트 담당)
- 1965년 5월 '요구르트의 건강 촉진에의 우수성' KBS 방송 발표.
- 1965년 12월 '미생물성효소의 소화효소로서의 이용에 관한 연구'로 석사
- 1966년 1월 성혼
- 1966년 10월 장남 출생
- 1966년 2월~1970년 12월 개국: 동원약국/아카데미약국
- 1967년 11월 장녀 출생
- 1968년 11월 차남 출생
- 1972년 1월 차녀 출생
- 1977년 5월 삼남 출생
- 1972년 12월: 한국암연구소 연구 담당, 이병환 외과의원 투약 및 영양 관리, 입원 중환자 관리(1976년 이후)
- 1974년경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 1976년 12월 조리사면허 취득
- 1976년 3월~1976년 12월 부산 간호학원 시간 강사(약물학),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 1977년 2월~1977년 12월 경남공업대학 식품영양학과 강사(생화학, 영양학)
- 1978년 3월~1984년 2월 부산여자대학 영양학과 전임 강사(생화학, 위생화학, 생리학)



그림 1. 1980년대 당시 한국암연구소 사진.



그림 2. 약학박사학위 취득 졸업식 사진.

- 1980년 3월~1984년 2월 박사학위 취득(‘대두를 원료로 한 된장과 콩나물에서의 saponin 성분에 관한 연구’)
- 1983년 3월~1983년 12월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시간강사
- 1984년 3월~2008년 2월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교수가 된 이후에 기억에 남는 일

약학대학 교수가 되어 기뻐할 틈도 없이, 신생 학과의 체제 정비과정에서 오는 충돌이 소용돌이가 되어 한동안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늘상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그림 3. 초대 학장 취임 관련 기사 및 취임식 사진.

'시집살이 없었으면 참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과대학 약학과에서 약학대학이 되면서 1989년 초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남녀공학에서의 여학장이 전국 최초'라며 신문에 보도될 정도이다 보니, 교무회의와 학장회의에서 이런저런 공방을 받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입시감시·감독 책임자가 되면 다른 대학 교수들의 노골적 저항에 직면해야 하는 등의 비일비재한 여러 사안을 넘기면서 대한약학회 영남지회 회장, 대한약학회 생화학분과 위원장, 교수협의회 의장을 거치는 동안, 남녀 구분이 격심했던 여러 일들이(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많이 없어져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단과대학마다 여교수가 학장으로 선출될 정도로 학교 분위기뿐만 아니라, 바뀌어 가는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늦게서야 만학의 열기로 Temple University, University of Delaware, Buffalo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에 갔다 오고, 중국연변의학원 생물면역연구소에서 귀국한 후에는 산적해있는 실험실과 집안 밖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일에 봉착하였고, 이에 건강에의 적신호까지 겹쳐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아예



그림 4. 해외 교환 교수 시절 사진.



그림 6. 성호회(정년 교수 모임) 대마도 여행 기념, 명예교수 신분증.



그림 5. 정년 퇴임식 사진.

집안일은 접어두고(이때쯤은 막내 이외에는 모두 대학 이상으로 성장한 상태) 학교에서 기거하며 건강회복과 학교생활만으로 일의 양을 대폭 축소하고 관리함으로써 지금의 상태를 견지하게 했던 개인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때의 학교는, 학생들의 데모와 분투로 어수선한 시기였으나 약학대학 학생들은 착하고 성실해서 공부며 축제, 학생 단합대회, 학생활동에 적극적이었고, 학교생활 또한 충실하여(학생 본인은 힘겨웠을지 모르지만) 모범생으로서의 기틀을 다져왔기에 ‘예쁘고 씩씩한, 착한 우리 학생들!’이라는 생각들만 지금도 가득하다.

1980년대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흔했다. 특히 서울에서 약사 시험칠 때면(서울이 매우 추울 때이고 난방도 되지 않아) 추위가 대단해서 털코트를 벗어주며 추위를 넘기게 했던, 초창기 학생들의 강인한 성품과 힘들었던 일들이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의 현재의 삶에 대한 자부심은 성실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한결같은이 안겨준 것이며, 우리, 아니 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예쁘고 착하고 성실한 제자들이다.

할 말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된다. 애들아! 건강 챙기면서!”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후학에게 남길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학교와 후학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다고 할 업적이나 공헌을 남긴 것도 아닌 나를 약학대학의 원로 교수로 이렇게 회고사를 기록으로 남겨주시겠다는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정열을 쏟았다고 할 만큼, 좀 더 열심히 약학계를 위해 헌신했어야 하는데, 나의 삶에 할애한 많은 시간에 후학과 학계에 송구함이 앞섭니다.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림 7. 경성대학교 정용자 명예교수 녹취 현장.



정용자 명예교수

학력

- 1960. 02 경남여자고등학교 졸
- 1964. 02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1966. 02 부산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 1984. 02 부산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

경력

- 1964. 05-1965. 10 만수제약 약사
- 1966. 02-1970. 12 동원약국, 아카데미미국 약사
- 1972. 03-현재 한국암연구소 이사, 이사장
- 1976. 03-1976. 12 부산간호학원 시간강사
- 1977. 03-1977. 12 경남공업대학 시간강사

- 1978. 03-1984. 02 부산여자대학 전임강사
- 1983. 02-2008. 02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
- 1989. 03-1991. 02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91. 04-현재 대학약학회 평의원
- 1992. 03-1993. 02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교환교수
- 1994. 02-2006. 02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심의위원
- 1995. 03-1996. 02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제9대 의장
- 1996. 02-2008. 02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
- 2003. 03-2007. 08 경성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장
- 2008. 03-현재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 2018. 03-현재 순산장학회 이사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가르치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

김신규

- 일시: 2022년 4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실
- 대담자: 임동순 학장, 이경태 교수, 김종호 부학장, 인경수 약과학과장
- 녹취 및 사진 촬영: 임동순 학장

김신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 없고, 우리 학교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임동순 학장(이하 임): 네, 교수님! 고향이 충남 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년 기념 논문집을 보면, 호가 은곡(隱谷)이신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신규: 우리 형이 지어준 것인데, ‘여러 사람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숨겨진 골짜기의 깨끗한 물처럼 살라’는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임: 약력을 보면, 1932년 3월 27일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출생에 2남 4녀 중에 차남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신규: 위로 형이 한 명, 누나가 3명,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임: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에 다니셨겠습니까.

김신규: 소학교(현재 초등학교) 다녔었죠. 2년 다니다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 집이 2대 3대째 한의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승하라고 소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이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학교에 들어갔더니 친구들보다 2년 늦었지만, 2학년 과정은 이미 책으로 다 배워서 배울 게 없었어요. 소학교 2학년 마치고 해방이 되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선생님들이라서 한글도 잘 모르고, 한문도 몰랐어요. 내가 한문을 많이 배웠거든. 5학년 때쯤은 내가 공부를 잘했대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러서 ‘애는 여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루빨리 중학교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마침 둘째 매형이 교통부 철도청에 계셨는데, 철도 학교에 들어가면 피복도 주고, 월사금도 안 받고, 기숙사에서 먹여 준다고 하니 보내라고 조언해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5학년 때 추천서를 써줘서 (그 당시 7월에 모집, 입학시험) 시험을 보고, 서울 용산에 있는 운수 학교에 입학했어요.

임: 일종의 철도 고등학교 같은 곳인가요?

김신규: 6·25전쟁 전에는 운수 학교였어요. 6·25전쟁 나면서 철도 고등학교로 변경됐어요. 운수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었는데, 입학시험 볼 때 29대 1 경쟁률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과가 없고, 고등학교 때에는 토목과, 통신과, 기계과 등 6개 과가 있는데, 나는 기계과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고3 때 6·25전쟁이 나서 다 파괴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졸업생 모두 교통부에서 수용이 안 된다고, 정부에서 대학 갈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라고 했어요.

임: 졸업하시기 전에 대학을 가시게 된 것이에요?

김신규: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의를 하셨으니까 나는 양방 의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시험을 봤지만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신문을 가지고 왔어요. 서울 한의과대학에 약학과가 생겼다고, 정원이 40명인데 한번 시험 봐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가서 원서 내고, 시험 봐서 합격한 거예요.

임: 그 친구분도 같이 입학하신 건가요?

김신규: 같이 합격해서 같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 ‘천도 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조원준이라는 분이 연세대 상과 나와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약사면허가 필요해서 3학년으로 학사편입을 해서 같이 다녔었어요. 그분이 내가 고등학교도 관비로 다녔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 번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진행: 졸업하시고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김신규: 내가 55학번으로 1회 졸업생인데, 졸업하고 조교를 시작해서 학교에 있었는데, 1961년 5·16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대학 설치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동양의학대학이 2년간 모집이 정지되었어요. 학장이 이종규 교수이고 재단 이사장이 조원준 씨로 되어 있었는데, 1965년도에 경희대학교와 합병을 했어요. 당시는 동양의학대학 약학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희대학교가 원래 신흥대학이었어요. 당시에 ‘신흥’이라는 말이 이발소도 있고, 복덕방도 있고, 너무 많이 쓰이니까 다른 명칭으로 개명을 하자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경희’로 선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영조 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번성했는데, 그때 경희궁이 있었으니까 경희로 하자고 해서 1960년 3월에 경희대학교로 교명이 개명됐어요.

1965년 합병된 후, 1966년도에 약학대학으로 승격했어요. 약대가 생겨서 경희대학

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류경수 교수가 약학과장이었고, 허금 선생님은 화학연구소 소장이셨다가 초대 학장으로 오셨어요.

임: 1964년에 전임강사가 되시고, 1966년에 석사과정에 입학하셨고, 박사과정은 1972년에 입학하셨는데, 유학하러 가신 것은 1973년이니까 박사과정 도중에 가나자와 대학으로 유학하시게 된건가요?

김신규: 당시에 나는 부교수였는데 내가 왜 유학하였냐면 허금 선생님하고 오사카에서 일본 약학회가 있어서 같이 갔는데, 동경대학의 시바타 교수가 이끼(지의류)를 가지고 추출 후 성분을 분리해서 항생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날 밤에 허금 교수님께 연구를 배워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 모교인 가나자와 대학을 추천해주어서 가나자와 대학에 유학하게 되었어요.

처음 6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전문용어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한번은 큰 실수를 했어요. 원료 합성해서 감압 증류를 해야 하는데, 감압을 안 한 거예요. 큰 낭패를 보았는데, 지도 교수가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임: 그렇죠. 실험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김신규: 한번은 주임교수가 ‘김교수 한국에 돌아갈 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기 고기 잡는 법 배우러 온



그림 1. 일본 유학 시절의 김신규 교수님과 가나자와 대학 사람들.



그림 2. 김신규 교수님 약학과장 시절 사진(좌), 1963년 동양의과대학 동문회보(가운데), 1997년 정년 당시 김신규 교수님(우).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 주셔야지 고래 한 마리 주셔서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유기화학을 공부해야 천하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귀국해서 박사 11명, 석사 22명 배출했고, 38년간 교수를 하다가 1997년 정년퇴직할 때, 국민훈장 목련장과 대학에서 자랑스러운 경희인 상을 주더군요. 정년하고도 23년 동안 발명 특허 42개가 등록 되었어요(현재 다림바이오텍 연구소 고문으로 근무 중입니다).

임: 약학자로서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신규: 연구란 자기의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문제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는 타고난 것이 아니며, 계속 연구를 반복하여 결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시계를 보지 말고, 결과를 천천히 찾아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끝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라. 옛말에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고 나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교수로 가르치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교학상장(敎學相長)입니다. 인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을 읽으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생필독오거서(必讀五車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 연구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림 3. 좌측부터 임동순 학장, 김신규 명예교수, 인경수 약학과과장, 김종호 부학장.



김신규 명예교수

학력

- 1959.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 1966. 경희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 1974. 일본 가나자와대학 약학부 약품제조화학교실 수료
- 1975. 경희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

경력

- 1959.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조교
- 1964.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

- 1966.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 1970.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 1976.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1978.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장
- 1982. 일본 가나자와대학 약학부 약품제조화학교실 객원연구원
- 1986. 일본 가나자와대학 약학부 외래교수
- 1988.-1994.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94.-1997. 유기약품화학분과회 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효성 약원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

최윤수

- 일시: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안압정
- 대담자: 우미희 교수, 마은숙 교수, 김나경(전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이근선 약사
- 녹취 및 정리: 최윤수 교수, 마은숙 교수

마은숙 교수(이하 마): 오늘 최윤수 교수님을 모시고 약학 교육자로서 살아오신 지난날들의 삶에 대해 회고하게 된 것은 약학사분과학회뿐 아니라 대구가톨릭대학교 약대의 유구한 역사 차원에서도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윤수 교수님과 함께해 주신 제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는 소회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수: 대구가톨릭대학교(구 효성여자대학)는 1953년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개설된 여성 교육의 요람이었고 대학의 역사는 길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원로 교수님들이 타계하셔서 타교의 경우와 비교하면 원로는 고사하고 약학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에는 너무 미흡한 사람인지라 여러 번 사양했으나 그래도 우리 대학의 생존 명예교수 중에는 제일 연장자라며 꼭 회고사를 만드셔야 한다는 억지 같은 청탁에 효대 약대를 위한 기록이라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동안의 생활 여정을 잠시 더듬어 보려 합니다.

마: 교수님의 건강에 존경을 표하며 먼저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수: 저희 아버님은 왜정시대(일제강점기) 구주(九州, 규슈) 탄광으로 징용을 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석탄 광부로 일하셨습니다. 수년간 채탄 작업을 하시는 동안 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석탄을 나르는 석탄 열차 운행을 맡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사이에 운 나쁘게도 석탄 열차 사이에 끼여 크게 다치셨다 하셨습니다. (머리 양쪽에 20바늘씩 꿰 뚫다 함)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그 사고로 인해 생지옥 같았던 탄광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탄광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셨던지 아버님의 사고력이 극도로 저하되었고 오랜 기간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몹시 약하셨던 모양입니다. 규슈에서 빠져나오신 후 육체적 건강이 다소 회복되시자 오사카에 거주하시던 큰아버님의 주선으로 고국의 창원군에 사시던 참한 아가씨를 모셔 와 결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지요. 그러나 그 시각부터 어머니의 고생이 시작되셨다는데, 집안의 모든 살림을 어머니가 도맡아 꾸려가셨답니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차 아버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일본 땅에서 7남매를 생산하셨고 그 중의 다섯 번째로 제가 태어났답니다. 주소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日本國 大阪市 東成区 南生野町 4丁目 1番地가 탄생지랍니다.

어린 시절이라 일본이 우리나라인 줄로만 알고 살았을 테고, 주위 친구들도 모두 일본인들이라 일본어 외는 할 줄도 쓸 줄도 모르고 살았지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 따라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우리말은 전혀 몰라 쪽발이란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그로부터 두 해가 채 지나기 전에 비록 서툴기는 했지만, 우리 말은 대부분 익혀졌었습니다. 그 대신 어린 시절 8년간이나 사용했던 일본말은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다만 형(니짱) 누나(네짱)만은 입이 기억하고 있었던지 자주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너는 혀가 좀 짧은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ㄴ, ㄹ’ 발음에서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말을 할 때면 “ㄴ” 받침이 좀 어색한 걸 느낍니다.

마: 어쩐지 발음이 좀 어눌하실 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귀국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맞으시죠?

최윤수: 귀국 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를 회상해 볼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에 조선 사람은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일본 정부의 명령에 따라 200엔의 이사비(기차비, 선박 운항비, 짐 수송비, 한 달 먹을 수 있는 쌀값 등)를 받아 관부 연락선에 승선, 부산항으로 귀국했었는데 당시 제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귀국 이듬해인 1945년 4월 초량국민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그때도 일제시대라 입학시험으로 “기오 쓰께, 사이케레이”(차렷, 경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기에 우리말은 잘 몰랐고 일본말만은 잘해 일본식 국민학교에 합격했던 모양입니다.

그해 아버님은 어머니 의견에 따라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하시면서 대구로 이사를 하시고 대구 인근의 동촌 지역에서 일본인 소유의(주인이 군에 징집되어 세를 놓았다고 함) 과수원을 빌려 사과 농사를 시작하셨지요. 그 덕분에 저희는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학년은 1945년 해방(광복) 후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교육을 받기 시작한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6학년이 되던 해 6·25 사변이 발발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대구로 부산으로 이주해 와 학교마다 피난 온 학생들이 제법 많아져서 경상도 토박이들과 서울내기들 간에 모종의 다툼도 간혹 생겼었지요.

중학교 입시 시절이 다가왔으나 각 중학교마다 출제할 능력이 부족했었던 듯 당시 문교부에서는 한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에게 멘탈 테스트 형식의 문제지(500점 만점)로 중학교 입시시험을 대신했고 그 성적이 전국 6학년 국민학생들의 순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수위를 한 학생은 청도국민학교 출신인 김해도 군(488점)으로 경북중학교로 진학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미 중학생들에겐 성적 순위가 매겨져 있어서 중학교 진학 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 순서대로 먼저 특차로 모집하는 학교에 성적표를 제출, 입학정원 안에 들면 합격이 되었고, 합격자가 제출한 성적표는 반환되지 않아 다른 학교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특차에서 불합격된 학생은 그 성적표를 되돌려 받아

1차 학교에 지원하고 여기서 불합격된 학생은 다시 2차 학교로, 다음은 3차, 4차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교가 시골 학교였지만 다행히 입시시험 성적이 그 학교에서는 수위를 한 덕에 특차학교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남녀 공학)로 진학할 수 있었지요. 이 같은 입학생 선발방식은 그 이듬해까지 2년간만 시행되었습니다.

막상 중학교로 진학은 했으나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군부대에 징발되어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은 임시교사 건물에 마련될 때까지 강변 고수 부지에서 혹은 기업의 창고를 빌리거나 간혹 남아 있는 공연장에서 수업했었지요. 저희 학교는 경북대 농대에 부속된 채소밭을 빌려 그곳에 천막 교실 4동을 짓고 남학생 2교실(120), 여학생 1교실(60), 그리고 교무실 1동으로 학업을 시작했었지요.

앞서 소개한 대로 서울 등지에서 피난 온 가족의 자녀들이 대략 10여%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의 학생이 비교적 성적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은 이미 수도가 수복된 상태라 고등학교 진학 시에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교, 예컨대 경기고, 서울고, 경기여고 등 우수한 고등학교로 진학한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토박이인 제가 다니던 부속중학교는 남녀 공학이고 학풍이 좀 여성스러운 터라, 고등학교 진학은 비교적 역사가 깊고 보다 남자다우며 지방 명문으로 대우받던 경북고등학교를 선호하였고 다행히 합격하여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우미희 교수(이하 우): 대구의 명문인 경북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어떻게 하여 입학하게 되었는지와 등록금 마련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수: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시기에 많은 학생들의 꿈은 서울대학교 입학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고등학교들은 수복 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던 터라 경기고, 서울고를 제외한 수도권 고등학교보다 지방 출신 고교생의 서울대 합격률이 더 높았었기에 일단은 서울대학교로 진로를 정했었고, 합격하기 어렵다고 여긴 학생들은 연희대, 고려대로 하향 지원했으며 1차에서 실패하면 2차였던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에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957년도엔 경북고교에서도 480명

졸업생 중 68명이 서울대 합격이라는 성과를 올렸고 그 이듬해에는 100명 가까이 서울대에 합격하여, 지방 명문고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문리대, 법대, 상대(인문계)로 진학했으며 공대, 치대, 약대 등의 지원자는 소수에 불과했었는데, 경북고에서 서울대 약대를 지원 한 학생은 모두 다섯 명, 그중 4명이 합격했었으나 한 학생은 대구대학교(현 영남대학교) 약학과에 4년간 전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대 입학 을 포기했답니다. 당시 제 부모님은 뒷바라지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구시 내 경북대 의대나 사범대를 권고하셨으나 망아지처럼 철이 없었던 저는 부모님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대 약대로 진학해 버렸습니다.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해 온 학생들 대부분은 입학금, 등록금, 그리고 한달 치 숙식비만 들고 와 학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4년 내 내 어려운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학점 취득을 위한 공부보다는 우선 먹고 잘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후원으로 2년간은 하숙 생활을 했으나 농촌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3학년부터는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서울대 학생이란 조건 때문에 가정교사로 입주하거나 과외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교사 생활 중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던 학생은 포항국민학교 6학년 구○○ 학생으로 우선은 경기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고 연이어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도했었습니다. 그 후 구○○ 학생은 서울대 의과대학으로 진학했는데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만 함께 했었지요. 그 학생과 함께한 긴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일은 특정 과목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 를 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일깨워 준 것뿐입니다.



그림 1. 빛바랜 나의 옛 모습들.

김나경 원장(이하 김): 저는 지금까지 기억으로 대학 시절이 무척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학 다니시던 시절에서 가장 기억나시거나, 보람되거나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최윤수: 4년간의 대학 시절 중 보람이 있었던 3가지 활동이 기억납니다.

첫째는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소모임=소, sow: 씨뿌리다)입니다. 1958년 2학년이 되던 해, 부모님들의 극진 후원의 덕으로 편안히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난에 찌든 모습을 애써 감추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부모님을 만나 볼 때마다 늘 죄스러웠고, 새 학기가 다가와 등록금 생활비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어서 “엄마 저기.” 하다 만 적도 더러 있었지요. 그러나 ‘저기...’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엄마는 서울로 유학 가는 아들들의 집 보파리에 미리 그런 걱정거리들을 다 챙겨 두시고는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하셨지요. 그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빚을 내어 마련해 주신 것이란 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특히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에 대해 송구스러움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암울했던 시기에 ‘소’라는 모임이 탄생하였습니다.

즉 우리들의 고향인 농어촌이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약대 2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방학 기간 중 한 주일 동안 짬을 내어 농촌 봉사활동을 시작하자는 취지에 뜻을 같이한 친구들이 김영호(키다리)라는 선각자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후, 공화당 군사정권이 시작한 새마을 운동보다 5~6년이나 앞서 시작된 농촌의 부활을 염원하는 봉사활동 단체였습니다.

‘소’모임의 목적은 낙후된 농어촌의 계몽과 봉사를 통하여 농촌사회의 복지증진과 회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안목 증진을 위하여 훗날 회원들이 농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 학기 2번의 교양 강연회를 개최하였었는데, 당시 사회 활동가(민중 운동가?)이시던 함석헌 선생님 초청 강연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의 강연 요지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림 2. 농어촌봉사활동 단체인 '소모임 활동 사진.

귀담아들어라.”였습니다.

저희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농어촌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였었는데 첫 봉사지는 경남 양산군 물금면 대리와 선리라는 두 마을로, 경부선의 원동역으로부터 50여 km나 떨어진 산골이라 하루 종일 걸어야 겨우 도착 할 수 있는 오지 산골 마을로 기억합니다. 봉사활동은 주로 의료봉사, 환경개선(우물의 소독, 화장실 소독 등), 농촌 일손 돕기 등이었고 특히 겨울철에는 초등학교는 졸업했으나 더 이상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중등 과정 교과목 중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역사, 위생에 관한 수업도 병행되었지요. 또한 봉사활동을 갈 때마다 매달 회원이 내는 회비를 고스란히 적립해 두었다가 의약품(주로 제약회사 기증품), 학용품, 각종 서적들을 구입 혹은 후원받아 기증도 하였습니다.

소모임으로부터 시작된 농어촌 봉사활동은 그 이듬해인 1959~1960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규모의 행사로 확대되어 전국 농·어촌으로 번져 갔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소모임에 뜻을 같이하는 후배 학생들을 영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봉사활동은 비록 방법과 형태는 변했겠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에 벅찬 감동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무반주 보컬 4중창단을 조직하고 활동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대 약대에는 홍문화 교수가 지도하시는 기독교 학생회와 합창단이 있어서 매주 연습하고 또 주기적으로 발표회를 가졌었는데, 홍문화 교수님은 늘 “예술적 감각이 없으면 훌륭한 자연과학자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기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도 세계적인 파이프오르간 연주자라 소개하셨지요. 교수님 당신께서도 그림에 대한 조예가 남달라 인물화(수채화인지 유채화인지 기억되지 않음)로 국전에 입선하실



그림 3. 합창단 활동사진.

만큼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특히 노래를 좋아하는 57학번 동기생 4명이 모여 남성 4중창단을 조직하였습니다.

1st 테너에 최윤수, 2nd 테너에 김성환(작고, 미국), 바리톤에 이학은(미국), 베이스에 조영오(미국)로 조직되었으며 특히, 조영오는 교회 합창단에서 지휘까지 맡고 있던 실력자였습니다. 이 4명은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연건동에 위치한 함춘원(현 서울대 병원 부지 안)을 근거지로 거의 매일 만나서 노래를 연습하였는데, 당시 비교적 어렵던 시절이라 기타 같은 악기 하나 없어서 단지 첫 음을 정할 수 있는 A(라) pitch pipe 하나로 각 파트의 음을 찾아 화음을 내는 방법으로 노래를 연습하였었는데 무반주 4중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자서 부르는 것 같이 화음이 대단하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선곡은 주로 흑인영가와 미국 혹은 한국의 가곡들을 불렀었지요. 첫 발표회에서 “Bingo”라는 곡을 불렀기에 중창단 이름도 “빙고”라 하였고, 약대 학예회나 서울대 예술제에는 단골처럼 초대되었으며 숙명여대의 예술제에 초대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이 중창단 활동은 졸업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만약 그 당시에 대학가요제 같은 행사가 있었더라면 어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명 중 3명이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나는 바람에 4중창은 해체된 셈입니다.

이근선 약사(이하 이): 교수님은 약학을 전공하셨지만,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인 소양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대학 시절은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을 텐데 세 번째로 기억에 남으시는 일은 무엇인지요?

최윤수: 세 번째는 4·19 학생 의거에 앞장서서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1960년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의 장기 집권을 규탄하는 데모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옹립하려는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대회로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국부로 존경받던 이승만 대통령은 소위 ‘인의 장막’이라 지칭되는 자유당 당원들의 장막 속에 둘러싸여 국가 사회의 실상이나 정보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많은 지식인 들도 이대로는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했었습니다. 더구나 6·25전쟁이 종식되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후 채 10년도 되지 않은 터라 온 국민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태였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여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4·19 학생 데모대의 구호도 “뭇 살겠다. 갈아 보자”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4·19 당일 저희는 위생화학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중 데모에 참여하라는 서울대 학생회의 지시에 따라 흰 가운을 걸친 채 연건동을 출발하여 종로 4가까지, 그리고 우회전을 하여 세종로 길을 따라 중앙청 앞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중앙청에 다다른 데모대는 일단 전진을 멈춘 후 경무대로 가기 위해 진행 방법을 논의할 때, 갑자기 총기로 무장된 헌병들을 실은 두 대의 트럭이 도착하여 분위기가 사뭇 심각해졌었지요. 그렇게 대치를 하던 중 갑자기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다가와 “왜 형님들 멈추어 섰느냐”며 항의하다가 그들이 먼저 경무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사건 중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동성고교생들이 세종로 소방서에 세워놓았던 소방차를 탈취하고 소방차 옆구리에 가득 매달린 채 경무대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넘어 돌진해 들어가는 바람에 소방차에 매달려 있던 상당수의 고등학생이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의 실탄 사격에 의해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전시에든 흰 가운을 입은 위생병에게는 사격하지 않는다는 규약이 있음을 알기에 가운을 입은 서울대 약대생들(당시 동아일보는 의대생들이라 게재했으나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바르게 정정, <동아일보> 2017년 4월 19일:

“4.19 시위 선두에 선 건 의대생 아닌 약대생들”)이 데모대의 맨 앞쪽에 서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희생을 줄이고자 했었는데, 흥분한 고등학생들의 돌발적인 행동에는 속수 무책이었습니다.

데모와 같은 집단행동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심 반, 장난 반으로 행해지는데 외부로부터 방해나 자극을 받게 되면 흥분하기 시작하여 점차 격렬해지듯이 이날의 데모 때도 경찰이 쏘아대는 최루탄 가스를 맞은 후부터 더 격렬해지더군요. 더구나 사진으로 보도된 것처럼 양쪽 길가엔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박수와 더불어 시민들의 응원 목소리가 우리를 더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루탄 맞으면 눈에 손을 대지 마라, 찬물에 얼굴을 담그고 눈만 깜박거리라”하는 등의 조언을 주시면서 물이 가득 찬 물통을 내놓기도 하셨습니다.

데모대가 통의동 지서(파출소)를 지나 효자동(경무대가 있는 곳) 쪽으로 나아갈 즈음 갑자기 총탄 소리가 나며 데모대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총구가 하늘을 향했었지만, 데모 군중이 점점 불어나자 그 총구는 갑자기 아스팔트 위로 향했고 다친 학생들의 신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흠어져라”라는 구호도 없는데도 무리져 있던 모든 학생들은 길옆이나 골목 안으로 흠어져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경무대로 향하던 4·19 학생 데모는 끝이 난 셈입니다. 그렇게 총탄이 난무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동안 연도의 시민들의 응원, 또한 영업조차 중단한 택시 기사들도 끊임없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날랐으니 4·19혁명에 모든 국민이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당시 상황은 통의동까지 나아간 데모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총탄이 날아오던 그 길가에 당시 서울대 윤일선 총장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자리시켰던 일, 또 하나 4월 26일 학생들이 흘린 피를 헹고 하지 말라며 교수님들의 시위가 있었던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전달되었었는데 그 성명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였고 대통령 휘장인 봉황 번호판을 가린 채 경무대를 떠나던 날, 연변의 시민들이 돌팔매가 아니라 박수를 보내던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마: 저희가 대학원에 진학할 무렵에도 연구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했는데 교수님께서 진학하신 그 당시 대학원의 환경과 논문 작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윤수: 나의 대학원 석사과정 지도 교수님은 약품분석 전공 백남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약대 교수님들도 홍문화, 김영은 교수님 외에는 학위가 없으셨기에 석·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대학원에 진학하신 선배님이나 동료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는 한 논문작성이 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과목도 학부 과목에서 약간 심화된 교과서(대부분 일본 교과서)로 강의를 하셨는데 교수도 학생들도 함께 배워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분석 전공에서 강의하셨던 교수님은 백남호 교수님, 이왕규 교수님, 홍문화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로 이적하신 이길상 교수님이며 이길상 교수님 강의는 이화여대에서 개설되었는데 이대 대학원생, 조교, 전임강사들과 합동으로 수강했었습니다. 이 과목 수강 때문에 이화여대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젊은 남학생 혼자서 들어가는 참 무섭고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주로 일본 약학회에서 매달 발간되던 藥學雜誌와 分析化學會誌 그리고 미국에서 발간되었던 Journal of Analytical Chemistry를 구입하여 수록된 많은 논문을 읽고 베끼고(필기는 약대 2학년 여학생들의 도움을 받음) 하면서 교실에서도 실험이 가능할 것 같은 논문 주제를 찾곤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가 있는 연구 과제도 많았지만, 그 시기에는 실험할 수 있는 장비도 없었고 고가인 외제시약을 구입할 수도 없어서 비교적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국산 시약들만으로도 실험할 수 있는 논문들을 찾아 우선 리뷰를 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 약대에서도 기초실험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 외에 구비되어 있던 분석기기라고는 UV-VIS spectrophotometer, IR spectrophotometer뿐이라, 이 기종만으로도 실험이 가능한 논문을 찾아내는 것이 일이었는데, 그중 착화합물(킬레이트)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앞선 연구과제였고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였지요. 그리고 일본 분석학회에 수록된 논문 중 다수 논문이 착화합물 관련된 논문이었습니다. 이 문헌들을 참고하여 아래 논문을 대한약학회에 발표, 통과되어 석사학위를 취득했

습니다.(서울대 약대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약학회 발표 및 통과가 필수 과정이었음)

석사학위 논문(서울대)은 ‘1-Isonicotinyl-2-furfurylidene-hydrazine-CU(II) 착화합물에 관한 연구’(분석학적 연구)이고 박사학위 논문(영남대)은 ‘명석달기 뿌리의 Triterpenoid 성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우: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대구로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내려오신 후에 어떻게 저희 대학으로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수: 석사과정 2년과 군 복무 생활 1년여를 마친 후 대구로 낙향한 지 수 년 후 어머니께서 작고하시는 바람에 집안 생계를 위해 고향 땅인 대구시의 외곽인 동촌에서 작은 약국을 개설하고 일선 약사 생활을 시작하던 중, 당시 경상북도 위생시험소 소장님이셨고 서울대 선배님이시던 윤희정 소장님의 권유로 동 위생시험소에서(축탁의 지위) 식품, 의약품, 수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틈틈이 대구보건전문대학, 대구간호대학, 계명대학 등에 출강하였으며, 1972년에는 보건전문대학 조교수, 1975년 3월에 시간강사로 일하던 계명대학의 신태식 학장에게 발탁되어 면담 하루 만에 전임강사로 임명, 공업분석화학과 과장직 발령받으면서 전임교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명대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였지요.

그 후 1978년에 효성여대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것은 서울대 약대 전신인 경성약전 출신이셨던 권태훈 교수님과 서울대 약대 1회 졸업생이셨던 김상렬 교수님이 각각 효성여대 학감(부학장), 교무처장을 역임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로는 일반 사립대학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정밀 고급 분석기기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기기들의 운용을 위해 효대 약대에서는 서울대 약대 분석실에 각종 분석기기 조작을 할 수 있는 교수요원이 있다면 추천해 주기를 요청하셨는데, 마침 대구 계명대학에 근무 중이던 제가 서울대 분석학교실 출신이었고, 여러 종의 분석기기의 작동이 가능한 졸업생이라 소개되어 효성여자대학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적 제안이 왔을 때 아무래도 미래 전망이 밝을 것 같아서 남녀공학인 계명대에 남고 싶었으나, 가야 할 곳이

고향 같은 약대였고 더구나 고가의 분석기기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계명대의 부속실장 신일희 박사(현 계명대 총장)의 만류에도 효대 약대를 택했지요.

김: 교수님,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분광분석학을 배우고 분광 분석 장비를 다루어보고 간 것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생소하여 배울 때는 어려웠지만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유리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분광분석을 가르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최윤수: 효대에는 이미 저와 동일한 전공이신 조경렬 교수가 봉직하고 계셔서 분석화학 과목 담당은 불가하여 대학에서 원하시는 대로 약품물리화학, 약전실험을 맡아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듬해에 분석화학이 정성분석, 정량분석, 기기분석으로 개편되면서 1학년에는 정성분석, 2학년에는 정량분석, 3학년에는 기기분석 강좌가 개설되어 이 강의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기기분석 강좌는 제가 학부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원 석사과정 중, 각종 기기들의 manual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이를 토대로 기기분석 강의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분광분석은 UV, IR, NMR, Mass spectrum의 기본 원리와 해석방법을 강의해야 했기에, 분광학에 관련된 몇 가지 서적을 구입하여 약 1년 동안 혼자서 열심히 익혀나갔습니다.

첫 교재라고 소개해 드린 교과서는 분광분석학의 이론이 아니라, 측정된 data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 위주로 집필된 서적이라 학부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마친 그 이듬해에 비로소 3학년 1학기에 기기분석, 2학기에 분광분석 과목으로 나누어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광분석학의 개설은 도입된 기기들의 작동 원리와 각종 스펙트럼 해석을 위한 기초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강좌를 개설했으나 이전 학생들에게는 없었던 과목이라 학생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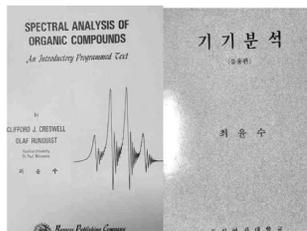


그림 4. 첫 교재 번역본.

부터 다소 어렵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요. 그런데 1979년 당시에 이 과목은 가장 먼저 서울대 약대(박만기 교수)와 효성여대 약대(최윤수 교수)에서만 개설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국내판 교과서가 없어서 원서(Spectral Analysis of Organic Compounds)를 구해 한 chapter씩 번역, 프린트하여 '기기분석 응용편'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했었습니다.

마: 저희 대학에 교수로 부임해 오던 시기에 NMR을 포함한 그 당시 매우 고가의 분석 장비가 학교에 구비가 된 걸로 기억하고 무척 자부심이 생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고가의 분석 장비가 저희 대학이 도입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윤수: 1979년 오지리 부인회가 지원하는 미제레오의 원조자금(극빈자 지원자금) 50만 불이 교육용으로 전환되어(전석재 학장님의 노력) 효성여대 교육시설 확충자금으로 수혜를 받았는데, 그중 5만 불이 약대에 배당되었고 그 자금으로 각종 분석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종 선정은 당시 효대 분석실의 故 조경렬 교수님이 맡으셨고 교무처장 故 김상렬(유기약품) 교수님이 도입을 추진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기실 설치를 위한 재원은 당시 학감이셨던 故 권태훈(약전학, 경성약전 출신) 교수님께서 예비비의 특별지출이라는 방법으로 마련해 주셨답니다.

구입된 기종은 고가기기인 NMR(수만 불)을 위시하여, UV, IR, AA, GC, LC, Microbalance 등 지방대학 약학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고가 분석기기가 도입되었고, 이때 획기적으로 효대 강당 1층에 중앙기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대 분석실에서 분광기를 다루어 본 경험으로 보직 아닌 보직, 중앙기기실장 직을 오랫동안 담당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기 구입을 계기로 효대 약대에서는 약품분석학 과목을 3부분으로 나누어 정성분석, 정량분석, 기기분석학으로 개편하고, 분석기기가 도착한 다음 해인 1989년에는 기기분석 과목 외에 분광분석학을 개설하여 UV, IR, NMR Spectrum reading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부 3학년에 개설하였었는데 훗날 많은 학생들로부터 “몹시 어려웠었다.”라는 소감을 듣기도 했지만,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연구소 혹은 해외로 유학하여 유기합성 혹은 식물 성분 분석 등을 전공한

졸업생들에게는 이 과목이 낯설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효성여대 약학과 학생들은 지방의 명문 여고로부터 진학한 학생들이라 학생들의 수준이 서울지역의 어느 여대 약학과보다 우수한 학생들이라 자부하고 있었으며, 매년 치러지는 약사 국가고시에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을 제외하면 늘 100% 합격이었습니다.

마: 제 기억으로 대학원을 진학한 후 교수님 연구실에서 유기화학, 물리학 등을 정규수업과는 별도로 자체 세미나 형태로 공부하고 발표했던 기억이 나고 또한 그때의 공부가 교수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 기억이 나시나요?

최윤수: Seminar를 통한 대학원생들의 기초학문 양성을 위한 훈련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국시 과목을 제외한 기초과목들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없어서 대학원 신입생을 받아들인 첫 학기부터 기초학문 실력양성이 우선이란 생각에 저를 포함해 대학원생들과 seminar 형식으로 함께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주로 ‘유기화학’(모리슨 저), ‘화학반응론’, ‘분광분석연습’ 등을 교재로 삼아 전 학생이 차례대로 발표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등 열린 토론수업을 수 년간 이어갔습니다.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라 실력의 증진이 엄청 빨랐으며 어떤 토론에서는 저도 한 수 배울 만큼 알차게 진행되었답니다. 한 해가 지나 새내기 대학원생들이 들어오면 그들도 함께 seminar에 참석하도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대학원생 중 기분석실에서 학위를 했던 석경순 박사는 대구의료원 약국장으로, 이경선 박사는 미국 어느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답니다. 그들 중 출중한 두 학생(우미희, 마은숙)은 후일 본교 교수로 발탁되었으며, 박사과정과 미국 연수를 마친 후, 학회 학술 활동과 학내 교육활동을 통해 많은 업적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미희 교수는 대구가톨릭대의 미래를 위한 대외협력 팀장으로, 마은숙 교수는 약대 학장으로 활동하였고, 2023년이면 정년을 맞게 되어 은퇴할 원로 교수가 되어 있네요.

이: 대구시 봉덕동의 캠퍼스는 종합대학으로서의 공간으로는 협소하여 제가 대학원 하던 시절에 하양으로 교정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하양으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수: 대구시 봉덕동 소재 효성여대가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기에는 교정이 너무 협소할 뿐 아니라 시내 한복판에 있는 탓에 더 이상 학교 부지를 넓힐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석재 학장은 천주교 재단으로부터 차용한 재원으로 경북 경산군 하양읍 금락리 일대 농지와 임야 28만 평을 하양 지역 여러 문중과 협의한 후 매입하셨습니다.

그 당시 타 대학처럼 토지 수용령을 이용했다라면 훨씬 넓은 부지를 싼값으로 사들일 수 있었을 것이나 가톨릭 재단 산하에 있는 대학이라 작은 이득을 위해 지역 분들에게 민폐가 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었기에 비싼 값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해마다 1개 대학씩 건축해 갔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뒤 약대 건물도 건립되어 1986년 겨울에 이사하여 1987년부터 하양캠퍼스에 약학대학 학생이 입학하게 되었고 같은 시기 중앙기 기실 겸 전산소가 완공됨에 따라 약대와 중앙기 기실의 이전은 동시에 진행되었고 명실 공히 종합대학인 효성여자대학교가 지금의 자리 하양에 정착된 셈입니다. 1994년도에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효성여자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한강 이남의 유일하게 여자대학으로 남아 있던 효성여대가 사라지면서 남녀공학이 이루어졌고 교명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로 변경하고 1996년도부터 남학생이 입학하였고, 이후 2000년도에 다시 교명을 지금의 대구가톨릭대학교로 변경하게 이르렀습니다.

우: 선생님께서는 독실한 가톨릭신자로서 학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윤수: 1978년 효성여대에 부임한 이래 10여 년간의 중앙기 기실장, 그 사이에 교학과장, 1988년 약대 학장, 1990년 약초원장, 1991년 대학본부 기획실장 등의 보직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2004년 2월 말에 정년이 되어 학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지금

까지 명예교수라는 직함만이 남아 있으며 정년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교직 생활을 했다는 징표로 노무현 대통령이 보낸 옥조 근정훈장이 유일한 상이랍니다.

학외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직을 맡았는데 평신도로서는 맡기 힘든 직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부회장
- 대구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주간
-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영접 위원(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님 성인품에 오르심)
- 용계 성당 노인대학 운영(주로 노인 건강과 의약품 사용법에 대한 조언)



그림 5.

마: 정년퇴임 후에 교수님께서서는 본인에게는 너무 검소한 생활만 허락하시고 8년간 저희 약학대학 학생에게 바오로 장학금을 매 학기 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학금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윤수: 정년으로 퇴임을 한 후, 특별한 계획도 없이 무료한 나날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중, 약학대학이 2+4의 약학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잠시 약사 수급에 차질이 있었던 시기인지라 대형 약국에서도 약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지 70대가 된 저에게도 친구 약사로부터 시간제라도 근무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매일(월~금) 오전 혹은 오후에 4시간 동안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할 업무는 환자와의 건강상담, 복약지도 등으로, 병원 처방전에 의한 조제 업무가 아니라서 일은 쉬웠으나 입은 많이 고되었습니다. 이렇게 5~6년간 근무하면서 받은 수당들이 조금씩 제 통장에 적립되어 있더군요.

제 가족들은 제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학연금의 혜택을 받았으며, 고맙게도 제 안사람이 검소한 살림을 꾸려서인지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약국 근무는



그림 6. 교수님과 가족분들의 사진들.

애초부터 봉사를 하기로 마음을 정한 터라 그동안 모인 수당들을 제가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에, 긴 세월 동안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려 주었던 효성여대의 약대생 중에서 성적과는 관계없이 가난하고 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내놓기로 정하고 ‘바로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매 학기 1명에게 약대 학장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명으로 시작했으나 은행을 통해 송금할 때는 금융실명제에 저축 되어 실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군요. 그로부터 약대에는 8년간을, 그 후로는 극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소개받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행여 잘못을 저지른 과오들이 더러는 있을 것이기에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간헐적으로나마 이 일을 지속하면서 노후를 보내려 합니다.

마: 마지막으로 후학이나 교수님들께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당부하고 싶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윤수: 바람이 있다면 효성 약대 선배님들이 훌륭하게 가꾸어 놓으신 아름다운 전통들이 먼 훗날까지 이어져 지역사회로부터도 “과연”이라는 찬사의 열매가 알차게 영글어 가기를...

개인적으로 옛날을 회상케 하는, 보고 싶은 사람들로 사진을 모아 보았습니다.

끝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났기에 서로 인사하고 오래 오래 건강하자고 “파이팅!” 외치며, 순수 한국식 건강식으로 포식했고, 헤어지면서 hug로 아쉬움을 달래면서 기념으로 한 컷 찰칵도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라 여겨 여러 번 거절했었지만, 막상 만나서 지나간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우리들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찌면 지나간 삶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고마운 기회가 되었기에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고마운 제자들, 마은숙 학장님, 우미희 대외협력단장님, 김나경(은정) 박사님, 이근선 석사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 7. 기기분석실 교실원들.



그림 8. 시카고에서 교회 남성 중창단을 이끌고 내한 공연을 한 동기 홍청일 박사(양복)와 대구 거주 동기생 4인방(좌), 호대 악대를 졸업, 법학전문대 진학 현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제자(우).



그림 9. 유기제약교실 엘리트들, 약품분석교실 수재들.



그림 10. 기기분석 실험시간, NMR 측정 연습장면, 이경선, 이근선 학생 동기들(좌),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되었으나 행사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국방부의 요청으로 불가했던 입학이 허가됨. 성적은 늘 수석이었음(한영숙) (가운데),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서울에서 금방 달려와 준 김나경 박사(우).



그림 11. 좌로부터 우미희 교수, 마은숙 교수, 최윤수 명예교수, 김나경 원장, 이근선 약사.



최윤수 명예교수

학력

- 1957.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6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1966.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 1990. 영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

경력

- 1967.-1971. 경상북도 위생사업소 근무
- 1967.-1971. 대구보건전문대학, 대구간호대학, 계명대학 시간강사
- 1972.-1975. 대구보건전문대학 교수
- 1975.-1978. 계명대학 공업분석화학과 교수 및 학과장
- 1978. 효성여자대학 약학과에 부임

- 1978.-1987. 중앙기기실장
- 1983. 1987. 대구교구 꾸르실로 사무국 주간
- 198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영접 위원
- 1985.-1987.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교학과장
- 1978.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부회장
- 1988.-1990.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장
- 1990.-1991. 대구가톨릭대학교 약초원장
- 1991.-1993.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본부 기획실장
- 2004. 02. 정년 퇴임
- 2010.-2016. 용계 성당 노인대학 운영(주로 노인 건강과 의약품사용 법에 대한 조언)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덕성과 약학인생

정기화

- 일시: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김영미 교수연구실
- 대담자: 정기화 명예교수, 김영미 교수, 정주희 교수
- 녹취 및 정리: 김영미 교수, 정주희 교수

김영미 교수(이하 김): 오늘은 약학회 원로 교수님 구술사 발간 사업으로 우리 덕성여대 약대에서는 정기화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저 김영미와 정주희 교수는 정기화 교수님의 제자이자 현재 덕성여대 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약학계뿐만 아니라 덕성여대 역사를 후배에게 남길 수 있어서 정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사업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기화: 네 반갑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월간 환경 기술』에 ‘코로나19 risk assessment와 관련하여 백신 접종의 이익과 위험성’, ‘여전히 아쉬운 위해성 의사소통’,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방역 강화! 3차 접종 속도전’, ‘정점 후 중간 규모 유행 다시 찾아올 수도’, ‘변이 대비한 개량 백신 도입과 후유증 치료 관리지침 시급’ 등을 주제로 환경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 운영위원으로 있으며 2021년 12월 21일 전북대

약대에서 개최된 추계 약학회 기간에는 16차 분과학회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여해서 우리의 스승이시고 약학계 거목이신 김재완 교수님의 교육과 학문의 발자취를 정리한 'Professor Jae Wan Kim, the Eternal Teacher of Duksung Pharmacy'를 발표했습니다.

퇴임 후 2013년부터 수필 작가로 등단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은 해에 약사 금탑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 중요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일사회(Seoul Eco Club) 부회장으로 매월 전문가 초청 강연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학회장을 역임한 응용약물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고문, 덕성여대 총동창회 명예고문, 덕성 약대 동창회 자문위원, 진주여고 재경동문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덕성여대 초창기 소개

정주희 교수(이하 정): 교수님께서 어떻게 덕성여대를 선택하셔서 들어오셨는지 궁금하고, 덕성여대는 1954년도에 약대가 설립되고 나서 교수님께서 입학하신 1965년 즈음, 입학과 재학 당시 학교의 분위기는 어떠하였는지요?

정기화: 1948년 10월에 덕성여자중고등학교의 송금선 교장선생님이 운현궁이 팔리게 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그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그 당시 대금이 3,600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천만 원은 친정아버님인 송우영 선생으로부터 희사를 받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당시 중학교 증축을 위해 사두었던 건축 자재를 매각해서 3,000만 원은 만들어졌으나 600만 원이 모자라 송금선 교장선생님과 어머님이 함께 여기저기서 이자 돈을 얻고 조카 애들의 저금통장까지 모아서 3,600만 원을 만드셔서 대금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매입 당시 운현궁은 외관상은 훌륭했지만, 오랫동안 손보지 않았고 해방 후에는

광복군과 모모 단체가 사용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수리와 정원 정돈에 다시 2,000만 원을 들여서야 고색창연한 운현궁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학교 옆 대지를 구입하여 종로구 운니동 114번지, 지금의 운니동캠퍼스가 옛 대원군의 사저였던 운현궁 터 3,586평 정도의 대지와 284평 정도의 2층 벽돌 양관 건물까지 덕성학원의 소유가 되었고, 1950년 5월 17일 2년제 덕성여자초급대학의 설립 인가를 얻었습니다.

1950년 6월, 국문학과, 영문학과, 가정학과 3개 학과가 120명 입학정원으로 개교하고 초대 학장으로 송금선 선생님이 취임하셨지만, 바로 6·25전쟁 발발로 수업은 중단되고, 12월 부산 피난길에 올라 용두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천막 임시교사에서 대학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1951년 8월에 4년제 대학으로 개편 인가 서류를 문교부(그 당시 부산에 와 있는 전시 문교부)에 제출해서 1952년 3월 23일 인가를 받았으며 국문학과와 영문학 전공의 문학과 입학정원 140명과 가정학과 기예학 전공의 가정과 입학정원 240명을 인가받았습니다. 1953년 12월 30일에는 음악과와 약학과를 증설 신청해서 1954년 2월 9일에 인가가 나고 1954년 3월부터 학생을 뽑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11년 후인 1965년, 덕성여자대학 전체로는 14회, 약학과로는 12회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의 약대가 14개 대학, 서울에는 8개 대학(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이 있었고, 후기에는 성균관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3개 대학뿐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은 대학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입학정원이 제대로 정착된 해입니다. 그 전에는 주요 대학들도 그 당시 정원 외 학생을 많이 뽑았는데, 1964년부터 문교부가 대학 정원을 지키지 않으면 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경하게 대처했고 실제로 총장 한 분이 사표를 내셨어요. 1965년에는 전기대학이 정원대로 뽑았기 때문에 운니동 캠퍼스가 입학 지원자로 가득차는 높은 경쟁률이었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학교가 축제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내가 재학 중이던 1965년부터 1969년에는 송금선 학장님이 덕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도 겸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는 입학식이나 축제와 같은 때는 대학에

오셨지만, 평소에는 박원국 부학장님이 학장 업무를 거의 대행하다시피 하셨어요. 그 후 1970년에 학장이 되셨으니, 의욕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고 계실 때인데 마침 유례없는 경쟁률을 뚫고 수석으로 입학한 제가 재학 중에 동아방송의 리퀘스트 청백전이라는 남녀 대학생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인상 깊으셨는지 학생처에 오셔서 “정기화가 이번에 수석으로 들어온 그 학생 맞냐?”고 물으실 정도로 관심을 보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12월 11일에 정부가 당시에 있던 병설 초급대학을 폐지하는 정책을 냈는데, 우리 대학에는 학부에 있던 가정학과, 영양학과, 상학과, 약학과의 4개 학과는 그대로 존치되고, 초급대학에 있던 의상과, 생활미술과, 제약과가 학생 정원을 조정해서 의상학과, 생활미술학과, 제약학과로 4년제 학부로 승격이 되었고, 또 국어국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가 신설되어 모두 9개 학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때, 기존의 약학과 50명에 초급대학의 제약과 50명 정원이 제약학과로 승격되면서 30명으로 조정되어, 입학정원이 80명으로 되었어요. 그 당시, 서울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우리 대학이 약학과와 제약학과, 2개 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으로는 우리 대학의 독창적인 교양교육이에요. 박원국 부학장님이 미국을 자주 다니시면서 그 당시 미국 동부에 있던 교양교육을 중시하는 7개 명문 사립여자대학 세븐시스터즈(Mount Holyoke College, Vassar, Smith, Wellesley, Bryn Mawr, Barnard, Redcliffe)에서 하는 리브럴 아트(자유 교양)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대학을 교양교육에 특화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전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특정 도서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읽고 저자나 역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통해 토론을 훈련하는 것으로 그 당시로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1970년 학장 취임 후 박원국 학장님은 대학이 학문이나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인격 교육을 중심에 두는 인간 교육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덕성여대 학생들이 정체성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능동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대학 내에 부속 유치원에서 실시

했고 운현초등학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까지 전 생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인성 교육과 교양교육, 평생 교육, 열린 교육과 같은 그때로서는 정말 시대를 앞선 이슈들을 우리 대학이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과 해외 유학 학비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박원국 부학장님이 덕성여대 교수, 부학장, 학장, 그리고 5대, 8대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외적으로 학교의 규모를 키우는 일보다 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다지는 일에 집중하셨고 안국역 부근에 있는 해영회관을 임대빌딩으로 신축해서 재정적으로 대학을 지원하셨어요. 70년대 초기 대학의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건축을 한 것이니까 굉장히 선도적이었죠. 이후, 쌍문동 종합 캠퍼스를 구축해서 통합 이전하고, 1987년 10월 23일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모두 주도하셨는데 제가 학생으로 들어와서 지금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이 과정을 다 볼 수 있었죠.

그때는 그냥 이끌리는 대로 왔는데 보호자이고 부모님 같았던 박원국 부학장님과 김재완 교수님의 격려와 운니동 캠퍼스에서 차근차근 종합대학교로 승격되고, 쌍문동에 거의 10만 평에 가까운 부지의 새 캠퍼스가 만들어지는 덕성여대의 드라마틱한 압축성장의 전 역사를 경험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박원국 이사장님의 ‘덕성여대 학생들이 ‘내가 이 대학을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평생 제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조사해 보아라, 알아 보라”하시며 시키시던 그 많은 숙제들과 보직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김재완 교수님도 졸업을 앞두고 원하는 회사는 어디든지 추천해 주시겠다고 응원하시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때도 기회가 오기 전에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시키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늘 준비된 자로서 그 기회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숙비 아끼고 우리 집에 와 있으라’라고 하시던 김정호 주간 교수님이나 지명관 주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나도 후배나 제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과 대표로, 신문사 기자로, 총학생회장으로, 조교와 강사를 거쳐

전임교수가 되고 주간 교수와 약학대학장, 약학연구소장, 기획실장, 학생처장, 종합개
 혁발전처장 등을 거쳐, 이제는 명예교수로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 57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덕성 사랑으로 함께한 것이 학생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학생 중심 교육
 분위기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1. 김재완 교수님 정년퇴임 행사.



그림 2. 졸업식 수상 장면.

대학생활

김: 덕성여대가 요즘 우리가 지향하는 학생 중심 교육에 굉장히 앞섰다는 게 참 인상적
 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대학 수석 입학 후에 대학원까지 진학하시고 굉장히 활발한 대
 학 생활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기화: 덕성여대 신문 기자로서 거의 2년 반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덕성여대 신문에서 수석합격 소감을 써 달라고 해서 제출
 했는데 주간 교수님이 신문 기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덕성여대 신문은
 몇 년 전에 창간이 되어 1호, 2호가 나온 후 휴간이 된 상태였다가, 제가 입학한 1965년
 3월에 나온 속간 1호가 덕성여대 신문 3호가 된 때였습니다. 휴간 상태였기 때문에
 선배 기자들이 없어서 저는 교수님과 함께 인쇄소에서 제 얼굴 사진과 수석합격 소감
 과 관련 기사들을 스스로 조판하면서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학생회장

직을 맡기 전까지 2년 반 동안 신문 편집 경험이 있는 브라운대학 유학을 준비 중인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생(한홍섭 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조판했어요. 학생회장 임기 중 유네스코 학생회 창립 추진과 연극반 창립공연기획을 맡았던 일과 가장무도회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날들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수 생활

정: 네, 굉장히 활발한 대학 생활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교수 생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1호 동문 교수로서 덕성여대에 부임하시게 된 계기와 그 당시에 교수님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기화: 어머니가 교수이셨는데도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학사편입을 해서 다른 대학도 다녀보고 싶었고, 아버지가 화가이시니까 미대를 가볼까, 또 학생 기사를 했으니까 신문 방송학과를 가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던 거죠. 그때 지명만 교수님이 조선일보 선우휘 주간님께 말씀을 드려 하루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김재완 교수님은 그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은 가고 싶어 했지만 제약회사에서 여학생을 별로 선호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회사에 보내줄 수 있으니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 하자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셔서 학사편입도 생각해보고 국립보건원(지금의 식약처가 생기기 전)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시냐고 물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결혼 전에는 하던 공부나 좀 더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하신다고 했더니, 석사과정 시험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아예 그날 그 자리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독일어책을 주시고 독일어 학원도 소개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바로 그 학기에 박사학위 과정이 끝나셔서, 그때 마침 제2외국어 시험도 끝나셨던 거예요. 대학원을 가셔도 석사학위 끝날 때쯤 되어서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또 물으셨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던 회사도 좋고 병원 약국도 궁금하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졸업논문은 약학회 때 발표를 다 했고

교정이랑 인쇄만 남았으니 2월 말까지 서울대 의대 부속 병원약국에서 실습을 하고 3월 2일부터 덕성여대로 출근하라고 하셔서, 2월 26일 석사학위를 받고 1971년 3월 덕성여대로 돌아와서 40년 1학기 근속의 첫 1년을 연구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그해 겨울 교무처에 불일을 보러 갔다가 박원국 학장님을 뵈었는데,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뭐 배웠냐고 물어셔서 강의 듣고, 선배님들 학위논문이나 실험을 돕고 학부 실습에 필요한 시약도 만들고 실습 지도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조교가 하지 않느냐고 물어셔서 그때 우리 대학은 조교가 참 많았지만, 서울대 약대는 국립대학이니까 약대 전체에 조교 TO가 한 명 있어서, 조교 선생님이 실습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전공도 다 달라 각 전공별로 주로 대학원생들이 실습시간에 필요한 시약을 만들고 실습 시간 지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교무처에서 약전실습을 맡게



그림 3. 대학 축제 중.



그림 4. 전국 약대 학술발표대회 참가.



그림 5. 개교 41주년 기념 만찬.



그림 6. 북큐슈대학 도조 교수와 함께.



그림 7. 일리노이대 Hansen 교수님과.

되었으니 강의 계획서와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연락받았고 연구조교 겸 약전실습을 담당하게 되어 약학과 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1975년 겨울, 결재 때문에 박원국 학장님을 뵈었는데, 석사학위 논문 외에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이 있다고 물으셔서 단독 논문 몇 편과 공동 논문 몇 편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하시고 별말씀 없으셨는데 얼마 후 교무처에서 전임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연구활동

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굉장히 쉽게 임용이 되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 논문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화: 석사학위 논문 제목은 ‘분말성 제제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산제 중에 있는 Ascorbic Acid의 분해에 미치는 국산 Talc의 영향’으로 국산 산지별 Talc 6종에 대해 Ascorbic Acid의 분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Fe, Cu 등의 함량과 Ascorbic Acid의 분해와의 관련성을 조사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약제학교실 주임교수셨던 우중학 교수님이 지도교수셨습니다. Vitamin C 정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결합제들의 안정성에 관련되는 연구였어요. 관악으로 오기 전 연건동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을 준비하는데, 의욕적으로 경시변화를 보려고 몇 시간마다 샘플링을 하고 실험하고, 다시 실험기구도 손으로 다 씻고 건조해야 하는데 건조기는 1대뿐이고 실험하는 대학원생은 많으니까 기다려 가며 실험하느라 고충이 많았죠. 그리고, Spectrophotometer가 요즘은 한 연구실에도 여러 대가 있지만, 그 당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전체에 딱 한 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가 소속된 약제학교실 옆 분석학 교실의 박만기 교수님께 기계 사용 허락을 받았는데, 꼭 분석실 학생의 입회하에 쓰라고 하셨어요. 그때 서울대 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중앙대 염정록 명예교수님이

분석실 특수연구생이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시변화를 하다 보니 학교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는데 신중현 씨의 음악을 벗 삼아, 많은 분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덕성여대에서 약제학은 김재완 교수님께서 이론을 하시고 내가 실습을 맡았는데, 한 강좌만 가지고 책임시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과목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 때 전임이 없던 위생화학(현재 예방약학)을 맡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석사학위만으로도 대학교수로 임용이 되었지만, 전임교수 임용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박사학위 과정의 입학도 서두르게 되어 1976년 3월 임용과 동시에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 ‘지이산 오갈피나무 근피추출물의 항피로작용, 진통 및 항궤양작용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의 약리 작용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1980년 8월 경희대학교에서 권창호 교수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1973년 이사를 시작으로 1974년부터는 간사로, 1976년부터는 총무 상임이사로, 1978년부터는 간사장으로 약제학회 활동을 하면서 일련의 배합 약물의 흡수에 관한 생물약제학적 연구 등을 1971년 창립된 약제학회의 초기 학회지에 열심히 투고했습니다.

이후 1988년 미국 Rutgers대 문교부 파견교수, 1995년 일본 생체과학연구소 초청 연구자, 1999년 일본 Osaka대 약대 미생물동태학교실 객원연구원, 2002년 미국 Illinois대 Visiting Scholar로서 간독성 기전과 치료제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림 8. 대학 종합평가위원들과 함께.



그림 9. 약학대학 평가위원들과 함께.



그림 10.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포럼.

대외 활동(학회)

정: 네, 당시에 연구 활동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력을 살펴보면, 교내뿐 아니라 교외 활동에서도 최초 여성 학회장 등 선구자 타이틀이 눈에 띕니다. 그 당시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정기화: 1976년 당시는 우선 여교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덕성여대 정기화 교수입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또는 우리 방을 누가 찾아왔을 때도 얘기 끝나고 안영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교수님 오시면 잘 말씀드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라고 했지만 ‘30세도 되기 전의 여자가 교수는 무슨’ 하며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과 대표나 신문 기자, 총학생회장, 신문사 편집국장 등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직을 자주 하게 되고 1993년부터 기획실장, 학생처장(1993~1994), 약학대학장(1994~1998), 약학연구소장(1995~1998), 기획실장(1996), 교육개혁평가위원장(1996), 대학종합평가위원장(1996~1998), 대학발전위원회 본부장(1996~2000), 학생처장(1997~1998), 기획실장(2001), 종합개혁발전처장(2001) 등의 학내 보직으로 바쁜 중에도 학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1987년 약학회 평의원, 1987년 환경독성보건학회 이사, 1992년 응용약물학회 학술간사, 1994년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홍보간사를 시작으로 참여한 학회 활동은 2002년 응용약물학회 회장, 2003~2004년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2004~2005년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2005~2006년 약학회 부회장으로 이어졌는데 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힘들었어요.



그림 11. 약학대학 학생 학술대회 수상 기념.

1994년부터는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 2004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으로, 2008년부터는 식품위생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1996년에 제가 교육개혁 평가위원장을 맡아서 교육부에 프로젝트를 낼 때, 평가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컸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협조적이어서 결과적으로 20여 개의 교육개혁 우수대학에 뽑혀 학교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전공공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006~2008)으로 활동할 때 전공 지식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 참 보람 있었습니다.

예방약학분과회 초창기

김: 네, 교내·외 활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었는데요. 다시 전공으로 돌아가서 예방약학 분과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예방약학 분과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교류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교류 포함해서 예방약학 분과위원회 초창기 상황을 들려주세요.

정기화: 1967년 대학교 3학년 때, 김재완 학과장님께서 여름방학 전 저에게 가을에 약대 학생들 학술발표대회가 대구에서 있으니까 우리 대학 대표로 나가보라고 권하시면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위생화학교실의 문창규 선생님께 가서 지도를 받게 해 주셨어요.

논문 제목은 '시판 빙수류 첨가색소 및 고춧가루 착색료에 대한 조사보고'였는데 그 당시 시판되고 있는 빙수류 중에 있는 허용 색소별 사용률, 불허용 색소별 사용률, 고춧가루 색소 사용-불사용별 구분, 색소별 검출률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를 써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 자료가 전공별로 분류해 보면 당시의 위생화학(현 예방약학) 과목에 속했던 거예요. 같은 과의 친구 신정혜와 같이 준비하여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시판 빙수류 첨가색소 및 고춧가루 착색료에 대한 조사보고'는 2위를 수상했습니다.

당시 우리 대학에는 위생화학 전임교수가 안 계셔서 내가 전임이 되면서 위생화학을 담당하게 되어 위생화학 분과회에 참석했는데, 약대 학생 학술 발표대회 준비를 할 때 지도해 주셨던 문창규 교수님이 계셔서 처음부터 생소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일본 유학생들이었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책들도 부쳐와서 자주 보았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또, 영남대학교의 정규찬 교수님도 일본에서 유학하고 오셨고 특히, 경희대학교 정세영 교수가 분과회로 참여한 후 부터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매년 학술 발표를 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애초에 위생화학 분과가 굉장히 단합이 잘되는 편이어서 함께 만나서 일본 가서 발표하고 오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을 모두 지지하였기에 지속적으로 교류가 되었어요.

약학회에 오사카 대학의 니시하라 교수가 연자로 초청되어 왔을 때 내가 좌장을 맡았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니시하라 교수가 한국과의 교류에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되어서 니시하라 교수의 미생물동태학 교실에 객원연구원으로 1999년 여름방학에 가서 있었어요. 정주희 교수가 그 당시 제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그 해 문부성 장학생으로 뽑혀 박사과정을 니시하라 교수에게서 하게 되었죠. 그런 인연이 깊어져서 정주희 박사가 일본에 있을 당시 니시하라 교수가 정년퇴임을 할 때, 학기 중이었는데 퇴임식에 참석하려고 일본 갔던 기억도 납니다. 축사 원고도 일본어로 준비해 간 것을 정주희 교수가 다듬어서 퇴임식장에서 축사를 했던 즐거운 추억도 있어요.

자녀 교육의 철학

정: 다음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전문직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의 하나가 자녀 양육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서는 그 바쁜 와중에도 두 딸, 큰딸은 조선대 약대 교수, 또 둘째 딸은 언어 지능과 데이터 지능 관련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양육을 하시면서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으셨는지요?

정기화: 조선시대 여인이신 우리 할머니가 금강산이나 한려수도 같은 명승지를 다녀오시면 글로 써서 문집을 만드셔서 영남지역 여러 문중에 보내시던 문장가시라 정년퇴임 기념 문집에도 시조 문학에 실렸던 할머니 글을 1편 올렸어요. 100세 가까이 사실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또 어머니도 대학에서 정년퇴임 하셨고, 정년까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여동생도 고등학교부터 결혼할 때까지 우리 가족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딸은 일단 집에 책도 많고 증조할머니나 이모나 외할머니 또 엄마가 모두 책 읽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런 환경이 도움이 되지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들께 대한 제 마음의 빛이 많아서인지, 그분들이 하시던 대로 딸들에게 격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남편이 뉴욕 지사에 근무했는데 함께 따라가지는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방학에는 미국 가서 살기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미국과의 거리가 확 좁혀져 있어서 그것이 큰 이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1980년대 초반 해도 정말로 낯선 경험을 한 것이죠. 그때 왕복 비행기값이나 뉴욕과 뉴저지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고, 주말마다 특별한 체험을 위한 미국 국내선 이동 비용도 그 당시로서는 벅찼지만 애들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었고, 글로벌 문화 체험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

김: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활동과 자녀 키우시는 것까지 정말 언제 시간이 나셨을까 싶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오셨는데요. 그런데도 정기화 교수님 하면 글과 그림, 예술 방면까지도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퇴임하시고 현재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정기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것과 되고 싶은 것이 자꾸 바뀌어서, 작가가 됐다가 화가가



그림 12. 일리노이대 교수 오인숙 동문 특강 후.



그림 13. 학생 교류협정 체결 후.

됐다,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발레에 꽃혀서 방과 후에 무용실에서 남아서 한동안 연습을 하곤 했는데 그러나 그 많은 꿈들이 다 정년퇴임 후로 미뤄졌어요.

퇴임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2018년까지 강의를 계속하느라 또 시간이 빠듯했지만,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닮고 싶어서 요리를 배우러 다니기도 했고 여행도 누가 가자고 하면 열심히 갑니다. 그림 그리면 너무 좋은데 몇 시간씩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서 요가와 댄스로 바꾸었습니다. 골프는 계속하고 있지만 거리가 많이 줄었고, 난타도 한 10년 했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임 후 수필 작가로 등단해서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고 음악회도 좋아합니다. 2020년 2월 미국에 갔을 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감상하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코로나가 심해져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71주 동안 거의 500여 편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보았습니다. 매일 1편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끝맺음

정: 마지막으로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우리 약학계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기화: 먼저, 덕성여대 동문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덕성여대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1968년부터 덕성여대가 독창적으로 시행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교생이 매달 선정도서를 1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고 선정도서의 저자나 역자 또는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세미나를 하고 시험을 치는 교양 필수과목인 여성 교양을 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깊게 하고 진지한 성찰을 도와주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데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덕성여대 약대 졸업생들이 덕성여대 약대는 물론이고, 경상대 의대, 동국대 한의대, 서울대 약대,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전북대 약대, 제주대 약대, 조선대 약대, 중앙대 약대, 충남대 약대, 한양대 약대, 일리노이대 의대, FDA 등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결과가 학교가 독서와 세미나를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공 계열의 공부를 할지라도 인문학적인 소양과 같은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한 결과라고 봅니다. 약사 국시에서도 100% 합격과 수석합격자 배출을 위해 함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좋은 전통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전통도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학계 후배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학계 내에 서로 응원하고 돕는 가족적인 분위기, 학교가 달라도 서로 소통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격려해가며 앞으로는 다른 전공 분야와도 즐겁게 협업하고 또한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좋은 전통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정: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림 14. 덕성여자대학교 정기화 명예교수 녹취현장.



정기화 명예교수

학력

- 1964. 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1969.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1971.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 1980. 경희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

경력

- 1976. 03.-2011. 08.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 1993. 1996. 2001. 덕성여자대학교 기획실장
- 1993. 07.-1998. 04.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장
- 1993. 07.-1995. 12.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처장
- 1997. 03.-1998. 03.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처장
- 1995.-2012.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1995. 01.-1998. 07. 덕성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장
- 1996. 덕성여자대학교 교육개혁평가 위원장
- 1996.-1998.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총합평가 위원장
- 1996. 05.-2000. 12. 덕성여자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 본부장

- 1999. 06.-1999. 07. 일본 오사카대학교 약학대학 객원연구원
- 2001. 01.-2001. 12. 덕성여자대학교 종합개혁발전처장
- 2002. 01.-2002. 12. 응용약물학회 회장
- 2003. 01.-2004. 12.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 2004. 01.-2005. 12.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 2005.-2012.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자문위원
- 2006. 07.-2008. 07. 대통령 규제개혁위원
- 2007. 02.-2008. 02.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심의위 수출입분과위원장
- 2008.-2011.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2010. 12.-2012. 12.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장
- 2011.-2013. 국시원 약사국가시험위원
- 2011. 09. 01.-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 2012. 01.-2013. 12. 약학회 약무정책연구소장
- 2014.-현재 약학회 약학사분과 운영위원
- 2022. 12.-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 사랑 50년, 회인불권의 회고담

전인구

- 일시: 2022년 10월 6일
- 장소: (재)의약품품질연구재단, 동덕여자대학교
- 대담자: 박광식 교수, 이종현 교수, 장지은 교수
- 녹취 및 정리: 박광식 교수

박광식 교수(이하 박): 그 동안 잘 지내셨지요. 퇴임 후에도 의약품품질연구재단 회장으로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모습은 후배 교수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그간 약학계에 미친 큰 영향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뵈게 되었습니다. 약학계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고 또한 많은 활동을 하셔서 간단한 인터뷰만으로 교수님의 지난날을 정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으로나마 교수님의 생애를 대한민국 약학사의 한 부분으로 채워 넣는다는 심정으로 오늘 교수님이 살아오신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저와 교수님은 오랜 세월을 동덕여대 교수로서 고락을 같이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학생, 교육, 연구, 봉사 이런 거 말고 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 본 기억은 별로 없네요.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가족관계 등 공개 가능한 어린 시절 추억을 먼저 듣고 싶네요.

전인구: 저는 1951년 3월 30일 충북 영동 학산면 학촌이라는 마을의 외딴 과수원집

에서 2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 이웃 동네 아이들과 개울에서 미꾸라지, 피라미, 붕어를 잡거나, 장마지는 날이면 물놀이도 하고, 바위 위에 올라 다이빙하고, 비바람 치는 날이면 가족 망태기 들고 떨어진 사과나 배를 주우러 과수밭을 오르내렸습니다. 농번기에는 못줄 대기 등 일손을 돕고, 가을철에는 아카시아를 구부려 만든 활과 깃대로 만든 화살을 만들어 활쏘기, 표창 던지기, 칼쌈 등을 하며 놀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집 앞길에 웅덩이를 파서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에 발이 빠지게 하는 장난을 치다가 혼이 난



그림 1. 말뚝꾸러기 시절 과수밭에서 어머니와 함께(1954).

적도 있습니다. 한번은 십여 리나 떨어진 양산강으로, 백화산 자락의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어느 계곡으로 서너 시간씩 걸어 고등이나 가재를 잡으러 갔다 돌아오는데, 아이가 없어져 온 동네를 찾아다닌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그림 1). 어른들의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뚝꾸러기였지요. 과수원에는 사과, 배, 복숭아나무가 야산을 덮고 있는데 그 봉우리에 원두막이 있어 가끔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학산이라는 곳이 소백산 자락의 덕유산, 백화산 줄기의 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수밭 원두막은 다소 높은 곳에 있어 기차의 기적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삼십여 리 떨어진 영동 읍내를 향해 귀 기울이며, 기차 한번 타 볼 수 있을까, 서울에는 가볼 수 있을까 동경하던 아련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박: 전형적인 시골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네요. 서울대학교 입학 전의 초중고 시절은 어땠었나요?

전인구: 시골에 산다는 게 다 그렇죠.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마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나는군요. 학산국민학교 1학년 어느 날, 그 날 따라 학교를 일찍 파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직도 삼작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동 읍내 제사상을 도우러 읍내 친척 집으로 떠난 어머니가 돌아오겠다는 날짜를 지나 여러 날이 돼도 오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부쩍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엄마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는 버스도 한두 번 있을 정도라 걸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 여동생(5살), 5촌 여조카(4살)를 데리고 14km의 비포장길을 하염없이 걸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오포)이 불고 한참을 지나 읍내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을 만난 기쁨은 잠시뿐, 먼길을 걸어오는 날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린자식 걱정이 앞섰던 거지요. 어느 마을 앞을 지날 때 동네 아이들이 으박지르는 바람에 어린 조카를 등에 업고 뛰기도 하고, 간간이 쉬기도 하고 갈림길에서는 큰길을 택하여 걷기도 했습니다. 그 후 여조카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열흘 넘게 앓아 누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엄마 찾아 삼만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학년 때는 박옥현 담임선생의 젊고 예쁜 모습에 잠 못 이룬 기억이 납니다.

그럭저럭 초등학교가 끝나고 학산중학교를 들어갈 겨울 무렵 서울에서 내려온 형님 한 분의 알파벳 가르침에 흥미를 갖게 되어 중학교 시절부터는 공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교 길에 가끔 마주친 동네 어느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분께서 “그놈 크게 될 인물이구나”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아버님은 싹수가 있어 보였는지 중3 여름방학에는 서울 옥인동 사촌 형님댁에 머물게 하면서 종로 2가에 있는 EMI 영어 수학 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니 고등학교는 서울로 보내야겠다는 부모님의 큰 결정에 따라 왕십리에 있는 공립 성동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63년이네요. 서울로 떠나보내면서 아버님께서 “너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라”,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라”, “남자는 도둑질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당장 머물 곳이 없던 터라 아버님께서 ‘길을 두고 피로 가나’하면서 사촌 형님댁에 부탁하여 옥인동에서 왕십리까지 통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님댁에는 갓난아이 조카가 있어 형수님도 신경 쓸 일이 많고, 저도 60번 시내버스를 탔는데 거리도 멀고, 성동공업고등학교,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무학여고, 한양여고 등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통학이었습니다. 2학기가 되어서는 학교 바로 근처 유락동에 하숙집을 얻어 생활하였는데 대학교 졸업 후까지 7년 이상에 걸친 하숙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 서울 유학 학비를 마련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부모님의 열망이 대단하셨네요.

전인구: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숙은 2인 1실로 하숙비는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 정도로 하숙비와 용돈을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하루도 늦지 않게 꼬박꼬박 보내 주셨습니다. 늦어지면 자식에게 불편함을 끼칠까 봐 염려한 탓이지요. 고향에서는 농사가 전부였는데 하숙비 마련이 쉽지 않아 먼 소재지에 포목 가게를 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물건을 떼러 대전까지 주기적으로 다니셔야 했고, 시골에는 외상이 많은 터라 외상값 받으러 일이십 리 산길을 오르내리신 적이 수없이 많았다 합니다. 동생들도 줄줄이 초중고교를 다니는 실정이라 학비 마련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박: 부모님을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할 수 밖에 없었겠네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가장 철없고 재밌는 시절이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전인구: 고교 생활은 비교적 학업에 충실하고, 중간, 기말고사 공부를 3년간 열심히 한 편이었는데 2학년부터는 이과를 택하여 전교 수석 졸업으로 교육감상(부상: 한자 옥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숙방의 책상 위에 놓인 물이 퐁퐁 얼어붙는 어느 추운 겨울날, 30층 전등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여 그 온기와 불빛에 책을 본 기억도 나네요. 시험 때는 식사 중에도 책을 끼고 있었던 기억도 있고요. 졸업을 앞두고 덕수상고에서 처음 치러진 대학입학예비고사장에 교감 선생님이 나와 엄지척으로 격려해준 기억이 납니다. 동숙한 하숙생 중에 1년차 선배분과 광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우리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앞 좌석에 앉은 젊은 연인의 여성 등 뒤에 “애인 구함”이라는 쪽지를 붙였다가 남자로부터 밖으로 불려 나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대입 원서를 쓰기 얼마 전까지도 전공 분야를 정하지 못하던 차에 공과대학, 의과대학을 생각하던 중에 잘못되면 재수를 해야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화학선생님이

너는 화학을 잘하니까 약대 가면 좋겠다'는 말씀에 낯설은 약대를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약대 가면 약국 약사가 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가던 날 미술대학 앞을 지나는데 합격자 호외가 나붙어 있어 살펴보니 제 수험번호 147번이 없었습니다. 떨어졌구나, 낙담하면서 이제 어쩌나, 다음은 어디에 응시할까, 외대 영문과를 갈까 말까 이런 저런 생각해 하면서 그래도 정식 합격자 공고를 다시보자는 생각으로 힘없이 걸어와 약대 게시판을 본 순간 거기에는 제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펴 듯이 기뻐합니다. 그 동안 하숙비며 용돈이며 어렵사리 보내주신 부모님께 작은 효도라도 하는 것 같았지요.

박: 약대 합격 발표의 에피소드가 재미있네요. 당시에는 학교서 큰 종이에 합격자 명단을 써 붙여 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하신 후 학교생활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인구: 1969년 대학을 입학하자 고교 시절과는 다른 자유로움과 시간적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아버님이 예순하나의 연세에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지요. 합격 소식을 듣고는 “내가 미역을 어깨에 둘러메고 팔터라도 너 학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50 초반까지는 동이 튼 다음에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부지런하셨고 금광업, 정미소, 농사 등 열심히 노력하여 먼 부자로 집안을 일으키신 분이었습니다. 40 초반에도 힘이 장사였는데, 6·25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던 장조카를 구출해온 일화는 유명합니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면 매일 산소를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소위 대학가는 자율 속에 미팅이 활기를 띠었고, 카드놀이, 바둑, 당구, 축구 등 취미생활이 곁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숙생인 터라 박성진 동기와 바둑을 자주 두곤 했지요. 여름방학에는 고교 동기들 넷이 무주 구천동 언저리 개천 양갈래 둔덕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밤중에 물이 차올라 텐트를 걷지도 못하고 물살을 헤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텐트 윗 자락만 보일 정도였으니 하마터면 신문에 날 뻔도 하였지요. 특히 1학년 때는 UBF에 심취한 김용갑 동기와 김길수 선배의 끈질긴 권유로

종로 5가에서 창세기 공부를 한동안 했는데, 2학년 여름방학에는 민일기 동기와 미술 대학 명윤성 여 선배분이 귀향 중인 저를 찾아와 여름 캠프에 동참을 바라기도 할 정도로 믿음에 열정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랑과 봉사의 정신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관악 캠퍼스에서 공부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관악 캠퍼스가 조성되기 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연건동 약학대학 교사와 당시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전인구: 그렇죠. 관악 캠퍼스는 1970년 말에 조성되었고 저는 연건동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건동 캠퍼스에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이 따로 있고, 약학대학은 생약 연구소와 앞마당을 사이로 하여 건물 두 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약대 연구동 앞 자락에는 1483년 성종이 창경궁의 후원으로 창건한 함춘원(봄을 머금은 동산의 의미)을 드나들던 함춘문(내삼문으로 알려짐)과 간이 교수회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대도 함춘제 등 축제가 있었지요. 1969년 6월부터 대학가에 삼선개헌 반대 데모가 극심하게 일어났고, 3학년이 되던 1971년 10월 15일에는 대학가에 교련 반대 시위가 이어져 위수령이 발동되고 문리대에 병력이 주둔하기도 하였습니다. 최루탄의 연무 속에 눈이 맵고 따가웠던 터라 세안 목적으로 여자 동기들이 하이포 액을 만들어 공급하던 기지도 있었지요. 결국 동기 중에는 민일기 학생장과 정인숙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제적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연속되는 성토와 데모,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수업 결손이 많았지만, 한관섭 교수님의 물리약학, 김영은 교수님의 생화학, 김낙두 교수님의 약물학은 원서로 강의를 하여 원서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은 교수님은 “효소는 단백질이”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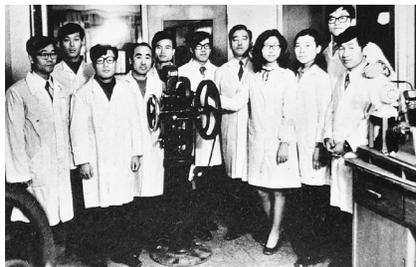


그림 2. 약대 4학년 시절 지도교수이신 김신근 교수님과 약제학 특수연구생들이 낡은 정제기 앞에서(1972).

대학 3학년 말경 ROTC가 부활하여 지원하였으나 부동시의 판정으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병으로는 군대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장교가 되는 것은 접었습니다. 4학년 때는 약제학실 특수연구생으로 실험실을 가끔 드나들곤 했습니다(그림 2).

박: 대학원 마치고 제약업계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회사에 근무하셨나요? 그리고 당시의 제약회사 상황은 어떤 정도였나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제약회사에 대한 학생들의 취업 선호도라든지, 대우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도 곁들어 주시고요.

전인구: 1973년 졸업과 더불어 실용적이고 응용 범위가 넓은 약제학을 택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1975년 8월 약학대학의 관악 캠퍼스 이전 완료를 목표로 어수선하였고 대학의 연구시설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지요. 증류수 제조장치 하나 변변치 않았으니까요. 동시에 3월 군 배치에 앞서 논산 연무대에서 신검을 받았는데 역시 부동시로 귀향 조치되는 바람에 어중간한 신세가 되었지요.

마침 세검정에 위치한 백수의약주식회사에 취업하고 있던 오익상 동기가 생산부에서 먼저 근무하던 터라 저는 연구시험실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부스코판 정, 페르산틴 정 등 베링거인겔하임 제품과 백수의약의 코데인 함유 감기약류 등의 의약품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를 맡아 3년여 근무하였습니다. 최수일 과장님(서울대 약대 19회)의 섬세한 설명과 지도로 빠르게 업무를 익히고 기준 시험법을 다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본사에는 김성필 전무님(서울대 약대 13회)이 계셨는데 의약 화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직무실에서 일본 원서와 전문지를 구독하고 계심을 보고 약학 실무에는 영어 외에 제2 외국어가 필수이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시럽제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우연히 맛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좀 쓰다는 느낌이 들어, 제조 담당 약사에 확인해 보니 사카린나트륨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번은 페르산틴 정을 시험한 결과 함량이 낮게 나와 그 원인을 추적하던 끝에 유발에서 정제를 갈 때 주성분이 유발에 흡착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한 적도 있습니다.

입사 이듬해 대학원에 복학하고 경성약전 제6회(1933)이신 우중학 교수님의 지도로 인도메타신의 분해의 동력학적 거동을 주제로 하여 1976년 2월 석사 학위를 받고, 후에 약학회지 편집위원장인 이은방 교수님의 리뷰 의견에 따라 원고 수정후 처음으로 약학회지에 논문을 실게 되었지요. 한편, 당시 이민화 교수님의 고체분산체에 대한 조언으로 난용성 인도메타신의 용출 증가에 대한 연구를 하여 『약제학회지』에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실험실에는 Hitachi사의 자외가시부흡광도측정기가 유일한 분석 장비였습니다. 그것도 가끔 고장이 나 서울대 약대 박만기 교수님을 여러 번 초청하여 장치 교정과 부품 교체를 하면서 아껴 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75년 백수의약주식회사가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분리됨에 따라 백수의약 제품의 품질관리실을 제가 맡게 되고 용산으로 이전하여 근무하였으나, 결국 이듬해 폐업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살충제 전문업체인 삼성제약 품질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량이 많아 수십 명이 근무하였는데, 주로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파르테인 주사액의 함량시험 결과의 변동성이 커서 제조 현장에 알아보니 규정량보다 몇십 %의 과량을 투입하고 활성탄 처리를 하여 제조한다는 말을 듣고, 약물 흡착이 원인임을 확인하고 활성탄 처리의 생략을 통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도록 개선한 일도 생각이 납니다.

1977년 여름, 좀 더 큰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한양행 연구과에 입사하였으나, 입사 당일 제제연구 담당자도 1~2명 수준이고 주로 원가계산을 하는 실정으로 현재 제제 설계나 제제화 연구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선임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그만두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입사를 강력히 추진해 주신 박영주 부장님(서울대 약대 14회)을 뵙고, 저를 가장 혹사시킬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도 산악인의 마나슬루 등정 영화를 전 사원이 관람한 후 8시경 나오신 박영주 부장님을 기다렸다가 중국집에서 고풍주를 마시며 “인생을 길게 봐라”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부장님을 부축하여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입사 당일 사장부터 간부급 전 사원에게 손수 데리고 다니며

인사를 시킨 터라 회사에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을까 하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연말이면 10년이 넘도록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낸 적이 있네요.

바로 이어서 7월 태평양화학 기술연구소에 취업이 되어, 제4연구부 제제연구실 주임 연구원으로 4~5명의 연구원과 근무하게 되었지요. 새로운 장비로는 워터스사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를 한 해 전에 구입했다고 정해수 부장께서 자랑하셨습니다. 당시 제제 연구시설은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필요한 경우 현장 생산 시설을 소규모로 사용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동덕여대로 부임하기까지 7년 반가량 근무하면서 고�형, 반고형, 액상, 기체상 등 각종 제형의 조성과 첨가제의 역할, 제제설계, 제조공정, 규모 증대 등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생산과 연구를 총괄하는 13년 선배이신 전봉간 이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항상 은근한 미소를 띠며 현장을 둘러보곤 합니다. 각자 자기 업무를 잘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미소가 아니었을까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적도 없지요. 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전봉간 이사님을 대인이라고 주저 없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제연구실장으로 승진하고 1979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간다고 했을 때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박사논문 연구차 합성실험, 외부 기관의 질량분석기나 형광광도계 이용차 외출 시에도 자유에 맡기었습니다. 분자량이 600 이상 되는 수십 종의 폴리파라사이클로판류의 분자량 확인은 생약연구소에 새로 도입된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였는데, 한병훈 교수님의 허락하에 박정일 조교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광 측정은 동아제약연구소의 권종원 동기의 도움을 받아 약 한달 간 다니면서 소기의 실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1년 봄에는 경구 소염효소제인 세아프로제 에스 장용정의 도입 관련으로 일본 오노제약을 며칠 방문하였는데, 소염 효소는 고차 구조의 단백질로 타정 시 활성을 잃어 20% 오버리지를 주고, 정제기의 편치 밑에 로드 셀로 매 타정 시마다 압력을 측정하여 허용 범위 내로 관리하고 있었지요. 이 회사는 프로스타글란딘 개발의 선두 주자로 연구소장은 600 MHz NMR을 도입한다고 자랑할 정도로 연구 수준이 상당하였습니다.

동년 여름에는 전봉간 이사님과 같이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모레 헤어컬러 이외에 새로운 계열의 염모제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인 터라 거래사인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Lowenstein 염료회사, Miss Clairol사의 헤어샴, Upjohn사의 스테로이드 생산 공장, 미네소타 대학의 합성 연구자 등을 방문하여, 미국의 다양한 시설과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4년에는 유타대의 김성완 교수님으로부터 피부를 통해 약물을 수십~수백 배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경피흡수제 개발을 위한 합동 연구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이듬해 저는 동덕여대로 오고 제 후임들이 이를 맡아 케토톱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박: 제약회사에서의 실무경험이 상당하시네요. 당시로서는 나름 수준 높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회사의 상황이 지금보다 열악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태평양이라는 좀 더 큰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것이 교수님의 연구경력에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산업계에 계시다 학교로 이직하셨는데, 당시에 도 회사나 타 분야에서 학교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았었나요? 교수님께서 대학으로 전업하시게 된 동기와 당시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전인구: 1984년 5월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끝난 다음, 김길수 교수님께서 동덕여대 약제학 실습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학강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터라 대학이라는 위상을 생각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양한 제제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기 실습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허락을 받고 1주일에 하루 강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습 준비는 1984년도 졸업한 석사과정 박인숙 조교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동덕여대 학과장인 최병기 교수님으로부터 약제학 신입 교수 초빙 공고가 났다고만 알려 왔는데, 지원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원로 교수인 조현영 교수님과 함께 실습 과정을 통해 이모저모 살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으로 가야 할지 한 달이 넘도록 고심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과장님을 찾아뵙고 도저히 지원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까요. 저는 업무적으로 만족하였고 전봉간 이사님과 직원들의 배려를 생각할 때 떨치고 나올 수가 없었지요. 서류 마감 날짜에 임박하여 관련 서류를 조교에게 맡기고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조현영 교수님이 전화로 인생의 선택의 길의 마지막이니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학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배우장사라도 하지’하는 생각으로 대학으로의 진출을 결심하였습니다. 지원서류는 조교가 접수하고, 회사에는 대학으로 가겠다는 뜻을 최종적으로 정해수 부장님과 이사님께 말씀드렸지요. 전봉간 이사님은 “어쩔 수 있겠나, 학계에서도 산업계를 위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박: 동덕여대 부임 당시의 환경과 교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약학대학은 수도권에 4개의 여자대학이 있는데 동덕여대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지요? 대학마다 나름의 역사가 존재하는 데 당시의 동덕은 어떤 여건이었는지요?

전인규: 1985년 3월 부임 당시 동덕여자대학 약학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무기계약에 조현영 교수님(서울약학대학 제2회, 1949), 약물학과 약전에 홍성욱 교수님(경성약전 제15회, 1944), 생약학과 약용식물학에 도상학 교수님(중앙대 약대, 1958)이 계셨고, 생화학과 위생화학을 맡으신 최병기 교수님(서울대 약대 제13회, 1959) 네 분이 계셨고, 나머지 과목들은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경성약전 제12회(1941)인 김상민 교수님의 후임으로 약제학, 약사법규, 향장품화학, 약국경영학을 맡았습니다. 몇 년간은 강의 준비에 바쁜 나날이었지요. 당시 정성, 정량을 맡으신 김규진 교수님(서울약학대학 학부 제1회, 1950)은 은퇴 후 투병 중이었지요. 이듬해 3월 홍성욱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조용각 이사장과 김종협 학장 및 외빈으로 성대 조태순 교수님이 참석하여 퇴임 축하의 건배를 들었습니다(그림 3). 홍 교수님은 정년 10년 전쯤 후두암 수술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목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웠음에도 학생들은 불평 없이 약물학 수업을 소화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홍 교수님의 인품과 열성에 많은 제자들이 그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지요. 1990년 전후로는 학생 테모가



그림 3. 학과장 시절 홍성욱 교수님 퇴임식 장면(중앙에 조용각 이사장, 왼쪽으로 홍성욱 교수, 김중협 학장, 본인, 최병기 교수, 조태순 교수, 오른쪽 안형수 교수, 도상학 교수).

심하였는데, 학생들의 방면을 위해 종로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선처 요청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선임 교수의 퇴임에 따라 1987년 안형수 교수, 1989년 김효진 교수, 1990년 정영훈 교수(수 년 후 성균관대로 이적함), 1995년 임세진 교수, 2001년 한용문 교수, 2002년 박광식 교수, 2011년 유기연 교수, 이종현 교수가 부임하였지요. 전체적으로 6~7명의 교원이 있었는데 전국 약대 가운데 교원 수로는 가장 적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동덕여대의 실험 실습 등 교육시설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듯이 많이 열악하였을 텐데 그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를 남긴다는 측면에서는 과거를 조명해 주시면 좋은 기록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인구: 1985년 당시 약제학 및 약전 실습 시설로는 낡고 고장난 Erweka 제제기, 건조기, 가시부 흡광도기, 낡은 단발 타정기, 붕해시험기, 약전 체, 굴절률측정기, 부칭, 현미경, 분동을 쓰는 화학천칭 등이 있었고, 초자 기구실과 시약실은 각 10평 규모의 방이었지만 가득하였습니다. 용출시험기, 전자저울은 아예 없던 시절이었지요. 낡은 증류수제조기가 하나 있었는데 모든 실습에 증류수를 사용하는 터라 온종일 물을

틀어 놓고 냉각시키는 바람에 관리실에서 물 아껴 쓰라고 여러 번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습식 실습이 주를 이루었고 기자재를 이용한 실습은 별로 없었네요. 그나마 도상학 교수님의 약용식물학 실습에 현미경을 2인 1대로 배정하다 보니 현미경실이 따로 있는 정도이었습니다.

제자인 박인숙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에 사이클로텍스트린과 복합체 형성을 통한 용출 증가를 주제로 다루다 보니 용출시험기의 활용이 필수이었습니다. 대학에는 시설이 없어 안양에 있던 유한양행 연구소의 도움을 받았지요. 유한에는 용출시험기로 검체 채취, 흡광도 측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막 도입되어 운전 중이었습니다. 당시 후배인 안병락 연구원에게 도움을 청하여 실험을 마쳤는데, 그때의 인연으로 수년 후 부부 박사가 결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7년 동문회의 기증으로 3구 용출시험기를 장만하게 되어 제가 정년할 때까지 학부 및 대학원생의 실습 및 연구에 30년간 소중하게 활용하였습니다. 1989년 종합기기센터 소장 시절, 교육부 차관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냉동 원심분리기, 칼피셔 자동적정기 등 시설을 보충한 이래 대학원생 지도와 교수 연구에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시설 확보에 보탬이 되고자 유선영 졸업생은 바이엘 약품 근무 시절 시마즈사의 적외분광광도계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1985년 2학기에 약학과장을 맡게 되면서 강의 및 교재 개발, 논문 지도, 학생 지도, 동덕 오케스트라 동아리 지도, 실험반 지도, 학부생 축제 준비, 교내 등반대회 참가, 수학여행 인솔, 약사 국가시험 출제 및 주관식 문항 채점,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참석, 약제학분과회 참석, 약제학회 편집간사 등을 맡으면서 불철주야 바쁜 일정이 계속되었습니다(그림 4, 5, 6, 7). 1986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약제학분과회가 전남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이 사진에서 한국 약제학의 태동기를 이끌어오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많은 선배 교수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그림 8). 1989년 11월 김신근 교수님의 저서 『한의약서고』 3쇄 발행 축하연에는 왼쪽부터 김신근 교수님, 김종국 교수님, 본인, 김길수 교수님, 동아제약의 민신흥 박사가 환담을 나누고 있네요(그림 9).

저의 바쁜 생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림 4. 여름 약제반 학부생들과의 실험 모습(1985).



그림 5. 학부생 축제에서 약학과장으로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1987).



그림 6. 교내 등반대회에 참석한 김효진 교수, 정영훈 교수 및 학생들과 4·19 탑 앞에서(1991. 6).



그림 7. 제65회 전국약학대학장 회의 참가자 모습(1987. 5.23, 셋째 줄 오른쪽 첫 번째가 본인).



그림 8. 전남대 약대에서 열린 약제학분과회 원로 교수님들과 함께 (1986. 뒷줄 오른쪽 첫 번째가 본인).



그림 9. 김신근 교수님의 저서인 『한의약서고』 3쇄 발행 기념회에서(1989).

일요일에 서울대 김종국 교수님이 어쩌다 전화를 하시면 학교 연구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일요일에도 학교 나가는 날이 많았고, 해 떨어지기 전에 귀가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1987년 여름에는 벨기에 겐트대학의 UNIDO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참석했는데, 세계 각 대륙의 개도국의 제약 분야 약사 약 70여 명을 대상으로 6주간 Pharmaceutical Technology 분야의 이론 교육과 현장 견학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림 10은 수수료증을 받는 모습입니다. 선발된 계기는 어느 날 노환성 서울대병원 약제부장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벨기에 대사관을 함께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영어 구사 능력을 테스트한 다음, 한국제약산업 현황에 대해 영문 보고서를 주최 측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10. 벨기에 겐트대에서의 6주간 UNIDO 제약 기술 훈련 후 수수료증 수여 장면(1987년 여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는데, 당시 미국, 유럽을 위시하여 GMP가 도입되던 시점이라 Janssen, UCB 등 여러 제약 현장과 연구소를 견학하였는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침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Janssen 연구소에서는 메벤다졸 등 구충제 개발이 연구자의 노력과 심령의 결실이라는 설명을 듣고 인류의 신약개발은 도전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노환성 박사님은 유럽 약학회를 참가한 후 가져오신 두꺼운 프로시딩 책자를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숙대 약대 용재익 교수님께서도 정년퇴임과 더불어 저에게 GMP 관련 일본 서적 10여 권을 넘겨 주셨습니다.

박: 약학사 측면에서 동덕여대의 역사를 간략히 구술하여 주십시오.

전인규: 동덕여대는 1950년 5월 동덕여자대학으로 설립 인가되어, 1953년 설립자인 신춘강 조동식 박사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래 약학과는 1955년 2월, 50명 정원으로 개설되어 초대 학과장으로 홍성욱 교수가 보임되었습니다. 1987년 종합대학교로 개편 인가됨에 따라 약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후 1988년 약학대학으로 승격, 단일대학 단일학과로 개편되었으며, 2011년 3월에는 6년제 약학대학생이 입학했습니다. 대학원은 1980년 설립 인가와 더불어 약학과 석사과정 20명으로 신설된 이후 1987년 박사과정(9명)이 인가되었습니다. 그 후 1989년 종합기기분석실이 대학 부설로 설립되고, 1993년 종합약학연구소 설립과 동덕약학연구지 발간 및 연구소 주최 다수의 학술행사, 1995년 약대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1996년에는 미국 뉴저지주립렛거스대 Yie W. Chien 박사의 특별 초청 강연 및 조원영 총장 예방이 있었습니다(그림 11).

2005년 10월에는 약대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



그림 11. 동덕여대 약대 앞에서 특별 초청한 렛거스대 약대의 Yie W. Chien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함께(1996).

행사를 동문회와 공동으로 “약업계 발전 전략과 미래 약사 직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이해 8월 19일 약대 6년제 실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정 발표되어 1학년이 시작되는 2009년도를 앞둔 시점을 고려한 주제였습니다. 당시 학장으로서 곽순애 동문회장과 함께 50주년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 이외에도 동창회 명부 발간,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하는 예술제, 약학관 건립 발전기금 마련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그림 12). 특히 1959년부터 2005년까지의 졸업생 명부 발간을 위해 반년이 넘게 추적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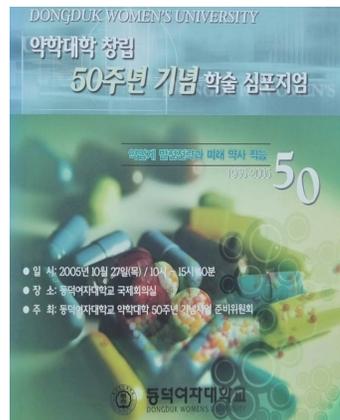


그림 12. 동덕 약대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2005. 10) 책자 표지.

2002년부터 본격화된 학내분규와 내홍으로 2003년 11월 조원영 총장의 퇴진과 더불어 관선 이사체제가 시작되었지요. 2003년 11월 송석구 총장, 2004년 2월 이양희 총장직무대행, 2004년 박상기 박사 취임, 2004년 손봉호 박사 취임, 2006년 12월 홍성암 총장직무대행, 2007년 11월 손봉호 총장 복직, 2010년 2월 맹원재 이사장 취임, 2010년 3월 김윤식 총장직무대행, 2010년 8월 김영래 총장 취임, 2011년 10월 신상규 이사장 취임, 2014년 8월 최초의 본교 출신 교수가 총장이 된 김낙훈 박사의 취임까지 약 12년에 걸쳐 3명의 이사장, 3명의 총장직무대행과 3명의 총장을 거치면서 대학발전의 어두운 시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와 강력한 리더십과 주요 의사결정의 부재로 고도성장의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에 대비하여 강의 평가, 교수 업적 평가, 전공의 개편, 대학의 구조 조정과 시설 투자, 외국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 등 총장을 위시한 구성원들의 협동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잘 버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의 입장에서는 1967년 월곡동 신축 교사로 이전한 이래 두 번의 개보수와 2013년 5월, 6년제의 시행에 따라 뼈대는 그대로 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4층 건물 전체를 약학관(4,321m²)으로 사용하게 되었지요. 2011년까지는 이 건물에 식품영양

학과, 보건관리학과, 의상학과가 배치되어 있어 약대엔 고작 4층과 3층 반 가량을 할애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열악하였는가를 알 수 있지요. 4개층을 통째로 이용함에 따라 약학관에 교수실과 실험연구실을 하나의 세트로 하여 8개의 세트를 배치하고 3개의 학부 실험실습실, 약국실무실습실, 세미나실, 학장실, 학과사무실 등을 배치하였는데, 약학의 연구 기능, 제약실무실습 지원 등을 고려하면 시설과 전임교원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25년 창립 70주년에는 큰 발전과 멋진 기념행사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대학원장 시절에는 2012년 12월 5일 대학원 초청 특강으로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을 모셔 「최장수 기업 동화약품을 통해 본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본교 국제회의실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저녁 만찬 후에 김영래 총장 등과 자리를 함께 하였지요(그림 13). 윤 회장님은 눈이 훑날리는 날씨에 남산 둘레길을 걷고 온 다음 멋진 음악과 영상을 곁들여 멋진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 12월 2일에는 김춘진 국회의원을 모셔 「미래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원 원우회 회장으로 특강 준비 등의 역할을 한 미대 출신 고은주 작가는 후일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33년의 대학 생활을 뒤로 하고 2017년 8월 말을 기하여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학생, 동료 교수들과 동고동락을 하는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월에는 고맙게도 마지막 사은회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림 13. 대학원 특강 후 윤도준 회장, 김영래 총장, 약대 임세진 학장, 예술대학 홍순주 학장, 패션디자인대 김혜경 전문대학원장, 공연예술대학 홍유진 학장 등과 함께(2012. 12).



그림 14. 6년제 졸업생과의 마지막 사은회(2018).

졸업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시간이었습니다(그림 14).

박: 퇴임하신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교수님께서 평생을 바치신 동덕여대에서 교수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들자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훌륭한 제자도 많이 배출하였는데 기억에 남는 제자 그리고 에피소드 등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전인구: 약학대학 6년제가 가시화되면서 약물치료학 등 임상약학 분야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던 90년대 후반 당시 90학번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는데, 미국 아이오와대학 약대에 임상약학 교수로 있던 대학 동기인 민일기 교수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임상약학 분야에 씨뿌릴 인재를 키우고 싶다고 하였더니 흔쾌히 수용하여 1997년 12월 도미하여 이듬해 첫 학기에 편입학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2년 반의 유학 끝에 Pharm.D를 받고 귀국하여 남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1년 약제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조선대 약대를 거쳐 2004년에 이화여대 약대 임상약학 교수가 된 곽혜선 교수가 바로 장본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무성하게 자라듯 왕성한 연구력을 바탕으로 많은 제자를 교수로 양성하고 한국임상약학회장, 지난 8월에는 이화여대 약대 학장을 역임하고 있으니 돌아보면 한 명의 인재 양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동덕 약대 92학번 최수안 학생을 서울대병원 손인자 약제부장에게 소개한 것을 첫 단추로 병원약사가 되었는데, 실무경험과 서울대 신완균 교수의 지도로 임상약학 박사가 된 후 고려대 약대 임상약학 교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96학번인 이경은 학생도 미국에서 팜디를 받고 귀국하였지만 학위가 없던 터라 인사차 온 이경은에게 바로 이화여대 곽혜선 교수를 찾아가도록 한 것이 오늘날 충북대 약대 임상약학 교수가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98학번 노은선 학생도 약제학 석사를 받은 후 유한양행 취직, 이후 로드아일랜드 약대에서 약물 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판단력과 일 처리가 빠르고, 늦게 결혼하였지만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충실한 제자도 있네요. 저의 지도하에 동덕 약대

오케스트라 창단 회장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생화학 분야로 학위를 받고 2008년 귀국한 터라 유창한 영어 실력을 한껏 활용하여 2008년 약학회 제주 학술대회에서 FIP 회장 가이드, 약학회 갈라디너 등에서 영어 사회를 맡은 인연으로 2017 FIP 서울총회 개막식에서도 영어 사회를 보기도 했던 순천대 약대 우수연 교수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 저에게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센터에 근무한 조은숙 박사가 있습니다. 취업 수년 후 생동 파동이 발생하면서 자료 불일치 등의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많은 고초를 겪은 터라 연락도 잘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외국에서의 연구 생활도 여러 번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년 때는 가족과 함께 미국 일주 여행도 경험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전인규: 1989년 과학재단의 박사후연구원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12월 초 미국 뉴저지주립 럿거스대학 약대 Yie W. Chien 교수가 연구소장이던 Controlled Drug Delivery Research Center에 방문 연구자로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당시 조애리 박사와 생물공학 박사학위 막바지 단계인 부군 이재관 박사가 Piscataway에 숙소 마련 등 현지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박사 부부는 보스톤 하버드대 포닥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삿짐은 짐차에 실어 이재관 박사가, 타고 다니던 프라이드 현대차는 스틱이라 여러 번 운전 연습을 한 끝에 제가 5시간 이상 운전하여 보스톤 숙소까지 배달한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비싼 비행기로 왔지만요. 여름방학에는 두 딸과 아내가 뉴저지에 함께 한 달간 머물면서 미국 동부에서 플로리다까지, 나이아가라 폭포, 보스톤 지역 등을 차로 여행을 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합니다.

가을 학기에 김대덕 학생이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였고, 이어 이대 약대에서 생약학을 전공한 김정선 학생이 의약화학 박사과정으로 들어왔는데, 김대덕 학생에게 어느 날

신부감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한 말이 씨가 되었는지 몇 년 후 두 사람은 귀국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데 이치현 학생이 부인과 아들 둘과 함께 박사과정에 트랜스퍼 해 왔습니다.

이 연구소는 경피 흡수 및 경점막 흡수 증진 및 약물 전달 시스템 설계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는 인도, 대만, 미국 출신의 대학원생 7명과 박사 후 연구원 3명이 있었는데, 한국인으로는 류재필 박사가 패치제의 투과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경점막 수송이 주요 과제이었던 터라, 연케 팔린 및 합성 유사체를 대상으로 비강, 직장 및 질 점막을 통한 흡수 및 효소 분해 거동과 분해억제를 통한 흡수 증진에 초점을 두어 실험하게 되었는데, Valia-Chien 투과 셀을 이용하여 펩타이드 투과 및 효소 분해 거동, 효소 억제제의 영향 등을 검토하는데 자동 주입기가 붙은 HPLC를 썼습니다. 12시간 이상에 걸친 검체 채취 등 시간적인 노력이 많이 들었지요. 이를 위해 밤낮없이 연구실로 20여 분 운전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 준비를 하는 날이 많았고, 일요일이면 한국인이 그리워 한인교회를 나가곤 했습니다. 귀국 한달 전에는 귀가 중 골목길에서 스톱 사인을 무시한 차량과 측면 충돌을 한 사고로 폐차해버리는 일도 있었지요. 이 사고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천행이었습니다. 아무튼 1991년 2월 귀국 후에도 펩타이드류의 연구를 통해 15편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년을 3년 앞둔 2014년 여름, 연구년을 기하여 약물 역학 분야의 포닥으로 근무하던 제자 노은선 박사의 주선으로 미국 로드아일랜드 약대에 약 네 달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학장으로 있던 한국인 조봉섭 교수의 협조로 J1 비자를 받고, 7살 외손녀, 아내와 함께 Warwick 지역의 바닷가 3층 집의 2층을 렌트하여 지냈습니다. 오랜만의 미국 생활이라 임대 주택 예약, 침대 등 가구 렌트, TV 및 자동차 렌트, 보험 가입, 전화 연결 등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노은선 박사가 준비하였으니 친팔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해 주었지요. 손녀는 로드아일랜드대가 주관하는 지역 어린이 서머 캠프에 격주로 2주간 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침이면 출근길에 30여 마일 떨어진 캠프로 데려다주고, 저녁때면 픽업하는 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캠프에는 30여 명을

여러 반으로 나누어 농장 생활을 경험하는 것들이었는데, 동양 애는 하나였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미국 어린이들과 어울리며 잘 견뎌내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중 3이 되었네요.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약대 6년제가 시행된 시점에서, 미국 약대생들의 병원 실무 실습 현황(그림 15)을 둘러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약대에는 실무실습 코디네이터 등 전담 요원 여럿이 하와이 등 미국 전역에 걸쳐 학생 실무실습 기관을 전산화하고, 수시로 실습 기관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의견 수렴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생이나 프리셉터는 누구나 풍부한 전문 도서와 자료에 언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약학대학 인증 평가에도 늘 대비하는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었지요.



그림 15. 로드아일랜드 약대 실무실습 병원에서의 프리셉터들(가운데 2분) 및 코디네이터(오른쪽)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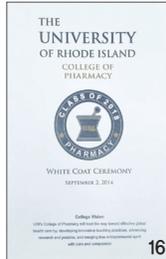


그림 16. 2014년 9월 2일 열린 White Coat Ceremony 안내 팸플릿.



그림 17. 교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로드아일랜드대 약대생의 White Coat Ceremony 장면(2014. 9.).

체류 중 White Coat Ceremony에 참석하고 로드아일랜드 약대 재학 중인 약 30명의 한인 학생을 초청하여 피자 파티를 열고 자유토론을 두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그림 16, 17, 18). 그중 한 학생이 아주대 약대 정이숙 교수의 아들, 박훈 군이었는데 나중에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월 하순경 귀국할 때 로드아일랜드 약대 학장에게 벽시계를 선물하고 환담을 나누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그림 19).



그림 18. 로드아일랜드 약학관에서 한국인 재학생들과 함께(뒷줄 왼쪽부터 본인과 조봉섭 교수).



그림 19. 로드아일랜드 약대 학장 E. Paul Larrat, 대학평가 담당 주임교수 및 부학장 Brian Quilliam(노은선 박사의 지도교수)과 함께.

박: 교수님은 한국약제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대한약학회,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한국약학교육평가원 등 약학계의 중요 학회는 모두 회장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술행사도 주관하신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학회마다 나름 역사를 기록하고 있겠지만, 회장으로서는 구술로 남기고 싶으신 에피소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업적과 함께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에피소드를 정리해 주십시오.

전인구: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한국약제학회 심부름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985년 이민화 회장님 시절 편집간사로 시작하여 고익배 회장, 지용길 회장, 이치호 회장까지 7년, 이진환 회장대의 1995년까지 편집위원장 2년을 맡아 『약제학회지』 발간에 책임을 맡았지요. 1986년 이전에는 주로 학회사무실이 회장 소속 대학에 있고 사무원도 없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간사 등이 문성사 사무실, 다방 등에 모여 논문을 읽고 집필 규정, 투고 규정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회의를 하는 식이었어요. 투고 논문 수는 호당 6편 내외이었고, 논문에 따라서는 공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체제 등 많은 수정과 교정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6년 고익배 회장 시절 학회 사무실이 종로구 초동교회빌딩 1층에 자리를 잡은 후 1988년 제약회관 201호 입주를 거쳐 1998년 과충 회관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8년 초 제약협회로부터 4층에 자리한 사무실을 기자실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청이 있었지요, 당시 회장인 김영일 박사는 IMF의 어려운 시기이었지만,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영구 입주권이 있는 과충 회관으로 이전을 결심하고 과충 책임자를 만나 지분 20평을 배정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약제학회 부회장, 한국응용약물학회 간사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충 담당자를 설득하여 한국응용약물학회는 10평을 임대하여 약제학회 지분 20평과 합쳐 본관 805호에 30평 규모로 두 학회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대학 약학과 조교였던 김미령 양을 사무원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1988년 지용길 회장님 시절부터 1997년 서성훈 회장 시절까지 10년간 학회 임원, 약제학 분야의 교수, 연구자, 제약 관계자들이 인화 단결, 친목 등을 통해 학회 발전을 도약시킨 시기였습니다. 1989년에는 지용길 회장님과 더불어 약제학이 제약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 협력을 기획하고 「최근의 조립 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제제기술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는데, 이 워크숍은 학회의 전통 있는 행사로 오늘날까지 성황리에 이어오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그림 20).



그림 20. 제1회 제제기술 워크숍 개최 장면 (1989, 본인이 사회).

1993년 이치호 회장님 시절, 아시아 지역 최초인 FIP '93 Tokyo 세계대회(8. 2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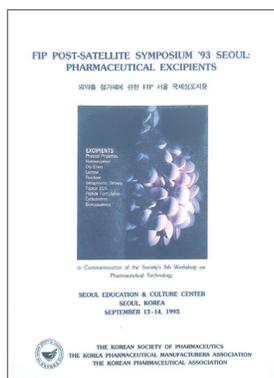


그림 21. 1993년 첨가제 관련 FIP 심포지엄 책자의 표지.

에 이어 아시아 5개국에서 각각의 위성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약학 발전을 도모한다는 FIP의 취지에 따라 의약품 첨가제에 관한 FIP Post-Satellite 심포지엄을, 제 5차 제제기술 워크숍을 기념하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9월 12일~14일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그림 21). 그 당시 사무총장으로 동분서주했던 기억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FIP의 조직상 한국에서 이같은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일본 Hoshi 약과대학의 Tsuneji Nagai 교수(당시 FIP 임원)를 일본 어느 호텔에서

만나 조직위원회 구성 등 행사 준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 적이 있지요. 그 이후 FIP Board of Pharmaceutical Science의 간사인 Daan J.A. Crommelin 간사와 프로그램 구성, 연사 추천 등으로 수 없는 팩스를 주고받았는데, 이분도 나만큼이나 바빴는지 편지 서투에는 늘 “Time is flying.”으로 시작하곤 했지요.

처음 치르는 국제행사인 만큼 예산 확보 및 참가 독려 등의 목적으로 약제학회, 한국제약협회 및 대한약사회의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초청장은 3개 단체장의 명의로 하고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경곤 약사회장은 쉽게 서명을 받았는데, 한국제약협회장인 중외제약 이종호 회장께서는 다음 날 일본 출장이라는 연락에 김포 공항으로 달려가 초청장에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지요. 국내외 연사, 참가자의 목록과 명찰 제작 등 등록 관리업무에서도 레이저 프린터로 편집, 출력했던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귀국 시 사 온 엡손 레이저 프린터에 조정환 교수의 탁월한 프로그래밍 실력이 결합하여 명찰, 참가자목록 등 다양한 출력물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한국약제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2003년 3월 어느 날 퇴근 무렵 당시 회장이던 심창구 교수님으로부터 전화로 큰일 났다 하시면서 “식약청장으로 임명되어 모든 직과 위원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약제학회를 부탁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급히 이사회를 거쳐 후임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약제학 분야에는 우수한 후배 교수들이 많아 회장직 2년을 1년으로 단축하여 봉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이사회에서 제 임기가 끝나고 2005년 1월부터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수석부회장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학회의 학술활동은 대개 4월 과학의 달 기념심포지엄, 9월 제제기술워크숍, 11월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로 이루어졌는데(그림 22, 23, 24), 정기학술대회는 대학, 국립보건원, 제약회관, 호암삼성컨벤션센터 등으로 대회장의 규모가 커져, 2004년도부터는 학회 규모를 국제 수준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포뮬 세션과 포스터 발표 수의 증대, 행사장도 호텔급의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면서 이후 회장들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그림 22. 한국약제학회 과학의 달 기념 심포지움을 마치고(2004. 4.).



그림 23. 제14회 제제기술 워크숍에서 임원 및 연자들과 함께(2004.).



그림 24. 한국약제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치고(2004. 11.).

학회 활동의 국제화가 가속되었지요. 특히 2003년 8월 6일에는 식약처장이 되신 심창구 교수님의 넓은 혜안으로 사단법인으로 승격하였고 공식 학술단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지요(그림 25).

이외에도 2003년 11월 21일 서울대에서 한국, 독일, 영국 및 일본이 참여하는 용출 시험 관련 FIP Pre-Satellite 국제심포지움을 열었는데, 당시 한국 MSD에 근무하던 민향원 약사의 도움으로 영국 MSD의 David Edward Storey 박사의 10,000불이 넘는 항공료를 잘 마무리한 적이 있지요. 제2회 한일공동심포지움을 일본 교토에서 FIP의 Kyoto PSWC 2004(5. 29~6. 3) 기간 중에 개최하여 저는 공동 대회장으로 한국인 연사 6명 및 일본인 연사 6명이 12개 연제를 가지고 온종일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본 참가자들은 강의실처럼 자리를 뜨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두 행사가 가까운 교토에서 이루어져 한국에서 교수, 대학원생 및 가족 등 많은 분들이 참가하였지요(그림 26).



그림 25. 한국약제학회 사단법인 승격 기념 사진(2003).



그림 26. 제2회 한일공동심포지움 및 교토 PSWC 참가들과 함께(2004. 5.).

대한약학회 관련 회고

- 최초의 춘계 학술대회

제36대 우원식 회장(1989~1990) 시절, 춘계 학술대회가 최초로 1989. 4. 21.(금)~22(토) 이틀에 걸쳐 동덕여대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약학회 집행부와 관련이 없었는데 어느 날 조현영 교수께서 사전에 이와 관련한 부탁을 하신지라 대학원 건물의 여러 강의실을 행사장소로 배정하고 이동식 스크린과 프로젝터 등 발표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중식을 대학원 건물 지하 식당으로 하였는데, 행사 당일 식당에서 조그만 화재가 발생하여 소동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 신약개발국제학술대회 ICNDD News 발간

제37대 안영근 회장 시절(1991~1992), 럿거스대의 방문 교수로부터 1991년 2월 귀국하자마자 파루마콘 편집간사를 맡게 되었지요. 당시 안영근 대회장, 우원식 조직위원장, 김종국 사무총장을 위시하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약학회 창립 45주년 기념 '신약개발국제학술대회'(8월 18일~23일) 준비로 여념이 없었는데, 초청 연사 86명의 각종 심포지엄, 일반발표 214건, 15개국에서 외국인 125명, 내국인 1,003명이 참가하는 최초의 야심적인 학술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의 국제적인 위상과 한국 약학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김종국 교수의 요청으로 저는 영자 일간지인 ICNDD News의 편집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취지에 맞게 제작하기 위해 개막 1개월 전부터 제작팀을 구성하고 사전 기삿거리를 준비하였는데, 약사공론 조동환 기자, 박정일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취재 및 영문번역 담당으로 서울대 약대생들 중 영어에 능통한 권수현, 김케미, 최윤아(서울대 48회), 김왕유(서울대 45회) 등을 박정일 교수의 도움으로 합류시켜 도움을 받았습니다. 8월 6일 첫 모임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 합숙하고, 행사 당일부터 6일간은 스위스그랜드호텔 1021호와 1022호 2개의 방을 제작실로 꾸렸지요. A4 8명의 하루분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7명의 제작진은 전체 기사 90%를 확보

하기 위한 한국 약학, 약학 관련 학회, 사설, 한국 문화, 관광 등의 기삿거리의 취재, 국문화, 영문화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첫 모임부터 하루 1-2시간 정도 자면서 2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대회 전날 첫 호를 내기 위해 6시 편집회의를 시작으로 초교, 재교, 삼교 교정과 최종 오케이를 내는 새벽 6시경까지 일에 매달렸고, 그 후 인쇄하여 10시경에 등록대로 납품하기까지 쉽 없는 일들이 6일째 뉴스가 나올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그림 27).

편집수정과 인쇄는 한림원에서 맡았는데, 편집실과 한림원 간에는 팩스로 모든 교정자료가 밤새 이송되었습니다. 8월 20일 늦은 밤 제작실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Koji Nakanishi 교수가 방문하여 제작팀에 강연료 35만원을 회사하면서 “우리도 1964년에 국제학술대회에서 뉴스레터를 발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새 분위기가 잡혀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3일째 영자신문에 넣을 인터뷰 기사를 위해 저명 순수화학자인 Teruaki Mukaiyama 교수를 만났는데, 그의 학문적 성취는 “Thinking while running, Something from nothing”을 강조한 것처럼 하나의 발견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발견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불철주야 노력한 인간승리의 결실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은퇴 후에도 그의 창조적 영혼이 남아 있는 한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그의 의지에 섬뜩하였음을 회상해 봅니다.

어느 날은 한림원 건물 출입문이 잠겨 난리를 친 적도 있는가 하면, 한림원 편집담당 조민제 양과 김홍중 군(당시 한림원 김용우 사장의 장남)이 밤새 남아 뒤치다꺼리를 하다 정이 들었는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탁월한 편집 감각을 보여준 조동환 기자는 늦은 시간 귀갓길에 건널목 교통사고를 냈다는 연락에 황급히 강남경찰서에 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 영자 일간신문 6일분 48페이지 전문을 파루마론 제21권 제3호 특집(1991)에 재록으로 발간하였는데, 당시 발간비가



그림 27. 6일째, 1991년 8월 23일자 8면 영문 신문 표지.

비싸 발간을 보류하라는 안영근 회장님의 언급이 있었지만, 편집간사로서 신속 배포를 위해 발간을 강행한 추억도 있습니다.

ICNDD News의 성공은 제작팀의 한국 약학의 위상 제고와 국제화라는 염원이 만들어낸 모든 제작팀의 Terminator II와 같은 혼신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제작팀과 한림원 편집팀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대 문창규 회장(1997~1998) 시절 출판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약학회에서 뉴스지로서 발간해오던 파루마콘(Pharmacon) 명칭을 세계적인 약학정보와 기술을 소개하는 정보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박정일 출판위원 등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PharmWorld”로 변경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자 연구소 탐방, 기고문, 임상약학 등 전문가에게 원고 청탁을 하였는데, 팜월드는 2006년 말로 중단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보지 발간 작업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위원장과 위원들이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제42대 박만기 회장(2001~2002) 시절에는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간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2001년 10월 17~19일 숙명여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준비 과정에 학회 재정 확보를 염려하였는데, 박만기 회장님께서 진생사이언스 등으로부터 통 큰 후원금을 조달하는 것을 보고, 회장의 재정 확보 능력이 중요한 덕목의 하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2년 춘계 학술대회(4. 18~19)가 충북대에서 열렸을 때, 행사 준비를 위해 코오롱사의 검정색 스포츠웨어를 입고 내려갔는데, 총무간사인 박정일 교수가 대뜸 야전사령관 같다고 반겨 맞았지요. 대회 첫날 간친회가 끝난 다음 류종훈 총무간사는 다른 위원들과 먼저 모종의 장소로 이동하여 회포를 풀었는데 양주 너털 병이 동이 나 있던 진한 추억도 있습니다. 대과 없이 2년간 회무를 잘 이끌고 보좌한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 재미한인약학자협회 관련 회고

재미한인약학자협회(The Korean-American Pharmaceutical Scientist, KAPSA)는 1989년 애틀란타 미국약학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Scientists,

AAPS) 미팅에서 조지아대 전홍원 교수, 유타대 김성완 교수, 퍼듀대 박기남 교수, Alza사의 염수일 박사의 주도로 30여 명의 한인 약학자들이 참여하여 결성되었습니다. 1986년 창립된 AAPS는 미국 약학 및 약제학 분야의 중추적인 학술단체로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한인 약과학자들의 연례적인 참석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KAPSA 모임은 자연스럽게 AAPS 정기회의 기간 중 화요일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전홍원 교수가 회장, 박기남 교수가 부회장, GSK 오춘경 박사가 재무를 맡은 이래, 1990년 보스턴 AAPS 미팅에서 회장직을 2년으로 하고, 처음으로 미니애폴리스를 열었는데 연사는 G.D. Searle의 국중석 박사, 본인, 염수일 박사 등 4인이었습니다. 1991년 워싱턴 DC 모임에서 염수일 박사가 제2대 KAPSA 회장, 본인이 한국 과학자를 대표하는 부회장, 오춘경 박사가 재무로 선임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40여명이 올란도 미팅에 참여하고 국중석 박사가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되고, 본인이 부회장, 이해정 박사와 추연성 박사가 총무를 맡았습니다.

1994년 샌디에고 미팅에서 KAPSA 미팅이 AAPS 프로그램에 홍보되었으며, 삼양사 후원으로 60여명이 한국 음식점에 참여하여 대여섯 한국 제약회사도 함께 하여 정보 교환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그림 28).



그림 28. 샌디에고 AAPS 미팅 참석자들과 함께(1994. 11).

1995년 마이애미 미팅에서 처음으로 KAPSA 전시 부스가 만들어졌는데, 회원 주소록을 3M사의 최혜옥 박사의 도움으로 만들었고 한국 제약회사 4개 업체가 후원을 하여 80여 명이 KAPSA 정기회의에서 회칙을 통과시키고 한국 4개 제약회사의 홍보 비디오를 관람하였습니다. 식사 후 약학의 현 이슈에 관한 패널 토론을 하였는데 토론자는 전홍원 교수, 김종국 교수, 김성완 교수, 이혁구 박사였습니다. 박기남 교수가 제4대 회장으로, 본인은 부회장으로 유임되고, 미국 FDA의 안해영 박사가 재무, 3M의 최혜옥 박사가 총무를 맡고, 전임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996년 시애틀 미팅에서는 태평양화학, 두산, 삼양사, 중외제약, 일동제약, 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의 후원 하에 100명 이상의 한인 약학자들이 참석하고 후원사의 연구성과 발표와 회원들 간 학술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다.

1997년 KAPSA 정기모임은 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는데, 이사회가 결성되고, KAPSA NEWSLETTER가 처음으로 발간되었는데 표지 디자인은 박기남 교수의 작품입니다(그림 29). KAPSA 정관은 메릴랜드 세무국에 등록(1997년 3월 12일, 08:36 AM)되었는데, 이 정관의 발기인은 박기남 교수, 본인, 최혜옥 박사, 염수일 박사, 국중석 박사 5인이었습니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의 창간 축하, 박기남 회장과 본인(부회장)의 인사말로 서두를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박기남 교수는 한인 과학자 9명을 초청하여 활성 약물의 전달 연구 및 개발의 최근 진보에 관한 제1회 세미나를 열고 식사 후에는 장준식 박사와 신현택 교수의 한국 과학 기술의 소개와 한국 과학자의 정보 네트워킹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요.



그림 29. KAPSA 뉴스레터 제2권 표지.

본인이 1998~1999년 KAPSA 제5대 회장으로서는 활약한 소회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당시 임원진은 오춘경 부회장, 정세호 사무총장, 최영문 재무이었고, 1998년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Korea House 자문회의에서 정기회의 일정 및 재무 보고를 하였는데 이범진 교수, 최승호 박사, 이혁구 소장, 이지호 교수, 신현택 교수, 이경달 교수, 김종국 교수, 본인, 전홍원 교수, 박기남 교수 및 홍청일 부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7일(화)에는 코리아 하우스 그랜드 홀에서 제10차 정기모임을 가졌고, KAPSA 부스(No. 1419)에 KAPSA 깃발을 붙여 홍보하였으며, 신현택 교수의 도움으로 KAPSA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지요, 이범진 교수의 공동 편집으로 KAPSA 뉴스레터 제2권이 발간되었는데, 권두언으로는 당시 한국약제학회 김영일 회장이 작성해 주셨고, 190명의 회원 주소록을 후반부에 실었습니다. 이 책자는 제1권부터 한국에서 발간하여 수백 권의 책자를 공항에서 한국에서 참석하는 분들의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운반하였습니다.

KAPSA 정기모임에는 대략 1만 불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대부분 국내 기업의 협찬과 회원 등록비(40불 정도)로 충당되었는데, (주)닥터즈 메디코아, 삼양사, 대웅제약 등이 후원하였습니다. 1999년 뉴올리언스 AAPS(11. 14~18) 기간 중 KAPSA 미팅에서도 부스를 설치, 하루 전날(월) 점심시간을 기하여 자문위원회를 열었고, 16일(화) 17:30~22:00에 Genghis Khan 레스토랑에서 열린 정기모임에는 약 150명이 참가하였는데, 2000~2001년 제6대 회장 오춘경 박사 선출, 기업 홍보, 참가자 소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KAPSA 뉴스레터 제3권을 발간하였는데 부록으로 실은 주소록에는 222명의 회원이 등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AAPS 행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KAPSA 미팅을 하는 경우 예약된 한식당이나 레스토랑만 안내하고 각자 알아서 찾아오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요일 오후 5시경 컨벤션센터 앞에 2대의 대형 버스를 렌트하여 레스토랑까지 왕복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석자 모두 자랑스러워하였으며, 레스토랑에서는 종업원들이 이태리 가곡 등을 열창하면서 서빙을 하여 모두 흥겹고 추억에 남는 만찬을 진행했던 경험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자문위원으로 수년간 참석하면서 한미 간의 한인 약학자 교류와 약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기 전까지는 미국 내 리더 그룹의 한인 약학자들이 회장직을 맡아왔지만 제 이후로는 미국 내 봉사할 분이 마땅치 않아 미국과 한국 내 인사가 번갈아 가면서 회장직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인사로는 주로 한국약제학회 회장 등이 KAPSA 회장을 맡아 한미 약학 교류에 활성화를 도모해오고 있는 가운데 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는 AAPS 참가단을 조직하여 학회 참가를 장려하는 한편, KAPSA 미팅에도 연례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AAPS가 보스턴에서 10월 16~19일에 열렸는데, 코로나로 주춤했던 KAPSA 미팅이 부활하여 한층 더 활기차고 발전하기를 고대하며, 최근까지의 KAPSA 역사도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약학교육발전공동위원장 관련 회고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2005. 4~2006. 8) 시절 약학대학 4년제가 2+4의 6년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전국 20개 약대 학장 명의의 통합 6년제 청원서를 교육부에 제출, 3차에 걸친 교육부 주관 공청회 개최 등 매우 혼란한 시기였지요. 2004년 고려대 홍후조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 방안 연구」의 결과가 2+4의 학제에 무게를 실었던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의학, 치의학, 법학 등 전문과정은 사전 대학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전문대학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틀이 작용하던 시기였고 의료계의 반대를 우회할 수 있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대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약대를 지원하지 않고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거쳐 약학을 전공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약대 숙원 사업인 6년제가 형식보다는 6년제라는 내용에 무게가 실리면서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인 저와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2005년 8월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최종 면담을 거치면서 2005년 8월 19일 약대 6년제가 2+4의 학제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약학대학협의회 회장인 저는 약학교육발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약학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 약대 교수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부 주관으로 장소를 세 번이나 바꾸어가며 공청회를 실시할 때마다 의사협회는 행사장 점거, 폭언, 대대적인 인력 동원 등 격렬하게 약대 6년제 반대 주장을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06년 1월 1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약대는 2009년부터 2+4 학제를 시행하게 되었지요. 이 학제도 시행하면서 나름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자연계, 이공계 학생들이 PEET 준비를 위해 대거 이탈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 대학 교육의 황폐화, 대학원 진학인력감소 등이 발생하였고 약대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노력화 및 약학 기초학력 감소 등 약학 전문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어 본래의 목적인 약학 전문 인력 양성에 현저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예상하여 약학대학에서는 초기부터 통합6년제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고 2+4 제도로 정착됨에 따라 걱정하였던 문제점이 표면화하기 시작하게 된 셈이지요. 이에 따라 2010년

12월 6일에는 박영아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 발제 I(약학대학 학제개편 필요성과 방향-동덕여대 전인구 교수), 발제 II(약학대학 학제개편이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서울대 자연대 석재영 교수), 김창중 교수를 좌장으로 여섯 분의 패널]가 있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약학교육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학제개편 요구의 노력의 결과, 2018년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통합 6년제가 2022년부터 시행되어 제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응용약물학회 관련 회고

한국응용약물학회는 1987년 물질특허 도입에 따른 독자적인 신약 개발 능력을 배양하고자 이와 관련된 비임상, 임상, CMC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선도하는 학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2년 학회 창립 시부터 총무간사, 간사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 13년 간의 학회 활동 끝에 2006년 제11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992~1994년의 학회 초창기에는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지원 과제의 연구성과 발표회로부터 시작하여, 춘계 및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학회지로는 1993년 응용약물학회지(The Journal of Applied Pharmacology)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제3대 한병훈 회장 시절(1997~1998)에는 간사장을 맡았는데, IMF로 어려운 시절이라 학회 사무실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을 기하고자 1998년 한국과학기술회관에 입주한 한국약제학회 사무실 20평과 한국응용약물학회 임대 10평을 합하여 30평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역할을 한 바 있고, 임원 회의가 끝난 후에는 회관 아래 식당에서 정기화 교수, 진창배 박사 등과 밤늦게 국수 한 그릇으로 저녁을 해결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1997년 봄, 학회 재정 확보를 위해 조선무약을 한병훈 회장님 등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박대규 회장은 흡모하던 한국의 석학 한병훈 교수님을 만났으며 63빌딩 일식당에서 점심부터 비싼 포도주 7병을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만취하여 밤늦게 맥까지 모셔다드린 적이 있었지요. 점심값으로 학회를 지원하였다면 더 좋았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2006년 본인의 회장 시절, 간사장 정세영 교수, 편집위원장 강영숙 교수, 학술위원장

정재훈 교수 체제로 출범하였는데, 4월 26일 삼육대학교 제2과학관에서 알츠하이머 질환 신약 개발의 최근 진보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에서 10명의 연사가 주제발표를 하였고(그림 30), 11월 9~10일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약물 유전체학과 맞춤 약물,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최근 진보라는 두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16건의 연제 발표와 92건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습니다(그림 31). 특히 가을 행사에는 일본 Chiba 대학교의 저명한 Tetsuo Satoh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독성 관련 일본인 학자 3명이 연제 발표를 하여 약물유전체와 맞춤 약물 분야의 발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학회 운영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아 알뜰한 살림을 꾸려야 했기에 장소 물색 등에 임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를 당시 이관순 소장의 배려로 신축한 한미약품 연구센터에서 7월 20일에 열었는데(그림 32), 회의 후 저의 요청에 부응하여 2006년도부터 학술본상 300만 원을, 학술장려상 100만 원을 협찬하여 주시기로 하였으며 이후 2010년부터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협찬하여 주셨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30. 한국응용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삼육대)를 마치고(2006).



그림 31. 추계 한국응용약물학회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2006).



그림 32. 한미약품연구센터에서의 편집위원들과 함께(2006).

그 후에도 한국응용약물학회는 약물학 등 생명과학 분야의 많은 젊은 교수들의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2003년부터 영문지로 전환하다가 2008년도 1호부터 제명을 Biomolecules & Therapeutics로 변경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45대 대한약학회 회장직(2007~2008) 관련 회고

2006년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8월 대한약학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는데, 그 동기는 과거 회장님들이 정년을 앞둔 시점에 회장직을 맡음에 따라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부분이 다소 적고 임원 및 회원들과의 통합적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56세로 그 간의 여러 학회장 경험과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 다수의 국제 학회 참가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경험이 있던 터라 약학 여러 학문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들과도 면식이 많았습니다. 또한 두려웠지만 자신감이 차 있던 상태였고 당선되면 반 학기는 연구년과 겹쳐 회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충남대 배기환 교수님이 출마하여 경합하였는데, 출마 후 선거는 후보 공약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전국 400여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투표하였으므로 전국 20개 약대, 식약청, KIST 등의 방문과 개별 전화를 통하여 출마 인사와 소견을 드리는 데 약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박광식 교수, 정세영 교수, 정재훈 교수, 이범진 교수 등의 많은 협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당선된 후 약 두 달여 공을 들인 부분이 함께 학회를 이끌어 갈 인선이었지요. 학회의 양대 축인 학술과 편집을 맡을 위원장을 모시는 일이었는데,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적임자를 찾는 데 고심한 기억이 납니다. 학술위원장은 가을 학회 기간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 활기가 넘치고 인화력이 뛰어난 김남득 교수를 모셨고, 편집위원장은 당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선도적인 연구력을 갖춘 김규원 교수를 이범진 교수와 같이 찾아가 간곡히 요청을 드려 모신 바 있습니다. 또한 종래까지는 간사장이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하는 구조이었는데,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개정하고 학장으로 재임 중인 손의동 교수를 설득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는 매사 적극적이고 국제 감각과 언변이 좋은 이범진 교수를, 재산관리위원장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뛰어난 박광식 교수를, 사업위원장은 정의감과 진취성, 아이디어 창출 능력이 뛰어난 정재훈 교수, 데일리팜의 전미현 기자, 약사공론 조동환 기자 등 약학계의 많은 인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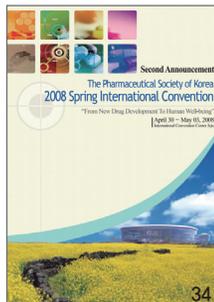
2007년 1월 초 전임 회장이신 김종국 교수님 집행부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은 후 학회에 대한 교수, 학생, 기업의 관심을 끌어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슬로건을 만들어 홈페이지나 각종 문서, 포스터 등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랑스러운 약학 기술인은 연구 개발을 진작하여 제약강국에 공헌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이었습니다. 전임 회장님의 노력으로 학술대회의 규모나 위상 제고를 위해 서울교육문화회관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지요.

저는 2007년 초부터 2년간 봄, 가을 정기 학술대회 4곳을 선정하여 안내하였는데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서울교육문화회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하였습니다. 약학 중심 학회의 일정을 일찍 게시함으로써 관련 학회들의 행사 일정 조정이나 회원들의 학회 참가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와 제주 대회는 사전에 10여명의 임원들과 같이 광주시장, 제주도지사를 만나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린 바 있지요. 학술위원회를 청주에서 1박 2일로 개최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학술 간사였던 충북대 홍진태 교수의 극진한 지원과 협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회의 국제화 전략의 첫 단계로 일본약학회와 2007년 3월 교류 협정을 맺었는데 당시 상임부회장을 자처하던 정세영 교수가 일본약학회장이던 규슈대 약대 Hideo Utsumi 교수와 적극적인 통화를 한 결과 상호 MOU 안이 성사되었습니다. 정세영 부회장, 이범진 총무위원장과 함께 규슈대를 방문하여 서명 절차를 밟았는데



33



34



35

그림 33. 규슈대 약대에서 일본약학회장(Hideo Utsumi 교수)과의 PSK-PSJ MOU 체결 장면(2007).

그림 34. 2008년 대한약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2차 안내문 표지.

그림 35. 2008년 제주 춘계학술대회 만찬장에서의 제주 전통 공연 장면.

(그림 33), 대학 소개와 거점연구센터 설치 등 의욕적인 활동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봄 학술대회는 약학회 사상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하였는데 분과 및 위원회 세션 이외에 제주 출신인 정재훈 사업위원장의 제주 세션 개설, 제주도 후원의 갈라디너 등 18개의 세션으로 우려와는 달리 1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그림 34, 35). 이때 특강 연사로 당시 FIP 회장인 Kamal K. Midha 교수를 초청하였는데, 이는 2007년 약학회가 그 지평을 국제화한다는 목표 아래 FIP 단체 회원 가입이 성사되어, 언젠가 대한민국도 FIP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 홍보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특강 연제는 “Drug Product Quality Assessment and Global Regulatory Harmonization”이었는데, 오늘날 약전토론그룹(PDG)과 ICH의 품질 부문에서 활발히 국제 조화시키는 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 가을 학술대회에는 20개 세션으로 구성하고 특강 연사 한 분은 2007년 일본약학회와 MOU 체결에 따른 제1차 일본약학회장의 교차 초청으로 동경대 교수인 Tetsuo Nagano 회장을 초청하였는데, 특허청 박정민 박사가 달려와 자기 지도교수였다고 반가워한 적이 있네요. 특강 연제는 “Development of Bioimaging Probes Based on Rational Molecular Design and Its Biological Applications”이었습니다.

대한약학회 역량의 학문적, 지역적, 국제적 지평을 넓히고 한국의 약계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여러 가지 전 임원들과 함께 노력하였는데 그 주요 성과물을 회상해 보면 다음 [표-1]과 같습니다.

어느덧 회장 1년 반이 지나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집행부 부회장들과 임원 여럿이 연임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연임을 위해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정관상 단일규정이 없던터라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 후 출마를 염두에 둔 교수님의 참모진 측에서 이사회를 통과한 수석 부회장 제도 도입 관련 정관 개정 및 연임 이슈에 대해 많은 항의와 명예로운 퇴임 요구 등이 있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약학회장은 관례에 따라 서울대 약대 교수 중에서 회장을 맡으면 다음번 회장은 비서울대 인사 중에서 출마하는 전례가 있으므로 다음 회장은 서울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요. 역대 회장의 역사를 보면 사실이

[표-1] 제45대 대한약학회(2007~2008) 활동상

1. 가송 약학상 제정
 2. 신약기술개발대상 제정(상패, 금 한 냥)
 3. Springer사 전자출판 협약
 4. 학술지 SCI 등재를 위한 TF 구성 및 세계적인 연구자 논문의 특별호 발간
 5. 회원 명부 발간 (문애리 회원위원장)
 6. 산업약학분과학회 창립
 7. 약료경영분과학회 창립
 8. 약학용어위원회 신설
 9. 세계약학연맹(FIP) 공식 회원단체 가입
 10. 일본약학회와 교류협정 체결
 11. 학회 홍보 동영상 제작(국·영문)
 12. 신약정보 제공을 위한 동영상 강좌 실시
 13. 약학 용어집 초판 발행
 14. 미래 후학의 약학입문을 위한 “나의 미래공부 약학편” 발간
 15. 약학인의 노래(허문영 작사) 2000개 CD 제작 및 배포
 16. 대한의학회와의 공동 세션 구성 및 운영
 17. 학제 개편 및 약계 위기 대응을 위한 “PharmWorld Forum” 개최
 18. 대국민 제약산업발전 홍보 TF 구성 등
 19. 영문지와 국문지의 편집위원장 분리
 20. 교육위원회 신설
 21. 호남지부 창립(초대 최후균 지부장)
-

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번 식 회장 출마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이므로 누구든지 뜻이 있는 분이든 어느 대학이든 어느 분이든 출마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저는 재출마를 사퇴하면서 선거공고를 하였지요. 그 결과 서울대 김영중 교수님과 당시 부회장이던 충남대 정상현 교수님이 출마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서울대/비서울대 형태의 순번 식 출마는 누구도 말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11월 하순, 회무를 정리하면서 희망하는 임원들과 중국 계림으로 마지막 연수를 다녀온 후 1억 원의 약학회관 건축기금, 2천여만 원의 정기예금 총당, 업무 인수인계 등을 마지막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관련 회고

이 학회는 2003년 2월 심창구 교수, 권경희 박사, 이정석 국장 등의 노력으로 ‘일반 의약품 연구회’로 발족되어 같은 해 9월 ‘한국약사제도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태동기에는 식약청 사업 및 규제 관련 워크숍 개최 등 기반 조성을 하여 오다가 2004년 12월에야 ‘한국의약품법규학회’로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메릴랜드 락빌에 소재한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RAPS)라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규제 전문가 협회가 국내외 많은 챕터를 두고 연차 회의, 워크숍, 규제 전문 도서 발간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특히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RAC(Regulatory Affairs Certification: 규제 전문가 인증서)을 발급하는 등 규제 전문가 교육 및 양성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서 2005년 1월 2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고 심창구 교수님을 초대 회장(2005~2006)으로 하는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규제 과학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의 규제 관련 워크숍, 총회 및 학술대회가 2008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의약품법규학회지 제1권이 연 1회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의약품법규학회를 주관기관으로,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식약청 용역연구로 「의약품 허가신청 업무 등 수행전문인력(약무사) 양성에 관한 연구」를, 2009년에는 (사)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등 수행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를 당시 권경희 박사후 연구원과 함께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제학회의 규제 전문가 양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 참여와 성과는 오늘날에 이르러 식약처의 지속적인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지원과 2021년 7월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연구원의 설립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회상해 봅니다.

저는 대한약학회장의 임기와 동시에 제2대 회장 심창구 회장 시절 수석부회장을 거쳐 제3대(2009~2010) 및 제4대(2011~2012)에 걸쳐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3대에는 부회장단 및 이사진과 더불어 오기완 교수를 수석부회장, 정재훈 교수를 사무총장, 이범진 교수를 학술위원장, 이용복 교수를 편집위원장, 박광식 교수를 재무위원장, 제도학술위원장으로 의약품 분야에 이정석 박사, 의약품승인전 김인규 박사, 의약품승인후 윤명선 박사, 화장품 이명규 님, 의약외품 김성이 님, 건강기능

식품 김창민 님, 의료기기 박전희 박사 및 각 분야의 많은 간사로 제3대 집행부를 구성하여 종암동 홀리데이인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권경희 총무이사로부터 업무 인계가 다소 늦어지면서 봉천동 어느 오피스텔에 있던 학회 사무실을 6월경에야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상가동 201호로 이전하면서 사무직원으로 김래연 님을 채용하였는데 몇 개월 후 그만둠에 따라 동덕여대 무용과 조교였던 김한나 님을, 이후 저의 연구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정윤경 연구조교를 채용하고, 후반부는 정재훈 교수의 추천으로 정현숙 님을 채용하여 4년간 회무를 추진하였지요. 정윤경 님은 퇴사 후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취직하였다가 정재훈 교수의 추천으로 2012년 4월 대한약학회에 취업하여 오늘날까지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 흐뭇한 느낌입니다.

제4대에는 황성주 교수를 수석부회장으로, 류종훈 교수를 사무총장으로, 노민수 교수를 학술위원장으로, 이용복 교수를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박광식 교수를 재무위원장, 제도학술위원장으로 의약품 전 분야에 김선희 심사부장, 의약품승인전 김인규 규격연구과장, 의약품승인후 김주일 심평원 상임위원, 화장품 이명규 님, 의약외품 김성이 님, 건강기능식품 하석현 국장, 의료기기 김성민 교수 및 각 분야의 많은 간사를 영입하여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학회명 ‘의약품법규학회’로는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포괄할 수 없고 의약품 이외의 참여자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학회명 개칭에 대해 많은 토론과 최종 이사회를 거쳐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 2010년부터 공식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에프디시(FDC)는 미국의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식품, 의약품,化妆품을 아우르는 영문 첫 글자를 딴 포괄적 명칭으로, 법제는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합친 말로서 법규(사전적 의미: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 있는 법 규범), 규제(사전적 의미: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에 관한 명칭도 고려하였지만 관련 법과 제도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지요.

2010년부터 학회지 명칭은 『FDC 법제 연구』로 하였는데, 2009년부터 논문 투고를 꾸준히 독려하였으나 1, 2호 통합권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하였는데 매 권마다 10~12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학술대회 프로시딩은 어느 학회 못지않게 풍부하였지만 과충의 학술지 지원을 받기 위해 류종훈 사무총장과 같이 신청해 보았으나 연간 20편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학회의 역할 강화와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위해 학회를 주관기관으로,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이성체, 전구체, 구강붕해정, 첩부제, 면역억제제」 연구를, 2011년에는 「식·의약·의료기기 관련업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09~2012년 기간의 학술행사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세션을 가지고 춘·추 연 2회 주로 서울그랜드호텔에서 1~2일간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수출 전략」을 대회 주제로 하여 4차에 걸친 학술행사를 치렀는데(그림 36), 본인의 발표를 포함하여 학술팀과 권경희 교수 등의 적극적인 연제 및 연사 섭외를 통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의약외품 존슨앤 존슨의 김성이 부장, 화장품 엘카 코리아의 문영심 이사, 중앙대 법대 김중권 교수, 의료기기 분야의 동국대 김성민 교수, 김영 사이넵스 사장 등 많은 분들의 공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림 36. 호암교수회관에서 의약품법규학회 국제학술대회를 마치고(2009. 6.).

또한 법제학회의 규제 과학 등 교육 프로그램, RAC 및 학술행사 등의 요소들을 벤치마킹하여 그 지평을 넓히고자 권경희 부회장의 열정으로 미국 RAPS의 Sherry Karamidas와 2009년 말부터 교신하여 2010년 2월 MOU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5월 27일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Globalization and Perspectives of Regulatory Affairs o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주제로 Keramidas 박사의 기초강연을 시작

으로 의약품 3세션, 생물의약품 1세션, 의료기기 2세션을 성공적으로 열고, 소셜 이벤트로 초청 연사들과 제주 여행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기회도 있었습니다(그림 37, 38). 2010년 10월 24~27일에는 산호세에서 열린 RAPS 정기회의(2010 RAPS Annual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석하여 규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크쇼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산호세의 한식당에서 권경희 교수, 김영 사이넥스 사장 등과 육질 좋은 등심에 감탄하고 인근 한국식 노래방도 방문한 추억이 그림기도 합니다. 2011년 10월 22~26일에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RAPS 정기회의(2011 RAPS: The Regulatory Convergence)에 참석하여 RAPS 집행부와의 인적 교류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지요(그림 39).



그림 37. RAPS와의 MOU 체결 기념 심포지엄을 마치고(2010. 5.).



그림 38. 법제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자인 Sherry Karamidas 박사와 함께(2010. 5.).



그림 39. 인디애나폴리스 RAPS 정기회의의 중 집행부와 함께(2011.).

2012년 4월 19~21일 대한약학회(회장 정세영 교수) 주관으로 ICC 제주에서 열린 약학연합국제학술대회에 우리 학회가 두 세션을 맡아 참여하였는데(그림 40), 세션 I(Strategy for Sustainable Pharmaceutical Business in Korea)에서 RAPS의 Sherry Karamidas 박사의 「한국에서의 규제 전문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고, 일본의 약가제도(후쿠야마 마사시), 헬스 케어산업 투자 가치 상승(이승호 박사), 한미 FTA 시대에서의 특허 분쟁과 대응(박금남 변호사), 국내 신약개발의 글로벌화(여재천 상무) 등의 연재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션 II(의약품 규제의 국제 조화)에는 의약품 규제의 글로벌 경향(템플대 Albert Wertheimer 교수), 글로벌 제약사의 시장 전략(RAPS의 Cecilia Kimberlin),



그림 40. 2012년 4월 약학연합국제학술대회 법제학회 자료집 표지

APEC 의약품 규제 조화(박귀례 센터장), 의약품 인허가제도 규제 조화(흠킨스 바이오의 이해정 박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의 국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는 10월 12일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GSK 오춘경 박사를 특강연사로 하고, 의약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영역의 총 8개 세션으로 많은 분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는데, 총회에서는 우수 포스터 발표자 시상식을 갖고, 황성주 교수를 차기 제5대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제품 분야의 산관학연의 많은 규제 전문가분들을 만나 규제 과학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심에 영광스럽고 다행이었다고 회고해 봅니다.

박: 정말 대한민국의 주요 학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공로가 대단하였음을 다시한 번 느끼게 됩니다. 학회발전과 함께 2000년 들어 약학대학 학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PEET 시험을 치러 입학생을 선발하던 편입학 형식의 6년제가 약 10년간 지속되었고 고등학생을 선발하는 통합 6년제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과정 중에 교수님께서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회고를 부탁드립니다.

- 6년제 약학교육선진화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회고

전인구: 법제학회를 맡던 중에 2009년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약대 입학정원(2008년 기준 1,210명)을 시·도로 배분하여 390명 증원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항의하여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서영거 회장 등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지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2009년 7월~12월)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고, 부위원장으로 김대경, 손동환, 우미희, 이복률, 정재훈, 황성주 교수를 선임하여 7월 15일 10시 30분에 정원 조정안 철회 및 정원 재조정 촉구를 위한 전국 약학대학 교수 총결의대회를 약사회관 강당에서 연 적이 있습니다(그림 41). 이 대회에서 본인의 경과보

고와 더불어 약사 역할과 인력 수급 방안 (황성주 부위원장), 6년제 약대의 최소 정원 확보의 타당성(손동환 부위원장),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핵심 변화(전인구 위원장)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황성주 교수는 발표에서 우수 약사 및 제약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차제에 대학 당



그림 41. 2009년 7월 복지부의 390명 증원 발표 철회를 위한 전국 약대 교수 총 결의대회 장면.

80명 이상의 정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대한약사회에서는 정원 조정안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었지요. 이 결의문과 발표 철회 및 정원 재조정 요청 공문을 7월 27일 복지부에 전달하고 부위원장단과 같이 항의 방문을 몇 차례 한 적이 있고 청와대 교육 수석 면담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끝내 약교협과 비대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원 재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18개 약대가 30명 정원의 영세 약대로 남게 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박: 아울러 약학대학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약학교육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약학교육평가원의 초대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약학교육평가원은 설립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제가 산적하였었는데 당시에 그 산고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약학교육평가원 관련 회고

전인구: 2010년 7월 1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초대 이사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가 공식 출범한 이후 약학교육평가인증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교협의 주관 하에 평가인증기구의 설립을 위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10월 24일, 35개 약학대학장과 약교협 상임이사 2인이 (가칭)한국약학교육평가원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그림 42). 총회는 정관을 승인하고 창립추진 위원장으로 약교협 이사장이었던 김대경 교수를 선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이사 선임과 설립 기금 마련, 향후 재단설립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진위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2일 초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3년 임기의 초대 이사장으로 본인이, 원장으로는 서영거 교수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림 42. 가칭 (재)한국약학교육평가원 창립대회 장면(2011. 10.).

이를 기념하고, 약학교육 평가 및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 평가원 설립기념 심포지엄이 12월 28일, 중앙대학교 102관에서 전국약대 교수 및 약학교육 관련자들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평가원 이사장의 개회사, 약교협 이사장의 축사를 서두로 서민원 대학교육평가원장과 이정애 의평원 인증기준위원장의 발표와 더불어 약학교육 평가인증제 준비 현황에 대해 분야별로 정재훈 교수, 임재운 교수, 이숙향 교수, 나영화 교수, 오동찬 교수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이 2012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평가원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주관하지만, 평가원의 모든 실무는 원장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원장과 상임이사 겸 기획운영단장 정재훈 교수 및 교육평가단장 이희순 교수, 박혜영 교수 등이 7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고 회의 운영, 재단법인 설립 추진 등 바쁜 일정이었지요. 2012년부터 사무실은 약교협 김대경 이사장의 배려로 서초대로에 위치한 오피런스 빌딩의 약교협 사무실(801호 및 802호)의 일부(약 5평)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전의 임시 사무실에서 이전하였고, 조혜정 사무직원 인건비, 집기 구입 및 사무실 운영 등 초기 운영자금은 약교협이 지원하였기에 재정적 어려움은 없었지요.

특히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약정 및 약교협 출연 등에 의한 설립기금 3억원 마련, 전국 35개 약대학장들의 발기인 서명, 복지부 사전검토에 따른 수정 정관 등의 요건을 준비하여 복지부에 재단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발기인 서명 서류의 준비로 신청서 제출이 지연되는 사이에 설립기금에 관한 지침이 변경되어 보건복지부 내 재단법인 설립기금이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설립신청서가 반려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설립 자금 추가 확보와 평가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하느라 분주하던 2013년 정진호 약교협 이사장 시절, 약교협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면서 약교협의 약평원 지원금이 PEET 응시료의 일부가 아니냐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원금 중 잔여금 전액을 약교협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 설립 자금 마련과 평가원 운영에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죠. 2015년 제2대 정세영 원장(2015~2017)이 취임하였고 저는 이사장직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범진 약교협 3대 이사장까지는 약평원 운영과 발전을 위한 약교협의 지원(회비재원으로)이 유지되었으나, 2016년 3월 정규혁 교수가 약교협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약교협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무 공간을 제외한 지원은 단절되었고 공유하던 회의실의 사용도 금지함은 물론 사무 공간 사용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급기야 교육부의 현장점검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2일 정규혁 이사장은 사용하던 802호 사무실을 5월 31일 안으로 비우라는 퇴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요청을 수용하여 약사공론 조동환 국장의 배려로 컴퓨터와 서류만 챙겨 약사공론의 작은 회의실로 이사하여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버티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약학교육 평가 기틀을 마련하고자 [표-2]와 같은 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2013년 3월에는 약학대학 평가 인증 편람을 공시하고, 12월에는 지역약국 평가 인증을 시행하여 실무실습 기관으로 81개 약국을 인증하였으며, 2014년에는 3회에 걸쳐 41개 약국을 교육기관으로 인증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2대 정세영 원장(2015~2017)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15년 5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약학대학 시범적인 평가 인증을 시행하여 경북대, 충북대, 서울대를 인증하고, 5개 약국을 인증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절차는 평가위원 워크숍, 시행 공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워크숍,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인증판정, 인증서 수여식의 순으로 이루어져 많은 평가 위원들과 평가원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수고한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도에도 인증 평가를 시행하여 부산대와 아주대를 인증하고 39개 약국을

[표-2] 2012~2017 약학교육평가원 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 행사 내용

일시	장소	주제	비고
2011. 12. 28	중앙대학교 102관 대강당	약학교육평가원 설립기념 심포지엄	7건 발표 (좌장: 천문우, 문창규 교수)
2013. 1. 30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금홀	약학교육 평가인증체계와 기준	약교협과의 공동 심포지엄, 6건 발표
2013. 12. 1	약사회관 1층회의실	2013년도 지역약국 평가인증 평가위원 워크숍 및 서면 평가	교육평가단장 기획운영단장
2015. 5. 21	약사회관 대강당	약학교육 평가·인증과 약학교육 선진화	8건 발표
2015. 8. 28	숙명여대 약대 B121	2015년도 약학대학 평가인증 평가 설명회 및 평가위원 워크숍	7건 발표 및 토론
2016. 2. 28	숙명여대 약대 B142	2016년도 약학대학 평가인증 평가 설명회 및 평가위원 워크숍	6건 발표 및 토론
2016. 6. 10	약사회관 대강당	실무실습교육의 선진화 전략	6건 발표
2017. 9. 28	제약협회 2층 K-room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제약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인증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해 6월과 2017년 2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하는 한편 12월에는 한양대의 평가 인증이 있었습니다.

약교협의 일부 인사들이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평원 활동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면서 집행부 임기의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어느 대학도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우수한 사무원도 이직하였습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자구노력을 하였지만, 그 수익으로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임원들이 자금을 각출하여 12월말 임기 종료 시점까지 운영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인의 이사장 임기가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7년 12월 들어 정관에 따라 이사진(약교협,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추천, 당연직 포함: 강봉윤, 김재연, 명창선, 문애리, 방재범, 양덕숙, 엄승인, 육순홍, 이기선, 이은숙, 이의경, 임종보, 정경혜, 정규혁, 조동환, 한균희, 한상범 이상 17명, 존칭 생략)을 제16차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고자 2018년 1월 15일 약사회관 약학정보원 회의실에서 제17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약사회로

부터 약평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재단 법인화 등을 위해 조찬회 약사회장의 이사장 겸임과 교수의 원장 보임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이 상정되어 이의 처리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정관 개정이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차기 임원 선출 어느 것도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결국 약교협, 약사회 및 약평원이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기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현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에 따라 사무직원과 함께 약사공론 사무실 한 칸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약사회나 관련 단체들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기까지 약평원의 짐을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권혜진 사무직원의 노동 고용부 고발로 직원의 5개월간 인건비와 건강보험료를 이사장 홀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고, 결국 사비로 청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제18차 회의를 거쳐 7월 제19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원장, 상임이사가 선출되자 정세영 원장은 본인의 참석하에 신임 박영인 원장에게 업무인계를 마침으로써 다사다난했던 6년간의 약평원을 뒤로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와 양보 그리고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기도 하였지만, 재정 지원이 없는 가운데 평가원이라는 숭고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서영거 원장과 정세영 원장 그리고 정재훈 상임이사, 이희순 및 박혜영 평가 단장, 그리고 평가원 사업에 열성을 다해준 많은 학장님들과 약대 교수님들이 있었기에 평가원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 약평원 설립을 위해 애쓰셨던 교수님의 모습을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돌이켜 보면 약계의 협력이 많이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정년 시기에 2017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으로도 봉사하셨는데, 그간의 경과와 더불어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2017 FIP 서울총회 관련 회고

전인구: 2016년 1월 방콕을 여행하던 중 모 인사로부터 FIP 서울총회(Seoul 2017 FIP World Congress) 조직위원회(Local Organizing Committee, LOC) 확대 개편을 위해 LOC 위원장 초빙에 대한 공개 모집 공고문이 조찬회 대한약사회장 및 손의동 대한약학회장 공동명의로 1월 28일자 공고되었다고 지원을 고려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홍명자 박사를 주축으로 하는 자원봉사단 고문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고, 정년을 1년 반 가량 남겨둔 상태라 고심 끝에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마감날인 2월 5일 제출하고 중순경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임되었는데, 약사회측 LOC 위원장의 필요성으로 백경신 박사와 공동 LOC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지요. 물론 무보수 봉사이었습니다.

제77차 FIP 서울총회는 2008년 약학회장 시절 약학회의 국제화를 위해 FIP 회장인 Midha 교수를 제주 국제학술대회의 특강 연사로 초청한 것으로 하여, 그해 9월 FIP 학술단체 회원 가입을 계기로 스위스 바젤 총회에 참석하여 Midha 회장, Crommelin 교수, Vinod P. Shah 박사 등에게 서울총회를



그림 43. 스위스 바젤 FIP 총회(2008. 7. 29.~9. 4.)에서 FIP 집행부와 같이(왼쪽부터 이범진 교수, 본인, Vinod P. Shah 학술간사, FIP 회장인 Midha 교수, BPS 의장인 Daan Crommelin 교수).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그림 43). 그 후 BPS 임원 등의 한국 방문, 김영중, 정세영, 서영거, 손의동 약학회장 및 홍명자 박사를 위시한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 백경신, 고안나, 손혜리, 장말숙 등 많은 약사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용철순 교수, 주상훈 교수, 이범진 교수 등이 거의 매년 FIP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FIP 총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Korea Booth 설치, Korean Night 개최 등 자원봉사자로서의 열렬한 홍보 활동을 해오던 터였습니다.

특히 2012년 10월 초 정세영 약학회장은 암스테르담 FIP 100주년 총회 기간에 Korea Booth를 통한 홍보,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한국의 밤을 개최하고 오유경

교수의 서울 소개,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의 제약산업 소개 등 적극적인 한국 홍보의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림 44). 2013년 조찬회 약사회장의 참석하에 더블린 총회에서 서울총회를 합의하고, 2014년 9월 전 세계 95개국에서 1,938명의 약사와 약학자가 참가한 방콕 총회에서 서울총회 개최를 최종 승인받은 바 있었지요.



그림 44. 2012년 FIP 100주년 기념 암스테르담 총회 시 Korea Booth에서 서울총회를 지원하는 약사님들과 교수들과 함께.

서울총회가 확정되자 3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정세영 교수와 백경신 박사를 제1기 조직위원장으로 하여 소규모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FIP 측과 LOC 간의 역할 분담, 예산 확보, 서울총회 로고선정, 100여 개 국가의 약사 및 약학자들의 서울총회 참석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조직위와는 별도로 홍명자 약사를 단장으로, 성수자 약사를 대표로 하는 자원봉사단이 조직되어 2015년 6월 18일 약사회관에서 발대식을 봉사단 선언문 낭독과 더불어 개최하였는데 50명의 개국약사 등이 참석하여 서울총회의 성공을 결의하였지요. 발대식에는 FIP 회장인 Carmen Peña, 사무총장인 Luc Besançon이 LOC와 협의차 방한한 터라 발대식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세영 LOC 위원장 및 서울시약사회 등 80여명의 사절단 중 자원봉사단 고문 자격으로 2015 뒤셀도르프 총회(9. 29~10. 3, 주제: Better Practice-Science Based, Evidence Driven)에 참석하여 서울총회 홍보용 어깨띠를 걸고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림 45). 지역약국 분과 모임에서 각 나라 약사들이 차례로 나와 노래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는 독일민요(제목: Mein Vater war ein Wandersmann)를 부른 기억이 나네요. 이를 위해 홍명자 약사의 명령으로 출발 몇 달 전부터 늦은 시간 10여 명의 약사들이 노래방에 간간이 모여 음반에 따라 노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도 점심시간대에 강가에 모여 노래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호텔 숙소에서 성수자 약사가 가방을 도난당하는 사고로 여권을 재발급하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연하장을 만들어 FIP 100여 개국 대표들에게 홍보 인사를 보내기도 하였지요.



그림 45. 2015 뒤셀도르프 총회에서 어깨띠를 걸고 홍보하는 모습.



그림 46. LOC 출범식 단체 사진(2016. 4.).

제2기 LOC 위원장으로서 2016년 3월부터 조직위의 역할에 따른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부회장 등 12개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위원 등 103명을 선정하여 4월 20일 조직위 출범식과 공동 대회장 명의의 위촉장을 증정한 데 이어(그림 46), 5월 16일에는 조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공동 대회장은 개최국의 대표로서 대회 시점의 대한약사회장과 대한약학회장이 됩니다. 조찬회 대한약사회장(2013. 03~2019. 03)과 손의동(2015~2016) 및 문애리(2017~2018) 회장이 LOC 대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LOC 회무를 시작하기 위해 손의동 약학회장의 도움으로 약학회 사무실 한 칸에 사무실을 꾸리고, 약사회와 약학회로부터의 재정 지원 요청, 약사회 등 총무팀의 지원 이후 나지혜 사무직원 공개 채용, LOC 이메일 개설, LOC 현판 제막식(4. 20), 2차 차에 걸친 공고와 서류심사 등을 통한 PCO로 MCI Korea 선정(7. 17), 재정 지원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간담회, LOC 공식 홈페이지 오픈(2017. 2. 1), 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에서의 서울총회 참가 홍보(2017. 2. 15), 서울시장 면담(2017. 4. 4), FIP 본부측과의 미팅, 조찬회 약사회장 및 LOC 공동 위원장의 국회 여당 및 야당 주요 인사 면담 등으로 일거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LOC의 주요 책무는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국내외 서울총회 홍보, FIP 집행부 및 council member에 대한 초청 리셉션 개최, 총회 개막식 주관, 참가자 및 고위 공직자 등 초청 환영 리셉션, 폐회식 연회, 600개의 포스터 장소 제공, FIP 부스 제공, 등록 백

제공, 학생봉사대원 30명 추천 및 유니폼 제공, 중요 세션의 동시통역 제공, 500명 이상의 국내 참가자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LOC 자체 기획의 한국 약학 I 및 II 세션, 3개 주제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각 세션의 프로시딩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 세션 및 기자 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FIP 전체 세션에 대한 51개 세션의 프로그램 북을 Topic A, B, C, D, E 별로 각각 본인, 용철순, 유봉규, 홍송희, 이미옥 교수가 분담 번역하여 국내 약사 및 약학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국문판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총회의 성공은 한국의 홍보와 다수의 국외 참가자 확보에 있음을 감안하여 [표-3]과 같은 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홍보 브로슈어 및 기념품 증정, FIP 회원 단체에 영문 초청장 발송 등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시·도 약사회 학술대회, 대구 팜엑스포, 약학회 등 춘추 학술대회에서의 부스 홍보는 물론 전문지 홍보, 전국 약사 대상 홍보 포스터 배포, 다수의 기자 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약사회를 초청하고자 FIP 본부를 통하여 시도하였는데, 남북한 정세 불안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홍보 과정에서 각종 브로슈어, 엽서, 포스터 제작, 2017 FIP 서울총회 백서의 편찬 등은 제자인 정유리 약사의 탁월한 디자인 감각과 FIP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란 점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9월 10일부터 5일간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총회는 인터콘티넨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환영식이 유수연 교수와 명창선 교수의 사회로 성대하게 개최되었고(그림 47), 1500명 이상이 모인 리셉션을 서막으로 하여 서울총회가 “Medicines and Beyond! The Soul of Pharmacy”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워커히 호텔에서의 폐막식에서 레드벨벳 등 가수의 출연 등 폐막 행사와 더불어 FIP기를 차기 개최국인 스코틀랜드로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그림 48), 총 참가자 수는 97개국으로부터 외국인 2,009명, 내국인 600명, 총 2,609명으로 어느 FIP 총회에 못지않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도 FIP 산업약학 분과의 Michael Anisfeld 회장과 한국약제학회 황성주 회장의 협조로 “QbD 적용 GMP 실사 사례와

[표-3] 일정별 주요 홍보 및 활동 내용

일시	홍보요원 및 장소	홍보내용
2016. 7. 17~18	조직위 5명, 아시아임상약학회(세종대)	부스 홍보, 영문 브로슈어 및 기념품 증정
2016. 8. 28~ 9. 1	조직위 등 32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아르헨티나)	부스 홍보, KPA-PSK 세션 개최, 코리안 나이트 개최, 현지인 풍물패 공연, 약국 분과 리셉션에서의 La Bamba 합창, 각종 배너 제작, 영문 브로슈어 및 기념품 증정, FIP 고위인사 및 한중 대표자 면담, FIP기 서울 인계
2016. 11. 7~8	조직위 등 13명, 난징 약무·약학 교육 국제회의(중국 난징)	부스 홍보, 영문 브로슈어, 엽서, 연하장, 책갈피 등으로 홍보
2016. 11. 8~13	약사회, 서울시약, 조직위 등의 참가단, 2016 아시아약학연맹(FAPA) (방콕, 태국)	부스 홍보, 어깨띠 홍보, 영문 브로슈어, 엽서, 연하장, 책갈피, 기념 촬영 등
2017. 3. 24~27	문애리 약학회장, 일본약학회 137회 연차 총회 참석(일본)	2017 서울총회 참가 독려
2017. 3. 24~27	홍명자 약사 등 3인, 미국약사회 샌프란시스코 총회 참석(미국)	2017 서울총회 참가 홍보
2017. 5. 21	정혜린 약사, 러시아 모스크바약학회 방문	초청장과 선물, 브로슈어 전달
2017. 5. 21~24	본인과 황성주 교수, 현지 김수산, 임예솔 도우미, 스톡홀름 PSWC(스웨덴)	FIP 부스에서 공동 홍보, 어깨띠 홍보, 영문 브로슈어
2017. 7. 3~4	공동대회장 및 공동 LOC위원장, 장석구 기획본부장: 중국약학회 예방(베이징)	중국 약사 및 약학자의 서울총회 참가 독려



그림 47. 2017 FIP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공동 대회장과 공동 LOC 위원장 소개(사회: 유수연 교수와 명창선 교수).



그림 48. 서울 총회 폐막식에서 FIP기 전달식(왼쪽부터 FIP 회장, 공동 대회장 및 공동 LOC 위원장, 스코틀랜드 약사회장).

최신 개량 신약의 등록 사례”를 주제로 한 Post-FIP 2017 IPS-한국약제학회 제제기술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공포, 아베 신조의 방한 자제 등 정치 불안과 내부적으로는 약사 사회의 극심한 내홍으로 인한 약사들의 행사 불참 분위기 고조 등의 역경 속에 일궈낸 성과임을 생각할 때 조직위원과 자원봉사자, 전문지 언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 못지않게 대회 기간 중에는 학생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빛났습니다. 영어 소통이 가능한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차에 걸쳐 선발한 106명의 봉사자는 2차에 걸친 워크숍과



그림 49. 2017 서울총회 지원을 위해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자원봉사단 워크숍을 마치고.

MICE 교육, 자원봉사자 선서식, 5개 팀별 교육 및 업무분장을 마치고 현장 지원 업무에 투입되어 6일간 고된 작업도 마다않고 협심하여 봉사하였지요(그림 49). LOC 지원팀 77명은 노란색 티셔츠를, FIP 본부 지원팀 29명에게는 파란색 티셔츠를 제공하여, VIP 공항 영접, 등록대 접수 및 관광 지원, 학술 세션 지원, 전시장 등록 및 안내, 한복 차림 포토존 지원, 한복 차림 국외 원로 회원 창덕궁 안내 및 삼청각 중식 안내, FIP Fun Run, YPG Event, Career Opportunity Seminar(제약산업 분과, 숙대 약대 강당), 한독약품 공장 및 박물관 방문, 유나이티드 제약 음악회 및 만찬 등 공식 행사와 부대 행사 지원, 사진 촬영, 기자실 통역, 5회에 걸친 영자 신문(Daily Seoul FIP News)의 초안 작성, 휴게실 음료 및 다과 준비, 15,000명의 생수 행사장 배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일사분란하게 해냈습니다(그림 50, 51). 이를 총괄 진행한 김상찬 청년약사위원장과 전체 기획을 담당한 아주대 최태진 학생의 눈부신 활약상이 자랑스럽습니다.

서울총회가 끝나고 2017년 12월 1일 오후 6시 조직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셀레나홀에서 해단식을 가졌는데, 공동대회장과 공동 LOC



그림 50. 2017 서울 총회 기간 제약산업 진로 세미나 (숙명여대 약대 강당) 후 FIP-IPS 요원들과 참가한 약대생들.



그림 51. 2017 서울 총회 기간 유니াই티드 제약 초청 FIP 제약산업 분과 회원들과 함께.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후원사에는 감사패를, 조직위원에게는 공로패를 LOC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였습니다.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와 회계 결산보고를 마지막으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세계대회를 치르고 나니 과거 FIP 참가 경험, 서울총회의 유치 과정과 LOC의 홍보 등 각종 활동, 대회 기간 중의 각종 공식 및 부대 행사, 학술행사, 부스 전시 이모저모 등의 상세한 내용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해단식 이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준석 교수를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본인과 백경신 박사, 나지혜 사무국장, 정유리 약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간의 기록과 자료를 수합하여 많은 편집회의와 수정 검토를 거쳐 『2017 FIP 서울총회 백서』를 ㈜에스오앤컴퍼니에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한국 약학의 국제화 이면의 숨은 열정을 볼 수 있으며, 약학인들의 동질성과 무한한 능력 그리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며, 장차 약무, 약학이 국민 건강을 위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백서는 2018년 9월 2~6일에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78차 글라스고 총회에 참석하여 9월 5일 1시 15분 Scottish Event Campus, FIP 회장실에서 FIP 본부에 전달하여 후일 세계 여러 나라의 개최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끝으로 조직위원장으로서의 2년여에 걸친 짐을 내려놓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그림 52, 53).



그림 52. 2017 FIP 서울총회 백서(A4, 350쪽) 표지.



그림 53. 2018년 9월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2017 서울총회 백서를 전달하는 모습(앞줄 왼쪽부터 조찬휘 약사회장, FIP 당시 회장 Carmen Peña, 차기 FIP 회장 Dominique Jordan, 문애리 약학회장).

진행: 약업계의 드라마를 시청하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의 퇴임 기념식이 필수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요즘은 세태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거의 별도의 퇴임식을 하지 않은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퇴임식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임 외에도 그동안 활약하신 학계뿐만 아니라 약업계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 특별한 행사로 기억됩니다.

- 퇴임기념 송년의 밤

전인규: 2017년 8월 31일 정년이 되면서 몇 달 전부터 연구실의 산적한 각종 학회지와 정보지, 프로시딩, 참고도서, 교재 등을 사료로 가치가 있는 것은 동덕 춘강도서관, 서울대 약대 약학역사관, 약학회, 약제학회, 법제학회, 한독의약박물관 등으로 보내도록 하고 각종 연구보고서, 서류철 등은 다수 폐기하였습니다. 개인 가구나 집기, 환등기 등은 후배 교수 또는 의약품 품질연구재단에 기증하는 것으로 하여 정리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전문 서적 등은 가평 주택과 정릉 아파트로 나누어 옮겼지요. 정년 시점이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및 9월 1일부터 맡게 된 (재)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회장의 직무와 겹쳐 정년이 오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서울총회가 끝나고 나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 그간 대과 없이 지내 온 것은 많은 분의 격려와 도움의 덕택이라 생각하고 정년퇴임 기념 송년 감사의 밤을 12월 19일 오후 6시에 더 라빌 2층 에머랄드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초청 인사들과 제 처를

비롯한 두 딸 내외 그리고 친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 기념식, 제2부 축하, 제3부 만찬의 순으로 진행하였는데 사회는 각각 정유리 님, 윤수현 박사, 류종훈 교수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2부에서는 윤수현 박사의 열성으로 소프라노 서경희 교수 및 바리톤 정준식님을 초대하여 참가하신 100여 분들에게 멋진 송년의 밤을 선사하여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행사에서 정년퇴임기념집을 회인불권(誨人不倦)이라는 예서체 제자(題字)로 발간하였는데, 제자를 써주신 동덕여대 문영오 명예교수, 멋진 축시를 「왕버들 나무」라는 제목으로 써주신 허문영 명예교수, 송공 필담을 담아 보내주신 많은 선후배 교수와 지인들, 이 책자의 자료 수집과 편집을 맡은 에스오앤컴퍼니의 정유리 님과 마지막 제자 이유진 대원제약 차장, 해묵은 사진을 모아 동영상을 제작한 강주혜 박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고 회고해 봅니다(그림 54). 그리고 30여 년의 세월 동안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동고동락한 34명의 석사와 11명의 박사가 있어 이 자리가 빛나고 행복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그림 54. 정년퇴임 기념 책자.

박: 퇴임 후에는 의약품 품질연구재단 회장을 맡으시면서 재단의 조직발전을 물론 개인적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 의약품품질연구재단 회장으로서

전인구: 2017 FIP 서울총회를 마무리하고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의 회장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김은정과 정현주 연구원 2명과 약간의 예산을 김길수 전임 회장과 강찬순 사무총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이후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과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이 재단은 2003년 김낙두 교수님이 초대 회장으로 설립된 이래 김일혁 교수님, 이민화 교수님, 김길수 교수님을 회장으로 하여 유지해오던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저는 재단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재단의 명칭을 2018년 8월 2일 의약품품질연구재단으로 개칭하고, 식약처의 의약품 품질 관련 용역연구사업



그림 55. 제2회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연자 및 임원들과 함께(2018. 11.).



그림 56. 제약바이오협회와의 MOU(2016. 6. 왼쪽 앞에서부터 허근 전 식약청장과 이민화 전 회장).

에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한편, 약전 등 출판 사업, 약전 품질시험법 등의 웨비나 교육과 품질 규제과학 관련 컨퍼런스 개최 및 표준품 중개 판매, 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MOU 체결 등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림 55, 56). 다른 한편으로 2010년 1월 10일부터 편찬 작업을 해오던 『약학대사전』이 2023년 4월 발행되어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그림 57).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제약산업 등의 품질 선진화와 약학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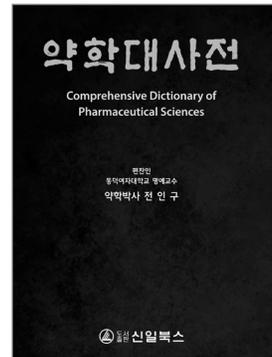


그림 57. 『약학대사전』(총 2,127쪽)의 표지.

박: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전인구: 평무진처시청산 행인갱재청산외(平蕪盡處是靑山 行人更在靑山外)라는 중국 송나라 구양수(歐陽脩)의 시구절이 생각납니다. 저 들판이 끝난 곳에 푸른 산이 있는데 행인은 다시 푸른 산 밖에 있구나. 면학, 구도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약학의 탐구와 신약 개발이나 신기술 및 새로운 제형의 연구도 끝이 없는 만큼, 교육자와 연구자는 끝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시입니다.

행인의 길은 다양하지만 가는 길마다 길이 있어 오르고 또 오르면 그 길에 정통해 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외길을 가는 나그네지만 다른 이들과 폭넓게 협력하여 인생을 멀리 보고 함께 간다면 우리의 삶도 완성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박: 교수님과의 긴 인터뷰를 정리해 보면 교수님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약학사의 큰 부분을 이야기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동덕여대에서 15년간 교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인생에서는 큰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분 자족하시지 않으시고 늘 고난을 거슬러 이겨 내시고, 보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은 늘 저의 뇌리에 남아 분이 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활동 자료를 정리하시고 말씀을 남겨주시어 후배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유로움 속에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58. 동덕여자대학교 전인구 명예교수 녹취현장.



전인구 명예교수

학력

1973. 0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1976.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1984. 08.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

경력

1977. 07.-1985. 02. 태평양화학 기술연구원 실장
 1985. 03.-2017. 08.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학장, 대학원장
 1989. 12.-1991. 02. 뉴저지주립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

2003. 03.-2004. 12. 한국약제학회 회장
 2005. 05.-2006. 12.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
 2006. 01.-2006. 12.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
 2007. 01.-2008. 12. 대한약학회 회장
 2009. 01.-2012. 12.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회장
 2011. 11./2018. 05.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
 2014. 07./2014. 10. 로드아일랜드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
 2017. 09.-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재)의약품 품질 연구재단 회장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군자삼락이 함께 한 38년

임광식

- 일시: 2022년 4월 8일 오후 12시
- 장소: 부산대학교 약학관
- 대담자: 제남경 교수, 정지형 교수, 이준희 학장, 임은옥 부학장

제남경 교수(이하 제): 오늘 임광식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자로서 그리고 천연물 전공 약과학자로서 살아오신 지난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1969년 6월부터 2008년 2월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38년 넘게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시고 연구에도 매진하셨습니다. 저도 그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먼저 교수가 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임광식: 당시에는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학원에 진학했고, 석사를 마치면 정식 조교 발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대학원을 간다는 것이 교수가 되겠다는 의사표시인 시절이었지요. 나도 공부를 더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들어갔고, 석사학위를 받고 조교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이 적을 때라서 경쟁자가 없어 운 좋게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그 당시는 교수가 되는 길이 지금처럼 공채로 교수를 채용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보통 조교부터 시작하고 조교가 되면 교수가 되기 위한 교수 수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조교를 하면서 교수님을 도와 공동연구도 하고 기회가 되면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림 1. 전임강사시절 등반대회때 학생들과 함께.



그림 2. 오사카대 유학시절 지도교수 내외와 함께.

제: 교수님은 일본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셨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임광식: 전임강사가 된 후 첫 강의로 유기화학과 기기분석을 맡아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구경도 못 해본 기기를 책에서만 보고 아는 척하고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아주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죠. 1974년 일본 오사카 대학으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전임강사로 진급하고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비 유학은 꿈도 못 꾸던 시기였고 외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보장받지 못하면 유학 목적으로는 출국도 못 하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장학금을 받고 출국할 때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이 고작 200불 허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문부성 전액 장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떠난 지 2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원래 장학금이 2년간이었고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귀국한 겁니다. 운이 좋았는지 학위를 위한 연구는 2년 만에 다 끝낼 수 있었고 논문발표도 다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위논문을 쓰고 심사까지 1년이 더 걸렸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3년만이었지요.

제: 교수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는 연구 환경이 지금보다 아주 열악했다고 들었

습니다. 시약과 기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실을 운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임광식: 정말 많이 열악했습니다. 한 마디로 ‘맨땅에 헤딩하기’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천연물화학 연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이 거의 없었죠. 유리기구 정도 갖다 놓고 실험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약학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기라는 것은 spectrophotometer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학위를 마친 일본이 가까운 나라였다고나 할까요. 분리한 물질을 대부분 일본으로 보내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표준화합물 등도 거의 유학하던 연구실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이라 생각되는 일을 우리 정부가 하기 시작하더군요. 외국 차관사업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서 대학의 연구시설을 개선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차관은 영국 수출보증국(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ECGD) 차관이었고 다음 계속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먼저 국립대가 지원받았고 순차적으로 사립대학으로 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똑똑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점에 대해서 평생 교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교수님께서도 천연물 중에서도 사포닌 쪽으로 연구하셨고, 논문도 관련 분야로 많이 쓰셨는데,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를 소개해 주십시오.

임광식: 주된 연구 분야가 천연물화학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포닌(saponin) 연구를 주로 했는데 사포닌이란 triterpene, alkaloid 또는 steroid를 비당부로 가지는 배당체로



그림 3. 실험기기연수를 위해 방문한 런던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 생리활성도 다양하여 흥미를 끄는 화합물입니다. 당시에는 triterpene, alkaloid, steroid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이들 화합물에 당이 수 개씩 결합된 saponin의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불과 몇 개만 결정되었을 정도로 더디게 발전하고 있던 분야였습니다. 나는 이 사포닌의 분리, 구조결정, 생리활성 검색, 부분구조변환, 부분합성 등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시설 부족으로 만족스러운 연구를 못 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제: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학부생이던 시절부터 명강의로 유명했습니다. 유기화학, 천연물화학의 어려운 개념을 명료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교수가 된 후 몇 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강단에 서면 많이 떨리곤 합니다. 교수님의 명강의 비결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임광식: 부끄럽고 쑥스럽네요. 그저 세월이 흐른 덕택으로 간혹 그런 소리도 듣게 되나 봅니다. 나도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는 많이 떨었습니다. ‘하다 보면 도둑질도 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서툰던 일도 세월이 지나면 못하는 대로 길들여져서 배짱이 생기게 되지요. 다만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이해하고, 다음에는 이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했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관련 지식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후학의 교수님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통해 좋은 학생이 배출되는 것이니까요.

제: 교수님의 명강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뒤를 이어 저도 훌륭한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지요?

임광식: 강의는 재미있고 보람이 컸습니다. 맹자의 군자삼락(君子三樂) 중 하나로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즐거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약대의 수준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은 나에게서는 큰 행운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온 학생을 내가 교육하고 그 학생이 후에 박사과정생이 되어서 후배 석사과정생을 가르쳐주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참 좋겠는데, 석사를 마치고 풀타임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 준비를 혼자서 해야 하고, 연구도 혼자 다 해야 하고, 연구 업적도 내야 하고, 연구비도 따야 하고 그런데 현실은 연구 환경도 열악하고, 인적 자원도 모자라고, 내 시간도 없고, 건강도 못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런 것이 외국의 교수에 비하면 한국의 교수, 특히 그 당시 한국 교수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교수는 교수가 되면서부터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또 그만큼 연구비나 연구 환경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 포스트닥(postdoc)을 채용하는 등 연구하기가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 교수는 이것이 어려웠고 혼자서 연구실을 이끌고 가야 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동료 교수들과 모여서 ‘교수하면서 평생 내 연구실에서 나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안타까움을 서로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교수로서 보람을 느끼고 꼭 해야 할 일은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실 연구보다 강의를 더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연구 업적이 없으면 없는 대로 대접을 받으면 되지만, 강의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다 병행하면서 잘해야 하니까 힘든 점이 있는 거지요. 집에 가면 또 가족들 있으니까 경조사, 제사 다 챙겨야 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느꼈는데 일본 교수들은 한국에 비해 그런 게 덜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 교수들은 연구에 전념할 여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이외에는 형제간에 가족 간에 복잡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친목 모임이나 결혼식 참석 등 시간 빼기는 일이 적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림 4. 2002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정부승인 직후.



그림 5. 퇴직후 스페인 성가정성당 앞에서 사모님과 함께.

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아쉬움이 지금도 많은 현직 교수들에게도 해당하는 어려움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약대생들이 대학원을 잘 안 오거든요.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고, 대부분의 학생이 약대를 졸업하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임광식: 약국이나 병원 이외의 진로에 졸업생들이 그만큼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졸업 후 제약업 쪽으로 진출해도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도 많이 진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제약회사의 규모가 커서 공대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훨씬 월급도 많고 복지혜택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제약업이 발전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겠지요. 일본의 경우 약대에서 대학원을 마친 학생들은 거의 100% 제약회사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연구소 계통이예요. 석사학위만 받아도 연구소로 많이 진출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업이 성장하고 있으니 앞으로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지요. 제약업 쪽으로 약대 졸업생이 많이 진출할 수 있어야지 제약회사가 아니면 약대 졸업생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병원 약사 아니면 지역약국 약사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를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평생 고용이 지켜져서 약국을 할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실력을 어떻게 기를지를 고민합니다. 우리나라는 약사면허증을 너무 많이 의식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도 “좁은 5평 방에서 평생 보낼 생각하지 말고, 좀 넓은 세상에서 살아라.”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약대 출신 연구자들이 제약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약대 졸업생이 대학원으로 많이 진학할 거로 생각합니다.

제: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려면 대학원을 마친 후 현실적인 진로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후배 교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광식: 약대는 소단위의 엘리트들이 모인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말을 많이 해왔지요. 작은 집단이지만 강한 집단입니다. 전공 분야도 분명하고 바이오 분야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전망이 밝은 분야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참으시고 좋은 제자 키우는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보상이 뒤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임광식 명예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그림 6. 왼쪽 아래 중앙으로부터 시계방향: 임은옥 부학장, 제남경 교수, 이준희 학장, 임광식 명예교수, 정지형 교수.



임광식 명예교수

학력

1966.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1969. 부산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1977. 오사카대학 대학원 제약연구과 박사

경력

1969. 06.-2008. 02.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조교,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2.-1994.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1994.-1996.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연구소 소장
 1998. 12.-1999. 08. 부산대학교 학생처장
 2000. 09.-2001. 09. 부산대학교 도서관장
 2001. 09.-2003. 08. 부산대학교 대학원장(부총장 겸임)
 2003. 04.-2004. 09.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이사
 2003. 08.-2004. 04.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이사장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소명 의식과 벌런티어 정신으로 임했던 교수 생활

이숙연

- 일시: 2022년 6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임동술 교수연구실
- 대담자: 임동술 교수, 송영천 교수, 김혜린 교수, 김상범 교수
- 녹취 및 사진 촬영: 임동술 교수

임동술(이하 임): 약계 원로의 회고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삼육대학에서 오랜 시간을 수고하신 이숙연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1979년 삼육대학교 약학과에 부임하시고 2010년 8월까지 총 32년을 근무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시어 현재 명예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연: 네,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해, 5살 오빠 밑에 둘째로 태어나 어머니 등에 갓난아기로 업혀 거리에 나가 8·15광복을 맞았다고 종종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밑으로 두 동생을 낳으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한의사이셨던 할아버지 밑에서 학비 걱정 없이 소위 좋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잘 지냈으나 유학까지 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할아버지께서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아무 말씀도 없이 돌아가셨으니... 아르바이트하거나 어머니께 부담을 드려야 할 그즈음, 다행히 유명한 장학회에서 주는 넉넉한 장학금으로 책값과 잡비까지 충당하며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원에도 일단 진학하였습니다. 그 장학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더니 그 회장님께서 내게 값으려 말고 장차 잘되어서 어려운 학생을 돕는 것이 받은 것을

값는 길이라는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꼭 지켜야지 다짐했고 교수 생활 중에 거의 값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분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정종)께서 제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신 고마우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종종 찾아보면 큰 딸이라 하시면서 대견해하셨고 제가 가정을 이룬 후 달란트이신 한글 붓글씨로 더글러스 맥아더의 ‘아버이의 기도’를 직접 쓰신 액자를 선물로 주셨기에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관계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둘입니다. 지금 다들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요. 아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 두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아직은 5명입니다.

임: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성장 과정과 또 약학대학에 진학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비참했던 6·25전쟁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1952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까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학교였지만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누고 심지어 운동장에 쭉그리고 앉아 4시간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원래 교육계에 계셨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미국에 유학한 후에 대학으로 옮기시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지만 불행하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일찍 작고하셨기 때문에 항상 오빠와 저는 교육계에 몸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대학에 입학할 때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려면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때 학운(學運)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선생님을 잘 만나서 좋은 중학교에 갈 수 있었고 무시험으로 좋은 고등학교에 가다 보니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약사보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에 떨어져서 이듬해 약학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의대보다도 약대가 더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약대를 들어갔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사실 음악을 전공했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집(특히 할아버지)에서 강하게 반대하셔서 실컷 울고 난 후 진로를 바꾸게 되었죠.

임: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전공을 하시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학 공부하실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얘기해주시죠.

이숙연: 성실하기는 하나 성적을 그러저럭 잘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약사 고시를 준비하는 중에 과 대표를 역임했었고, 또 나이가 많은 아저씨 같은 그런 동기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약사고시는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커닝도 많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비리가 많다.” 뭐 이러면서 데모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막 열렬하게 주장하니깐 그 나이 많은 아저씨 말을 우리가 그냥 따라서 나이가 어린 우리 과 대표와 의논을 한 후 국가고시 거부 투쟁을 하기로 하고 약사 국가시험 보는 날 새벽 몰래 일 치단결해서 그 당시 우리가 공부했던 연건캠퍼스(현재 의과대학이 있는)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시장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삼삼오오 흩어져 비밀장소에 숨어 있었지요. 그리고 시험이 거의 다 끝난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은 되었지만 뭐라고 그럴까. 뭔가 여하튼 젊은 나이에 의미 있는 거사를 치렀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후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많이 염려되기도 했죠.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홍문화 교수님이 그 당시에 국립보건원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보건원장님이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그때 하게 되었죠. 우리를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데모함으로써 그 원장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은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일은 저질러졌고 그때가 2월에 시험을 보는 건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막 어른들은 난리가 난 거죠. 23회 이 녀석들 이거 어떡하나? 1년 후에 시험을 보게 하나? 약사법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1년에 두 번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걸로 논의가 되었죠. 그런데 너무 뒤에 보면 국시 준비생들이 공부한 것을 다 잊어버릴 테니 바로 보게 해주자 이렇게 되어 그때 기억에 3월 18일인가? 18회가 아니고 다음

19회로, 18회에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무사히 합격해서 약사 합격증을 얻지 않았나 감사하며 그리고 좀 무모했던 기억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친절한 선배의 조언을 따라 4년 동안 여행이나 견학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다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앨범에 남아 있는 사진이 증명해 주지요.

임: 정말로 전대미문의 거사? 약사 국가고시를 거부하시고 힘들게 또 그래도 다행히 한 달 후에 시험을 보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숙연: 그게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존경받는 스승이셨던 홍문화 보건원장님의 배려와 교수님들의 사랑으로 기회가 곧바로 주어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8회 불합격자들에게는 기회를 한 번 더 안겨 드린 선한 일을 한 셈이기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 물론 지난번 한약 파동 때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1년 거의 다 돼서 그해 9월 인가 시험을 봤으니까 학생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었는데... 그래도 교수님과 동기분들은 한 달 후에 시험을 봐서 진짜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숙연: 그래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18회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에게 또 한 달 만에 혜택을 준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며 서로 위로하며 감사했죠.

임: 또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니까 떨어졌던 사람들에게겐 엄청난 기회였겠네요. 일 년에 두 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니...

이숙연: 뒤에서 콧속 찌르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임: 하여튼 간에 국시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숙연: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뻔한 일이었던 거고요. 세상 물정 모를 때 의리를 지켜야지 하며 푹푹 뭉쳐서 실행했지만, 만약 후의 일을 생각했다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동기생 아저씨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의로운 일을 한다고 믿고 따르지 않았나... 그 아저씨는 뜻을 가지고 전대미문의 일을 계획했고 그보다 어린 우리 23회 동기들은 순진하게 실행에 옮긴 거죠.

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학창 시절의 기억에 남는 일은 정리하고 그 다음 약대 졸업한 이후에 교수가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좀 이야기해주시죠.

이숙연: 당시는 나라가 어려운 때라 대학원 들어가려는 학생이 많지 않았고 더욱이 여학생이 대학원을 들어가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못다 하신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 대신 학비를 지원해 주신 한의사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생약학 전공을 택하여 입학하면서, 한 학기만 하고 외국에 유학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때는 대학원 등록금이 거의 없었으니까 들어가서 외국을 가려고 모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는데. 집안 어른들은 나이가 찼으니 결혼부터 해야 한다고... 결혼하면 유학을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솔깃했지만, 결혼하고 보니 현실적으로 아버지와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유학의 꿈을 일단은 접었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운데 경희대 한의대를 보내려고 하셨던 아버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은 흘러 1978년 실로 기이한 방법으로 서울에 마지막으로 삼육대에 약학과가 농학과 대신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원하지도 않았던 저를 쓰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되었던 엄청난 일(교수)을

이미 자신도 없고 상황도 맞지 않아서 피해 보려고 매일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온(조건적 기도를 한 성경 상의 인물)처럼 드린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정확하게 응답이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단계로 석사를 마치도록 지도해 주신 지형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니 당장 나와서 준비하라고…: 앞으로의 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했지요.

과거 제 석사는 원래 이선주 교수님이 지도교수셨지만, 실제로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분은 지형준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보편적인 일이지만 1960년대 그때 일본 교토대학에 가서서 그 당시 최신의 NMR로 성분 구조를 밝히시는 연구를 하셨던 분으로 생약계에서는 아주 첨단을 걸으시던 분이 제 논문을 도와주시러 나타나셨던 겁니다. 신기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지형준 교수님 지도로 마무리를 지었기에 늘 감사하고 있었지요. 석사 한 학기를 남겨놓고 결혼해서 마무리가 막막했었는데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논문 지도를 해주셔서 첫아이를 출산하기 직전 학위를 받고 석사과정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죠. 이 기회를 빌어 지형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중에 제가 항상 무언가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유학의 길은 일단은 막혔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하겠다. 이대로는 무언가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78년 10월에 난데없이 삼육대학 학장이신 김종화 학장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짝막한 편지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습니다.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연락을 드릴 테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왔어요. 그래서 웬 모르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연락하셨나 하며 잊고 있었는데 그 얼마 후,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그래서 “왜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재림교회(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죠. 전화 내용은 “사실은 삼육대학에 약학과 인가가 났습니다. 1978년 10월에 인가가 났는데 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 모 교회에 집사를 하고 있다는 이 선생을 알게 되어서 다급하게 연락하게 되었지요.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강의를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막내가 두 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그런데 약학

과가 시작된 1979년 3월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임조교 발령장이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그때 이미 간호학과에서 약리학 강의를 하고 있던 이종화 교수가 약학과의 교수로 옮겨서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조교로 발령받았지만, 석사 이후 출산 육아로 연구를 몇 년 쉬었기 때문에 양심상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서 학장님한테 제가 연구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바로 지형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서 나와서 실험해라.”라는 허락을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에서 공부를 다시 하려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아하, 공부를 못하는 게 환경이 어렵고 기초가 약해서 못하는 것이구나” 공부 못하는 이유를 경험도 하게 되니 학생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도움을 많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1980년도부터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저의 많은 역할 중에 어느 것 한 가지 포기하거나 줄일 수가 없어서 결국 잠시간을 줄이며 공부하고 근무시간을 쪼개고 해마다 찾아오는 두 방학을 100% 활용하여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생활을 이어 갔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누군가가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고 또 가정도 돌보시는 좋은 분을 보내 주셔서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은퇴까지 무사히 그 힘든 과정을 밟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에 외람되지만, 항상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수라기보다는 성경 상의 ‘그리스도인 교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약학대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교수 생활 32년이 굵이굵이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교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남다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정에 계시다가 또 부르심을 받고 대학교수로서 일하시기까지 정말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혹시 교수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숙연: 초기에는 막내가 어려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학교를 열심히 나와야 하겠네,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재림교회의 신앙을 가진 선생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우리 학장님이 늘 저를 길에서 만날 때 마냥 용기 주시고 학장실에 가끔 불러서 용기 주시고 하셨지만... 한편 가정을 생각하면 또 어린 자녀들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니. 매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했지만, 그분의 부르심(calling)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를 키울 때까지만 견디자면서 한 5년간을 기도로 메꿔 간 셈이지요, 학교에 오면 학생들이 안타깝고 집에 가면 아 이들이 안타깝고. 그 당시 우리 신앙을 가진 교수 인력이 없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도 잘 구해주시고 가정을 유지해 가는데도 물론 남편의 이해도가 크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그 콜링 의식이 없었다면 결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내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삼육대학 약학과를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께서 직접 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 이런 콜링 의식이 없었다면 정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 나오면서 아이들이 같이 잘 자라주고 또 교수 생활이라는 게 방학 동안을 활용하여 더욱 연구를 해야 하니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방학이 거의 없었죠. 방학이 없이 계속 부지런하게 뭔가를 해왔던 그런 기억만 있고... 그래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무사히 취득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콜링 의식이 없었다면 당연히 중도 포기를 했을 겁니다.

임: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교수로서 또 교육하시고,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회 활동이라든가 또 학교에서는 보직도 맡으시고. 제가 옆에서 보았을 때도 정말 힘들게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었는데, 혹시 교육 부분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숙연: 교육 면에서는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종교 관련 시간을 제한해라. 그런데 우리는 church 스쿨이니까 신앙적인 시간을 반드시 더 넣어야 하고, 그런 속에서 갈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절충해서 신앙도 유지하게 하고 또 교육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실제 수업 시간 수하고 학점 수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1학점인데 3시간을 한다든지 2학점인데 4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교육도 해가면서 신앙도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학만이 해결해야 하는 교육상의 어려움이라 볼 수 있지요.

임: 제 기억에는 약학과에서 담임 목사님 제도를 만든 게 저희 과가 처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교육에서도 정말 남다르게 교수님께서 열성을 쏟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셨는데 혹시 특별하게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으신지요?



그림 1. 약학과 사은회에 참석한 약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

이숙연: 제자 중에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있고, 또 신앙이 철저한 학생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한테 와서 항의를 많이 해요. “교수님은 왜 신앙하는 학생들 편에만 서 계나요? 신앙하지 않는 편의 학생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비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려고 마음을 다졌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들을 위로한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삼육대학의 교수진이나 또 스태프진이 모두 신앙인이다 보니까 전혀 신앙을 모르고 오는 학생들에게는 모르는 사이 상당히 부담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학교에 제안했던 것이 학과에 신앙교육을 지도하는 목사님을 파견해서 특히 신앙이 없이 입학한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고 신앙교육에 핵심인 토요일 교육, 즉 가장 중요한 안식일 학교 운영을 학과 자체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진행하며 신앙을 습관 들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임: 그 다음에는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혹시 연구하시면서 의미가 있었거나 또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좀 얘기해주시죠.

이숙연: 1904년 미국 선교사가 평양 근처 순안에 세운 삼육대학(전신 의명학교)은 신학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문과 계통이라 실험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연과학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약해서 행정 하시는 분들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책을 가지고 그냥 연구한다고 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실험실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실험실을 이해시키고 구축하고 기기를 확보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인가 전국 약학대학의 교육을 후원하기 위해 OECF 차관을 나라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큰 대학은 차입 액수가 컸지만, 우리 대학은 가장 소액인 35만 불을 들여왔습니다. 먼저 국립대가 지원받았고 순차적으로 사립대학으로 이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 생각되고 그 당시 교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차관을 제가 삼육대학에 유치시키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선 전혀 경험이 없었고 그런 기기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하니 정말 어렵더군요. 그리고 반대의 중점은 그런 큰 빔을 우리가 어떻게 갖아나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학장님과 그 당시 행정자들을 설득하는 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열심히 설득하여 우리가 비록 최소단위 35만 불의 차관을 유치하기는 했지만, 그때 끝까지 우리 학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약학과 아니 삼육대학에 처음으로 고가의 기기를 도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지금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기기들을 관리하려면 기기분석실을 처음으로 만들어야 하고 기기분석실에 관리실장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임동술 교수를 첫 실장으로 긴 회의를 거쳐 결정했었지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교내 다른 학과와 행정부서에서 엄청나게 반대들이 많았죠. 뭐 기기 실장이 필요하냐, 관련 교수가 그냥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이러기도 하고, 실험하려면 실험실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기구가 꼭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고가의 기기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모든 행정자들 그리고 주위 교수들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차관 문제로 학교 측과 또 기기실 문제로 다른 학과 교수들과 의견조율에 난제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약학과를 필두로 우리 대학 내에 연구 환경을 하나씩 구축해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연구라는 것이 타 기관에 의뢰하여 왕래하는 어려움은 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지요. 시료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실험실 환경을 갖추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먼저 생약학 실험실부터라도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었지요. 나중에 연구동이 신축되고 모든 교수의 연구실이 확보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시다만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니깐요.

임: 그렇죠. OECF 차관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 정말 기다라운 기기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연구의 초석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은사님들은 신학이나 인문 계통의 학교에 자연과학 계통의 학과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초석을 놓으시느라 엄청나게 힘드셨고 또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여러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학교 보직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약학대학이 아니라 유일한 전국의 약학과로서 학과장을 장기간 역임을 하셨고, 정말 힘들게 학교 내에서 자연과학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학과가 신설되고 만들어지는 데에도 여러 많은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학교에서 어떤 보직을 맡아서 일하셨는지요?

이숙연: 이종화 교수가 학위를 받으시고 포스닥이나 연구년을 가시고 할 때 제가 그때부터 우리 과를 책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이 아닌 학과로 운영하면서 전국 약대학장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삼육대학에 약학과가 있음을 알리게 되었죠. 제가 참석하기 전까지는 전국 약대학장 회의가 토요일에 있었는데,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약대학장 회의가 토요일이면 저희 대학은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옮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사정을 말씀드려서 날짜를 다른 날로 옮기게 되었고 그 후 매년 금요일에 회의하게 되었지요. 저희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안식일(토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교단에서 설립한 대학이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안식일(창세기 2장 1~3절에 근거)로 지키기에 토요일에는 거의 종교 활동만 하지 캠퍼스 내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식적인 일반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장 회의도 옮겨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또 1982년 첫 약사고시 날짜도 토요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여 주무 부처를 이해시킴으로써 그리 어렵지 않게 금요일로 옮길 수 있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비하신 분이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매우 잘된 일로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후 여러 보직을 계속 맡게 되었지요. 그때 당시 약학과장은 약대학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이 조금 커지면서 단과대학으로 가기 전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를 묶어 의약학부로 나누었다가, 몇몇 관련학과를 더 포함해 보건복지학부로, 그 다음에는 제1 학부, 제2 학부, 제3 학부 이렇게 나눠서 의약학부장, 보건복지학부장, 제3 학부장을 맡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일반대학원 외에 특수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는데 보건복지대학원 인가가 나와 대학원장도 초기에 하게 되고, 물리치료학과를 신설하는 데 관여하게 되어 그 과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미국에서 보건학을 전공하신 닥터 셸(Shall)이라는 외국인 교수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물리치료학과 초기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마다 교육이념에 적절한 특성화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발표로 우리 대학도 특성 있는 보건복지 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특성화 사업단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 첫 특성화 사업단장을 맡아 너무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하여튼 그 특성화 사업단장을 하면서 이 작은 대학이 처음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유치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관계 계열의 특성화를 몇 년간 유지하며 그 다음 지원 사업의 징검다리 역할이 충분히 되었음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금이 학교 발전에 상당 부분을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도 지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 지원금으로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게 쓰임 받았다는 생각에 감사했지요.

임: 그렇죠. 교육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특성화 사업을 정착시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대한약학회라든가 또 생약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학회 활동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이숙연: 약학 관련 대학교수나 제약회사 관련 업무 간부 및 관련 연구소 연구원들은 대체로 1950년 초기에 시작된 대한약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약학회에서 우리 분과학회 일을 하다가 부회장도 한번 맡았고, 그리고 또 생약학회도 계속 열심히 참여하다가 수석 부회장 그리고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는데, 일복이 많다 보니까 생약학회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중·일 심포지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필 제가 학회장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능력도 부족한 사람이 회장 일 하는 것도 힘든데 한·중·일 국제심포지엄까지 하느라고 신경이 무척 예민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총무이사를 맡았던 임동술 교수하고 학술위원장으로 KIST 강릉 분원에 계시던 양현옥 박사가 좋은 장소도 섭외해 주며 애를 많이 쓰고 빈틈없이 준비를 잘해 주었지요. 다행스럽게도 임원들이 협력하여 무사히 강릉 KIST 분원에서 생약학회 한·중·일 심포지엄을 치렀기에 지금도 생각하면 그 당시 임원분들과 회원분들 그리고 외국인 연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현옥 박사님과 임동술 교수가 학술이사와 총무이사를 맡아서 손조롭게 잘 진행해주었고, 그때 모든 회원의 선물로 제작한 가방과 부채를 지금도 들고 다니는데 이게 아주 기억이 새롭습니다. 나름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하려고 했지요.

그밖에 응용약물학회에서 기금위원장도 역임했고, 전국 약학대학 약초원장협의회 회장도 맡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약사한약조제지침위원회 위원, 대한약사회 한약위원장도 맡아 약사 한약에 대한 업무를 3년간 돕기도 했습니다. 대한약사회 한약위원장을 무사히 끝낸 어느 날 약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에서 한약육성발전위원회를



그림 2. 제4차 한·중·일 국제 Joint Symposium에서 개회사하는 이숙연 교수.

공청회를 하는데 약계 대표로 참석해서 의견을 발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회가 닿으면 의료일원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을 때였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참석했더니 엄밀히 따져보면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계 신문기자, 한의학연구원에서 종사하는 분 등에 약계는 저 혼자 즉, 4대 1 정도의 분포로 단상에 앉아 있고 밑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양쪽으로 20여 명씩 사이를 두고 앉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듣다가 내 순서가 와서 “우리나라 의료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한의사와 의사 그리고 약사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 경희대 한의대를 다시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말이 되느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속히 의료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의료 발전에 핵심과제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당의 의원들이 따라 나오면서 자료를 의원실에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뒤로 별 진척이 없이 한약 육성법은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계의 교수로서 한약을 위해 전문성으로 대변할 때 쓰임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에서 태어난 막내 약학과이고, 규모가 작은 대학의 약학과 초대 교수로서 별런티어 정신의 책임 의식으로 주어진 일에는 열심히 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첫 약학대학 평가였습니다. 긴 3년간의 치열한 한약 분쟁이 일단락되었던 1996년이었던가요. 아니, 그 이듬해인 1997년, 약대 평가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기억되네요. 그 평가를 받는데 저는 항상 우리 대학이 열약하고 부족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학과 건물이며 연구 환경이며 부족한 것을 확장해야 한다고 늘 고민하고, 교수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고,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이번에는 피하고 다음에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을 채울 수 없었을 때 그 무력감이란... 그래서 평가받는 날 아침에는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대학이 꼴찌 하면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오나 저는 더 이상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꼴찌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과는 달리 체면을 유지하게 해 주셔서 평가 결과, 20개 약대 중에 13위를 했는데 그것은 정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 정량적인 면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성적인 면에서 교육이념 등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타 대학 어떤 분은 아주 좋은 성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었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1994년도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약사하고 한의사들하고 분쟁이 일어난 유명한 한약 분쟁이 시작되었죠. 3년을 끌게 되었는데, 그때 삼육대학이 굉장히 앞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대학이 한약 교육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필수과목으로 이수시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75년도에 뉴스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 때문에 분쟁이 생기겠구나—그때 한의사들이 1975년 국회에서 뭘 주장했느냐 하면 약사들이 약국에 한약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양약의 전문가이니 그것을 없애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유학을 준비할 때는 교수의 꿈을 키웠지만, 이 뉴스를 들을 때는 두 아이 육아 중이라...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만약 교수가 된다면 한약을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상하죠? 그러다가 삼육대학이 1978년도 인가를 받아 1979년에 30명 학생이 입학하고 저는 3월 전임조교로 발령받으며 1980년도부터 강단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나는 우리 약대에 약의 기원인 한약에 대한 교육을 정착시키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던 것이 지금도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임동술 교수가 1회인데 1982년도 1회가 대학교 4학년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한방개론’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시작했지요. 학창 시절 신길구 교수님께 직접 배웠던 본초학책(선택과목으로 氣에 대해서만 한 학기 대충 배움)을 다시 들여다 보며 계속 저도 한약하는 약사들 강의도 듣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지요. 원래 저희 친정 할아버지가 한의사이셨고 또 시댁의 시어른이 또 한의사이셨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그런 배경이 굉장히 탄탄해요. 제가 나중에 한약 분쟁할 때 직접 그들과 시사 토론 프로에 나가 약사 편에서 주장할 때도 대학교수로서 커리큘럼을 들고 나가 비교하면서 경희대 한의대 교수한테 한 발짝도 제가 물러서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때

저의 시어른을 잘 아는 홍원식 경희대 교수가 저한테 “아, 삼육대학이 한약 교육을 한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한약 분쟁 때 열심히 앞장서서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MBC에서 하는 시사 토론에 나가서 약대 교수가 한의대 교수를 이겼다고 할까요? 즉 약사가 그때까지는 밀리는 듯하다가 그날은 한의사에 KO승한 셈이지요. 그날 정치권을 업고 강하고 당당하게 나오던 한의사들에게 계속 주눅(?) 들었던 약사들이 매우 통쾌해했어요.



그림 3. 한약 파동 당시 여러 한약학 서적을 저술, 번역하여 받은 공로패.

그때 권경곤 약사회장과 보건사회부 약정국장(심한섭)이 함께 나가서 그때 약사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고 축전도 많이 받았고, 꽃다발도 학교로 보내 주어 받았고 약사들의 고맙다는 전화, 제자들의 자랑스럽다는 전화, 계속 마스크에서 밀리다가 얼마간은 축제 분위기였죠. 그때 처음 삼육대학이 저녁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저희 대학에 인기 학과인 약학과가 있다는 사실이 전국에 퍼져 그때까지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고무적인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 뒤에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급기야 전국 약사들에게 약사한약조제시험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응시자의 97.3%가 시험에 통과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근시안적 보건정책(그 당시 최선정 장관)으로 한의대가 있는 3개 대학에 한약학과를 허용하는 한약사제도를 밀어붙임으로 현실도피성 무마책을 정착시켰고 지금까지도 한약사의 위상은 의약계의 사생아와 같은 존재로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재직하시는 동안 교육과 연구 또 학회 활동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은퇴하신 지가 12년이 지나고 계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아주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이야기해주시죠.

이숙연: 저는 약학을 시작한 지 (스무 살에 약학과에 들어갔으니까 약, 약, 하면서 살아 온 게) 지금 벌써 한 60년이 가까워져 오고 또 50년쯤 됐을 때 은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약이라는 것이 항상 저는 그래요. 부작용이 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화학 합성 약보다는 민간약, 생약, 한약, 대체의약학 쪽으로 늘 관심을 기울여 왔지요.

세계적으로 암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암 예방법을 연구하면서 10여 년 후, 1990년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었지요. 대체의학 (AM: Alternative Medicines), 즉 대체의약학이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아주 늦게 2000년도에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내에 있는 NCCAM(국립대체의학 연구소)의 PI 초청을 받아 교환교수로 갔었지요. 1990년도부터 시작된 대체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내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 내에 대체의학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권장 내지 의무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제가 갔었던 컬럼비아대학은 이 연구를 설치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오히려 나를 초청한 PI는 나로부터 천연물 정보를 얻으려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학과의 석좌교수였던 일본인 나카니시 교수의 연구실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대단한 포스트닥터들과 함께 실험도 하고 세미나도 하며 보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연구 인터넷 사이트는 Scifinder 였고, 나는 틈만 나면 그 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인쇄하여 모으는 즐거움이 쏠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Leif이라는 젊은 박사가 저와 함께 실험했는데 유난히 우리 음식 불고기를 좋아했고 고추장에 비벼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닥터 리! 겨울 방학에 꼭 다시 와서 연구를 계속하자.”고 했는데 가정 문제로 다시 가지 못했고 이듬해 교수가 되어 타 주로 이주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Lief와의 약속대로 꼭 다시 가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결국 가정상의 문제로 다시 가지 못한 채 우리 연구팀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약학과에 교수가 적으니 1년이라도 포스트닥터 과정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학과에 대한 애정 때문에 외국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꿈이 무엇이었나 하면 생약에서 효과 좋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때 그 꿈이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가정의 감당키 어려운 폭풍우로 인해 연구논문 마무리를 못 하고, 그 뒤 가정사로 인해 이어가지도 못한 것이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뉴스타트 건강 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접목이 돼서 자연 건강으로 가야 몸이 근본적으로 바르게 유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30대 중후반부터 주식인 쌀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게 되었지요. 쌀만 바뀌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몸이 약하시고 4남매가 다 병약했는데, 제가 현미에 관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더욱이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확신하면서 현미를 실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학생들에게도 ‘현미 먹어라.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현미를 드시게 해라’ 했어요. 그래서인지 약사 국시가 끝나고 저와 헤어질 때 한 학생이 제 앞에 와서 식사하면서 “교수님 감사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교수님의 건강법을 엄마, 아버지한테 전해서 고혈압도 당뇨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부모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생각했어요.” 이런 학생도 있었거든요. 항상 ‘건강한 습관이 중요하지, 대증요법의 일반 약은 하나의 임시방편이고 응급처치다’ 이렇게 늘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메디신 플러스 푸드, 그래서 ‘메디푸드(MediFood).’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니 너무 늦어서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메디푸드 그러니까 근본은 약식동원(의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식동원연구소’로 은퇴하면서 시작하다가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임동술 교수한테 약식동원연구소를 권했죠. 그리고 저는 한국약식동원아카데미를 하면서 메디푸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10여 년 동안 계속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그림 4. 약사공론에 4년여 연재되었던 메디푸드 이야기.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양성하느라고 쉬지 않고 해오다가 코로나 전부터 쉬게 되었지요. 감사하게도 약사공론사에서 기회를 주어 약 4년간 147회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 채담(이숙연)과 함께하는 약식동원(메디푸드)이야기” 칼럼을 만들고 매주 1회 글을 쓰게 되었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죠. ‘은퇴는 하늘이 부르실 때까지는 없다.’는 생각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도 뉴스타트 건강상담소를 청량리 시조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는 그 개념이 음식에서부터 비롯되니까 현미 채식을 강조하면서 현미 채식을 계속하면 큰 병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후학들에게도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적어야 하는데 현대 일반 약은 아무래도 합성 약이 많고 천연에서 추출했다 하더라도 단일구조의 화학적인 성분일 경우 오래 장복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서 응급처치용으로만 활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후학들도 진정한 약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설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약이라는 것은 결국 메디푸드 음식에서부터 비롯되니 우리 식탁을 현미를 중심으로 식물성 위주로 잘 유지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진정한 약의 의미를 잘 살려서 계속 연구해서 정말 다급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현대 약이 또 현대 의술이 필요하지만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치유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뉴스타트 건강상담소의 표어는 “못 고칠 질병은 없고 못 고친 습관만 있을 뿐이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주는 약으로 이런 습관성 질병은 결코 고쳐질 수 없으므로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삼육 후학들은 그런 점을 유념하고 근본적인 건강법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 근면,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하며 오래 유지하는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태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인간의 근본적인 도덕관과 윤리관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습지만 제 얘기하면 때때로 부정직한 나를 보면서 놀라곤 합니다. 나도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죄송하게도 학비는 정확하게 주시지만, 용돈 탈 땐 약간 여유 있게. (웃음) 할아버지가 저를 무척 사랑

하셨기 때문에 제 말은 꼭 들어주셨는데 항상 뭔가 여유를 더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참 안 좋은 습관이었어요. 요즘 세태가 거짓이 난무하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사회상이지만 그래도 항상 정직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마음이 언제나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양심이 깨어 있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근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도 살펴보면 애가 셋인데 다 달라요. 근데 대체로 큰 애가 작은 애들에 비해 좀 더 근면 성실하죠. 근면 성실한 사람은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성실한 게 좋겠다. 머리가 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금방 앞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성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즉 한 가지를 10년만 계속해보면 형설의 공이라고 그러죠. 10년만 하다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12년이 되면서 약식동원아카데미, 메디푸드 이런 것들이 정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인가 모든 약사가 보게 되는 약사공론에 칼럼을 내주셔서 메디푸드에 대한 내용을 주 1회씩 약 4년간 연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늘이 주신 건강원칙을 잘 실천하여 우선 건강하고 이웃에게 그 건강법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약 전문인의 역할이 아닌지요? 제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보면 항상 ‘현미 먹어야지 그리고 채식을 위주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삶의 근본은 가정도 의원도 병원도 약국도 자영업도 모두 경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경영학이 중요한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연금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정말 기본적인 생활밖에 안 돼서. 선교를 해야 하겠는데 내가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활동하기는 참으로 어려우니까... 선교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금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세상에서 활동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동안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해서 선교 자금을 확보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경영을 잘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도와주시리라 믿고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삼육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이숙연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했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5. 좌로부터 임동술 교수, 이숙연 명예교수, 김상범 교수, 송영천 교수, 김혜린 교수.



이숙연 명예교수

학력

1965.-1969.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1969.-1971.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1983.-198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

경력

1979.-2010.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1978.-1994. 서울대학교 천연물연구소 특별연구원
 1988.-2012. 보건복지부중약양약사심의위원회
 1994.-1996. 보건복지부 한약조제지침위원회
 1999. 일본 도야마 和漢藥연구소 연구교수
 2000.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CAM(보완대체의학)연구소 교환교수
 2002.-2004. 대한약사회 상임이사 한약정책위원장
 2003.-2008. 대한약학회 부회장, 한약분과학회장
 2008. 일본 기후대학교 대학원 연구교수
 2008. 한국생약학회 회장

2009. 한국생약학교수협의회 회장
 2019.-2020. 강남메가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사)한국슬로푸드문화원 부이사장역임, 자문위원(현)
- 한국 채식인협회 회장(현)
- SDA뉴스타트 건강상담센터 소장/KUWA 임원(현)
- (사)국제절제협회 교육이사(현)
- (사)휴먼디스커버리 건강전문위원
- 한국약식동원연구소장 역임
- 한국약식동원아카데미 대표(현)
- 한국여약사회 후원회 부회장(역임), 이사, 학술단장, 감사(현)
- (사)실버디버전센터 이사(현)
- 여약사 시니어직능클럽 대표(보건복지부산하/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역임
- 임상통합의학암학회 고문(현)
- 경기여고 동창회 52회 기대표(현)
- (유)유니시티 코리아 프랜차이즈(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국립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을 회고하며

이상섭

- 일시: 2021년 9월 15일(1차), 10월 20일(2차), 11월 17일(3차), 12월 17일(4차)
- 장소: 이상섭 명예교수 사무실
- 대담자: 심창구 명예교수, 김진웅 명예교수, 주승재(약학역사관) 관장
- 녹취 및 사진 촬영: 김가은(전 약학역사관 학예사)
- 작성 및 정리: 박주영(약계 원로 구술사 연구원), 주승재

입학당시 서울약대가 국립 서울대학교에 편입되고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까지(1차 녹취)

심창구(이하 심): “약학교육 연한 연장 및 대학 이전에 대한 교수 회의의 결의 사항 보고, 1970년 11월 27일 14시 본 대학 회의실에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약학교육 연장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교육의 충실과 구미 각국과의 교류를 위하여 본 대학은 5년제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고, 또 본교 종합화 안에 따라 본 대학은 관악 산록으로 이전함이 대학발전을 위하여 유리하다는 결론이 재확인되었으므로 보고 드립니다(그림 1).” 1970년 11월 김영은(金泳垠) 학장님 때문요. 이때 결의를 했고 이 안에 따라 김영은 선생님이 움직이신 거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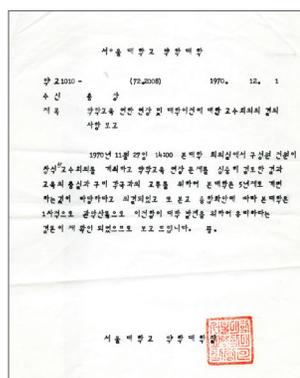


그림 1. 약교1010(72.2008)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보고 전문(1970. 12. 1).

이상섭: 배경을 이야기하면, 해방되고 특정 분야의 전문학교들이 있었어요. 미군정 때 교육이 미국식으로 바뀌면서 다 같이 공립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자는 것이 ‘국립대학안’이에요.

경성약학전문학교(京城藥學專門學校, 이하 약전) 쪽은 졸업을 하면 다 자기 먹고살 길이 있으니 국립대학에 안 들어가도 우리 전통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를 했지요. 근데 약전이라는 것이 돈만 들어갔지, 학생 수업료로는 유지가 안 됐어요. 해방 전에는 약업(藥業)¹⁾에서 서포트를 해줬는데, 해방 이후에는 도매상들이 떠나니까 너도 나도 인수를 하려다가 싸웠어요. 재단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실로 삼아 다른 이권을 얻어내기 바쁘고, 결국 국회 청원을 통해서 약학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지요. 국회에서도 유일한 약학대학이니만큼, 국립대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만 남아 있었지요.

당시 내가 입학할 때에는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나오면 되는 상태라 시험을 칠 때는 사립이었지만, 국립대학이 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1950년도에 약대에 입학했는데, 이 와중에 6·25전쟁이 터져서 석 달 늦게 국립대학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때 한구동(韓龜東)²⁾ 선생님이 학장서리로 임명을 받았어요. 1·4후퇴 때 선생님이 현미경과 책을 묶어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부산 대청동 계림화학에 사무실을 만들고 천막을 쳐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그림 2). <중략>

1) 당시 약업총합소(藥業總合所)를 의미한다. 약업총합소는 1908년 한약을 취급하는 업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조직되었다. 1914년 약품취급강습회를 시작으로, 1915년 최초의 근대적 약학교육기관인 조선약학강습소(朝鮮藥學講習所)를 설치하며 한국의 근대약학 발전을 견인하였다. 조선약학강습소는 이후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의 모체가 되었으며, 조선약학교는 경성약학전문학교, 사립 서울약학대학을 거쳐, 1950년 국립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른다.

2) 한구동(韓龜東)은 대한민국의 약학자로, 조선약학교를 졸업 후 196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국립화학연구소 소장 및 서울대학교 교수, 약학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후 복구기간 중 대학을 이끌며 한국 약학교육의 기틀을 마련, 식품위생, 환경위생 분야 20여 편의 논문 발표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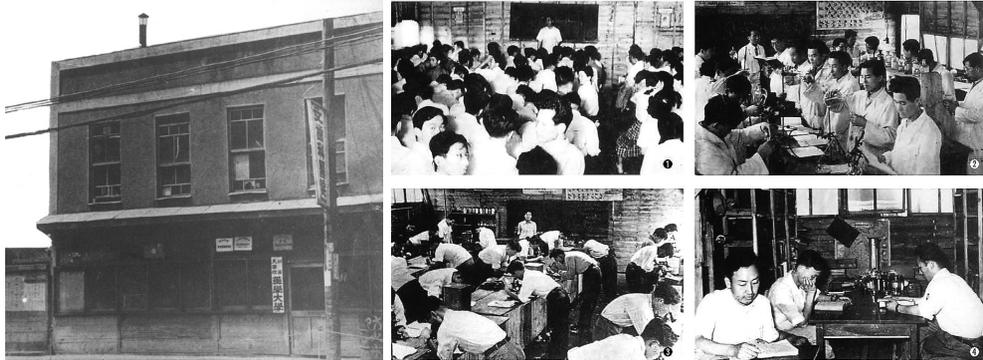


그림 2. 전시연합대학 계림화학 사무실(좌)과 수업 광경(우). (출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

남산 조선신궁(朝鮮神宮) 자리에서 음대, 미대가 간이로 교육하다가 이전한 곳이 함춘원(含春苑) 의과대학 옆이었어요. 그리고 함춘원 옆으로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병원에는 3층짜리 병동과 임상 검사실이 있었어요. 미대는 문리대 법학부 옆으로 옮겨갔고 음대만 남았는데, 의과대학 건물 옆에 음대가 있다는 것에 양쪽에서 불만이 있던 와중에, 그 자리에 의료관계로 연결된 단과대학 즉,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묶어서 외국식으로 메디컬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화를 하는 첫 단계로 음대가 있던 자리에 약학대학이 들어오게 되었지요(그림 3).

그런데 그런 플랜이 있으면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도 예산이 없어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음대는 약학대학 건물하고 바꾸기만 하면 그만이었지만 약학대학 쪽은 그렇지 못했어요. 메디컬센터라는 명분은 좋지만 예산이 없으니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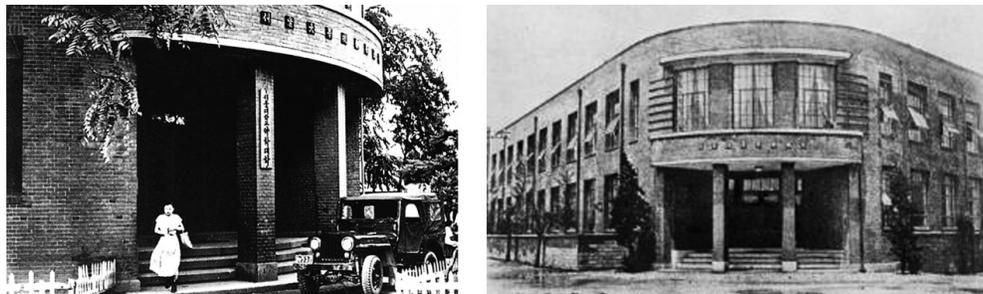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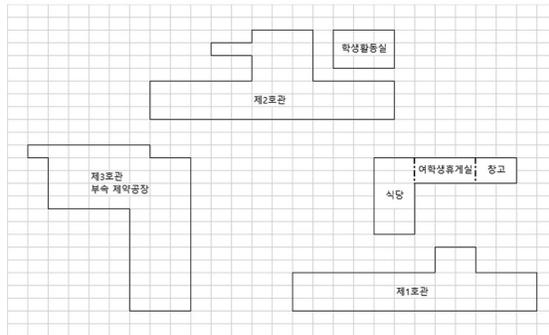


그림 3. 을지로 6가 교사(출처: 서울대 약학역사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를 받아서 1호관을 지었는데, 창경궁 앞에 약간 언덕이 있는 자리였어요. 1호관을 짓기 전까지는 음대 건물의 강의실 2개하고, 피아노실을 임시로 실험실로 사용하며 지냈어요. 이때가 4·19 직전으로 한구동 선생님이 학장을 하고 계셨었죠.

연건캠퍼스는 국고예산으로 만들지 않고 서울대학교의 기성회비 중 상당한 부분을 떼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내부시설을 마련할 돈은 없었어요. 마침 1호관을 짓던 중에 기초공사비용을 절감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학생 실험동과 실험대와 준비실을 만들었어요. 그 실험실을 이용하는 2호관은 산언덕에 지어졌는데, 그 땅은 국유지였지만 민간인이 마을을 형성해서 지을 수 없던 것을 5·16때 군인들이 밀어붙여서 완공했지요. 2호관은 국고로 지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었고 폭도 넓었어요. 뒤에 3호관이 생겼는데, 3호관 역시 국고로 지어서 그런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그림 4).

삼: 제가 1967년도에 입학했을 때 3호관에 골조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 완공이 되었을 겁니다. 그 건물에 강당이 있었고 3층엔 도서관이 있었고, 제약공장이 있었습니다.



제1호관(약학연구관)



제2호관(약학교육관)



생약연구소(좌) 및 제3호관(약학응용관)

그림 4. 연건동 건물 배치도(위)와 제1, 2, 3호관(아래). (출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

이상섭: 서울대학교가 이름은 국립서울대학교인데 내용을 뜯어보면 연합대학이었어요. 단과대학마다 역사와 배경이 다르고, 캠퍼스도 하나가 아니고 청량리, 태릉, 안암동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던 것을 뒤에 억지로 묶은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종합화 작업을 해서 제대로 종합대학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나온 것이 ‘서울대학교 10개년 계획’이었어요. 10개년 계획 자체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에서 각 단과대학의 교수들은 말만 많지 실제로 일을 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이 ‘서울대학교 10주년 종합화’를 하면서 여러 안이 나왔어요. 1안으로는 여기가 원래 경성제국대학 자리이니까 그 전통을 존중해서 연건동, 동승동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홍익대 디자인대학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이었어요. 2안으로 공대와 이공학부가 있던 태릉으로 나가는 방향, 마지막으로 3안이 관악 쪽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관악이 아니라 과천정부청사 자리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과천이 터는 좋지만 땅 소유주가 많아서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양과 일본 캠퍼스를 견학하고 와서는 일류대학을 만든다는 명령 하에, 결국 관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1차로 기획실에서 기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만든 것이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단과대학을 묶고 관악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교무처의 나웅배(羅雄培) 교수가 부처장이 되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각 대학에 설명을 했어요. 결국 약학대학은 메디컬센터에 남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는 관악 전체를 총괄하는 총장이 있고, 메디컬센터에 부총장이 있고 그 밑에 의과대학 학장, 약학대학 학장, 간호대학 학장이 있었어요. 부총장은 교수직을 떠나서 교수가 아니라 맘대로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약학대학 쪽에서는 연건동에 있는 게 집 문제도 해결이 되니 좋았어요. 그래서 시니어 교수들은 관악으로 간다는 것을 반기지 않았고, 젊은 교수들이 기를 쓰고 관악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했지요.

심: 이 문서엔 명분이 안 나타나 있네요. ‘교육의 충실’은 5년제 이야기고, 1차적으로 관악산으로 옮기는 것이 대학발전에 유리하다는데, 왜 관악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란

설명은 없어요.

이상삼: 이후 거기에 구체적 안이 들어갔겠죠.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명분은 얼마나 역사성을 가지고 핵심인물을 잡느냐에 따라 달렸다. 약학대학이 꼭 메디컬센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을 보면 의과대학 커리큘럼하고 약학대학 커리큘럼이 겹치는 게 없고, 서로 교류되는 것도 없고 연관성이 없다... 암만 유신 때라고 해도 서울대 교수가 구실, 명분을 잡는 것이 통했어요. 어떠한 물도 대학과 국가의 발전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연건동으로 왔지만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보니, 김영은 교수님이 학장이 되면서 실험실, 연구실 등 시설을 만들어야했어요. 그 전에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기구)나 USOM(U.S. Operation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미국경제협조처)에 신청해봤는데 내용을 보니 AID 프로그램 나온 것도 제일 키(key)가 되는 부흥 복구사업이 아니었어요. 의료 및 보건관계, 농업, 공업 3개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약학은 기간산업이 아니라 지원받기 어려웠어요.

김영은 교수님은 학장이 되자마자 동경대학으로 가서 약국 등 국립대학의 기본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바로 정부에 부딪혔어요. 정부 예산은 학생, 교수, 시설에 따라 딱딱 자르고, 특별예산은 진짜 국가발전에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약학대학은 이런 명분이 없어서 김영은 교수님이 청와대에 계속 로비를 했지만 어려웠지요. 그때 청와대에 김상복(金相福) 장군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와는 관계없지만, 일본 약전 출신의 만주군 장성으로 청와대 핵심인물이었어요. 김 교수가 김상복 장군을 통해서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내부적으로는 정재석(丁濟錫) 국제협력국장을 통해서 예산담당관에게 어필을 했죠. 그래서 서울대에 지금까지 유래가 없던 예산이 온 겁니다. 약학대학에 주라는 표시는 못 내니까 서울대학교에 주면서 예산담당관에게는 약학대학의 시설 명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시설을 확충했지요.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김영은 교수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어요. 학장 그만두고 나서도 탄 교수들은 뒷짐 지고 있는데,

김 교수님은 앞장서서 관악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했지요.

마지막으로 약학대학이 관악으로 가는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이 건설 본부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이었어요. 건설 본부에서 건물을 짓기 전이었는데, 지금의 교수회관이 건설 본부 관리실이었어요. 학장회의를 하면 총장이 가운데 앉고 한쪽으로는 부총장, 다른 한쪽이 건설 본부장 자리였지요. 그런 식으로 로비가 들어가서 1차적으로 20동까지만 계획이 되어있던 걸 마지막으로 20동 옆에 21동을 자리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니까 계획에 맞지 않아서 한 학기 늦게 들어갔지요(그림 5).



그림 5. 관악캠퍼스 약학대학 21동(출처: 서울대 약학역사관).

심: 막차를 탄 거죠. 건설 본부장을 잘 설득했더니 자기는 좋으니까 총장님 모시고 계획안 받아오라고 했대요. 약대 100년사 책에 관련 비화가 있지요.

이상섭: 당시 총장이 한심석(韓沁錫) 교수인데, 한심석 교수는 단과대학들의 역사를 아 니까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어요. 어느 학과를 없앨 것이냐 즉 통폐합을 할 것인가, 통폐합되면 또 교수들을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20동까지는 다 지어져서 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교육단위조차 정리가 안된 상태였어요. 중심은 문리대인데, 이를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3개로 만들었어요. 인문, 자연과학 쪽은 단과대가 돼요. 사회과학대학은 경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학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경제학과는 상과대학 안에 들어 있으니 상과대학을 해산시키고 경영대학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식이 되니까 상과대학 동창들이 반발하고 상과대의 중심이었던 경제학가가 대한민국 상과를 다 쥐고 있으니까 상과대학에 있어야 한다면서 꼬떡도 안하고,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김철수(金哲洙) 물리학과 교수—당시 교무처장이 밀어붙였는데, 교무처가 기획해서 움직일 인력은 처장하고 부처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기구로

서울대에 기획실을 만들었어요. 기획실 임시기구의 실장을 김종운(金鍾雲) 교수가 맡고, 학과 배치하고 교육과정 배치는 교육과정 담당 상임위원인 내가 하고, 학생문제를 다루는 건 상과대학의 김종현(金宗炫) 교수가 맡았어요. 대학 행정조직은 행정대학원의 조석준(趙錫俊) 교수가 맡았어요. 보건대학원에 방 하나 빌려서 6개월간 작업을 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약학대학은 한 학기 늦게 들어왔지요. 지금의 관정도서관 밑에 원 중앙도서관이 있었고, 그 뒤가 20동이에요. 21동 자리는 빈자리고, 그 밑에 화학과 있고 공대 쪽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때 김영은 학장이 “약학대학이 제일 끝이죠?”하니, 건설본부장이 “(지금은) 이게 끝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원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가동되면 도서관이 제일 중앙이고 약학이 생물, 화학 그리고 공학 쪽에 연결되어 있으니 그 3개 분야가 한군데로 몰릴 수 있는 명당자리가 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림 6. 이상섭 교수님 1차 구술녹취 현장(2021. 9. 15).

전시 약학교육, 생화학 전공과 조교 생활, 미국 유학시절, 다시 서울대 약대로 (2차 녹취-1)

이상섭: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학의 역사이면서도 넓게는 바이오 쪽의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우리 때는 학문이란 것에 대해 최상의 목표로 생각했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서울대학교에 조교가 되어 들어가면 별 사고만 없으면 종신교수까지 올라가서 은퇴했어요. 그런데 조교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모든 교수가 조교를 두는 게 아니고 소위 그룹 단위의 교실에 자리가 있었어요. 교실도 힘 있는 교실에만 있었지요.

해방 전 일본은 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래서 대학, 중학교, 초등학교(소학교) 교사들이 호봉이 높았어요. 서울대학교만 해도, 서울대학교 총장은 사회적 위상이 높아서 관용차 번호가 100번 이내에 있었어요. 단과대학 학장에게도 운전기사 딸린 관용차를 줄 정도였죠.

김진웅(이하 김): 나운용(羅雲龍) 학장님 때에도 기사가 따로 있었고, 90년대 초반까지 항상 관용차하고 기사가 약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기사가 없어지고…

이상섭: 6·25전쟁 나고 부산 피난시절 천막치고 공부한 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면 유급시키고 제대로 다시 교육해야 되는데, 밑에 입학생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강의 한번 듣지 않고 3학년으로 올라갔어요. 4학년 2학기 땀 미리 졸업을 시켜서 군에 보내고, 또 군에 보낼 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4학년 2학기가 되면서 서울로 환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병역 연기를 시켜줬으니까. 열 몇 개 되는 서울대 단과대학 중에 의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 이쪽만 실제 졸업을 시켰고, 나머지 인문사회, 공학 쪽은 졸업식장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해 약대는 10월 말~11월 초에 졸업을 했는데, 가졸업식장이 문리대의 강당이었어요. 우리는 왜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졸업식장에 나왔냐면 계급하고 군번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가졸업식장에서 육군중위로 임관을 해야



그림 7. 전시학생증(위) 및 제2국민병 수첩(아래).

했으니 도망가면 군법에 걸리니까요(그림 7).

당시 50여 명이 졸업을 했는데, 실제 군의학교에 들어간 것은 33명이었어요. 그런데 의료계 대학졸업생들을 군의관으로 데려가면 학교 교육을 못 시키지 않느냐고 대학에서 건의하니, 문교부에서 나온 안이 군의학교에 들어가는 인력의 10%를 학교의 조교 요원으로 복무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문교부 힘만으로는 못하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그것이 국방부로 넘어가고,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 지시가 가고, 그래서 33명 중 10%인 3명이 학교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이 나, 정원근(鄭源根) 교수, 윤정옥(尹正玉, 훗날 尹熙錫으로 개명) 등이었어요.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제일 처음 위생화학실습 조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분석실 조교를 하다가 전임강사로 올라갔어요. 그 후 생화학 쪽으로 넘어와서 전임조교, 전임강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갔죠.

김: 분석학에서 전임강사 되셨다가 다시 조교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상섭: 전문학교 시절부터 실습은 위생화학, 약제학, 약학분석 등이었지요. 그때는 연구비가 없으니까 학생 실험실습비가 없으면 시험관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실습이 있는 과목을 차지하려고 했지요.

제가 처음에 대학원 1학년이 되면서 4학년 위생실습의 조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원 학생 신분이라서 조교이지만 공무원 대우는 못 받았어요. 약제학에 김신근(金信根) 교수님, 위생에 박대성(朴大成) 교수님, 무기제약에 나운용 교수님, 이 세 교수님은 대학원생이 아니니까 정부발령 조교 자리를 얻었지요. 그때 대학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학교에 남지 못하고 사립대학 조교로 나가야했어요. 저도 대학원생인데 중앙대학교에서 전임을 주겠다고 해서 학장 한구동 선생님께 이야기했더니, 입맛만 다시시고 말이 없으셨죠. 학교에서도 이탈이 문제가 되니까 분석실에 총장발령 대우조교 자리라도 쥐여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남아있던 제가 대학원에서 생화학 전공을 하면서도 분석실에서 대우조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김: 이길상 교수님이 연대하고 서울대 두 곳에 적을 갖고 계시다가 연대로 가셨잖아요. 그 가신 이유가 뭐였나요?

이상섭: 질서가 잡히면서 국립대학 교수가 타 대학 교수를 겸임하면 안된다고 정리를 하게 됐어요.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연세대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길상(李吉相)³⁾ 교수님은 해방 전에는 경신중학교 화학교사를 하다가, 해방 이후에 연희대에 이과대학이 생기면서 화학과 교수를 겸임을 하고 있었어요. 연대 이과대학은 연희전문학교 때 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길상 교수님은 서울약대에 교수로 적을 두고 있었고, 강의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한국의 약품분석학 쪽은 이길상 교수님이 다 개척해놓았죠. 해방 전 경성약학전문학교 때에도 약품분석은 이미 주요 과목이 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책도 많이 내시고, 또 알라바마(Alabama Polytechnic Institute)에 1년 있었는데 석사학위를 받고 그 논문을 미국 화학회지(*J. Am. Chem. Soc.*, 78, 1325, 1956)에 실었어요. 그 후 독일서 연구하고 돌아와서 여러 편의 논문을 ‘이길상 귀국보고서’로 해서 배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길상 교수는 자기 조교를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구동 학장이 자기 방의 조교로 나를 앉혔으니, 처음에는 나를 상대도 안 하셨죠.

여하튼 저는 전임강사가 되고 국제교육협회(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에서 주는 유학 자리에 붙었어요. 3명이었는데, 1명은 연대 화학과, 서울대는 나, 또 한명은 기억이 안나요. 그 다음에 스티디플랜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어깨 너머 공부해가지고 온 교수님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때 한참 내가 김영은(金泳垠) 선생님 밑에서 연구하던 주제인 태반이니 뇌하수체니, 내분비 쪽에 뭘 하겠다, 기기분석을 하겠다 했었지요. 그런데 8월이면 떠나야 하고 학교에서도 떠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교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3) 이길상(李吉相)은 대한민국의 약학자로,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교토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브란스 병원 약국장, 서울약학대학 조교수 등으로 활동하다, 1948년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를 겸직하였다. 이후 서울대를 퇴임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이공대학 학장(1959년),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 전공이 너무 다양해서 받아줄 지도교수가 없었을까요?

이상섭: 받을 학교가 없었던 거죠. 보따리 싸고 수속 다 해놔서 가면 되는데, 대사관 쪽에선 말이 없어요. 어찌나 화가 나는지 미국은 다시 안 가겠다 했지요. 그래서 김영은 선생님이 동경대학 약학부 생리화학실에 얘기해주셔서 석사과정이 아니고 바로 박사과정의 입학허가증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문교부에서 허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본과 수교가 안 된 상태라 국교가 없는 곳에 국가공무원을 공식적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그 무렵이 5·16 군사혁명 직후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성되어있었는데, 거기 장관들은 현역군인들이고 차관에 주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분야별로 포진해 있었어요. 문교부 차관이 북해도 대학 출신(식물학 전공)인 이민재(李敏載)⁴⁾ 교수이었고, 김영은 교수님은 자기가 추천을 했는데 문교부에서 허가 안 해주니 직접 찾아갔는데, 이민재 교수가 “젊은 애를 미국에 보내 선진교육을 받게 해야지 왜 일본을 보내냐?”고 하니 김영은 교수가 동경대가 어때서 그러냐고 크게 화가 나서 돌아오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미국으로 선화했죠. 뭐 별수 없잖아요? 일본 가려면 사표 내고 가라고 하니깐. 그게 벌써 12월이었어요. 그 전에 미국에 시험도 많이 치고, 시도를 많이 해봤으니까 장학금 줄 수 있냐는 식으로 쪽 서류를 냈는데 그래도 영 신통치 않았어요. 생화학으로 신청했을 당시는 약학이 생화학 중심 분야가 아니었고, 게다가 학교 성적은 전시연합대학이니까 전부 군사학이다 뭐다 해서 2년은 대충 다니고 졸업은 또 단축이고, 학점은 180 몇 학점이고. 제 서류가 믿을 게 못 되었죠.

김: 미국에서 이쪽 성적표를 믿을 수가 없었겠네요.

4) 이민재(李敏載)는 대한민국의 관료이자 교육자이다.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 홋카이도 이학부 식물학과 및 만주국 국무원 대동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았고 1961년 홋카이도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교수로 활동하다 1961년 문교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1964년 다시 학계로 돌아와 이후 서울대 해양생물연구소 소장, 강원대학교 총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상섭: 그저 정식으로 후원 기관에 서류 보내서 뭐 해달라 하면 다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고 좋게 봐주는 게 1년 수업료 면제 정도고, 좋은 학교는 와서 보고 장학금을 주겠다든지 하는데, 이쪽은 전액 장학금으로 다 해주지 않으면 못 가니까. 그 와중에 요령을 알게 된 것이 그냥 추천서로는 안되고, 그때 한구동 교수님이 대한약학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회장 자격으로 최고의 찬사를 담은 지도교수 추천서를 써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우수한 젊은 학도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 리서치를 하는 교수한테는 그런 식의 추천이 제일 확실하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열 몇 군데 짝 뿌렸죠.

그러니까 바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데가 오리건 주립대학(Oregon State University) 약학대학의 깁슨(Robert D. Gibson) 교수였는데, 자신이 유럽으로 안식년을 가는데 미국에 오면 이리이러한 일을 하자고 미리 가기 전에 스터디플랜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학교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서부 쪽이긴 했지만 전액 장학금을 준다니까 간다고 생각하고 교신을 하고 있었는데, 3월이 되니까 위스콘신(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연락이 왔어요. 레지던스(residence) 혜택을 준다고. 그때 등록금이 500불인데 연구조교를 하면 거주자로 인정하여 350불 차감하고 한 학기에 150불만 내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첫해의 장학금이 205불이니 등록금 150불 내면 돈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노트니 문구류니 전부 다 지급이 되죠. 교재 한 두 권, 그게 한 10불이면 되니까. 기숙사는 비싸서 룸메이트가 있는 rooming house에 들어갔어요.



그림 8. 미국유학을 떠나며 김포공항에서(앞줄 맨 왼쪽부터 김광수, 임기흥 약용식물학 교수, 김영은 생화학 교수, 본인, 강문갑, 허무연, 김정숙, 윤성환, 뒷줄 왼쪽부터 안병준, 전계수).

막상 와서 보니까 지도교수가 등록도 하기 전에 첫날부터 일을 시키는데, 학생이면서 학생이 아니라 실제로는 포스트닥 일을 했어요. 스테로이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첫날부터 미생물배양도 하고 했으니까 너무 고생을 했죠.

김: 전혀 서울에서 배운 것이 아닌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고생은 무진장하고. 그땐 미생물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미생물 키우는 곳에 갔으니까요.

이상섭: 다른 곳은 생화학전공이면 그쪽엔 학생들이 많잖아요. 한 그룹에도 선후배가 있던 말이에요. 새로 들어가면 그 위 연배들이 노트니 뭐니 다 물려줬죠. 거기에 정보가 다 나오는데,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가지고...

김: 선생님은 혼자 계셨었나요?

이상섭: 아니요. 연구실은 약학대학 쪽에 있는데 과정(coursework)은 생화학이니까. 첫 강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외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생화학(biochemistry) 코스가 A하고 B가 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면 A코스가 주로 일반 생화학이에요.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계단식 강의실에서 하는데, 첫 학기에는 생화학과(biochemistry department) 학생보다는 다른 학생들하고 묶어서 했어요.

1~2년 지나서 코스가 끝나니 성적은 쫓겨나지 않을 정도이지만 엉망이고, 왜냐면 시험 치는 전날까지도 실험실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도 3학년부서는 박사후연구원(post doctor) 수준으로 봉급을 받게 되었고, 그 돈을 살림살이 사지 않고 저축했어요. 그걸로 후에 한국서 필요한 것, 책보다는 주로 시약들을 사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cholesterol)에서 에스트론(estrone)을 합성하는데 미생물 대사를 통한 그것이 어떤 방법보다도 우수한 방법이라 하는 것을 미국 화학회지에 속보로 실었어요. 한 페이지 분량 논문인데,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이오시스템(biosystem), 즉 바이오투랜스포메이션(biotransformation)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경로가 생기는 거니까. 계속 연구해서 4년 동안 논문 6편을 미국 화학회지(*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생화학회지(*Biochemistry*) 등에 게재하고 학회에서도 발표했어요.

신텍스(Syntex)는 미국식 시스템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내가 4년차 될 무렵에 신텍스에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관련 부서를 만들려고 인원을 뽑는데, 이게 조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서 지도교수인 Dr. Sih가 혹해서 가려고 했어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데,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물리화학의 타케루 히구치(Takeru Higuchi) 교수를 시켜서 아무리 지금 조건이 좋아도 제약회사의 생리란 것이 있는데, 다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 남아 있자고 해서 그냥 있었어요.

나는 서울대에 코 꿰었으니까 학교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봉급은 생활유지가 힘들고, 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한국은 그때 1960년대 중반까지도 화약고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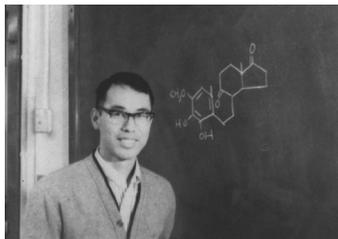


그림 9. 위스콘신대학 유학시절 미생물에 의한 스테로이드 분해 관련 새로운 경로 규명을 축하하며 Sih교수가 손수 찍어준 기념사진.

김: 외국에서 보면 그렇죠. 맨날 데모하고 그랬으니까.

이상섭: 내가 갈 때 비자를 F비자, 학생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J비자를 받아야 했죠.

김: 그럼 IIE에서도 선생님한테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이상섭: IIE에서 나온 것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즉, 여비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당시 군사정부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여비도 자비로

지출할 수 없으니 학교 측에서 여비를 얻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이 장학금은 줄 수 있지만, 여비까지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였죠.

미국에 보내는 것은 허가가 나왔는데, 여비로 문제를 삼으니 부랴부랴 폴브라이트 장학생 시험을 쳤던 거죠. 시험은 합격했는데 폴브라이트가 미국 국무성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허가는 본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발표를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한국 폴브라이트 위원회 단장이 고광만(高光萬) 교수였는데, 한구동 교수하고 서울대에서 학장회의도 같이 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서류를 보고는 승인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성의 허가가 나오기 전에 문교부 쪽에 폴브라이트 장학생이라고 확인해 주었어요. 그때 마지막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가 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쪽 책임자에게 이야기해서 '위스콘신 가는 것도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해서 보내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문교부 장관한테 친서를 써줬어요. 그 추천서 때문에 문교부에서 허가가 나온 거죠.

김: F비자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상섭: J비자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어떻게 보면 돌아와야 할 의무가 있는 비자라면, F비자는 순전히 학생으로 가는 비자예요. 정부에 돌아와서 정부가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에 약간의 자유는 있었어요. 설사 내 발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J비자로 안 바꾼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내 돈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불안했지요. 남북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경제적으로 바닥에 있고, 학교에 적은 두고 있었는데, 학교서 그렇게 3년까지는 봐주고 4년째는 서울대학교에서 전례가 없으니 뒷감당을 못한다 해서 마지막 타협이 된 것이 사표는 받지만 뒷자리를 공식으로 두고 돌아올 때 다시 임용한다는 거였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와의 의리를 지켰죠.

그후 1973년에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불려서 위스콘신 대학에 다시 가서 1년 있으면서

보니까 세상이 싹 바뀌었어요. 1966년 유학시절엔 한참 경기가 활발할 때라 실험실에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말에 용매나 시약들 온 게 없으면 돌아다니면서 빌려다 쓴 뒤 사서 돌려놓곤 했어요. 근데 1973년에 가니까 싹 바뀌진 게 방마다 문을 잠가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거지요.

그리고 독성학(toxicology)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엔 전혀 없던 것이 cytochrome P450(CYP) 이야기도 나오고, 벌써 봉급이 달라요. 1960년대에는 유기화학 쪽, 공학 쪽이 봉급이 제일 높고, 바이오 쪽은 별로 높지 않았고 자리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1970년대 가니 달라진 것이 공과대학이 TV광고를 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없어졌어요. 약학대학은 독성학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학이 14,000불이면 독성학이 18,000불 정도로 연봉 차이가 났죠. 그래서 학생들 관심이 그리로 가고 있으니 내가 돌아와서 독성학을 해야겠구나 했지요.

냉전기 동구권 학회 참석기(2차 녹취-2)⁵⁾

이상섭: 이것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갔는데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그림 10), 불가리아에서 1981년 9월 21~26일에 열린 ‘제1차 생리활성 천연물의 화학 및 생물공학적 응용에 관한 국제학술대회’(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STRY AND BIOTECHNOLOGY OF BIOLOGICALLY ACTIVE NATURAL PRODUCTS)라고 되어있어요.

주승재(이하 주): 불가리아 학회에서 발행한 책자인가요?

이상섭: 불가리아(Bulgaria)가 동구권이었잖아요. 불가리아 건국 1300년을 기념해서

5) 『약학사회지』 제5권 제1호, 약계 원로 구술사 2편에 「서울대 약대 이상섭 교수의 냉전기 동구권 학회 참석기」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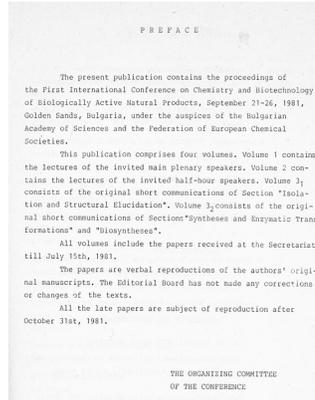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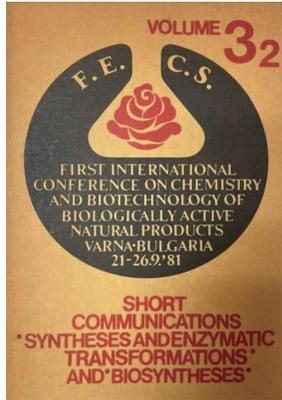


그림 10.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STRY AND BIOTECHNOLOGY OF BIOLOGICALLY ACTIVE NATURAL PRODUCTS』(1981. 9.21~26. VARNA·BULGARIA)의 앞표지(좌)와 서문(우).

이러한 학술대회를 준비했어요. 주최는 불가리아 국립아카데미에서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보통 공산권에서는 아카데미 산하 여러 연구소들이 해요. 여기에도 유기화학연구소가 있고 연구소 부설로 식물화학센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유기화학연구소에 생화학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유네스코에서 원조를 받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1981년이면 한창 냉전이 심할 때인데, 동백림 사건 나고.

김: 이거 초청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때는 선생님이 공산국가에 가면 불법이잖아요.

이상섭 : 이게 다 비밀이었어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 당시 같으면 언론이 대서특필해야 할 내용인데 인쇄물 하나 낸 게 없어요. 정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김: 안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되는 세상이었어요.

이상섭: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유엔 회원국도 아니면서 국제연합일(UN Day, 10월 24일)이 있었어요. 회원국도 아니면서 기념일을 정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유엔에 가입하고 싶은데 공산권에서 훼방을 놓아요. 북한은 명분이 동시에 유엔에 들어가면 영원히 분단된다고, 기를 쓰고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유엔 산하의 부속 기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든 고립을 극복하려고 유엔 산하기관에는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유네스코에는 가입할 수 있었고 명동 입구에 그 당시엔 가장 큰 빌딩인 유네스코(UNESCO) 회관이 있었는데, 그걸 정부 돈으로 지었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은 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 밑에 실무를 움직이는 사무총장과 유네스코 위원들이 있었고. 그때 1980년대 초중반까지도 유일하게 공산권이든지 관계없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 유네스코였어요.

우리 서울대 생약연구소(현 천연물과학연구소)가 유네스코하고 관계되는 기관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 '천연물화학 네트워크' 책임 기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었고. 그 센터의 책임자가 동남아 기관들과 연계해서 움직였어요. 거기에 각 국가에 있는 대학 산하기관 연결 책임자가 있었는데, 유네스코 학술대회 1회를 생약연구소에서 하고, 2회는 서울대 약대에서 제가 맡아서 했지요.

유네스코에서 하는 국가적인 행사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서독과 동독이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도 학술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EuChemS(유럽화학회, European Chemical Society) 나 그런 곳에서 말이죠. 한쪽으로는 철의 장막이 되어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서로 교류가 되고 있었어요.

불가리아가 건국 1300년 기념으로 이런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니, 서구권의 도움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네스코의 재정적 도움을 얻으려면 당연히 회원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국교가 있건 없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으려는 데, 유기화학연구소는 자기들 힘만으로는 힘드니까 EuChemS의 도움을 받아서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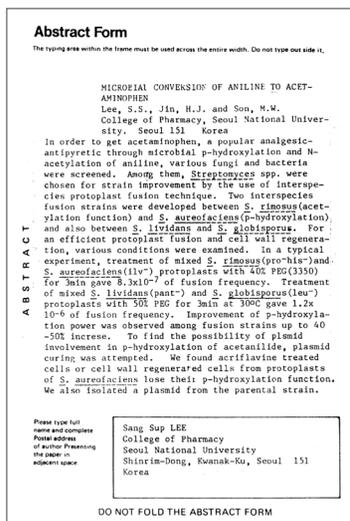


그림 11. 불가리아 건국 13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 초록.

유네스코 위원이고 하니까 나한테도 통지가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정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하기보다는 EuChemS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에 해당되는 사람이 Günther Snatzke 라고 독일 보훔 루르대학(Ruhr-Universität Bochum)의 화학교수인데, 연락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한국서 바로 불가리아까지 오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고 유럽까지 오면 유럽에서 불가리아에 가는 여비, 체재비 등은 불가리아 아카데미에서 부담한다는 식이 되었어요.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편지로 했어요. 불가리아 수도까지 오면 그 다음에 어디서 뭘 하고 하면서 그저 편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물론 그것조차도 세간에 들리면 안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의 문제인데... 국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줘야 하는데, 유럽 쪽에서 여비를 대준다 했지만 말만 했으니 전혀 증빙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그때까진 정식으로 한국 사람이 불가리아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정보가 전혀 없었지요. 안기부 직원이 이야기하는 정보라고는 불가리아 북한 대사관에 직원이 7명인가 13명인가 있다는 것밖에 없었고, 비행기 편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 깜깜했어요. 안기부에서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구 쪽 인사들하고 행동을 같이 해라. 절대 마스크이나 인쇄물에 갔다 왔다 말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파리에 있던 한국의 종합상사들이었어요. 대우니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종합상사는 정부의 외교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선 파리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파리에 며칠 있고 동구권에서도 며칠 있고 해야 하니 쉽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완전히 연고가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니까. 마침 그때 보통 학장 임기 끝나는 즈음에 쫓던 몇백만 원이 있었어요. 문교부 장관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했더니, 총장한테 별도로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 이걸로 지원해주라고 해서 여비를 충당할 돈은 여유가 있었어요.

일단 파리까지 와 가지고는 파리에 있는 대우 현지법인을 찾아가서 불가리아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알아보니, 첫째 항공편이 문제니까 항공편 제일 직선코스는 파리에서

뮌헨(Munich)을 거쳐서 소피아(Sofia)로 가는 루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편수가 많지 않아서 어려웠고,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소피아로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숙박이 문제인데. 호텔을 찾으니까 소피아에 노보텔이 있어서 예약을 했어요.

주: 프랑크푸르트에서 불가리아 국적기 타셨나요?

이상섭: 네. 발칸 투어리스트(Balkan Tourist)였어요. 발칸 반도라고 하면 유고슬라비아 쪽만 생각하는데, 불가리아도 발칸 지역이라고 해서 발칸 투어리스트라는 회사가 전부 관장을 해요.

환승할 때 수속이 까다로웠는데 우여곡절 끝에 소피아에 내렸더니 공항에 아카데미 직원이 마중을 나올 거라고 했기에, 입국 심사 줄 맨뒤에 서서 서류뭉치를 들고 있었더니 한 젊은 여성이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그걸 가지고 앞으로 가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는 것은 ‘유네스코’하고 ‘아카데미’ 뿐이었어요.

주: 실제로 누가 나왔네요.

이상섭: 그 여성이 안내를 해주는데, 숙소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노보텔 예약을 했지만, 아카데미 숙소가 좋겠지 생각하고 거기로 가겠다고 하니 그 직원이 택시를 잡아 기사한테 이야기해주며 돈을 지불해줘서 게스트하우스로 갔어요. 공산권의 아카데미 숙소면 아주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리셉션 데스크에 여자가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보더니 위층으로 가라고 했어요. 로비 옆 소파에 동양권 사람이 앉아 있는데 중공권이나 북한쪽 둘 중 하나인가 해서 순간 긴장했지요.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 앉으니까 살았다 하는 기분이었는데요, 방은 침대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게 꼭 대학 기숙사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 아무 연락이 없어서 1층으로 내려가니 안에는 따로 식당이 없고 주위에 있는 아카데미 식당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어 깜깜한데 사고 나도 모르겠다 싶어 포기했어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여직원한테 내가 노보텔에 예약된 게 있는데 가도 괜찮겠냐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해서 택시를 불러서 갔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현지화폐가 없어 택시를 세워두고 호텔에서 불가리아 돈으로 바꿔 지불하고 호텔 방에 들어가니 그제서야 안도감이 들면서 시장기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공간권에는 저녁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호텔인데도 규정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외에는 식사가 안돼요. 결국 호텔 내 자판기에서 뽑은 스넥이나 초콜릿 같은 걸로 허기를 달랬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 학회장이 있는 바르나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피아 공항에서도 비자 없이 여행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길래 또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겨우 바르나에 도착해서 학회에서 제공해준 차량으로 숙소인 Golden Sands Resort로 이동했지요.

그런데, 이튿날인 회의 첫날(9월 21일 월요일) 회의장인 International Hotel에 가니까 등록창구에 나와 있던 정부 관료들이 나더러 당장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나를 초대한 보훔대학 교수인 유럽 화학회 부회장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금요일에 좌장을 봐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가 도와줘서 무사히 학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죠. 내가 토요일까지 있을 생각이라고 하니 그 부회장인 Snatzke 교수가 설명하고 숙소도 정해줬어요. 그리고 식당은 숙소하고 별도로 있었는데, 정해진 메뉴만을 만들었고 팁 주면 무조건 받고 그랬어요.

학회를 마치고 토요일에 소피아로 나가야되는데 비행편이 만석이라 꼽팍 못하니까 고맙게도 Snatzke 교수가 자신의 비행기 티켓을 나를 주고 회장은 소피아까지 자동차로 타고 가는 것으로 해서 소피아에 갔어요.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자 불가리아 아카데미 유기화학연구소 소장



그림 12. 불가리아건국 1300주년 기념 국제화학회의 조직위원장인 보훔대학교 Günther Snatzke 교수로부터 받은 초청 서한(좌)과 조직위원회의 초청서한(우).

감: 웨스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멀지 않은가 봐요?

이상섭: 프랑크푸르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교외죠. 그 교수가 제약파트 책임자한테 자기가 아주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보통 한국어서 웨스트에 견학을 하게 되면 그 관광 루트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은 아니었어요. 오전에는 약리, 항생물질 파트 등 실제 실험하는 장소를 쪽 돌았고, 오후에는 주변 명소 관광이나 유명한 음식점을 다녔지요. 사흘을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예약이 다 찼는데, 올림픽 유치단이 타니까 자리가 없다고 하길래 때를 썼더니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앵커리지(Anchorage)를 거쳐서 서울로 돌아왔죠. 9월 16일에 출발해서 10월 4일에 돌아왔으니 19일간의 여정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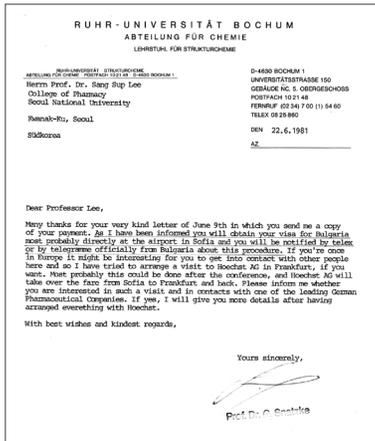


그림 14. 조직위원회 부회장인 보훔대학 Snatzke 교수가 보낸 학회와 학회 마치고 웨스트 제약사 방문 초청 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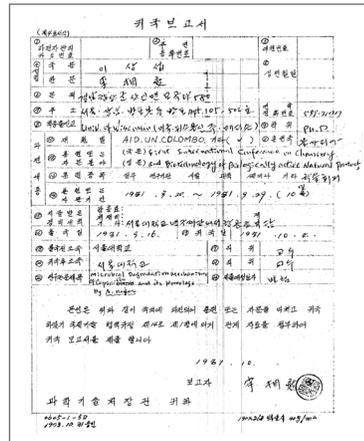


그림 15. 불가리아 학술회의 참석후 대학본부에 제출한 귀국보고서.

관악캠퍼스 이전 후의 약대, 서울대 생약연구소와 종합약학연구소(3차 녹취)

이상섭: 생약연구소(현 천연물과학연구소)에 대해 말하면, 해방 전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약리학 교실 교수와 인삼을 가지고 재력이 있었던 개성상인들이 인삼 재배의 중심지인 경기도 개성에 약초원을 만들었어요.

주: 약초원 옆에 경기도립약용식물연구소를 만들었던 게 생약연구소의 전신이라던데요.

이상섭: 경기도가 만든 약초원이 있고, 개성의 유지들하고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니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약리학 교수인 스키하라 노리유키(杉原德行)⁶⁾ 교수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스키하라 교수는 생리학을 전공해서 생약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성약전에 있던 교수를 경성제국대학 조교수로 임용을 했어요. 그 조교수가 옮겨갈 때 우연히 경성약전에 들른 우린근(禹麟根)⁷⁾ 교수에게, “자네,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제안해서 우 선생님이 같이 가서 해방될 때까지 거기서 연구했죠.

우린근 교수가 해방 후에 연구소의 기초를 제대로 다졌어요. 해방이 될 무렵에는 조수까지 올라갔는데 조수가 지금으로 따지면 전임강사 정도 되지요. 일본의 제도는 교수가 있고 교수 밑에 조교수가 있고 그 다음이 조수예요. 해방 이후엔 연구소에 자리가 많지 않아서 나머지는 그저 조수들이나 일용직이 되었죠. 그러다가 6·25전쟁이 나고 피난 가는 과정에서 의과대학 약리학 교실의 일부를 생약연구소가 차지했어요.

6) 스키하라 노리유키[杉原德行]는 일본의 약학자이다. 그는 교토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후, 1923년 경성 의학전문학교의 강사로 임명되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1926년부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교수로 활동, 약리학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939년,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7) 우린근(禹麟根)은 대한민국의 약학자이다. 1937년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1945년 경성제국대학 조교수, 생약연구소 부교수로 활동하였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부임, 1963년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천연물과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말하자면 의대 약리학 교실에서 셋방살이한 거였어요. 의과대학 오진섭 교수가 소장을 겸하고 있었고 우 선생님은 부교수로 있었는데, 실질적인 소장은 우린근 교수였어요. 국립대학교로 되면서 대학에 박물관이니 도서관이니 하는 것은 부속 기관이 되었는데, 자연과학 쪽 연구소는 모든 단과대학 중에 오로지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뿐이었지요. 유일하게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고 전임교수가 배치된 연구소였죠. 생약연구소는 경성제국대학 시절에는 의학부 소속의 연구소로 되어있었는데, 연구소 쪽에서 열심히 움직이면 실적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국가 예산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종합대학은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교수가 몇 명, 학생 몇 명, 학과가 몇 개 등의 단위로 계산해서 최소 유지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따지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예산을 더 줄 수도 없고, 예산을 안 줄 수도 없었죠. 1년의 기초예산은 그렇게 해두고, 특정 목적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더 줄 수도 있었죠.

생약연구소에는 약초원이 있으니까, 비료값, 인부 인건비에다가, 연구소니까 연구용으로 쓸 재료, 시약 등 단과대학에는 없던 예산을 본부에서는 줄 수 있었어요. 내가 교무과장을 할 때 예산을 보니까, 생약연구소 예산이 약학대학 예산보다 클 정도였죠.

처음에 4명뿐이었던 교수가 8명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우린근 교수님의 수완인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홍문화 교수님이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가실 때 처음에는 오래 있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2~3년 후에 다시 약대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약속 받았어요. 그런데 국립보건원 재직기간이 길어지니까, 막상 돌아올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홍 교수님이 동기동창인 우린근 교수에게 사정해서 우 교수님이 생약연구소로 오라고 했어요. 홍 교수님이 의과대학 쪽하고 미리 이야기한 것보다 한 심석 총장이 별도로 T/O를 줘서 생약연구소에 자리가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교수가 8명까지 늘어났어요.

이상섭: 일본이 교육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리했어요. 일본 제국의 통치철학이 교육에서 만들어나가는 거니까, 직급도 아주 높았죠. 사범대학 출신과 일반학교 출신은 직급도 달랐어요. 이렇게 예전엔 제도가 사범대학 위주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거꾸로 사대가 박해를 받고 완전히 분해가 된 꼴로 되었죠.

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대 옆에 물리교육학과, 지구교육학과, 생물교육학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상섭: ‘교육’자가 붙어서 교육하고 관계되는 교수만 남고, 원 물리전공 교수는 물리학과로 갔죠. 특히나 사범대학 생물교육과가 붕 떴잖아요? 학문적인 내용은 통합을 해버리고 자연대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문리대하고 사범대학이 쌍벽을 이루던 것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교육학과, 체육학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인문·사회·자연과학대학으로 속하게 되었지요.

원래 생물교육과 안에 식물, 동물, 미생물학 전공이 있었어요. 그게 20동에 배치가 되었는데, 비록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관악으로 올 때 계획이 1~3층은 약학대학이고, 4층은 생약연구소였어요. 우 교수님은 약대 학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관악 쪽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교수들은 관악으로 온다는 게 마음에 들지도 않아서 추진이 안 되었어요.

생약연구소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 층이 생물교육과 쪽으로 갔어요. 실험실은 1층의 끝에 생물교육과의 뒤편으로 되어있었는데, 약학과도 공간이 안 나오니까 실험실을 약학대학하고 같이 쓰자고 했었죠. 약제학에는 실습이 있으니까 실습 약국 만들어야 겠다고 해서 나눠 쓰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약대에서 독점해버렸죠. 그때 생약연구소가 같이 넘어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본부와 가깝던 우린근 교수님이 정년을 하시고, 다음에 우원식 교수가 물려받았지만 점점 힘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우선 관악에 와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니 다른 학과는 레벨이 올라가는데 천연물과학연구소는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프로젝트나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중에 중국과 수교되면서 진행한 것이 한·중 전통의약협력 프로젝트였어요. 연구성과는 좋았지만 확대는 못했죠. 두 번째로는, 다른 연구소들도 만들면서 격상시키려는 분위기에 결국은 대학 본부 조직에 붙어

있는 연구소가 눈엣가시가 되는 거예요. 업적이 나오는 연구소나 덩치가 큰 연구소들이 단과대학 소속이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진 연구소가 본부에 붙어있으니까, 본부 산하에 두는 것을 없애려고 했어요. 결국 단과대학 소속이 되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약학대학에 기관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지금 천연물과학연구소가 약학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연구소 교수 10명에서 T/O가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종합약학연구소도 사실 생약연구소 때문에 만든 거예요. 당시 단과대학마다 연구소를 만드는데 대학마다 연구소 하나만 인정한다는 방침이었어요. 약학대학은 이미 생약연구소에 전임 T/O까지 있었으니,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죠.

내실이 있는 종합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이 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 임시직으로 운영해서 모금이 되는 것을 보고 본부에서 허가가 나온 거죠. <중략>

종합연구소 모금을 위해 제약협회 회장과 함께 행동했죠. 종근당에 이어 동아제약은 손정삼(孫貞杉) 사장을 설득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유한의 박춘거(朴春巨) 사장이라고 약학하고 관련 없던 사람이 회사가 클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 주시 2만 주에 실험실까지 만들어줬어요. 한독은 Hoechst가 외자회사니 맘대로 못한다고 했었는데, 종근당, 동아제약, 유한에게서 받고 나니 어쩔 수 없이 내게 되었죠. 이후 녹십자와 일양약품, 태평양화학(화장품 회사였지만 제약계열도 있었어요)에서도 받았고 가능하면 주식으로 받으려고 했지요. 또 대만 해운회사 에버그린(Evergreen) 사장이 유병설(俞炳堯)⁸⁾ 교수 제물포고등학교 친구라 기부하라고 해서 내기도 했어요. 다음이 신한과학으로, 한국의 자연과학 투자 쪽에서 큰 것은 여기에서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NMR이나 덩치 큰 기기들이 들어왔어요.

8) 유병설(俞炳堯)은 대한민국의 약학자이다. 1956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1970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2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강사를 시작으로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거쳐 1985년 학장직을 역임하였다.

한국 최초의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 쿠마르 이야기(4차 녹취)

김: 쿠마르⁹⁾가 교수님한테 유학 온 과정을 이야기해주시죠.

이상섭: 우린근 교수님이 학장이실 때, 유네스코 동남아 천연물네트워크의 대표 담당자(point of contact)였어요. 천연물 화학(natural products chemistry)을 하는 네트워크의 동남아시아 분점이 자카르타에 있었어요. 자카르타에 사무실이 있고, 동남아 쪽 natural product 연구하는 각 나라의 대표담당자(point of contact)가 한 사람씩 있었죠. 마침 한국은 생약연구소가 있으니까 생약연구소 소장인 우린근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한국 대표가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은 아니지만 WHO나 유네스코의 회원이었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장은 문교부 장관이 되고, 사무총장은 준외교관이라서 지위가 높았죠. 유신정권 때 다른 정치과 교수들은 국회의원으로 나갔는데, 박봉식 교수는 마다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맡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일이 끝나고 서울대학교로 돌아와서 총장을 했죠.

쿠마르가 자기 이력을 편지로 써서 우린근 학장 앞으로 보냈었는데, 아마 인도 델리(Delhi)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을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없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죠. 비록 액센트는 이상했지만 영어를 할 수 있었고 타이핑도 잘했어요. 우린근 교수는 point of contact 일 때문에 매년 영문 보고서와 편지 작성 등 할 일이 많았는데, 쿠마르가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런데 정작 우린근 교수님은 정년이 몇 년 남지도 않은 상태라 나를 부르셔서 갔더니 편지를 보여

9) Satyendra Kumar는 인도에서 약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81년 서울대학교에서 「원취의 肝 호모지네이트에 의한 Capsaicin 類의 代謝」 논문으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해외사업을 담당, 삼양바이오팜으로 옮겨 기술 및 제품 라이센싱 담당으로 활동하였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에서 일하고 있다. 실험하던 중 학군단 건물 화재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데 동참한 공로가 알려져 로타리클럽 장학금을 받게 된 일화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개정판)에 나와 있다.

주면서 “생각 없느냐?”라고 하셨고, 나는 쿠마르에게 줄 1년 장학금을 확보했죠. 장학금은 주는데, 그 다음엔 성적을 봐서 잘하면 연장을 해주겠노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온 것이 1977년 초여름이었어요. 근데 보통 유학을 오면 어학원에 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말부터 배우는 게 순서였는데, 1년 장학금을 받아서 어학원에 가버리면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곤란했죠. 그렇다고 어학원을 안가면 대학원에 바로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김: 그러면 그때는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온 것이네요?

이상섭: 그래서 처음엔 대학원 연구생으로 일단 등록을 해서 6개월간 한 학기 있다가, 1978년 3월 달에 대학원에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쿠마르가 활동할 수 있는 교내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숙사에도 방이 없었죠. 그래서 교섭을 해서 서울대 정영사(正英舍)에 방을 얻어서 생활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서울대학교의 명물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3세계에서 공과, 농과대학으로 1년짜리 연수나 트레이닝을 받고 가는 학생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대학원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은 쿠마르가 첫 케이스였으니까요. 나와 김낙두 교수가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시켰죠.

그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기숙사가 학기 중에는 지낼 수 있는데, 방학이 되면 문을 닫아요. 여름에는 끼니만 해결하면 되지만 겨울에는 춥잖아요.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유난로 같은 걸 놓고 살았죠. 마치 우리가 6·25 직후에 미국의 지방 대학에 유학을 가면,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 있는데 겨울방학이 되면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에 기숙사 전부 섯다운하고 보일러가 꺼지고 하니까, 간이침대를 보일러실에 갖다 놓고 방학에 견뎌다는 이야기처럼요. 이 친구가 그 이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도 붙임성이 좋아서 잘 어울려 다녔죠.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비자 갱신을 할 때가 되었지요. 장학금 문제도 있었고.

김: 정식으로 대학원생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입학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야 됐잖아요?

이상섭: 입학시험 절차는 다 갖춰서 붙었죠. 나하고 김병각 교수, 김낙두 교수 이렇게 셋이서 정식으로 입학을 시켰고.

김: 그때 정식으로 외국 학생이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해요.

이상섭: 석사과정이 아니고 박사과정이니까 비교적 허술했죠. 단과대학에서 시험을 쳐서 됐다고 하고, 코스도 할 수 있는 쪽으로만 짰어요. 첫 학기 1년 있는 동안 나랑 한 일은 없었고 주로 우린근 교수님의 point of contact로서 비서처럼 일을 했어요. 이 워크샵이 1977년 여름이에요. 여기에 참가자 중에 쿠마르 이름이 있어요(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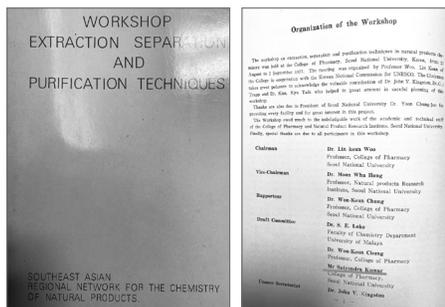


그림 16. 동남아 천연물화학 네트워크 워크샵 자료집.

김: 8월 20일에서 9월 2일까지 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상섭: 일단 1년은 장학금을 받아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또 장학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한국 정부에서 제3세계의 장학생을 모집하는 식으로 뽑았었는데, 인도는 국가가 크니까 두 사람이 배정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외무부에 가서 “유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타진을 해보니, 외무부에서 펼쩍 뛰어요. “당신 어떡하려고 유학생을 받았냐? 만약에 사고를 치면 당신이 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서 또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검증이 된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까 이야기한 듯이 겁을 주고.

1년이 지났으니까 신원보증을 해서 비자연장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로타리클럽(Rotary Club)에서 공증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연장은 했지만, 한 두 달은 쉬운데 연속해서 연장해줘야 하나까 힘들었죠. 그때 윤천주(尹天柱) 총장이 그 사정을 알고 한국 로타리클럽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쿠마르에게 줬어요.

김: 몇 년 정도 줬어요?

이상섭: 로타리클럽에서 장학금을 준 게 1978년 여름 쯤에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2년 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일 잘하고 외부의 평판도 좋고 쿠마르가 움직여서 천연물 연구 쪽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또 윤 총장이 파평 윤씨 종친회 회장이었어요. 대웅제약 운영환 사장이 또 파평 윤씨였죠. 윤 총장이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은 쿠마르를 대웅제약에 보내 달라고 했죠.

학위 받기 전에 논문은 내고 반 학기 정도 공백이 있을 때, 대웅의 사장 수행비서로 일했어요. 외신들, 기업의 편지도 그렇고 새로운 제안서 등등을 맡았죠. 외국에 나가면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신용을 얻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면서 상무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운영환 사장이 경영 2선으로 물러나면서, 대웅을 검사 출신의 작은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 작은 아들하고 쿠마르가 성향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만두고 삼양바이오팜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아마 정년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할 거예요. 저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했거든요.

이상섭: 그저 외국인이라고 그냥 학위를 준 것이 아니고, 일을 제대로 했었는데. 1979년에 IUB (IUBMB, International Union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국제생화학연합학회)가 토론토에서 열렸는데, 초청 연사들이 모두 구두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토론토에 가서 IUB 미팅을 마치고, 마침 미시간에서 우리 연구와 토틱이

맞는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논문 드래프트(draft)를 내면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오타가 나오면 고치고 했었죠. 옛날 볼 전동타자기의 볼에는 호수가 있었는데, 지정해준 폰트 타입의 볼을 사용해서 간격을 다 맞춰서 편집을 해주면 출판사에서는 그 원고 그대로 찍어냈죠.

여기에 쿠마르가 나오죠?(그림 17) 이게 그저 단행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일 새로운 지식이었어요. 그때는 이것이 Current Contents,¹⁰⁾ 매주 가로로 복사해서 쪽 오는, 세계에 소위 이름이 저명한 저널들이 그대로 타이틀만 보내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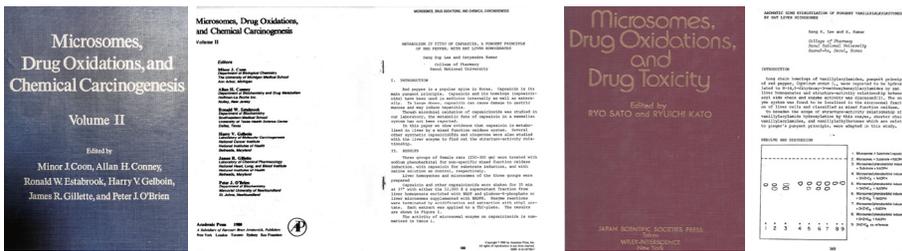


그림 17. 쿠마르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 게재된 책자들.

김: 현재 SCI의 원조죠.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1977년 내한한 인도 유학생 사티 앤드라 쿠마르 군이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의 기초가 되는 연구 논문 한 부가 수재됨.’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이상섭: 그래서 쿠마르 이야기 나온 게, 결국은 아주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지도교수로서는 할 만큼 해줬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쿠마르를 외국인 이름으로 공개 자료에 집어넣고 한국에서도 외국 학생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렸죠.

10) Current Contents는 Clarivate Analytics(이전의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및 Thomson Reuters)의 신속한 데이터베이스 알림서비스다. 처음에는 생물학 및 의학만을 다루는 단일 판본으로 출판되었으며, 수백 개의 과학 저널의 제목 페이지를 복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매주 발행되었으며, 불과 몇 주 전에 발행된 저널의 제목 페이지를 수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용 가능했던 어떤 서비스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그림 18. 이상섭 명예교수 2차 구술녹취 현장.



이상섭 명예교수

학력

- 1954. 03.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1956. 03.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1966. 08.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 1956. 04.-1959. 03.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조교
- 1959. 04.-1965. 0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
- 1965. 03.-1969. 06.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 1969. 06.-1974. 09.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 1974. 10.-1996.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1978. 01.-1981. 1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81. 01.-1982. 12. 한국생화학회 회장
- 1981. 03.-1983. 0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 1981. 08.-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1982. 06.-1982. 08.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초빙교수
- 1983. 01.-1984. 사단법인 대한약학회 회장
- 1987.-1991. 한국환경과학협의회 이사
- 1990.-1993.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심의회 위원장
- 1991.-1994. 대한민국 보건사회부 신약개발운영위원회 위원장
- 1993. 02.-1995. 02. 교육부 학술진흥위원회 상임위원
- 1993. 08.-1996.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유전공학중립정책심의회 위원
- 1993.-1997.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회 약효 및 안전성분과 위원장
- 1996. 06.-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명예교수
- 1998.-200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 1999.-2001. 전국과학정보기술인협회 공동회장
- 2018.-현재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학교의 연구를 기반으로 회사를 창업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삶

함원훈

- 일시: 2022년 5월 26일
- 장소: 연성정밀화학 판교 사무실
- 대담자: 박지연, 이아현(성균관대학교 재학생)
- 녹취 및 사진 촬영: 이아현

박지연(이하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함원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교수로 정년을 맞이하고, 현재는 연성정밀화학의 회장으로 재임 중인 함원훈입니다. 1952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71세, 만으로 69세이며, 1978년도에 결혼해서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 고향이 인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창 시절은 어떠셨는지요?

함원훈: 저는 인천에서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 입시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와 더불어 대학입학예비국가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 부모님께서 과외를 시켜주시기도 하셨고, 국민학교 4학년이 시작할 무렵부터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입시가 치열하다 보니 지금도 생각 나는게 국민학교 5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이틀 전에 본 시험의 문제를 ‘하나 틀렸나, 아니 두 개 또는 세 개를 틀렸나’하는 걱정으로 여행은 뒷전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 입시까지도 ‘입시 지옥’에 살았었네요. 여기에 더해 당시엔 유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국가에서 유학을 허락해주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영어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도 생생하네요.

박: 약대는 어떤 계기로 진학하게 되셨나요?

함원훈: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인 지덕상 선생님이 성적에 맞추어 공대나 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약대에 가면 약을 만들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나의 대학 진로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 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엔 정보가 많지 않으니 실제로 약대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약을 만드는 전공이겠구나 생각하고 약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박: 실제로 마주한 약대 생활은 어떠셨나요?

함원훈: 당시에 대학에서는 교과서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실험 여건이 좋지 않아 약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고사하고, 직접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는 모든 분야에서 이공대의 근간이 되는 실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 시대의 시대적 아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대학 4년 내내 ‘한일 협정 반대운동’, ‘독재 타도 데모’가 있었으며, 3학년 때는 ‘위수령으로 인한 학내 군대 주둔’으로 학내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약력을 보면,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함원훈: 당시 특수 연구생 제도가 있어 실험실에 배정되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건이 지금과 같지 않으니 실험은 많이 하지 못하고 노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 '실험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는 장래 진로 결정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서울대에서도 젊은 교수님들이 공채로 채용되어 강의를 시작하셨고, 그분들이 전해주는 유학 시절 이야기가 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PhD를 받고 오신 교수님들이 강의 중 전해주시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경험'은 저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고, 좋은 실험실 환경에서 연구를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인류의 삶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을 만드는 분야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용되는 약의 70~75%가 유기약품이지만 당시엔 95% 이상이 유기약품이어서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화학과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박: 유학 시절은 어떠셨나요?

함원훈: 나의 유학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상황과 과정들을 접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자긍심과 자존심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과정 당시 30명 이상 규모의 실험실에서 공부하였는데, 당시 지도 교수인 Leo A. Paquette씨는 매우 저명한 분이었어요. 당시 그분의 전문지식이 매우 커다란 산처럼 높고 깊다고 느꼈어요. 그분이 보여준 성실과 노력, 근면함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박: 박사 졸업 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함원훈: Paquette 교수님 밑에서 PhD를 수료한 후 Havard 대학교 화학과에서 Post-Doc

(박사후 과정)을 보냈습니다. 귀국 후에는 KIST에서 3년 정도 근무했으며, 그 후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로서 근무하게 되었네요.

박: 교수님이 되신 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함원훈: 학교에서는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50년사를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임 학장이신 이향우, 이강춘, 지옥표 교수님 뒤를 이어 약학관 건립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고, 그 후 유선동, 박은석, 정규혁 학장과 교수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결실을 맺어, 2008년에 최신 시설의 약학관을 건립하게 되어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박: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함원훈: 학회 활동으로서는 대한약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약학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약품화학 분과학회장과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으로 유기합성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학에서 제가 공부한 분야는 Total Synthesis로, 입체구조가 복잡하며 몇 개 내지 수십 개의 Stereocenter를 가지는 아주 불안정한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체구조의 선택성을 조절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고등 유기화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20°C 이하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할 정도로 물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정제하고 순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특별한 노하우와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Oxazoline과 Oxazine Chiral Building blocks를 개발하여 다수의 Biologically active polyhydroxylated alkaloids를 성공적으로 합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고등유기화학책으로 가장 유명한 “Advanced Organic Chemistry, Fifth edition”에 Myriocin과 Sphingofungin F의 합성이 수록되는 영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총 77편 이상의 많은 논문으로 대한약학회 학술장려상(1994),



그림 1. 2007년 대한약학회 학술대상. 그림 2. 2015년 한국유기합성학회 대상. 그림 3. 2016년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대회.

학술대상(2007)과 더불어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상(2012), 학술대상(2015)을 수상하였습니다.

박: 연성정밀화학을 창업하시고 회장으로 재임 중이신데, 그 이야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함원훈: 원료의약품들이 통상적으로 5공정이 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고활성원료의약품의 제조는 20~50 공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제품의 제조는 그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비타민 D₃ 유도체 등 천연물 유래 원료의약품들은 그 활성이 높고 아주 불안정하며, 공정이 매우 길고 합성 난이도 또한 높기에 고도로 훈련된 연구인력과 숙련된 생산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고품질의 고가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학문적 탐구에만 집중하는 학교는 이러한 고활성원료의약품의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Total Synthesis에 필수적인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며, 연구 업적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고활성원료의약품 제조를 위한 기업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실험실의 연구 활동이 실제 산업계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응용되지 못하고 학문적 탐구에만 그치는 현실이 안타까워, 성대 약대 교수로 재직 중 학내벤처기업으로 연성정밀화학을 설립했습니다. 2000년 저를 비롯한 유기약품화학 전공의 약학박사 4명이 함께 창업에 도전하였고, 올해 2022년에는 700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성정밀화학은 인류건강과 복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 새로운 가치를



그림 4. 2020년 연성정밀화학 생산2동 준공식.



그림 5. 2022년 와이에스생명과학 착공식.

창조하는 의미의 우연지영(右研之營), 작성지화(作成之化)를 창업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연성(研成)’이란 사명 또한 우연지영과 작성지화에서 따왔습니다. 저는 연구를 회사 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 냄으로써 인류건강과 복지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박: 연성정밀화학의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원훈: 지난 20여 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복잡한 구조의 고품질 원료의약품들의 제조 및 공급으로 연성정밀화학만의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력 사업 분야인 원료의약품 제조에서 나아가 더 좋은 제형의 자체 완제 의약품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남이천에 cGMP 시스템과 최고의 설비를 갖추게 될 완제의약품 공장을 착공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제약 전문 그룹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박: 연성정밀화학의 경우 장학재단을 운영 중이신 걸로 아는데, 그 이야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함원훈: 연우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2010년에 설립하여, 매년 인근의 초·중·고등



그림 6. 2020 성균관대학교 기부금 전달식. 그림 7. 2020 성균관대학교 장학금 수여식. 그림 8.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 기부.

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커 나가길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사회 및 국가의 치명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 외에도 연성정밀화학의 창업 공간인 유기화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약학 및 유기화학 분야 대학원생들을 선발, 인재 양성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한국유기합성학회 이남순 학술상,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임중기 학술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임 성균관대 약대 교수로서 성대 약대 사랑을 실현하고자 6억 원의 장학금을 약정하고, 기부하고 있습니다.

박: 학교에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에 공헌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은데, 앞으로 교수님의 미래 계획은 어찌 되실지요?

함원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과도한 욕심보다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얽매이면, 자칫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이는 비단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 전체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소와 같이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욕심을 버리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묵묵히 수행하여 유종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박: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원훈: 모든 일에 끈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자신의 이상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길 응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William Ernest Henley의 ‘Invictus’의 마지막 두 행인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이라는 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날의 주인은 자신 스스로인 만큼 자신의 미래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의지, 열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확신은 대학원 지도 교수인 Paquette씨의 영향이 컸으며, 그분과의 만남이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자연과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실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한 분야를 꾸준하게 연구·개발해야만 현실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덕분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함원훈: 저는 다른 동급생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동창생들보다 좀 달랐던 차이는 ‘나는 나의 장래 진로를 정한 후 포기하지 않고 대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런 차이가 적어도 40년 이상 지속되면서 큰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박: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함원훈: 제가 학장으로 있을 때, 2003년도에 저희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50년사를 발간했어요. 책자로 만들며 같이 수고하신 교수님들과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기념 만찬과 동문 한마음 체육대회도 했어요. 특히 당시에 유선동 교수, 이석용 교수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혼연일치가 되어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희생을 보여주신 다른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기화학 강의를 잘 들어준 학생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60명 정도 되는 대학원생들이 저희 실험실에서 졸업하였는데, 스승과 제자로 만나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연구에 매진한 덕분에 좋은 연구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점 매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대 약대 교수로 많은 제자를 만나고 훌륭한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과 더불어 전공이 같은 많은 교수님을 만났고, 나를 지도하시고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많은 스승님과 헌신적이고 겸손한 아내와 내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만남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그분들 덕에 이렇게 지금도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자 행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림 9. 성균관대학교 함원훈 명예교수 녹취사진.



함원훈 명예교수

학력

1971.-197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1977.-1979.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1981.-1985. Ohio State University 대학원 박사

경력

1986.-1987. Harvard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1987.-19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연구원
 1990.-2018. 02.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1992.-1994.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학과장

2000.-2010. 05. 연성정밀화학(주) CSO(기술 지원 및 연구/개발 총괄)
 2002.-2004.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학장
 2004.-2005.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약학연구소장
 2005.-2006. 대한약학회 편집위원장
 2008.-2010.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2009.-2010. 대한약학회 약품화학 분과학회장
 2010. 06.-현재 연성정밀화학(주) 대표이사/회장
 2017.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
 2018. 02.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정년 퇴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늘 겸손하고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살기를 바라며

황규자

- 일시: 2022년 5월 25일(1차), 8월 22일(2차)
- 장소: 그레이스힐(서울 강서구 양천로 470)
- 대담자: 김진석 학장

약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그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절이라 연합군의 야간폭격에 대비한다며 밤에 등불을 켜지 못하게 등화관제(燈火管制)가 실시되고 모든 생활필수품이 귀한 시절이었다.

어머니는 셋째 동생을 출산한 뒤에 어깨에 생긴 단독이란 병을 민간요법인 미꾸라지를 찢어서 발라 치료를 하게 되었다. 추운 엄동설한에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 논으로 가실때 따라다니면서 애쓰는 것을 보았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항생제 같은 약품이 없던 시절이라 어깨에 구멍을 뚫고 찢은 미꾸라지를 넣어서 독을 빼는 민간요법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나는 과학자가 되어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

1950년 6·25전쟁으로 수도는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부산 동대신동 구덕수원지

앞 100여 평에 임시교사 2동과 4교실을 신축하여 개강하게 되었다. 1953년 9월에 정부 환도에 따라 서울 본교로 복귀하였고, 이과에서 약학과로 편입한 학생과 같이 공부하였다. 환도 후 교사는 동관 1층을 강의실과 교수실, 실험실로 사용하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강의실 부족으로 본관에서도 강의받았고, 실험실은 동관 옆 임시콘서트 교사 2동을 지어 실습하고 유독물질은 야외에서 하기도 하였다. 실험을 위한 기구시설은 부족하였으며, 천평(천칭)도 한 대였으므로 이를 사용하려면 일찍부터 실험실을 차지하여야 했고 수도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고, 부산, 진주 등 지방 학생들이 부지런한 편이었다.

광화문에 있는 화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대학에 출강해주셨고 덕분에 방학중 그곳 연구소에서 실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수련자로서 같이 공부하였던 수녀님이 성모병원의 초대 약국장도 하시고 수녀원 원장도 하셨지만 오래전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림 1. 신입생 환영회 소풍.



그림 2. 고인석, 채례석, 김수익 교수님과 함께.



그림 3. 박수선 교수님 독일 출국 환송회 기념.



그림 4. 함부르크대학의 같은 부서분들과 박수선 교수(가운데).

기숙사 생활을 같이하셨던 박수선 은사님은 독일 함부르크대학에 가시기 위해 여의도 공항에서 출국하셨고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여건에서 다녀오셨다. 숙대에서도 겨울에는 수도가 끊기고 난방이 연탄난로로 유지되는 시기였기에 제대로 연구 여건이 되지 않는 시기였다.

연세대는 우리 대학보다 나은 시설과 여건이기에 그곳 대학의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행금지가 있는 시기였기에 참으로 여러 가지 극복할 것이 많았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신입생 환영 소풍도 즐기면서 가족처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회고한다.

일본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 武藤 研究室(1970. 7~1971. 3)

武藤 교실원 전원이 모여 성대한 환영회를 받았다. 武藤 교수는 외부의 활동이



그림 5. 김영자 수녀님과 졸업사진.



그림 6. 박수선 교수님, 사감 선생님, 약학과 친구들과 함께.



그림 7. 柳澤 연구실 연구원들.



그림 8. 숙명 약대 교수단 일본 도쿄대학 연구실 견학.

활발하였으므로, 주로 대학원 학생과 같이 전기화학에 의한 분석법 연구에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기구 등도 기증받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귀국 후 교수님의 방한 기회가 되어 KIST의 연구원도 참석하여 성대하게 환영식을 해드릴 기회가 되었다.

일본 규슈대학 공학부 합성화학과 上野 研究室(1971. 4~1971. 12)

규슈대학은 오랜 전통을 가진 국립대학이므로 도서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 장대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원 학생들의 세미나도 참석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도 보고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다. 그 후 한참 혼란기였던 시기였기에 방학을 이용해서 단수여권을 본인이 마련하여 여권 만료일에 맞추어 연구할 수 있는 上野 研究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장비로 인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1980년도에 이르게 되자 우리나라의 여건도 향상되었고, 한일 간의 공동연구 학회 발표회도 가질 수 있게 되어 上野 교수의 방한도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연구도 고려하게 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수님도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게이오대학 공학부 응용화학과 柳澤 研究室(1980. 2~1980. 8)

일본 게이오대학 공학부 응용화학과에 방문 교수로 가게 되었다. 이 무렵 숙명 약대 교수님들이 일본에 오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펍 반가웠다. 작고하신 上野 교수님의 성모도 할 수 있었다. 도쿄대학에 내가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생산기술연구소와 도쿄대학 본교도 방문하여 교수님도 뵙고 연구실도 견학할 기회를 얻었다. 펍 의미 있는 기회였다.

柳澤 연구실에서는 주로 대기오염에 대해 연구를 했다. 그 후 호주 시드니의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한국이 학회의 이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한국대기환경학회가 눈부시게



그림 9. 일본 도쿄 대학 생산기술연구소 방문.



그림 10. 일본분석화학회.



그림 11.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World Clean Air Congress 개회식 참석.

발전하여 국제학회에서도 활발한 연구 발표가 진행 중이다.

회고록

일본에서 Expo 70 박람회가 시작되는 1970년 7월에 처음으로 여권을 본인이 준비하고 안보 교육을 받은 후 출국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초등학생이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사랑하는 참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보릿고개 시절이었다. 처음으로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의 武藤 研究室에서 불소이온전극을 이용한 분석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2편의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고 학회지에 실었다.

그 당시 북한에 복송되고자 하는 청년 金군이 있었고, 북한에 가면 대학에 보내준다니 꼭 가겠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생각에 숙소인 인터내셔널룻지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하였다. 복송된 청년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武藤 교수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다. 승려 자격을 갖춘 분으로 방송국에 출연해서서 불교 강의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외부 활동이 활발하셨다. 연구실 냉장고에는 항상 자유로이 마실 수 있는 맥주가 꼭 차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연구차 간 교수가 대학원생 지도만 받기에는 아쉬웠다. 그래서 학회 때 분석화학 분야에서 유명한 上野景平 교수를 만나 뵙고 규슈대학 연구실에 가기로 허락을 받았다. 물론 武藤 교수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여 규슈대학 공학부 합성화학 과 연구실로 옮기게 되었다.



그림 12. 上野 교수님의 성묘.



그림 13. 이준 열사 묘소 앞.



그림 14. 헤이그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그림 15. 송동헌 교수 내외와 함께.



그림 16. 제2회 IUAPPA 지역대기오염 국제학술회의.



그림 17. 제9회 World Clean Air Congress and Exhibition.



그림 18. 제7회 IUAPPA Regional Conference for Pacific Rim November 2~4 1994, Taipei.



그림 19. 武藤연구실 교실원과 함께 환영회.

당시에는 일본에서 조총련의 활동이 참으로 활발한 시기였다. 특히 일본에서 복송한 일본인이 있고 대학 캠퍼스의 경찰 출입은 불가였지만 연구 중인 조총련계 학생은 가능했다. 규슈대학 외국인 숙소에서 조총련계 학생이 우리를 방문하고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사항을 관람할 것을 권유하였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포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한국의 혼란기였던 1970년대에 방학을 이용해서 단수여권을 마련하여 3개월 정도 연구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 철야하면서 연구하다가 서울 비행기를 놓치고 부산으로 가서 다시 서울에 오는 일도 있었고, 실험 시 소요되는 시약이나 재료가 공항에서는 신기하여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1980년에 여행이 자율화되자 게이오대학 방문 교수로 있을 때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님들이 일본 대학 견학을 위한 방문단으로 오기로 하였다. 참으로 반가웠고 내가 있었던 동경대학 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 연구실도 안내받아 뜻깊은 견학을 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돌이켜보면 1970년도 일본의 대학과 연구실을 방문하여 그들의 연구 자세와 연구 시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바가 컸고 우리도 노력하면 가능하리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우리 후배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특히 약학 분야는 1953년 4개 대학이 증설되어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간 4년제였던 제도가 6년제로 향상되고 의약 분업으로 모든 종합병원이 있는 대학이 약학과를 증설하였고, 임상 분야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게 된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앞으로 약학 분야는 의학 분야와 상생해야 하는 분야이기에 의약품 사용에 비중을 두고 더욱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학생처장(1977. 12~1979. 12)

학생처장은 졸업생으로서 당연히 봉사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979. 1. 26.~2. 16. 3주간의 여행은 대한민국 대학생 대표단을 구성하여 유럽 지역 방문에 여행 목적을 둔 첫 시도로 부단장의 자격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 대표 18명, 연대 학생처장, 숙대 학생처장, 문교부 직원 3명 등 23명이 구성된 여행단이고 서독, 영국, 프랑스 3개국 유럽 여행이었다. 일정은 다음 [표-1]과 같다.

특히 유서 깊은 유럽대학을 견학하고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부러움을 느꼈다. 모든 것은 꾸준한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선진국에 나가서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이 저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1] 일정표

서독	Bonn University 방문 Heidelberg 성 관람 Heidelberg University 방문 Olympic Stadium 관람	München University 방문 자유백림대 방문 Berlin 장벽 방문
영국	버킹검 궁전 관람 Greenwich Park 천문대 방문 Oxford University 방문	Shakespeare 생가 방문 Anne Hathaway 집 관람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관람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파리 7대학 한국어과 방문 노틀담 사원 관람

김진석 교수(이하 김): 그러면 교수님,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좀더 해 주시면 제가 받아 적을 만큼 좀 받아적고, 거의 다 정리해 주셨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주시죠. 정년 퇴임하시고 꽤 시간도 되고 보니 이런 걸 우리 후학들, 약학 공부하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지금 약대 교수로 있는 후배들에게 꼭 좀 전해 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황규자: 내가 대단히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나의 회고록이라고 해서 조금 적었으니까 이제 사진만 여기 첨부한 거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워드에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셔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교정할 거 교정해서 쓰면 돼요.

김: 아까 잠시 말씀 주신 게 아버님께서도 학교에서 교육을 하셨다고요?

황규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현재 수원 농대 전신인 수원고농 출신이신데 현재 명예의 전당에 농학자로 선택되셔서 거기에 전시되고 계세요. 그 당시에 농업학교가 진주와 춘천 두 곳 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학교 출신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KIST의 초대소장인 최형섭씨, 화학자이신 김태봉 교수, 시인인 설창수씨 등 두각을 나타낸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학교가 농업학교밖에는 없었으니까 그게 출발점이 되어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신 걸로 압니다. 아버님은 홍성이 본적지이고 거기서 자라셨는데 수원고농을 졸업하시고 처음 직장을 진주 농업학교의 교사로 취업하셨어요.

그 후 농업학교에서 장학사로 발탁되셔서 부산 도청에 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남해 군수로 남해 섬에 가게 되었지요.

그 당시 남해 섬은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아버님이 농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곳 농촌에 적합한 유자, 비자, 치자를 농민들에게 장려하여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군수인 분이 자전거를 타고 농촌을 순방하면서 농촌계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에를 집에서 기르게 하고 누에실을 뽑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어릴 때 회고하면 식물채집을 하면서 광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굉장히 아주 개방적으로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해방 직전에 진주의 군수가 되셨는데 해방이 됐죠. 그 뒤에 졸업생들이 다시 진주 농업학교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 농업학교가 그 지역에 대학이 없으니 전문대학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처음엔 2년제 도립학교로, 그 다음엔 이제 4년제로 농과대학을 설립했고, 그게 확대가 되면서 경상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 후 4·19가 나서 그만두시고 떠나시면서 결국은 서산농업학교로 가셨고 이제 대전에서 교장으로 계시다가 초대



그림 20. 武藤 교수님 모시고 학회 참석, 기기연구소 관람.



그림 21. 제2회 한일분석화학회.



그림 22. 제3회 한일 분석화학회.



그림 23. 한일 분석학회 참석차 부산대학교에서.



그림 24. 上野 교수 내외와 학회 참석.



그림 25. 上野 교수 내외와 학회 참석 후 관광.



그림 26. 대한화학회 55회 학술대회 시 제2회 한일분석화학 심포지움 개최.



그림 27. 중대 약대 손동헌 교수내외, 황규자 교수 내외 일본 화학회 참석.

교육감이 되셨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또 학생들이 분열이 돼서 아주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걸 전부 다 잘 이겨내셨죠.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한 번도 야단맞거나 맞은 적이 없어요. 정말 인자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교육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 아버님이 교수들 대하는 태도나 이러한 모습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 가 있는 오라버님하고 같이 아버님의 일대기라고 해서 좀 적는 게 좋겠다고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원하시면 내가 하나 갖다 드릴게요. 지금도 생각하면 대단히 행복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될 정도로 아버님이 참 푸근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지니셨어요. 예전에 학장으로 계셨던 학장 관사가 상당히 넓었어요. 거기에 모든 식물을 재배하고 정지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다 관리하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걸 봤기 때문에 그만큼 식물에 대해서도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지요.

김: 아버님께서 그 시절에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기 참 진짜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교수님께서 숙대 다니실 때도 아마 6·25전쟁 막 끝나거나 아마 그 전이었던 거죠?

황규자: 그러니까 6·25 지난 바로 1953년이었어요.

김: 그러면 숙대 때도 부산의 그런 분교 같은데 있었나요? 수원지 신동 동대신동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황규자: 그러시구나. 거기 백 평 빌려서 교실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바닥은 모랫바닥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고는 6개월 있다가 환도를 한 거예요.

김: 근데 어떻게 전쟁 중에 그렇게 대학을 지방에서?

황규자: 아버님이 교육자시니까.

김: 숙대 1회이시지 않습니까?

황규자: 그렇죠. 서울에서 내려온 이원식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열정이랄까? 이런 거를 이 분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실험도 하게 해주시고. 보니까, 그것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김: 실험할 수 있는 뭘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황규자: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여튼 진주여고에 그 당시 서울에서 피난 온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법대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문리과 대학 들어간 친구도 있고, 의과대학에 간 친구도 있고. 우리 진주여고에서 입학한 친구들이 많아요.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던 수도가 6개월 후에 환도하니까 우리가 서울로 따라갔죠. 그러고는 그때는 뭐 폐허였죠. 다행히 본관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본관에서 강의도 받고, 기숙사가 그래도 남아 있어서 기숙사를 수리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했었죠. 당시 지방 학생, 특히 부산 학생, 진주 학생들이 많았어요.

김: 그럼 서울로 숙대 약대가 왔을 때는 그 터가 지금 있는?

황규자: 그 본관 건물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강당이 있었는데, 강당하고 본관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있었어요. 본관은 이제 거의 수리도 하고 증축도 하고 했지만. 하여튼 그게 남아 있어서 그 옆에다가 지금 교수 숙소가 돼 있는 그쪽에 실험실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래도 기숙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리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참 열악했죠. 천평(천칭) 같은 것도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서둘러 가야했고. 그 당시 중앙화학연구소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화학연구소에

근무하던 분들이 많이 강의 나왔죠. 그것도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강의하니까 우리가 방학 때에는 거기 가서 실험을 했어요. 그 덕을 본 셈이죠. 비록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열심히 했고, 그 결과 국가시험도 그때 45명 인가 얼마인가 전원 합격하고 그랬어요.

김: 그러면 1회 입학생들이 꽤 많았었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황규자: 이과대학에서 편입한 것도 적어났어요. 편입한 사람하고 약학과로 입학해서 부산서 간 사람을 합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은 탈락하기도 하고 했지만, 국가시험 칠 때는 아마 45명이 합격한 걸로 기억해요.

김: 대학 들어갈 때 지금은 수능 시험이지만, 저희 때는 예비고사니 본고사니 그런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통에는 시험을 어떻게 했을지요?

황규자: 그런 거 없었죠. 그런데 약사 시험은 있었죠. 그게 약사 자격이 되는 시험이니까 그건 아주 대단했죠. 열심히 했어요. 실험은 없었지만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시험을 치는 때가 되면은 학교에서도 야단이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김: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숙대 약대에서 교수님을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황규자: 주로 중앙화학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출강하시고.

김: 중앙화학연구소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국가기관 같은 곳인가 보죠?

황규자: 그게 광화문에 있었어요. 광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때 거기 가서

실험했어요. 합성 분야, 분석 분야 등 각 분야별로 돼 있는 연구실에 가서.

김: 중앙화학연구소인가는 나중에?

황규자: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 화학연구소가 대전으로 갔잖아요. 대전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소의 전신인 거죠. 당시엔 광화문에 있어서 우리가 그 덕을 봤어요. 하여튼 어려운 시기였지만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회의 날을 하고 있죠? 그 재회의 날도 우리 1회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육회를 하면서 우리 1회가 첫 번째고 재회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점점 발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효창공원 있죠? 효창공원에서 체육 대회도 많이 했어요. 소위 단합대회 같은거죠. 가장행렬 때는 유관순으로 해서 내가 나가기도 하고. 내가 그걸 다 했지. 김태희 교수는 간호장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의 여건이 그러니까 공과대학까지 쳤는데 이제 낙방했고 난 또 서울대를 치겠다고 했는데 낙방하고 해서 도리가 없이 숙대 그대로 있겠다고 해서 는 조교로 있었던 거예요. 조교가 처음에는 다섯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전임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우리 월급 같이 분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 다섯 사람이 이제 두 사람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전임이 없는 강사실이고 어찌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학교 분규가 있어서 그게 약대가 또 문제가 됐어요. 박수선 교수님이 그 문제로 해서 정직당하고 하여튼 그 당시는 우리 교수들이 경찰서에 붙들려가고 별사건들이 많았어요. 이제 잘못된 건 부정 입학인데, 본부에서는 그걸 무마하려고 전학을 시키고 별짓을 다하고... 하여튼 우리가 조교로 있으면서 전임 강사 되는 그 과정도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업적이 있느니 없느니 또 졸업생이니 아니니 하면서 굉장히 그야말로 학교 분규 때문에 우리도 많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두 사람이 그래도 남아 가지고.

김: 1회 졸업생으로는 교수님이랑 김태희 교수님 두 분이 숙대에 계셨죠.

황규자: 2회는 정규선 교수고요.

김: 그렇죠. 미생물 하셨던 정규선 교수님. 정규선 교수님이 2회이시고, 그리고는 한참 뒤에...

황규자: 표명윤 선생, 박은희 선생이 그 다음이죠. 아마 박은희 선생이 조교로 있었고 전임은 아니었어요. 박은희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작고했죠. 그리고 이제 양기숙 선생님.

김: 양기숙 선생님이 조금 뒤에 오셨고 어디 다른 데서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오셨다고.

황규자: 그래요. 환경연구소.

김: 그렇게 오셔서 저도 이제 교수님 기억하고 한 학기 같이 있으니깐 그 다음에 정규선 교수님은 조금 더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밑으로는 잘 알죠. 표명윤 교수님, 박은희 교수님, 그 다음에 양기숙 교수님, 김안근 교수님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쪽 밑으로 와서 이제 강영숙 교수, 그 다음에 송윤선 교수라고 지금 학생처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이어서요. 송윤선 교수는 박은희 교수님 제자예요.

지금 커피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1999년도 3월에 와서 제가 교수님 방에 인사드리러 간 그날 가끔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3월 중순쯤 됐나 교수님 방에 인사를 갔더니 교수님께서 첫 말씀이 “내가 그 방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인사를 와서 고맙네요.”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때 전쟁 중이고 그러긴 했지만 여러 전공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약대를 내가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고 했었던 생각이나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

황규자: 우리 친정어머님이 단독(Erysipelas)을 앓았어요. 단독이라는 게 어깨가 굽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서 내가 과학자가 돼야 하겠다 하는 거 회고록에도 한마디 썼어요.

김: 단독이 지금 요즘 같으면 어떤 질병입니까? 어깨가 굽는다는 게?

황규자: 그게 원인이 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화농이 돼요. 화농이 되니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독을 빨라고 미꾸라지를 거기다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모든 게 너무 열악했죠. 그렇게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걸 보고는 내가 도움이 되는 걸 해야 하겠다 했죠.

김: 약대 들어오셔서 한 4년 다니시면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서울에서 주로 기숙사 생활 하셨죠?

황규자: 그럼요. 기숙사 생활했죠. 기숙사 생활하면서 방학 때가 돼도 내려가지 않고, 어학 좀 배우겠다고 학원에 다니고 그랬어.

김: 영어 학원이었나요?

황규자: 그런 거 하겠다고 방학 때도 내려가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김: 그때 숙대 다니실 때는 물론 학기 중에는 수업이 있었겠지만, 방학 때는 수업 말고 무슨, 뭐라고 하나 그 당시에 서클 활동이라고 했나요?

황규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전쟁통인데 뭐.

김: 그럼, 오히려 방학 때도 막 이렇게 지금의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황규자: 아르바이트라는 게 없었어요.

김: 아 없었군요. 저는 이제 1980년대에 약대를 다녔으니까 저희 때는 방학 때 이렇게 의료봉사 다녔죠.

황규자: 그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자랑을 할 정도 그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처음에 일본을 가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가방도 있고 한데, 우리는 유치원 가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중동에서 돈을 벌어서는 겨우 먹고살게 된 거예요. 그런 열악한 시절에 라면이 어디 있어요?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잘살아 보자 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숙대에 합격했다, 이대에 합격했다 그런게 시집가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럴 정도의 상태였으니 딸을 어디에다가 보내 교육을 시켜요? 그건 특수한 경우죠. 딸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은 그 집이 개인 집이지. 보통 집은 시킬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누이가 동생 배움을 시키기 위해서 공장에 나갈 때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김: 그때 대학도 등록금 이런 걸 냈겠죠?

황규자: 당연히 냈죠. 그때는 장학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학교가 어렵고 모든 것들이 열악했으니까.

김: 교수님 전쟁 끝나고 1953년도에 약대 들어가셔서 졸업할 무렵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4·19 일어나고 5·16 그즈음이죠?

황규자: 그렇죠. 그때 되게 혼란스러웠죠. 그때 학생들이 데모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신발이 쌓여 있었고 아이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이지 그 혼란기에 그러니까 일본에 연구차 도망을 간 거죠. 단수여권을 만들어서 방학 이용해서 한 3달 동안은 할 수 있으니까, 규슈대학으로 날아간 거지요. 단수여권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행기 놓쳐서 부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밤새고 연구하다 보니까 짐도 쌀 시간이 없고 그러니 비행기를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수여권이니까 그날 출국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부산으로 가서 또 서울로 비행기 타고 오고, 이런 별별 짓을 다한 거죠. 그때 규슈대학은 연구 여건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해 연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갔어요. 방학 때마다. 거의 그때는 데모들 하고 그러고 야단하느라고 수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김: 아까 말씀하신 그 조교, 무급 조교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조교라고 하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를 마치거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건가요?

황규자: 그러니까 조교로 있으면서, 또 전임 강사로 있으면서 석사 과정하고, 서울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서강대도 가 강의받았어요. 그땐 그 방법밖에는 없었지요. 내가 내 신분 하나만 지킬 수가 없어.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 그래도 교수님 이제 유기 합성이라고 하는 거 전공을 딱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황규자: 그러니까 처음에 석사 때는 분석학이었어요. 노일협 교수가 이제 분석을 하니까 “넌 나가”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임이 돼서 전임 시간이 필요한데, 합성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가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분야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그때부터 일본에 있는 백금 촉체를 이용해서 항암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조교도 보내고 나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하고

했으니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포항제철에 있는 연구소에 무슨 기계가 있다고 해서 조교도 보내서 그 기계로 측정해오고 별짓을 다 하면서.

김: 그때는 이렇게 T/O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깐 한 분이 먼저 딱 선점하면 다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가야 하고 나가든지 다른 걸 선택하든지?

황규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죠.



그림 28. 숙명여자대학교 황규자 명예교수 녹취현장.



황규자 명예교수

학력

- 1953. 03. 진주여자 중·고등학교 졸업
- 1957. 03.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 1964. 09.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 1978. 02.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

- 경력**
- 1957. 04.-1961. 05.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조교
- 1961. 05.-1965. 08.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
- 1965. 09.-1969. 02.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 1969. 03.-1972. 02.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 1970. 03.-1970. 08.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과장

- 1970. 07.-1971. 03. 일본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 객원연구원
- 1971. 04.-1971. 12. 일본 규슈대학 공학부 합성화학과 객원연구원
- 1972. 03.-1999. 08.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1973. 03.-1974. 02.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소장
- 1977. 12.-1979. 12.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처장
- 1980. 02.-1980. 08. 일본 게이오대학 공학부 응용화학과 방문교수
- 1980. 09.-1982. 08.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과장
- 1982. 09.-1984. 08.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84. 03.-1986. 02. 숙명여자대학교 보건소 소장
- 1990. 04.-1998. 02. 숙명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 소장
- 1995. 01.-1996. 12. 대한약학회 부회장
- 1995. 01.-1998. 12. 대한약학회 이사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함께 한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허근

- 일시: 2022년 7월 7일 오후 12시
- 장소: 서울시 송파구 어물전청 레스토랑
- 대담자: 김종오 학장, 권영주(이화여대 약대) 교수

김종오: 약품분석 전공에서 약리학을 선택하고 활동하신 허근 명예교수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허근: 먼저 바쁘신 중에 저의 구술사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김종오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이 많이 지난 기억을 되살려 저의 생각을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편집하실 때 첨삭 과정으로 잘 다듬어서 구독하는 후학들이 창의와 혁신이 담긴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과 성장, 대학입학

저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널리 알려진 충청강 하류 안주 평야의 농촌 마을에서 193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지냈으므로 초등과정은 일본식 식민지 교육과 북한 교육, 중학교에서는 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우는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한에 왔습니다. 게다가 전란과 전선 생활로 인해 5년여 기간

의 교육 공백기를 가진 만학도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는 흥분 속에서 청운의 꿈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대구대학교 이공학부 약학과(1967년, 대구대학교 청구대학을 통합하여 영남대학교로 개교)에 입학하고 보니 故 장억규 교수님 혼자서 강의와 학사 업무를 전담하시는 열악한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2학년 진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에서 故 한보식 교수님이 오셔서 분석학을 담당하셨는데, 강의를 스마트하고 내용도 다른 단순 암기과목보다 흥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생각 끝에 교수님을 찾아가 면접을 마치고 초대 1호 분석학 교실원이 되어 연구실을 관리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약학교육은 일본 식민지 시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으므로 화학 위주의 암기과목들이 교육과정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4학년에 진급하여 약리학을 수강하면서 감각과 동경의 충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약리학(약물학)이 국가시험 과목도 아니었고 모든 약학대학에 약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없었으므로, 의과대학 약리학 교실에 강의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지역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도 경북대 약리학 교실에 강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출강하셨던 교수님은 혼자서 경북대 의대는 물론, 효성여자대학교(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셨습니다. 매우 바쁘셨기 때문에 강의 교재나 방식, 내용도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교재는 세계적으로 약리학의 정석으로 알려진 Goodman and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에서 발췌한 내용에 의학용어를 섞어서 칠판에 판서하며 강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강한 타 과목에 비해 방법과 내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고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여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막연하지만 약리학이 약학교육의 중심이 되는 필수적인 분야라 생각하며 머릿속에 동경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생활

학부 2학년 때부터 약품분석학 연구실에 있었으므로 분석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학부생 분석실험 준비와 보조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원 2년 차는 석사학위 논문 준비에 필요한 실험 방향을 정하고 실험에 착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약리학 그림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과감한 결심을 하고 무작정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님을 찾아가 제 포부를 말씀드렸더니,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분석과 연구 분야도 생똥맞게 다른 약리학 연구실에 가서 실험하겠다는 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미는 격이었으므로 추천서 얻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분석 실험실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차질 없이 할 것이며 파트타임으로 시간 날 때만 가서 생약 성분 분석과 약리작용을 실험하겠다고 간곡하게 간청한 끝에 어렵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리학 교실 생활

경북대 의대는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있던 의학 교육기관이었으므로 기본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스칸디나비아반도 3국의 기자재 지원으로 실험 여건이 충분하였습니다. 오전엔 분석실험실 일을 하고, 오후에 약리학 교실로 달려가 늦은 밤까지 공부하며 실험에 몰두한 결과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주어진 기일 내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택사(澤瀉)의 이노작용에 관한 연구의 실험 결과를 학회에 발표하고 분석학 전공 약학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리학 교실에서의 저의 연구실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주임 교수님은 후일 저를 약리학 연구실 조교로 추천하고 임명받도록 하여 본격적으로 약리학을 전공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약리학 교실 창설

영남대 약대 교수에 부임하여 생리학, 약리학과 실험을 담당했습니다. 실험실은 유리 기구 몇 개만 있는 황무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약리학 실험 장치 Kymography

(이후 Physiograph로 발전하였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가 당장 필요한데, 이 기기를 구입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본체인 원동형 회전기는 여러 기계 부속품을 모아서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적출 장기를 매달고 상태를 관찰하는 magnus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항온수조가 문제였습니다. 머릿속에 숙제로 담고 다니다 관상용 물고기를 파는 상점 앞을 지나면서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즉석에서 수입된 어항 부속품을 구입, 조립하여 항온수조를 만들어 실험에 이용했던 것이 새삼스럽게 기억납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젊은 교수가 이런 장치로 관찰한 실험 성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부정적인 평가를 한데 반해 경륜이 많은 교수님은 저런 노력이 가상하다며 없다고 안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한 노력이 더 높이 평가된다는 격려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한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 Physiograph를 구입하였지요. 원시적이고 보잘것없는 지난날의 이야기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학에 대하여

당시 일본 문부성 유학 장학제도는 비교적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처리하며 시험에 합격하여 유학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유학할 대학은 본인이 택하는 제도였는데, 저는 새로운 분야로 알려진 약물대사와 약리 작용에 관심을 갖고 유학 대상 대학을 찾아보았습니다. 교수님들을 비롯해 많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전통 있는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을 강력하게 추천하였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Biochemical Pharmacology 분야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오사카대학을 과감하게 선택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의과대학 출신으로 임상에서 신경과 경험이 있으셨으며,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연구실의 실험기구나 시설은 처음 보는 현대식 기구로 갖추어져 있었으며, 매일 흥분과 긴장상태로 지냈으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Allopurinol 이란 약물의 독성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물은 Purine의 화학구조와 유사하므로 항암제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통풍치료제로 이용되고 있지요. 작용 기전은 핵산 염기 대사과정의 말단에 작용하는 Xanthine Dehydrogenase(XDH) 활성을 억제하여 요산 생성을 감소시키는 약제입니다. 생쥐에 치사량을 투여하고 관찰한 실험에서 수컷이 암컷보다 치명률이 현저히 높은 성차(Sex Difference)를 나타냈으며 사망원인은 이 약물의 산화성 대사산물(Oxipurinol)이 신장 조직에 축적되어 손상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제 실험에서 나타나는 성차(Sex Difference)가 왜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박사학위 Theme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약리학 분야는 물론 생화학 및 내분비학 등 여러 관련 분야의 논문과 실험자료를 조사하며 공부하고 설계하여 단계적으로 실험에 착수하였습니다.

고환과 난소를 절제한 중성 실험동물을 만들고, 이 동물에 Testosterone과 Estradiol을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성교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Allopurinol의 대사 속도와 치명률 등을 다각적으로 관찰하였습니다. ¹⁴C-labeling된 Allopurinol을 합성하고 간에서의 대사과정을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측정, 관찰하는 안전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실험이었습니다.

과량의 Allopurinol을 생쥐에게 투여하고 간에서의 대사과정을 관찰하였을 때, Aldehyde Oxidase가 주 산화효소로 작용하며, 이 효소의 활성 발현이 Testosterone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컷의 신장에 산화 대사물인 Oxipurinol이 보다 많이 축적되므로 암컷보다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Journal of Biochemical Pharmacology*에 게재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관련 논문 발표와 소정의 과정을 거쳐 약리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학술활동

생리화학적 약리학은 활성물질을 연구하는 의약 계통 분야는 물론, 영양학, 식품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공동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에서 'Xanthine Oxidase 활성화에 대한 마늘 성분의 영향'을 발표하여 서울대 이상섭 교수님이 발표하신 고추 성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았고 기사화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연구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소리없이 도움을 주신 이상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문 간의 전문성을 서로 존중하며 다학제 간의 공동연구과제를 주도하는 Collaborator로의 역할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활성산소연구

활성산소는 산소 분자에서 유리된 것으로 O_2^- , H_2O_2 , OH radical 등과 같은 활성이 강한 인자들을 말합니다. 강한 활성 때문에 생체방어작용뿐만 아니라 조직 손상을 일으켜 발암, 노화 및 염증 등을 일으키는 발병인자로 지목되는 이중성(Paradox)을 지니고 있습니다. Allopurinol에 의해 활성이 억제되는 Xanthine Dehydrogenase(XDH)는 병태 생리 환경에서 형 전환(Type Conversion)이 일어나 Xanthine Oxidase(XO)로 되면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연구가 XO와 연관된 분야였으므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습니다. 이 분야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황무지와 같은 연구영역이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약리학 교실 정명희 교수님과 함께 한국 프리라디칼 학회 창립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위에서 XDH가 XO로 전환되는 병태생리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위조직 손상을 일으켜 염증이 생기며 이 과정을 조절하는 약물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대한 소화기내과 학회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되었을 때, 위암 등 발병인자로 지목되는 *Helicobacter*



그림 1. 연구실험 모습.

*pylori*균을 위 내용물에서 발견하고 연구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마셜 박사와 장시간 대화할 수 있어 다행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물들은 신약개발이나 의약품 수출입 과정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되었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연구 활동은 식약청(현 식약처) 청장 발탁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맺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생활환경의 인프라도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석학에서 전공을 약리학으로 바꾸는 선택은, 지내온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영남대학교 교수 생활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약리학 교실을 거쳐 간 교실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에 의한 것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교수 출신으로서 관료 생활 초년생이었던 저를 보필하여 우리나라 신약 1호 출원 및 신약개발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약청장 직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신 동료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곁들입니다.



그림 2. 어물전정 레스토랑에서 구술녹취 장면.



허근 명예교수

학력

- 1956. 03-1960. 02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사
- 1960. 03-1962. 02 영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학석사
- 1972. 03-1974. 02 일본 Osaka대학교 대학원 약학박사(약리학)

경력

- 1966.-1968. 경북대 의대 약리학교실 조교
- 1968.-2002. 영남대학교 약리·독성학교실 교수
- 1976.-1989.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장
- 1986.-1999.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1989.-1990. Georgia 대학 약리독성학 교실 연구 객원교수
- 1989.-1990. 대한약리학회 회장
- 1989.-1998. 한국분자생물학회 대의원, 영남지부 회장
- 1991.-1993.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92.-1994. 대한약학회 부회장
- 1994.-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종신회원
- 1996.-1998. 영남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소장
- 1996.-1998. 한국생화학회 이사

- 1999.-2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1999.-2002. 한국과학기술 자문봉사단 단원, 분과위원장
- 2001.-2003. 영남대학교 대학원 원장
- 2002.-2003. 한국노화학회장
- 2003.-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 2007.-2010.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
- 2009.-2010. 대구경북 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
- 2013.-2019. 대구광역시 자문관
- 2014.-2022. (사)식약처동우회 초대~3대 회장

수상

- 1983. 대한약학회 학술상
- 1993. 대한약학회 학술본상
- 2002. 경북문화상
- 2002. 약의상
- 2002. 황조근조훈장
- 2003. 녹조근조훈장
- 2012. 대한약사금장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우석과 함께한 37년 나의 인생

은재순

- 일시: 2022년 5월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전주시 송천동 '오늘의 날씨' 카페
- 대담자: 전종현 학생회장, 김유정 부학생회장
- 녹취 및 정리: 전종현

전종현(이하 전): 안녕하세요, 은재순 교수님. 우석대학교와 우석대학교 약학과에 많은 공헌을 하셔서 이름으로만 전해 듣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가족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은재순: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보다 원로 교수님이 두 분이나 더 계시는데, 강민구 학장이 저에게 원로교수 취재 부탁해서 굉장히 당황했고 극구 사양하였으나, 우석대학교 약학과에 제일 처음 부임하셔서 과거사를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으니 인터뷰에 응해 달라고 끈질기게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전에 먼저 두 분 원로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은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같은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어 인연이 되었기에 결혼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1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딸로 서울에서 피부과 의사로, 둘째는 아들로 전주에서 안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정(이하 김): 교수님께서서는 언제부터 우석대학교에 부임하셨고, 부임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은재순: 1979년 전주에 우석대학교 약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이 전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1980년 고인이 되신 설립자인 서정상 박사님을 만나 대학을 설립한 목적 및 고향에 대한 사명감을 듣고 감명을 받아 약학과에 처음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렇다면 우석대학교의 초창기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은재순: 설립자인 서정상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대학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약학과를 신설해 주지 않으면 대학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약학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셨기에, 1979년에 약학과를 포함하여 5개 학과를 허가받아 대학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는 모두 여자대학이 있었는데, 호남지역에만 여자대학이 없어서 호남지역의 유일한 여자대학인 전주우석여자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1980년에 남녀공학인 전주우석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동산캠퍼스에 대학이 있었는데 3년 후에 현재의 삼례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1992년에 종합대학 시스템을 갖추어 전주우석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었으나, 전주라는 명칭이 한정된 이미지를 준다고 하여, 1995년에 전주를 빼고 우석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말씀을 들어보면, 우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서정상 박사님과 많은 일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재순: 우석(又石)은 한자로 또 우(又)에 돌 석(石) 자를 쓰는데, 이는 고인이 되신

서정상 박사님의 아호입니다. 아호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호의 뜻처럼 서정상 박사님께서서는 항상 근면, 검소를 행동으로 실천하셨고, ‘黃金百萬兩不如一教子(황금 백만량의 가치는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만 못하다)’를 좌우명으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정상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신 후 전주고등학교에서 화학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이후에, 전북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부임하셔서 후학을 양성하시다가 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대학 이사장과 전북일보사 사장을 겸임하시면서도 약학과에서 유기화학, 유기약품제조 화학, 신약학 등 8학점을 강의하실 정도로 약학과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약사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은 전국에 여러 명 계시지만,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설립하신 분은 아마도 서정상 박사님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실 때 고학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대학교를 다니셨는데도, 졸업 후 근면 검소의 정신으로 돈을 모아 먼저 전북일보사를 인수하셨고, 그 다음 우석중학교, 우석고등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 우석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셨습니다. 서정상 박사님께서서는 인촌 김성수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이분이 모두 다 알다시피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만드신 설립자이십니다. 그분을 본받아 신문사를 처음에 인수하고 후에 학교 법인을 설립하셨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전: 우석대학교 약학과는 초창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은재순: 당시 우석대학교는 실험실에 기자재도 없고 연구할 수 있는 기기들이 부족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982년도에 교육부에서 일본차관을 받을 대학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장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일본 차관 1억 엔을 받아 연구 기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당시 1억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였는데, 그 당시 9급 공무원 월급이 12만 원 정도였으니,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덕분에 신설된 대학으로서 좋은 연구 기자재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 차관이 7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었는데, 엔화 환율이 계속 올라 1982년에 3억 원이 몇 년 후에 7억 원,

또 몇 년 후에 10억 원이 되어 차관을 매년 상환해도 상환해야 할 액수가 증가하는 옷지 못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차관 도입을 주장했던 저는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약학과에 초창기부터 연구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82년도부터 저는 약학과장을 했습니다. 약학과 1회 학생들이 1983년도 1월에 처음으로 약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어 있어, 국가고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교수회의를 자주하게 되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교수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을 위해 4학년 때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르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가고시 과목이 12과목이었는데,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4과목, 1~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8과목이었습니다. 8과목은 배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8과목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힘들었고,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도 힘들었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4년 동안 계속하여 약사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예전 이야기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은재순: 1989년도에 저희 대학교에 직원 노조가 생겨서 오랫동안 노조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학교나 노조나 모두 힘들어하는 중이었는데, 노조와 교수 연석회의에서 사무직이 아닌 교수가 사무처장을 하면 노조가 투쟁을 멈추겠다고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재단에서 받아 주기로 하여, 이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39살에 대학 본부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사무처장을 맡게 되어서 명칭을 총무처장으로 변경하여 주었으며, 총무처장으로 임명되어 1년간 열심히 노력하여 노조 투쟁에 의한 후유증을 거의 해결하였으나, 그 당시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엄청 힘들었어요. 노조와 재단의 중간에 서서 그 두 집단을 잘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양쪽 모두 피해 없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같아, 고생은 하였지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993년도에는 한약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약국이 휴업하게 되고,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사의 한약 조제를 금지했습니다. 약사들 처지에서는 그동안 한약조제를 다 했는데, 하루 만에 조제를 못 하게 되니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이후, 1996년도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약조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약조제 시험을 통과한 약사에게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약사들이 한약조제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한약조제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양약과 한약 모두를 분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며, 약학과와 한의학과가 모두 있는 대학, 즉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3개 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약은 의약분업이 되었지만, 한약은 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부가 시행했던 제도들과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네요. 그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재순: 1996년에 우석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어 약학대학이 만들어졌고, 초대 학장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 7월에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쪽, 약사는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현재는 주사제 및 몇몇 약들을 제외하고 분업이 되어있지만, 아직도 약사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분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의약분업이 되려면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의사들은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어 아직 상품명 처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제도가 생동성 실험입니다. 똑같은 성분의 약일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해 그 동등성이 입증되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가능하게 허가해 주었습니다. 완전한 의약분업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도 조금씩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재직하시는 동안 교내외적 활동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교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재순: 2004년도에 전국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집니다. 산학협력단이란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대학 내에 학교 법인 외에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 준 것입니다. 우석대학교의 초대 산학협력단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예산 및 직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었으며, 산학연 연구과제 도출 등 산학협력단의 기틀을 잡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산학협력단장으로 근무할 때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연구비가 적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음을 실감하고 직접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는 국가 대형 연구과제에 선정되었는데,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원광대학교 공과대학이 참여하여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이라는 연구팀을 만들어 연구를 수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의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2004년부터 8년간 약 40억 정도의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받아 연구를 수행한 덕분에 약학과 교수님들이 연구업적을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대학원장을 하었는데 이때 기억에 남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북한에 GMP 시설을 갖춘 수액제를 만드는 유일한 제약회사인 정성수액약품공장을 만들어 준 후, 품질관리를 위해 2008년 9월에 종합품질관리실 준공식을 하었는데, 이때 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동행하여 평양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성수액약품공장에 가보면, '정성의학 종합센터 종합품질관리실은 북측의 정성의학 종합센터와 남측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불교방송,



그림 1. 백두산 등반.



그림 2. 북한의약품공장 준공식.



그림 3. 북한 정성수액약품공장 전경.

복지공동모금회, LG 디스플레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준공하였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팻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으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열악한 제약 시설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준공식 다음 날 백두산을 등정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백두산 삼지연 공항으로 갔습니다. 백두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3대가 발복을 해야지만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기상환경이 좋지 않아 백두산 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백두산을 등정할때 천지를 보지 못했지만, 다음 해 중국 연변으로 가서 백두산을 등정하여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에 캄보디아 훈센 총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던 일입니다. 저희 대학 총장님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직접 학위를 수여하였는데, 그날이 캄보디아 국경일이라 캄보디아 TV 방송사에서 학위 수여식을 생중계하였습니다. 그 후 캄보디아 부총리 등의 간절한 요구로 3명의 고위 관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더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훈센 총리 및 캄보디아 고위 관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잘 알고 있듯이 캄보디아는 오래전부터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친북 성향이 강했던 국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활발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의 노력이 일조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4. 캄보디아총리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전: 교외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재순: 2002년도에 대한약사회 약학위원장을 맡아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의약분업 실시 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에 법안이 통과해서 2001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약사들은 여태까지 해 온 것과 전혀 다른 제도에 대해 당황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들의 권익과 의약분업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사들을 위한 복약지도책을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4년 남원세계허브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세계허브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일과 2005년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던 일들도 기억납니다.

전: 그렇다면,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은재순: 제가 36년 동안 우석대학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제자들 결혼식 주례를 가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멋있게 살라라.”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으면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멋있게 살라고 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잘 살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 마지막으로,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재순: 재직시절과 정년 후에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100개국을 여행하는 것인데, 현재 75개국 정도를 여행하였으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여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전혀 외국을 못

나갔는데, 올가을부터는 다시 해외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강을 계속 유지해서 100개국을 다니는 게 희망이고, 그래서 매일 저녁 5km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골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는 꽤 잘해서 2007년도 전국 약학대학교수 골프대회에서 우승도 했었고, 제1회 세계 성균인 골프대회 시니어부에서 우승도 했었습니다. 제 아내도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부 골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것도 부부의 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5. 마추픽추.

2007년도에 제 연구실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제자들과 함께 『임상약리학』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본래 이 교재를 쓰게 된 동기는, 약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약리학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약리학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약의 작용 기전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였고, 국내에서 발간된 교재들이 주로 외국 교재를 번역하다 보니 외국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 교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들을 소개한 특징이 있는 교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덕분인지 1년에 약 2천 권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초판을 발행했고, 3~4년 간격으로 재판을 발행하여 2021년에 5판을 발행하였으며, 3~4년 후에는 6판을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교수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재순: 앞에서 말했듯이 저보다 원로 교수님이 두 분이더 계시는데, 자격도 없는 제가 인터뷰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바쁘데도 불구하고 기록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전종현 학생회장과 김유정 학생부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림 6. 우석대학교 은재순 명예교수 녹취현장.



은재순 명예교수

학력

- 1968. 03.-1970. 02. 전주고등학교 졸
- 1971. 03.-1975. 02.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1975. 03.-1977. 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석사
- 1980. 03.-1983. 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

경력

- 1981. 03.-1983. 02. 우석대학교 약학과 전임강사
- 1983. 03.-1988. 02. 우석대학교 약학과 조교수
- 1982. 03.-1988. 02. 우석대학교 약학과 학과장
- 1988. 03.-1992. 02. 우석대학교 약학과 부교수
- 1988. 03.-1991. 02. 우석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소장
- 1989. 06.-1989. 08. 일본 나고야대학 농학부 객원교수
- 1989. 11.-1991. 02. 우석대학교 총무처장
- 1992. 03.-2017. 02. 우석대학교 약학과 교수
- 1992. 03.-2016. 07.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 1995. 06.-1995. 08. 일본 나고야대학 의학부 객원교수
- 1996. 03.-1998. 02.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98. 03.-1990. 02. 우석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소장
- 2002. 03.-2004. 02.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약학위원장
- 2004. 03.-2006. 02.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2004. 04.-2005. 03.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2004. 11.-2006. 11. (재) 전북테크노파크 운영위원
- 2004. 12.-2005. 11. 남원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2004. 12.-2005. 11. 2005년 남원세계허브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2005. 01.-2005. 12.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
- 2005. 01.-2006. 12.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약물학분과회 회장
- 2005. 03.-2016. 08.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이사
- 2008. 03.-2012. 02. 우석대학교 대학원 원장
- 2010. 01.-2011. 0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문교수
- 2012. 11.-2013. 02. 우석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의장
- 2013. 07.-2015. 06. 우석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
- 2017. 05.-2021. 12. (재) 대한환경보건원 이사
- 2009. 03.-현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 2017. 02.-현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원광에서 은혜 입은 나의 삶

안년형

-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오후 12시
- 장소: 대전광역시 '마실'
- 대담자: 김윤철 교수, 정길생(충남대 약대) 교수, 이동성(조선대 약대) 교수

김윤철(이하 김): 오랜만에 교수님을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년형: 세상이 좋아졌다 싶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떤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진행: 원래 도인이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어떤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죽음도 별로 새롭지 않고 그렇게 두렵지 않아서 종교의 힘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원광대학교 약학과 1회이신데 어떤 계기로 입학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년형: 그때도 입시병이라는 것이 있었나 봐요. 3수를 했어요. 초등학교 동기는 서울대학교 상대에 입학했고 고등학교 동기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욕심이 생겨서 그 정도의 대학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형님이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이 생겼다고 원서를 넣는다고 그러하는데 무엇보다도

3수나 하는 처지에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입학할 하게 되었어요.

김: 그때도 입학경쟁률이 높았나요?

안년형: 아무래도 1회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김: 학교생활은 어떠셨어요?

안년형: 학교생활은 잘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대학이 아니어서 약간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원불교’를 알고 나서 조금 지내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올리고 3년 묵혔나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이 열네 번째로 신설되니까 전국 약사들이 나서서 교수님들이 원광대 강의를 못 나가게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심길순 교수님께서 위생화학에, 정성분석에 이왕규 교수님, 생약학의 한대석 교수님 이 세 분들이 와주시고 이화여대에서 정기용 교수님이 무기화학 강의하러 와 주셔서 점차로 자리가 잡혔어요. 교수님들께서 용기를 내셔서 강의를 해주신 덕분에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준행 교수님이 학과장을 맡으시고, 이화여대를 나오시고 원광대학 식품영양학과에 계시던 백승희 교수님이 약학과로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들께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기차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차표를 예매하고 찾아서 드리는 심부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교가 없어서 내가 학생이었지만 거의 모든 실습 준비를 맡아서 했어요. 특히, 1학년 때 정성분석실험을 이왕규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실험준비를 혼자서 다 했어요.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도 했지만 밤늦게까지 많은 시약들을 준비하는 일이 무척 힘들었어요. 미지물질 분석까지 다했으니까 내가 참 무리한 일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들은 당연히 내가 학교에 남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고 양심을 지키고 해야 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쓰고 싶은대로 쓰고 살아야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졸업식을 하고 짐을 꾸리고 있는데 박길진 학장님(그 당시는 단과대학이었음)께서 부르시더니 “학교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것도 보람이 있는 일이니 한 번 공부해서 해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장님이 저를 얼굴만 아시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텐데 아마 백승희 교수님이 학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학장님과 백 교수님 두 분 어르신들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듯하여 1년만 참아보자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했는데, 1년이 지났어도 교육자의 길은 양심상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짐을 꾸려서 택시 타려고 나가는 도중에 백승희 교수님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김: 교수님께서서는 역시 완전 모범생이셨네요. 또 다른 학창 시절의 추억이 궁금합니다.

안년형: 글썄요...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약학관에 있었던 실험대는 전부 내가 아닐린 블랙을 칠한 것이었어요. 아닐린블랙이 검정색이어서 시약이 떨어져도 표시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름방학 때 약학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실험대마다 아닐린과 황산을 3번씩 칠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4학년 때까지 학년마다 혼자서 실습 준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제일 힘든 것이 위생화학, 정성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왕규 교수님께서 정성분석실습을 담당하셨는데 교수님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기차표도 역에 가서 사났다가 드리는 일을 매주 했으니까요. 이왕규 교수님께서도



그림 1. 정량분석실습 준비

저를 교수님 댁에 초대해 주셔서 하룻밤 묵고 처음으로 서울 구경도 하게 되었어요.

김: 제1회로 입학했기 때문에 선배들도 없어서 약사국가시험 준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안년형: 1회 동기들이 참 잘했어요. 전국 약사들이 교수님들의 원광대 출강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들은 우리가 모교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푹푹 뭉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1회 졸업생 중에서 1명이 불합격해서 약사고시 100% 합격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당시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고 항의하는 학생들이 약사고시를 보이콧하여서 결과적으로 그 해에 한 번 더 약사고시를 치르게 되었고 이때 불합격했던 학생도 합격을 해서 우리 동기들이 전원합격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께서 '삼동회'와 같은 학생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교수님께서 봉사 동아리를 만드셨는지요?



그림 2. 원광대학 약학과생 일동(1966. 04. 28.).

안년형: 약대 봉사동아리는 이서운 교수님이 만드신 ‘개미반’도 있었지만 학생봉사활동은 ‘삼동회’가 있었어요. ‘삼동회’는 백승희 교수님이 가정대학에 계실 때 만들었던 학생봉사 동아리였는데, 백 교수님이 약학대학으로 오시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약대생과 가정대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마다 15일씩 봉사활동을 했어요. 나도 백 교수님과 함께 열심히 했죠.

김: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의 기억에 남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1996년 ‘원약동문장학재단 설립’이실 것 같은데 장학재단 설립에 관하여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년형: 앞서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모두 동문이니까 한마음으로 뭉치고 노력해서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이재운 동창회장에게 말했더니 흔쾌히 동의 해주었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림 3. 약학박사학위 취득

지역별, 동기별로 연락을 취하고 장학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지 10개월 만에 무려 1,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여 2억2천3백만 원의 거금을 조성하게 되었어요. 그 후 동문들이 더 참여해서 3억 6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구요. 졸업생들이 1년에 1만 원씩만 기부하고 세월이 흐르면 재학생 전체가 등록금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장학재단을 운영하다 보니 까 마음처럼 쉽지 않고 내 체면을 봐서 장학금을 기탁하는 사람만 있지 더 늘지 않아서 더 이상 모금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정년을 맞이했을 때는 장학재단에 좀 보태야 했지만 그 보다는 아프리카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원약동문장학재단’이 전국 약대 중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는데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사임기를 마치는 분들을 약학과 교수님으로 위촉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교수님의 별명을 ‘음유시인’이라고 불렀어요. 생화학과 인생과 철학을 엮어서 강의해 주셔서요.

안년형: 그것은 원불교의 덕이라고 생각해요. 원불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사실 즉 진리를 밝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비취졌나 봐요. 내가 정년 할 때 학생들이 커다란 천에 TCA cycle을 그려놓고 그 안에 얼굴 사진 찍어놓고 밑에다 좋은 글을 써줘서 고마웠고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김: 원불교는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접하셨나요?

안년형: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딱히 어떤 종교를 가져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원광대학교에 입학한 후 원불교 교리를 읽어보니까 아주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좌선도 하고, 일요일에는 법회도 나가고, 학교 강의가 빈 시간에는 1년에 한 달씩 하는 원불교 교무 강습에 참가할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김: 끝으로 저희 후배들이나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년형: 옛날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예전과 많이 달라서 옛날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도 짧게 부탁한다면, “남에게 폐만 안 끼치고 살면 좋겠다.” 이 한마디만



그림 4.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제1회 졸업 20주년 기념식(1989. 04. 22.).

부탁할까 합니다. 81학번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그때 나를 초대해주어서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한 졸업생이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내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새삼 내가 크게 틀린 말은 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김: 지금까지 교수님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996년 임용되어 교수님께서 정년하신 2009년까지 교수님을 뵈면서 느낀 점은 전등 하나라도 소등하시는 학교 사랑의 마음과 늘 학생들의 사진을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자상하게 면담하시는 학생 사랑의 마음이 지금의 우리 원광대학교 약학과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 모두 교수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림 5. 왼쪽부터 이동성 교수, 정길생 교수, 안년형 명예교수, 김윤철 교수.



안년형 명예교수

학력

1963. 02. 호남고등학교 졸업
 1969. 0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1971. 0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석사
 1980. 0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박사

경력

1973. 10.-1976. 09.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과장
 1979. 03.-1981. 11. 원광대학교 부속기관 자연과학관 부관장

1982. 01.-1982. 12. 미국 Rutgers University of New Jersey
 방문교수
 1988. 03.-1990. 0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1991. 01.-1991. 12.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방문교수
 1995. 01.-1996. 1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1995. 03.-1996. 12.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원장
 1996. 03.-2008. 03. (재)원약동문장학재단 이사장
 1997. 01.-1998. 12. (사)대한약학회 부회장
 1999. 09.-2001. 08.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2005. 03.-2007. 02. 원광대학교 대학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지난날을 생각하며...

김춘미

- 일시: 2022년 5월 12일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관 A동 204호 글로벌 라운지
- 대담자: 이화정 교수, 이윤실 학장, 김화정 교수, 서은경 교수, 권영주 교수, 황은숙 교수, 우현애 교수
- 녹취 및 정리: 이화정, 이윤실

이화정 교수(이하 이): 이번에 김춘미 선생님을 모시고 약학인으로 살아오신 지난날들의 삶에 대해 녹취하게 된 것은 약학사분과학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약학계와 이화여대 약대의 역사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춘미 교수님과 함께 배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성장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미: 저는 1943년 4월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1남 3녀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 3살이던 1946년 어느 날 깜깜한 밤에 가족들과 함께 숨죽이며 숲길을 걸어 몰래 월남하였습니다. 그때 제 동생은 갓난아기였고 엄마의 등에 업혀 있었는데 다행히도 울지 않아서 온 가족이 들키지 않고 서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1950년 4월에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제대로 학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6월 25일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계셨기 때문에 인민군이 쳐들어온 서울에서 공습경보가 울릴 때마다 마루에

파 놓은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 포탄 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곤 했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 배급받은 옥수수가루에 물을 넣고 끓여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소금이 없어 간을 하지 못한 옥수수죽은 정말 먹기 힘들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했어요.

당시 아버지는 중앙정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붙잡히면 이북으로 끌려갈 처지라 집을 떠나 숨어다니셨고, 병석에 누운 어머니와 네 아이들은 가끔 수염이 온 얼굴을 덮은 할아버지 행색으로 집에 들러 먹을 것을 주고 가시는 아버지만 기다리며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불쌍했던 날들을 보냈어요. 그해 10월경 인민군들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지만, 인천상륙작전으로 미군이 들어와 전세가 역전되고 황해도 지나 사리원까지 진격해 올라갔지요. 하지만 12월경부터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었고 다음 해 1·4후퇴 때 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하신 트럭에 어머니는 누우시고 우리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추운 바람을 피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어딘지 기억에는 없지만 큰 방 하나를 얻어 한동안 거기서 여섯 식구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부산 임시수도 피난 정부에 출근하시게 되면서 우리 생활은 정상을 찾았고, 낮은 언덕에 천막을 치고 피난국민학교가 시작되자 1학년 3학기로 입학해서 다니게 되었지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매일 귀신 얘기, 사람 죽은 얘기들이 돌았고 천막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던 참으로 흥흥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1953년 4학년 때 서울로 돌아와 보니 우리 집 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집안은 완전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다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고,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입학시험을 치르고 1956년에 경기여중에 들어갔고 다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1959년에 경기여고에 입학했지요. 그 후 196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대 약대에 입학하였습니다. 1960년의 4·19혁명과 1961년의 5·16쿠데타를 거친 후 매년 입시제도와 입학정원이 바뀌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입학하던 해에는 딱 한 번으로 끝나버린 학력고사를 치렀고, 약대 정원도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 우리 학년은 학생 수가 가장 적었고 결국 97명이 졸업했어요.

이: 이화여대 약대를 진학하시게 된 계기와 재학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춘미: 전쟁 후 경제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는 여성도 전문직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에 저에게 약대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지요. 당시 이대 약대는 우수한 여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전망의 대상이었고 보수적인 아버지는 여대를 더 선호하셨기에 결국 이대 약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약대생들은 자랑스럽게 주홍색 배지를 항상 가슴에 달고 다녔고, 토요일까지 꼭 차 있는 강의와 실습시간에 쫓기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화 교정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나의 대학 시절에는 낭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었고 멋진 여행을 해 보지도 못했지요.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쓰며 1학년을 어영부영 보내고 나서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미국 유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팍 차 있었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유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당시 문과생들은 4학년을 마치고 유학 시험을 치렀지만, 이과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유학 시험을 치를 수 있었기에 저는 2학년 내내 약대 공부하면서도 유학 시험 과목인 영어와 국사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국 2학년을 마친 겨울방학에 유학 시험을 보았고, 경북공 담벼락에 붙어 있던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정말 기뻐했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일단 유학 시험에 합격해 놓고 3학년 때부터는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국 공보관을 찾아가서 약대가 있는 미국 대학 10여 곳의 브로슈어를 찾아 대학 정보를 메모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편지를 써서 결국 5~6개 대학으로부터 대학원 입학 관련 서류들을 받았어요. 당시 유학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제가 직접 유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추천서와 함께 미국 대학에 보내는 등 유학을 위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 복사기도 없던 시절의 상황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김춘미: 경기여고 재학시절, 당시 박은혜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있어 보였어요.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지요. 당시 대부분의 여성은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현모양처’라고 대답하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처음에는 경기여고 교장이 되고 싶었고, 나중에 그분이 이화여대 교수를 하시다가 경기여고 교장으로 부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교수가 되기로 마음을 정하고 꾸준히 그 길을 모색하며 노력했습니다.

이: 대학 재학시절 낭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유학 준비에 매진했다고 하셨는데 유학 시절은 어떠셨나요?

김춘미: 4학년 말 성적을 보내야 대학원 입학이 최종 허가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중, 정기용 교수님께서 유학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조교로 일해 달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1966년 2월에 졸업하고 바로 정기용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해 4월 즈음에 한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지만, 조교로 일하던 중이라 바로 출국하지 못하고 한 학기를 더 근무한 후 그해 겨울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북한보다도 못살았고 대한항공도 없던 때라 Northwest Airline을 타고 갔는데 한국인이라고는 나와 미국으로 돌아간 미군 남편을 찾아가는 여성, 딱 둘 뿐이었어요. 당시 가난한 유학생들은 짐 싣는 배를 타고 두 달 정도 걸려서 미국에 가기도 했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문화적 충격은, 오늘날 한국에서 미국인들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는 요즘 사람들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Korea라는 나라를 아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었고 동양인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깡통 김치를 부모님이 보내주시면 냄새 때문에 숨어서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도 미국인들은 남의 일에 일절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편히 지낼 수 있었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학생이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처음 간 대학이 여러 가지로 맘에 들지 않아, 가고 싶었으나 입학 허가서를 받지 못했던 보스턴의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에 연락하니 정기용 교수님 추천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입학은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기용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추천서를 보내니 입학 허가서가 와서 그 대학으로 transfer를 했어요.

결국 이 대학원에서 1969년에 유기합성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1972년에 생화학분야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석·박 통합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서 석사논문을 따로 써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지도교수님을 만나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뉴욕 맨해튼에 있는 Cornell Medical College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연구 생활을 했고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뉴욕 Bronx에 있는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에서 Research Fellow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림 1. 유학 시절 지도교수(Dr. Foye)와 함께.

이: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하시고 학장을 역임하시면서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춘미: 1979년 8월에 귀국해서 1980년도부터 이대 약대 교수로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과 동물세포 사이의 hybrid cell을 만들어 유전자 전이(gene transfer)를 연구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귀국 후에는 같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연구비가 없어 첨단 분야의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지요. 당시 cell hybridization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많아 여기저기 특강을 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내 나라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귀국 이후의 생활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실행 가능한 연구과제를 찾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힘들었고 교육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으며 내 의도대로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신입 교수의 비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학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이유는 약학 신관을 건축해야 하는 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학장을 하지 않으신 선배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셨기에 몇 번 고사하였으나 총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이미 기공식을 한 후라서 학장직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건축을 시작하였고, 업자 선정은 전문가들이 있는 재무처에 일임하고, 그 외 건축의 모든 과정은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1994년 6월에 훌륭한 신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고 싶네요. 처음 약학관 신축이 결정되었을 때의 설계는 총 600여 평에 건물 중앙이 4층까지 뽕 뚫려있는 구조였습니다. 설계된 대로 600여 평을 지어서는 머지않아 공간이 모자라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당시 교학부장(현 부학장)이었던 저는 학장님과 함께 윤후정 총장님을 찾아뵙고 중앙 부분을 2층까지만 뚫고 3, 4층에는 교수실과 교수연구실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총장님께서도 흔쾌히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서 설계를 변경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1,100평이 넘는 현재의 신관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신관이 준공된 후에는 구관인 과학관의 창문을 교체하고 방의 용도를 변경하며 동물실을 만드는 등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40년 이상 거의 그대로 사용되어 오던 낡은 건물을 깨끗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 년 후인 2003년에 두 번째 학장직을 맡았을 때는, 2005년에 실시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의 약학대학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대 약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교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되는 개가를 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학대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수정원을 늘리는 것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당시 신인령 총장께서 약대에 새로운 TO를 일곱 자리나 주셔서 교수 요원을 25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확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들었던 일은 공채로 14명의 교수를 채용한 일이었습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인성이 좋은 분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본적인 덕목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했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변화는 교육부가 2005년에 대학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이화여대가 전공 차이가 크지 않은 약학과와 제약학과의 통합을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두 전공의 통합을 받아들이는 대신 120명 정원을 3 분반으로 하여 그동안 한 분반에 60명이던 것을 40명으로 줄임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게 되었고, 연구비와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아 학부 교육과 연구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화의 물결이 거세어지면서 한국의 약학대학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6년제를 해야 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약학대학 학장협의회에서는 통합 6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지요. 그러나 의과대학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2009년부터 2+4 제도에 의한 6년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4 제도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의대 사정도 바뀌면서 2022년부터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대로 통합 6년제가 시행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확장직을 수행하면서 항상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대 약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약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각 교수님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최선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학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고 교육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과과정의 개선과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고민은 앞으로도 후배 교수들에 의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대 약대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김춘미: 우리 대학은 여성 교육 기관이므로 항상 여성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조자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분위기에 서 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졸업생들은 리더로 활약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남성우월주의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장이 많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21세기에는 성차별이 용납되지 않으므로 여성들이 맘껏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약사로서의 기본 업무뿐 아니라 과학, 교육, 사회복지, 정치, 공직 등 모든 분야에서 리더로 활약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도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전공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함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협력, 소통,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융합적이고도 복합적인 교육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미 이대 약대는 이 부분의 노력을 시작하였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리더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춘미: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라'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직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이 들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리 큰 거짓이 아닐지라도 한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정직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2. 구술 녹취에 참여한 이화여대 현직 교수와 함께. 이화여대 약학관 A동 204호 글로벌라운지
(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화정 교수, 김화정 교수, 황은숙 교수, 권영주 교수, 우현애 교수,
서은경 교수, 김춘미 명예교수, 이윤실 학장).



김춘미 명예교수

학력

- 1962. 02.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66. 0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 1969. 06. 미국 매사추세츠 약학대학 대학원 석사
- 1972. 06. 미국 매사추세츠 약학대학 대학원 박사

경력

- 1972. 07.-1974. 06. 미국 Cornell 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박사 후 연구원
- 1974. 07.-1979. 02. 미국 Albert Einstein 의과대학 유전학과 Research Fellow
- 1980. 09.-1984. 0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조교수
- 1984. 03.-1989. 0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부교수
- 1984. 03.-1988. 0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과장
- 1989. 03.-2005. 02.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 1991. 09.-1993. 06.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학부장

- 1993. 07.-1995. 07.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96. 01.-1998. 01.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전 및 의약품 등 규격분과위원회 위원
- 1996. 02.-1996. 12.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운영위원회 분과위원
- 1997. 01.-1998. 12. 대한약학회 부회장 겸 이사
- 1998. 03.-1999. 02. 미국 Cornell 대학교 화학생물학과 방문교수
- 2000. 01.-2004. 0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정대책 분과위원회 위원
- 2001. 02.-2004. 02.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출판위원회 위원
- 2002. 08.-2003. 07.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연구소장
- 2003. 03.-2004. 02.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주관 위원회 위원
- 2003. 08.-2007. 01.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원장
- 2005. 03.-2008. 08.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
- 2009. 12.-2011. 11.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과학전공 석좌교수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화학으로 시작된 나의 약학 인생

천승훈

-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오후 1시
-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귀향정'
- 대담자: 이용복 교수

이용복 교수(이하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승훈 교수님! 지금 저희는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에서 각 대학의 원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구술 약학사 자료를 만든다고 해서 어렵게 천승훈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승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출생이나 가족관계 등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7남매 중 장남이고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으며 생활이 넉넉지 않아 장남으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고생 좀 하셨겠네요. 그러면 어디서 출생하셨어요?

천승훈: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진도초등학교(그 당시는 진도국민학

교라 했음)에서 근무하셔서 누님하고 저는 진도초등학교 관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그럼 어떻게 광주일로 오신 거예요?

천승훈: 제가 5학년까지는 화순초등학교에 다녔는데 6학년 올라가기 전에 아버님이 광주극락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되어 가족이 광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이사 온 곳이 중앙초등학교 근처여서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저도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천 교수님과 7년 차이가 나니까 교수님께서 졸업하시고 나서야 제가 입학했겠네요. 사모님하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천승훈: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광주서중학교를 들어가셨겠네요. 서중 들어가서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가 밥 해주셨어요? 아니면?

천승훈: 그렇지요. 우리 가족은 광주 시내에 전세 살고 있었고 아버님께서 당시로는 꽤 먼 거리를 출퇴근 하셨습니다.

이: 광주서중학교를 졸업하시고 다음에 광주일로 들어갈 때도 시험 보셨죠?

천승훈: 시험 봤지요. 당시 서중과 일고는 한 캠퍼스에 같이 있었는데 동기들이 많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그래서 떨어진 학생 중 일부는 후년에 다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천승훈: 네. 후기 고등학교로 가거나 재수하거나 했습니다.

이: 맞아요. 그때 복중에서 일고로 많이 진학했지요.

천승훈: 네. 지금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들 중에는 중학교가 다른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어떤 계기로 진학하신 건가요?

천승훈: 당시 한 학년에 인문계가 3개 반이고 자연계가 5개 반이었습니다. 저는 자연계 반에 있었으며 제가 잘한 과목 중에 하나가 화학이었습니다. 그때 장홍돈 화학 선생님이 새로 오신 분이셨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하고 다르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셔서 화학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잘했습니다.

이: 그러셨구나. 화학을 좋아하시게 된 것이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으신 것이었네요.

천승훈: 네.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교수법에 매료돼가지고 화학에 빠진 거예요.

이: 그때 서울대학교는 계열별 입학이었죠? 그래서 자연계열, 공학계열?

천승훈: 아니에요. 그때는 단과대학, 학과별로 뽑았습니다.

이: 단과대학별로. 그러면 그때 바로 약대로?

천승훈: 네. 바로 약대로 들어갔습니다. 약대로 들어간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제약학과가 생긴 게 얼마 안 되었고 잘하는 화학을 응용하여 제약 산업계에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 약학과는 있는데 제약학과가 있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았죠?

천승훈: 얼마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 약대는 제약학과 40명, 약학과 40명 선발하여 신입생이 80명이었습니다.

이: 저희는 생약계열에서 약대로 갔는데 그때도 약대 정원은 80명이었어요.

천승훈: 그러니까 제약학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약대를 졸업하게 되면 면허증을 딸 수 있고, 특히 제약학과는 제약회사에 쉽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 그래서 제약학과에 진학하셨구나!

천승훈: 졸업 후 진로가 다양하다고 생각되어 동생들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까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몇 명이라 하셨죠?

천승훈: 남동생 넷하고 여동생 하나 그리고 누님과 저 해서 7남매입니다.

이: 여동생 1명하고 남동생 넷을 건사하려면 힘드셨겠네요.

천승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이: 저는 사 형제였으니까.

천승훈: 이 부총장님 덕도 저희와 비슷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고생 많으셨죠.

천승훈: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더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후회가 많습니다.

이: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서울대 약대를 같이 진학했던 동기는 있으세요?

천승훈: 조득조하고 기회룡 두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룡 선배님은 저도 생각하는데 참 특이하셨어요. 경기도 연천 부근에서 약국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네요.

천승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친구가 동기였고, 이제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일고 선배 중에 재수해서 같이 다녔던 분이 2~3명 있었습니다.

이: 광주전남 향우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광주일고 출신들이 꽤 많아 광주일고 향우회라고 하다가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른 마지막 학생이었기에 우리 이후로는 광주전남 향우회로 바뀌었는데 박시우 선배님이 그렇게 틀을 만들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회룡 선배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회룡이 형님이 군대 제대하시고 우리 약대로 복학하셨을 거예요. 회룡이 형님과 같이 향우회를 했을 때 아주 재미난 일화가 많습니다. 군대에서는 손가락 넓은 쪽으로 맞을래? 손가락 모서리로 맞을래? 하고 물어서 때렸다는 것도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서울대 약대에서 학과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천승훈: 대학 입시 지원자가 학과까지 결정해서 입학시험을 보았습니다.

이: 약학대학에서 약학과도 뽑고 제약학과도 뽑고 그런 상황이에요?

천승훈: 학과를 결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커트라인이 어디가 높았습니까? 제약학과의 더 높았겠죠?

천승훈: 기억나지 않지만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우리 때는 생약계열이었는데, 2학년 때 생약계열에서 약대로 올라갈 때 보면 제약학과 학점이 약학과보다 좀 더 높았지요.

천승훈: 다양한 이유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그리고 그때 약대를 연건동캠퍼스에서 다니셨어요?

천승훈: 네. 함춘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의대 본과 건물 뒤쪽에 약학대학 연구동, 강의동, 생약연구소 등이 있었으며 테니스코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함춘원에서 4년 동안 공부하셨어요?

천승훈: 네. 저희는 그랬는데 기억하기로 1975년에 관악산의 새 건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 저희는 관악캠퍼스에서 공부했죠.

천승훈: 1975년에 옮겼으니 71학번이 연건동캠퍼스에서 4년 대학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마지막 학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러면 교양 과목은 어떻게?

천승훈: 교양 과목 수업은 연건동캠퍼스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단과대학 별로 여러 곳에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 건너편 동승동캠퍼스에 문리대와 법대가 있었고, 신설동에 사범대, 동대문에 음대, 태릉에 공대캠퍼스 등이 있었습니다. 농대는 수원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태릉 공대캠퍼스 부지 안에 교양과정 부가 있어 당시 서울대 전체 신입생들은 1년간 태릉에서 주로 공부하였고 전공과목 수강할 때만 단과대학 캠퍼스로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통학버스가 청량리에서 태릉 교양과정부 건물 앞까지 정기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교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누님 친구의 동생을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를 했었습니다. 그 집이 고대 앞에 있었기에 청량리까지 걸어가서 통학버스 타고 교양과정부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정영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영사는 청와대의 지원으로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에서 '정'자와 '영'자를 따와 정영사라 했다고 알고 있으며 신입생은 들어갈 수가 없고 2학년 때부터 입사 가능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정영사에 계셨던 4학년 고수성 선배님께서 이야기 해주셔서 알고 있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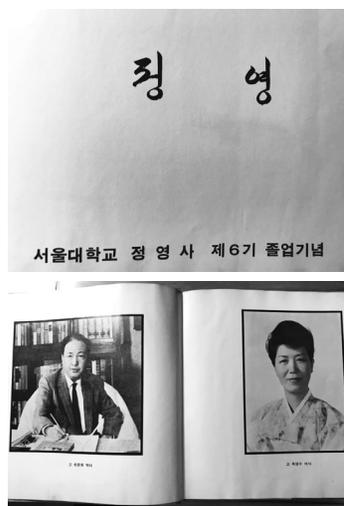


그림 1. 정영사 제6기 졸업 기념앨범(위, 아래).

니다. 그때 교수성 선배님께 많은 것을 배웠으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 (mentor)이십니다.

이: 정영사는 성적이 안 좋으면 못 들어가는 곳인데.

천승훈: 단과대학별로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성적이 안 좋으면 쫓겨나기도 하죠?

천승훈: 환경이 좋아 들어오면 다들 그대로 있으려했던 것 같습니다. 4층 건물이었으며 한 방에 2층 침대가 2개, 각 코너에 책상이 하나씩 있어 4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정원은 몇 명이었나요?

천승훈: 120명이었어요.

이: 그러면 3개 학년으로 나누면 한 학년에 40명 정도?

천승훈: 약대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 동기 차수만, 이승용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위 학년 선배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래로는 김규원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차수만 선배님은?

천승훈: 미국 뉴욕으로 이민 가서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 듣습니다.

이: 그러니까 저도 집이 가난해서 정영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무료로 숙식할 수 있는 정영사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천승훈: 기숙사비는 없었지만 식비는 음식 재료를 n분의 1로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거의 공짜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정영사에 들어가면 학비도 거의 면제고.

천승훈: 학비 면제가 아니고 정영사에 들어올 정도면 다 장학금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약대생에게 특히 좋았던 것은 5분 정도면 약대 강의동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저도 서울대에 가면 정영사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관악캠퍼스로 약대가 옮겨왔고 기숙사가 있어서 관악캠퍼스 기숙사로 들어갔었죠.

천승훈: 제가 정영사 6기입니다.

이: 정영사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가 완성된 다음에 없어졌나요? 우리 때도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천승훈: 1975년에 졸업한 제가 6기인데 45기가 있는 걸 보면 2010년대 중반까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영사 동문끼리 정영회를 만들어 지금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정영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림 2. 정영사 제6기 1975년 졸업앨범에서. 천승훈(앞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승용, 차수만(뒷줄 오른쪽에서 각각 두 번째와 일곱 번째).

이: 그러니까 관악캠퍼스에 기숙사가 생기고 나서 연건동캠퍼스 정영사에 대한 인식을 못 했을 따름이지 정영사는 존재했었군요. 연건동캠퍼스 어디쯤에 있었죠?

천승훈: 의대 본관 왼쪽에 있는 의대 도서관을 지나 서울대병원 가기 전에 왼쪽으로 내려 들어가면 용문사와 정영사가 있었어요. 용문사는 제일교포 학생들이 있었던 기숙사였습니다.

이: 그러니까 지금은 치과 병원과 어린이 병원이 있는 자리 아닌가요?

천승훈: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니 치과 병원과 어린이 병원 아래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리고 약대 다니면서 사모님도 만나셨다면서요?

천승훈: 네, 제약학과 40명 중에 여학생이 두 명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입니다. 약학과에는 여학생이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 동기는 80명 중에 18명이 여학생이었어요.

천승훈: 우리 학년엔 10명 정도였는데 7년 후엔 벌써 18명이었네요.

이: 근데 어떻게 두 명 중에 한 명을?

천승훈: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확실한 것은 집사람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이: 사모님께서 그러셨군요. 약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공부 잘하는 것은 전통인데

우리 동기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김상건이가 수석 졸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사모님이 수석 졸업하셨나요?

천승훈: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죠.

이: 사모님은 고향 어디신데요?

천승훈: 온양. 지금은 아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온양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온양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대전에서 중학교, 서울에서 경기여고 나왔었어요.

이: 약대에서 캠퍼스 커플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약대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그렇게 높이 봐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도 그렇게 되셨네요. 프리포즈는 교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사모님이 먼저 하셨어요? 물론 본인이 먼저 하셨겠죠.

천승훈: 당연히 그랬죠.

이: 그러면 언제부터 같이 사귀셨어요? 대학 다닐 때?

천승훈: 사귄 것은 3학년 때쯤입니다.

이: 그래서 졸업하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천승훈: 졸업하기 전에 징병검사를 갔는데 고도 근시라고 군에 안 가도 된대요.

이: 고도근시로 군 면제. 그러니까 완전 신의 아들이셨구먼.

천승훈: 시력이 나쁘니까 징병검사 전에 전대병원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자세히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신체검사 받을 때 제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어 그렇게 했더니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면제되었지만 3년간은 외국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학원은 가정 사정으로 다니기가 힘들어 졸업 전에 직장을 구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제 멘토이신 고수성 선배님께서 KIST 제약연구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시 선배님은 제약연구실 책임연구원이신 이화석 박사님 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며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 계통 항생제 합성 연구를 주로 하고 계셨습니다. 3년 근무가 끝날 무렵 미국에 유학 가시기 전에 저에게 KIST 입사 시험 준비, 면접 준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셔서 KIST에 합격하여, 졸업 후 제약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때 KIST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월곡동인가요?

천승훈: 정문은 홍릉 쪽에 있고 후문은 동덕여대 건너편 쪽에 있었습니다.

이: 지금과 같은 위치네요.

천승훈: 제약회사에 가는 것보다 좋았던 점은 연구 환경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수했으며 월급이 더 많았고, 연구원은 단지 내 기숙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등입니다. 무료 숙식이었기에 월급은 거의 전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책임연구원에게는 단지 내 아파트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키야 그때 KIST가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최초 연구소였죠?

천승훈: 미국 Johnson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함께 KIST를 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렇게 해서 KIST에서 3년간 계셨나요?

천승훈: 네. 3년간 근무하면서 유학과 이민 준비를 했죠. 그 당시에는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를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의사, 약사, 간호사는 미국대사관에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고 미국영사의 비자 면접에 통과하면 이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취업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거네요?

천승훈: 약사 취업 이민비자를 받더라도 미국에서 약사로 근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학을 가더라도 이민비자가 있으면 미국 생활에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하여 유학 수속은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는 학생 비자만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학생 비자가 거의 없었다는 건가요?

천승훈: 아닙니다. 사실 학생 비자를 받기가 더 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멘토이신 교수님 선배님이 미국 약사 취업이민도 알려주시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민 비자를 가지고 가면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유학 가기 위해 약대와 화학과를 알아보았는데, 약대에서는 장학금을 주는 곳이 없었지만 화학과는 실험조교(TA)를 하는 조건으로 입학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학부 실험조교를 하면 등록금 면제뿐 아니라 매달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KIST 3년 근무 끝나자마자 비행기 표 하나 사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이: 참 행복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성적이 좋아야겠어요.

천승훈: 그때 당시 상황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민 비자는 받아두고 미국을 가는데 공부할 목적이었으니까 애플리케이션은 약대와 자연대 화학과로 했는데 자연대 화학과에서 실험조교(TA) 조건으로 입학허가를 받으셨네요. 어느 대학으로 가셨어요?

천승훈: 웨인주립대학교(Wayne State University, WSU)이었고 디트로이트(Detroit) 미시간(Michigan)에 있는데 지도교수는 Robert K. Boeckman, Jr.이셨습니다.

이: 결혼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천승훈: 집사람 할머니가 결혼하고 가야된다고 하여 떠나기 바로 전에 결혼했죠.

이: 그 안에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은 그때 하고.

천승훈: 집사람은 졸업하고 동아제약에서 근무했어요. 미국에 혼자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 3년 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죠.

이: 그러면 형수님은 유학준비를 안하셨나요?

천승훈: 했죠. 집사람은 약대에서 입학허가만 받아 상당한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그러면 석사 과정부터 들어가셨겠네요? 석박사 통합 과정이었습니까?

천승훈: 집사람은 약제학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고, 저는 화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는 Cumulative examination이라는 것을 2년 안에 정해진 수만큼 통과하면 석사학위 없이 박사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Cumulative examination은 거의 매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출제교수와 시험 날짜만 공지됩니다. 시험 범위, 분야 등은 공지가 되지 않기에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신 저널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저널들을 두루 읽고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런 시험도 한 번 보고 싶다.

천승훈: 처음 몇 번은 답안지를 백지로 낸 후에 시간을 내서 최신 저널의 논문들을 구독하여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유기화학 전공이었지만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등 화학 전 분야를 두루 공부해야 했습니다. 힘이 많이 들고 어려웠지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다양하게 공부시키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천승훈: 그때 화학과는 그랬었어요. Cumulative examination 외에 어학 시험도 있었습니다. 독일어, 불어 등의 화학 관련 논문을 일정 시간 내에 영어로 번역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전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러니까 제2 외국어 시험도?

천승훈: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 교양과정에서 독일어를 배웠으니까 별 문제 없이 한 번에 합격하였더니 지도교수가 나한테 고개를 흔들면서 참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몇 번 떨어지는데 하시면서...

Wayne State University에 입학한지 2년이 지나 석사가 끝났을 때 지도교수님이 뉴욕 주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으로 옮겨가시게 되었습니다. Boeckman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15명 이상 있었는데 가정 사정으로 옮겨 갈 수 없었던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함께 옮겨갔습니다. 로체스터 대학이 Boeckman 지도교수를 모셔가는 상황이어서 대학원생들이 Wayne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과정 중에 수학했던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지도교수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능력에 따라 대우해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사람이 석사를 끝냈고 로체스터 의대 약물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어 같이 갔습니다.

이: 그래서 로체스터 대학으로 건너가셨군요.

천승훈: 로체스터 대학에 가니 학생들 수준이 꽤 높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야기 하는 금수저, 흙수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흙수저라 생각하며 집에서의 도움 없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그렇다고 합니다.

천승훈: 발표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요즘 서울대학교 입학생들 가정환경이 우리 때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솔직히 저의 어머니께서는 행상을 하셨습니다. 멸치, 김 등을 머리에 이고 가정집에,

그때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서, 방문하여 팔러 다니시고, 마늘 철이 되면 체구가 자그마한 분이 리어카에다가 마늘 싣고 다니시면서 음식점 같은 곳에 갖다 주고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제가 서울대라도 가고 어찌됐던 간에 교수라도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천승훈: 전에는 자기가 혼자 노력해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완전한 스펙을 쌓아야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 가능해진 요즘 세대가 참으로 안쓰럽다고 생각해요. 특히 흠수저의 환경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 저는 우리나라의 엘리트를 키우는 제도의 하나인 석사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끝내고 가서 6개월 훈련만 마치면 장교로 제대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좋았던 게 비슷한 또래의 석사 애들 열 몇 명이 한 내무반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다른 전공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생활하면서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배운 게 딱 하나 있다고 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숙사에 살아봤더니, 와! 진짜 나는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머리 더 잘 돌아가고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서로 간에 상호 비교도 하면서 동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영사 같은 곳도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어 전공영역 간에 교류할 수 있고 인맥도 형성할 수 있어 장차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래에는 자녀 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바빠져서 소위 흠수저 집안이라면 보통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 자녀 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도 안 하셨던 것 같고 학교에서도 안 시켰어요.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 오후 3시에 집에 왔거든요. 주로 친구들과하고 놀고 그랬어요.

천승훈: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방학만 되면 시골 큰 집에 가서 지내면서 농사일도 돕고, 야외에서 마음껏 놀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좋은 추억이에요.

이: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모부님이 대치승이셨기에 여름철에는 절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모님 집 근처 광주천에서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 개구리 뒷다리도 구워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참외 서리하다가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피나니까 피난다고 그러고 울고... 그런 삶을 살았었죠. 어렸을 때 자연과 친해져야 대문호와 같은 큰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천승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서 그만한 경험을, 극단적으로는 허클베리 핀이나 톱 소녀와 같은 모험을 하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아파트에서 격리되어 살게 되면 시심이 우러나올 수가 없죠. 뭔가 메말라지는 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떻게 하셨나요? 사모님도 학위를 마치고 거기서 일을 하셨나요?

천승훈: 아닙니다. 집사람은 전공을 바꾸어 의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박사 학위를 마쳤을 때 박사 학위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 후 박사후연구원 자격으로 하버드대학 화학과의 Kishi 교수 연구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Boeckman 지도교수가 추천해주셔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대학에서 지도교수 추천서가 가진 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 쪽으로 가셨겠네요?

천승훈: 네, 보스턴 근교인 캠브리지에서 지냈습니다. 저 혼자 거기 갔고, 집사람은 로체스터 대학에 남아서 박사학위를 끝내는데 2년 더 걸렸죠. 제가 포닥을 2년간 했으니까 같은 시기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내가 방문교수로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대학(SUNY at Buffalo)에 가게 되어 버팔로에 있을 때 로체스터 대학에 간적이 있습니다. 마침 졸업식이 있어서 그 과정을 보았는데 프로토콜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졸업식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어떻게 졸업식에 참석은 하셨어요?

천승훈: 아닙니다. 1982년 2월에 제가 하버드대학으로 옮겨갔어요. 졸업식은 5월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로체스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하버드에서 포스닥을 하면서 졸업식에 참석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도 지도교수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경쟁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동일한 연구 분야에서 한 연구팀이 논문을 먼저 발표하게 되면 다른 모든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던 유사한 연구가 의미를 잃기 때문에 극심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험실의 시약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보스턴 시내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연구원들끼리 농담하였습니다. 2년간의 연수기간 동안에 배운 지식은 4년여의 박사과정에서 배웠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뿐 아니라 연구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를 체험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실험실 구성원 모두가 힘들었지만 연구원과 대학원생들끼리는 서로 도우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는 지도교수가 세계 최고의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하였고, 논문이 발표되어 경쟁에서 이겼을 때는 보스턴 해안가에서

clambake party도 하였습니다. 반쪽짜리 드럼통에 숯불을 피우고 조개 및 각종 해산물을 구워 먹으며 모래사장에서 즐겼던 clambake party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일할 때는 죽어라 일하고 놀 때는 모든 걸 잊고 재미있게 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저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Boeckman 교수는 소위 말하는 방목하는 식으로 연구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즉 각자의 목표가 정해지면 대학원생 및 연구원이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실험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여쭙보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결과를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 박사후 연수 시절 지도교수인 Kishi 교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결과를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소위 slave driving 식으로 연구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 안에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수시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스스로 자기 최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slave driving 방식은 연구원의 능력을 그 최대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여서 breakdown 하기 바로 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것이죠. 그 뒤로부터는 거기까지만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다루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은 업적이 나오기도 할 거고, 또 사람을 키우는 맛도 있을 거고.

천승훈: 거기서 알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극한상황이 견디기 힘들기는 하지만 본인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어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가면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고. 제가 가봤더니 옛날에 오셨던 분들은 선구자들이시더라고요.

천승훈: 제가 유학 갔던 197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였지요. 부모로부터 유학비 받을 생각을 할 수 없던 시절이기에 모든 형태의 알바는 다 경험하시면서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신 분들이시죠. 자연계는 그래도 저와 같이 TA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인문사회계쪽은 어려웠죠. 그런데 1980년대 중반쯤에는 유학 온 학생들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신차도 바로 구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구나 짐작했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이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대단한 거였어요. 1960년대 초창기에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실 때도 비행기가 드물어 배 타고 갔다고 하죠. 1980년대 후반쯤부터 해외 유학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형수님 졸업하실 때도 졸업식은 못 가보셨겠네요?

천승훈: 못 갔죠.

이: 로체스터대학의 졸업식은 확실히 한국의 졸업식하고는 프로토콜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장 통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잘 지킨다는 것들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조그마한 행사라도 엄숙하게 의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우리 사회에도 특히 대학이라면 학사, 석박사 학위를 주는 이런 과정은 정말로 의식을 갖춰서 주는 것이 대학뿐 아니라 본인도 명예스럽고, 또 그러한 것이 자부심을 심어주는 과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포닥 열심히 하시고 나서는?

천승훈: 포닥 시작한지 1년 반쯤 지나서 지도교수가 “끝나면 대학 교수로 갈거니?” 물으셔서 저는 돈 벌어야 한다고 하니 3~4개 제약회사 담당자 이름, 주소 등을 주셔서 편지를 보냈죠. 편지 쓴 모든 회사에서 면접 하자고 해서 놀랐습니다. 면접은 1박 2일 내지 2박 3일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회사 부담이었기에 발표할 자료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보통 아침 일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에는 그 곳 박사급 연구원들과 일대 일로 면접을 하였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합격됐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안 된 곳은 집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천승훈: 같이 뽑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 우리나라도 보면 1970년대는 결국 케미스트리였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조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를 가셨어요?

천승훈: 산도스연구소(Sandoz Research Institute)라고 스위스에 본사가 있고 미국 이스트 하노버(East Hanover)에 있었습니다. 제가 귀국한 다음 해인 1996년 산도즈가 시바-가이기(Ciba-Geigy)와 합병하여 현재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가 되었습니다. 산도즈와 시바-가이기 본사는 스위스 바젤(Basel)의 라인 강(Rhine river)가에 서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트 하노버는 어느 주에 있는 건가요?

천승훈: 뉴저지(New Jersey)주에 있습니다.

이: 그러면 보스톤에도 그때 당시에 한인들이 좀 있었죠?

천승훈: 보스톤과 근교에 많이 있었겠지만 하루 종일 실험실에만 있었으니까 일체 외부 접촉이 없었습니다. 산도즈연구소를 택한 이유 중 하나는 뉴저지 주에는 제약회사가 많아 집사람이 직업을 얻는 데 편리할 것 같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New Jersey주가 당시에는 미국의 medicine cabinet이라 불릴 정도로 제약회사가 많았습니다.

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천승훈: 박사후 연구원으로 캠브리지에서 지낼 때 제가 있던 숙소에서 실험실까지 한 5분 걸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 길 이외에는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험실에서 단체로 행사했을 때는 연구원들 모두 같이 나갔죠. 보스톤 항구에서 배 타고 나가 flounder(광어 종류) 낚시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 나가는 날 비가 왔고 낚시 중 기관 고장이 나서 고생은 했지만 갯지렁이 끼워가지고 바다에 던져놓으면 쉽게 잡혀 꽤 잡았습니다.

이: 뉴저지에 있는 산도즈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천승훈: 산도즈에서는 약 12년간 일 했습니다.

이: 오래 계셨네요.

천승훈: 12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단독 주택도 사고, 애도 생기고 집사람도 일하게 되고...

첫째,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이어서 대우가 무척 좋았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유능한 동료, 최신 실험기기 등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화학 전공 박사과 약물학이나 생물학 전공박사가 둘이서 한 팀이 됩니다. 물론 학사나 석사를 마친 연구원 4~5명이 이 팀에서 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약물을 설계하고 그 효과

를 측정하는 일이 이러한 팀 내에서 이루어지고 department에 따라 소속된 팀의 숫자가 다릅니다. 당시 화학은 합성화학 박사 학위자만 뽑았는데 의약화학 지식은 교육시킬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이유로 약대에서 의약화학 전공한 박사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자를 뽑을 때 공지를 하지만 그래서 들어온 이력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보통 미국 내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화학과 교수한테 편지를 써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닥 할 때 지도교수에게서 인력이 필요한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산도즈에 들어갈 때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5명 가량의 화학 박사학위자가 모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네.

천승훈: 박사학위자 밑에서 일하게 되는 연구원들은 대학만 나오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박사학위자는 유명한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천승훈: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갈 때와 산도즈에 취직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지도 교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을.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스펙을 보고 뽑기도 하는데 효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겠지요.

천승훈: 박사학위 이상의 고급 인력을 선발하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정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천승훈: 동의합니다. 미국은 계산하고 따져서 하는 분야에는 정이 없죠. 지도교수와 지원자의 말을 그대로 믿거든요. 그런데 후에 무슨 계기로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추호의 용서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제가 산도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화학과에서 박사를 마친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최종 논문심사가 끝나 곧 박사학위를 받을 거라 해서 들어왔죠. 나중에 산도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학위증 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친구가 수료한 것은 맞는데 최종 논문 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수정하고 필요하면 추가 실험을 진행하여 졸업논문을 완성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는지는 몰라도 회사에서 그걸 아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경비를 동원하여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천승훈: 또 한 번은 중견급 생물학 전공자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연구를 잘하여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물실험 하기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실험 프로토콜에 대한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져 바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죠.

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어 동물실험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1996년 미국 버팔로 대학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없었을 때예요. 미국에 갔더니 실험 하기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서류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잖

아요. 처음엔 무척 힘들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동물실험하다 마취과다 등으로 죽으면 버리고 다시 하면 되고, 마취가 부족하여 깉깉 소리를 내도 대체로 그냥 진행했죠. 그렇게 해도 흉관 림프 삼관 실험은 성공 확률이 50퍼센트 정도 밖에 안 되는 어려운 실험이었습니다. 버팔로 대학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실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허가받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더니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Jusko 교수와 상의하여 마취 방법을 바꾸어 흡입 마취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여 겨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이 사람들이 프로토콜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는구나'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취해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학자도 싶은 별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별금이 무척 많은 것을 보면 신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윤리나 연구 윤리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가차 없다는 것을 모든 관련 연구자가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천승훈: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정으로 이루어진 사회, 단일 민족에다 '좋은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이민 국가이니 구성이 달라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산도즈에서 12년 근무하시면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그런데 어찌다가 한국으로 오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천승훈: 산도즈는 세계적인 회사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지만 한 10년쯤 지나니 위로 유리 천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20년 된 선배 연구자들의 행로를 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본적으로 이윤을 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윤을 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산도즈가 많은

교수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경험하고는 교수라는 직업이 너무도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산도즈 근무 중 가장 추억에 남는 일은 안식년으로 스위스에서 일 년 동안 지낸 것입니다. 약 6년 근무했을 때 안식년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로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에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corporate culture는 하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바젤(Basel)과 이스트 하노버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여 각 기관에서 1~2명이 선발되어 파견되었습니다. 온 가족을 완전히 이주 시켜주고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줍니다. 1년간 바젤에서 온 가족이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희대 의대 윤도준 교수(당시 동화약품의 회장 아들)가 산도즈에 안식년으로 와 있어 두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산도즈 같은 회사는 다국적 기업답게 연봉도 많이 주고 근무 환경도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로 약사 이민 오신 분들이 외국인의 한계성을 근무 중에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자식들은 약사를 시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인 약사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 약사시험을 통과하고 인턴을 마친 후 약사로 근무하면 90년대 중후반에 10만 불 정도 받았죠. 대학 졸업자들이 평균 4~5만 불 정도 받을 때였으니 많이 받고 계셨죠. 약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참 좋은 데 Tops의 매니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약사가 매니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스무 살 후반의 매니저가 채용된다는 것이예요. 이민 1세로서 약사는 참 좋은데 자식으로서는 커가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약대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정말 자기가 원한다면 몰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는데 아마 비슷한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승훈: 산도즈에서 근무하는 동안 프레지던트와 같은 탑 매니지먼트에 내부 직원이 발탁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NIH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5년 임기로 계약되어 오시고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 더 크고 좋은 회사로 옮겨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위스 본사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계셨다가도 한국으로 오시려고도 하죠.

천승훈: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해진 것 같은데, 많은 경우 회사는 젊었을 때 일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대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한국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큰 기업에서 뒷방 신세 되었으니까 이제 가방 싸야 될 텐데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데 이제 산도스에 있다가 전남대에는 어떻게 컨택하게 되셨나요?

천승훈: 미국 학회에 왔던 임동구 교수에게서 전남대 약대에서 제 전공 관련 교수를 뽑는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 약대에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서 대학원을 안 다녔잖아요. 당시에는 해당 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그 곳에 교수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17년 사시면서 마련한 터전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천승훈: 뉴욕, 뉴저지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 귀국 이사 등이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이: 그래서 나올 때 온 가족이 같이 나오셨어요?

천승훈: 집사람이 유공의 뉴저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정리할 것들도 있어 저보다 1년 후에 나왔습니다.

이: 나는 같은 대학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몰랐네요. 1년 후에 오셨구나. 그래서 드디어 전남대학교와 인연을 맺으셨는데...

천승훈: 당시 최한선 총장님이 잘 봐주셨어요. 나이 등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었는데 총장님의 결단으로 국립대학에서 특채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약대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동기인 정외과 지병문 교수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최한선 총장님은 그런 쪽에서는 확실한 견해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때 시행되었던 제도나 개혁 등을 통해 전남대학교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제가 재직하는 중 총 아홉 분의 총장이 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최한선 총장님이 대학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셨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천승훈: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장 재직 중 그분의 자격에 대한 분란만 없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그래도 고향에 오셨으니까 고향만큼 좋은 곳이 없죠. 고향이라면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믿고 의지할 친척, 친구도 많고...

천승훈: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제자들에겐 가장 많은 사랑도 받고, 연락도 받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승훈: 지금도 제자들과 가끔 연락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좋은 것은 요즈음은 제가 제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하고 히말라야도 가셨죠. 대학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이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세요?

천승훈: 제자들과 함께할 기회가 있으면 가능한 같이 하려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자들과 2012년 여름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같이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똑똑한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 교수님은 제자들하고 연계가 좋으시니까 히말라야 등산 같은 특별한 사진 있으면 올려주시고 정영사에서 사진도 있으시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3.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 출발 전 가이드, 요리사, 포터들과 함께(2012. 6. 18.).



그림 4. 안나푸르나봉(8,091m)을 배경으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136m)에서(2012. 6. 22.).

이: 확장하시면서 약학대학 연구장학재단을 설립하셨잖아요. 정말로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약학대학에 연구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때 어떤 계기로 만드셨나요?

천승훈: 외국 유학하면서 배운 거예요. 미국은 좋은 대학이라는 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 화학과에서 업적이 뛰어난 유능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칼텍,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교수를 모셔오기 위하여 건물 한 층을 따로 세워서 거기다가 모시더라고요. 필요한 교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건물을 증축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연구, 교육 등은 튼튼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교육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약대에 재단을 만들어 키워나갈 방법을 모색했었죠.

다행히도 당시 우리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는 구성원들이 여태껏 모아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수님들은 지금껏 모았으니 이제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고, 당시 본부에서는 각 단과대에 있는 기금들을 통합하여 전남대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느껴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고안했던 것이 장학재단 설립안이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은 주로 동창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뜻에서 소액을 자주 기부하여 조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부수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때 당시 조경환 행정실장님께 설명을 드렸더니 선뜻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조 실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었는데 몇 달에 걸쳐 교육청과 세무서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잘 처리해주셔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이용복 부학장님도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익배 전임 학장님과 다른 선배 교수님들도 모두 잘 도와주셔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천 학장님 때 우리가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 연구장학재단을 만든 것은 정말로 우리 전남대 약대에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일도 하시고 우리 제자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으시고 하는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주시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천승훈: 솔직히 말하면 비결은 없습니다. 진실로 대하면 많은 것이 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도 완전한 인격체라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익배 교수님을 정말로 사회의 아버님 같이 존경하기도 하고 배운 것도 많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옛날 분이어서 그러셨는지 학생은 객(客)이라고 그러셨어요. “학생은 객이야. 학생은 객이고 대학은 교수가 주인인 것이네. 객한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은 한계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만은 진짜 제 마음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대학 교수가 대학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수만이 주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는 ‘대학은 교수만이 주인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나 직원은 그 주인이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년 하시고 몇 년 지나셨어요?

천승훈: 5년이 지나 이제 만나이로 70입니다.

이: 엇그제 어디 뉴스에 보니까 만으로 70세가 되면 혈액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여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확실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건강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옛날처럼 정기적으로 수영하시고 그러세요? 또 정해놓고 하시는 것 있으세요?

천승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산도즈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연구실에서 일하시던 연구원 중의 한 분이 이태리에서 이민 온 2세로 Vince Parrino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나이가 그때 당시에 60세 가까이 되셔서 나이 드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30대 초

반인 저보다도 더 팔팔하고 열정적으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쭙어 보았더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도즈 연구소 부지 안에는 잘 갖추어진 헬스 시설이 있었습니다. 구성원은 누구나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hysical trainer가 두 명이나 상주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운동 능력을 테스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회사들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 냈어요.

천승훈: 그곳의 physical trainer는 처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신체 기능을 테스트하고 일정한 기간 마다 테스트 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 운동의 목표를 설정해줍니다. Vince Parrino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시간씩 운동을 꾸준히 했기에 그렇게 활기차게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산도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운동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Vince를 통해 운동의 중요성과 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하면 그 분이 생각납니다. Dear Vince!

이: 제가 천 교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꾸준히 하신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거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왼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왼손을 쓰세요?’ 하고 물었더니 지금껏 오른손을 써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게 하려고요, 같은 손인데 왼손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저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데 꾸준히 연습하셔서 이제는 왼손으로 젓가락질도 잘하고 거의 양손잡이가 되셨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나 되었네요!

천승훈: 사람은 뜻을 세우고 이루려고 노력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영을 40대 후반에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많고 운동 신경이 둔해서 그런지 우리 반에서 저보다 못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수영 선수가 목표가 아니고 즐기기 위한 것이니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려도,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쓰러웠는지 강사님이 저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지도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성원이 다른 우리 반에서 속도만 늦을 뿐이지 못 하는 건 없어요. 최근에는 수영대회에 나가서 65세 이상 그룹의 자유형 수영에서 금메달을 땀고 접영에서는 은메달을 땀습니다. 프로페셔널이 목표가 아닌 이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저도 끈기는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것은 잘 안 돼요. 그렇게 건강관리도 하시고 요즈음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계시죠? 정년하시고 바로 동화약품에서 4년간 근무하셨죠?

천승훈: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도즈 본사가 있는 스위스 Basel에서 1년간 안식년 근무를 시작할 때는 산도즈 회사 전체(미국 산도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에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초에 제가 나올 때는 미국 산도즈 연구소 도서관에 한국인 여자 사서 한 분이 오셨고, 또 화학 분자 modeling 전공하신 여자 박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본사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동화약품 회장 큰아들로 경희대 의대 정신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보통 교수는 연구원으로 외국에 나가면 학교로 가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님께 부탁하여 산도즈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산도즈는 정신과 계통의 제품(LSD의 효능이 처음으로 밝혀진 곳이 산도즈 바젤연구소임)이 많고 동화약품이 산도즈와 계약하여 많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였기에 산도즈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윤도준 교수님은 정신과 계통의 약물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것입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만나 한국 사람이며 동갑이라는 걸 알고 거의 1년간 두 가족이 같이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정년 했다고 연락하니 고문으로 일해 주십사 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이라는 게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지요. 주역을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결국 주역이 하는 이야기는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알게 되었느냐, 그 인연을 어떻게 가꿔 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올해가 칠순이신데 생일 지나셨어요?

천승훈: 지났죠.

이: 생신 때 밥 한 끼도 같이 못 했네요. 칠순을 보내시면서 생활 철학이나 신조가 있으셨을 텐데 후학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주시죠.

천승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미래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기에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애착을 갖고 현재의 일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것! 진짜 말은 쉬운데 살아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천승훈: 어렵죠. 부처님 가르침 중의 하나는 현재를 살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지나가 버렸고 앞의 일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전남대 약대가 1982년에 세워졌으니까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전남대 약대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남대 약대에 계셨으니까 후학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승훈: 모든 구성원이 실현 가능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서로를 도와 가며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끼리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합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격, 다른 능력, 다른 재능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저희가 그런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화합해서 한 가지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이 그렇게 가야했는데,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친 면이 없지않아 있지요.

천승훈: 쉽지 않지요. 교수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일 중의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진정으로 바꾸게 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렵죠.

이: 옛날에는 어느 한 개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학교나 기관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요즘 사회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개개인의 특성과 삶이 대학과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 들어온 젊은 교수들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아봤더니 지켜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 없는 것 같았는데 길게 함께 살아보니까 있더라. 당신도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라고 합니다.

약학대학도 있지만 우리 제자 약사들도 있잖아요. 약사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천승훈: 약사 직업이야 의료 분야에서 아주 필수적이죠. 그리고 약사는 약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폭 넓게 생각하고 또한 깊이 있게 생각하며 긴 안목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tunnel vision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약학대학 졸업생만큼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전공분야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사 직능이 위축되네, 조제의 한계성이 있네, 뭐라고 들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약이 존재하는 한 약사라는 직업은 있어야 될 거고. 결국은 우리가 약사라는 전문 직능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사회에서 필요한 직능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근간으로 한다면 우리 약사의 미래는 그렇게 어두운 미래는 아니고 밝은 미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승훈: 만약에 약사의 미래가 어둡다고 그러면 다른 분야는 더 어두울 것입니다.

이: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 약사의 미래가 어둡다면 다른 분야는 100% 더 어두울 거라 생각합니다.

천승훈: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이: 장시간 동안 대담에 응해 주신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천승훈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림 5. 전남대학교 천승훈 명예교수(좌)와 이용복 교수(우).



천승훈 명예교수

학력

1975. 0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학사
 1983. 02. University of Rochester 박사

경력

1975. 02.-1977. 1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제약연구실 연구원
 1978. 04.-1980. 06. Teaching Assistant, Chemistry Dept., Wayne State University
 1980. 07.-1983. 02. Research Assistant, Chemistry Dept., University of Rochester
 1983. 03.-1985. 06. Postdoctoral Fellow, Chemistry Dept., Harvard University
 1985. 07.-1991. 06. Associate Fellow, Medicinal Chemistry Department Preclinical Research, Sandoz Research Institute
 1991. 07.-1992. 06. Visiting Fellow, Medicinal Chemistry Department Preclinical Research, Sandoz Pharma Ltd
 1992. 07.-1995. 01. Lab Head, Medicinal Chemistry

Department Preclinical Research, Sandoz Research Institute

1995. 02.-2001. 03.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부교수
 2001. 04.-2017. 03.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교수
 1998. 02.-1999. 02.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학부장
 2003. 08.-2004. 08.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자문위원
 2004. 01.-2009. 12.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Medicinal chemistry section 상임편집위원
 2005. 06.-2008. 05.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사외이사
 2006. 07.-2007. 07. Visiting Scholar, Oregon State University
 2008. 03.-2010. 02.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부학장
 2010. 03.-2012. 02.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장
 2011, 2013. 약사국가시험 출제위원
 2011. 01.-2012. 12. 대한약학회 부회장
 2011. 02.-2012. 01. 국립대학교 약학대학 협의회 회장
 2011. 02.-2013. 02. 재단법인 전남대학교약학대학연구장학재단 이사장
 2017. 03.-2021. 02. 동화약품(주) 고문
 2017. 03.-현재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명예교수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사명감을 실현했던 나의 교수 삶

최준식

- 일시: 2022년 8월 5일
- 장소: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실
- 대담자: 기성환 학장, 송경은, 이혜민(조선대 재학생)
- 녹취 및 정리: 기성환, 송경은, 이혜민

기성환 교수(이하 기): 가족 상황, 학력, 경력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최준식: 저는 1946년 9월 30일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에서 태어났어요. 제 처도 약사예요. 장남은 조선대 의대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이고 큰 며느리는 유지하 약사입니다. 장녀 최은진은 치과의사이고 차남 최진석은 초당대학교 보건학부 교수이고 작은 며느리는 광주 식약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자 3명과 손녀 1명이 있습니다.

저는 1966년도에 조선대 약대를 입학해서 1970년에 졸업했고, 1970년에 대학원 석사 과정 입학, 1973년에 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해서 1978년에 약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31세로 최연소 약학박사를 받았습니다. 1973년에 전임 강사를 시작해서 2012년 정년퇴임까지 교수로 근무를 했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조선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보니 당시 조선대학교는 실험실도 제대로 없고 연구할 기자재도 없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지도교수이신 이진환 교수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연구할 수가 없으니 중앙대학교에 가서

3개월 남짓 훈련을 받고, 이후에 서울대학교에서 3~4개월 정도 좀 연구 방향을 트레이닝 받아야겠다고 했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시다. 연구 여건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로 가서 약물의 흡수, 배설, 대사에 대한 실험을 배워 왔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당시 약물동태학, 생물약제학을 정통으로 하신 이민화 교수님이 일본에서 오셔서 그 밑에서 4개월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실험도 하고 논문 쓰는 법들을 배웠고 두 대학과 계속 교류할 수 있었지요.

내가 서울대에 가서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저래가지고 대학원에 왔네.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소리를 들었고, 또 내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게 되었고요. 상처를 많이 받고 내려와서 이를 악물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런 교수들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 언젠가는 내가 보여주겠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연구 기자재도 우리보다 많고 대학원생들이 많이 와요. 한 교수당 대학원생을 일년에 2명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석사를 네 명 받을 수 있잖아요. 박사는 일년에 한 명씩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대학원생들이 거의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들은 조금 편하게 논문을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 나는 논문을 쓸 때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쓰는 거예요. 기계가 없으면 자연대로 가거나 다른 대학으로 가서 실험을 해야 했어요. 여름방학 땀 중앙대까지 가서 실험을 해서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의 대학에서 연구한다고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환교수로 가서는 제가 떳떳했어요. 경력에 떳떳하고 당시 일부 학생들을 제가 지도했어요. 쥐실험을 하는데 방법이 다르게 채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토끼 실험을 하는 데 잘못 하기에 지도를 하니가 약물학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오고, 또 다른 교실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와서 실험하는 것을 보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가서 대학원생들을 모아 놓고 강의도 하고 그 당시 1973년에서 1982년까지 『약학회지』에 많은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 다음에 1993년에 임상약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 남가주대학(USC)에 갔습니다.

남가주대학이 임상약학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대학입니다. 거기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는 잘 안 통하죠, 또 몸은 약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의사하고 교수하고 약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아침에 같이 회진을 해요. 그런데 건강이 안 따라줘서 3개월 하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감만 잡고 연구를 했죠. 그 당시 쓴 논문이 미국 학회지에 출판이 되었고 나에게는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모든 외국학회지에 논문을 내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때부터 해마다 평균 4편에서 8편을 외국학회지에 썼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대학교가 1988년도부터 민주화가 됐습니다. 미국 남가주대에 가서 연구 방향을 잡고 인체 실험을 그때부터 했어요. 임상약물동태학을 미국에서 제대로 배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약대 교수로서 인체 실험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인체실험을 계속 하니 그때부터 대학원생들이 좀 많아졌어요.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니까 연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994년 이후로 외국 학회지에 논문을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조선대의 민주화가 1988년에 되면서 1989년에 학생들을 위한 보건진료소가 생겼어요. 그 당시 내가 초대 보건진료소장을 하고 이후에 조선대학교 병원 약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병원 약국장은 약대 교수들이 다 했습니다. 1994년엔 학생처장을 했는데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였고 본래 더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병휴 총장님께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와서 학생처장을 해줘야 되거든. 조대가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네. 매일 데모만 하고. 자네같이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가 와서 학생처장을 좀 해주면 좋겠네.’ 그때 서울대 교수가 내려와서 총장을 할 때였는데 본인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장이 서울대 학생처장을 시켰다고 하면서요. 2월 28일까지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학생처장을 했고 또, 교무처장도 했었고 약대 학장도 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약대 교수로서 부총장까지 한 사람은 중앙대학교 한 분, 그리고 덕성여대 한 분밖에 없어요. 약대 교수가 어디 부총장까지 하겠습니까? 그 당시 교육부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을 중요시하고 장려하던 때라서, 연구 업적으로 대학

순위를 매기는 때라 4년 동안 연구 업적이 가장 높은 저를 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총장 할 때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700명 교수들의 연구 업적을 전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불만이 심했죠. 그때는 부총장을 그만 두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안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참고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연구 잘 하는 교수들은 자기 업적이 공개되니 더 좋아하고요. 그 해 교수님들의 논문이 101편이나 외국 학회지에 실렸었어요. 전남대가 그때 14위였고 우리가 18위까지 올라 왔거든요. 논문 쓴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선대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시 저조하더라고요. 진정한 교수란 건전한 교육 철학과 열성적인 연구력과 긍정적인 의식을 가진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가: 교수님이 약대를 지망하신 이유랑 그리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준식: 실제로 우리 약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요.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내가 해왔던 것 또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학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생들이 약대를 졸업하면 약국하고 관리약사하고 돈 버는데 급급한데 그것이 전부 아니다. 그리고 너무 돈이 우상이 돼 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세상, 남을 위한 세상, 외국도 바라보는 약대 출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약대를 지망한 이유는 제가 지금도 몸이 약하지만 고3 때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빈혈이 아주 심했습니다. 또 축농증도 좀 있었고요. 제가 어느날 쓰러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9월 초였는데, 거의 1개월 동안 학교를 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약한데 어디로 진학해야 할 것이냐 고심한 끝에 생각한 것이 약대였습니다. 제 건강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약학대학을 지망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66년 약대를 입학한 후에도 몸이 약하고 고민이 그치지않았어요. 그러다 1학년 2학기 때쯤 많은 고민과 열등의식,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중에 약대 1년 선배가 저에게 와서 영어 회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대학생 성경 읽기 UBF를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내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요. 당시 UBF에서 배운 것을 통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확실히 터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어 방황하는 학생들을 카운셀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철학이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 매사에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사고를 갖는 것, 매사에 성실성과 신뢰성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내 생의 철학이고, 지금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학들도 이런 고민을 조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우상시하지 말고 너무 허황된 것을 좇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는,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우리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저는 지금도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더라도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과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단한 추진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한번 마음먹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생각으로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 약대 건물을 신축하는 일이 제가 부총장이 끝날 때라 잘 될 수 있었어요. 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본부에 가서 제가 동문을 통해 10억 모금할 테니까 학교가 26억을 마련해서 36억 공사를 시작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10억을 모금하는데 누가 돈을 냅니까?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늘 전화기를 들고 살았고 서울로,

전국으로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건축기금을 모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약대3호관)이 생긴 겁니다.

저는 조용하게 연구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학생처장도 하고 병원 약국장도 하고 교무처장도 하고 약대 학장도 하고 또 부총장도 했습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강력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은 학생들이 졸업 직후에 관리약사 또는 약국 개국만을 위해 몰두하는 데 그보다 넓은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생활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 조직 생활 즉 공식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대학원을 나와야 교수가 될 수 있으니까 대학원 진학을 해서 교수가 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일대일로 상담해서 대학원을 보내고 특히 서울대 대학원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한 석사가 36명, 박사가 20명 인데 아쉽게 교수는 2명 뿐입니다. 내가 지도한 박사중에 식약처장을 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제약회사 생산직, 연구직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식약처도 아주 좋습니다. 월급은 약간 적더라도 조직 생활, 공식 생활을 추천합니다. 또 병원 약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월급은 조금 적습니다만 조선대 병원에 들어가면 조선대 병원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일반 행정직원이 모두 2천 명인데, 2천 명이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열평에서 이십 평 되는 약국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큰 조직에서 좀 살아보고 공식으로도 갈 길이 많아요. 공무원으로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개업을 원한다면 정년이 61세니까 건강이 허락되면 약국을 80세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연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우리 젊은 학생들의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요. 너무 조급하고 돈만 생각하는 게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기: 연구 업적과 학술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세요.

최준식: 저의 전공과목이 약제학이지만 약제학 중에서도 생물약제학과 약물동태학이 있습니다. 약제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재 파트 약제학과 생물약제학 파트 약제학이 있습니다. 제 꿈이 임상약학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약물동태학을 포함해서 제재 또는 제형의 생체 이용률을 연구하고, 또 약물 동태학적 약물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동물 및 환자에서 임상약물 동태학을 연구했고, 최근에는 항산화제들이 약물 동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로 내 연구는 이 네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직 한 후로는 학회 활동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조선대가 발전할 수가 없다 약학대학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지요. 조선대를 연구 업적이 높아지는 대학으로 전국에 알리고 싶어서 연구 논문 297편을 썼어요.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놀랍니다. 국내 학술지가 156편, 국내 학술지는 1994년 미국 남가주 대학에 다녀오기 전까지 많이 실었어요. 하지만 미국 임상약학을 배우고 연구한 후로는 국제학술지에 141편을 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죽기 살기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대학 교수로서 아주 높은 연구 업적을 만들었으며, 1993년 미국 남가주대학 임상약학 교실에서 연구했던 논문이 1994년, 미국 학술지에 두 편 모두 출판되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그 후로는 계속 외국 학회지에만 냈습니다. 이후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마다 4편 내지 8편의 논문을 계속 발표할 수 있어서 약대 교수로서 학자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저서는 대략 20편을 썼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상약학 책을 냈고 제3판은 미국 임상약학 교실에서 준비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또 약물치료학, 조제와 복약지도, 처방약 상호작용과 부작용, 생물약제학 및 약물동태학 등이 제가 쓴 것이죠. 이 책들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약제별 복약지도 등을 포함해 총 20권의 저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학술상을 좀 많이 탄 편입니다. 제가 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동문들과 또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약대 6년제도 제가 한 30년 동안 강하게 주장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약업신문, 약사공론 같은 신문사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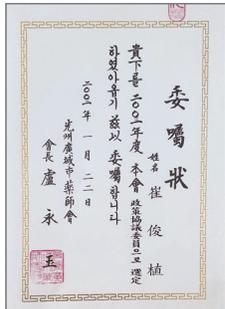
대한약학회 편집위원(1993년)



미남가주대 임상교육인증(1994년)



한국약제학회 학술상(1994년)



광주시 약사회 정책위원(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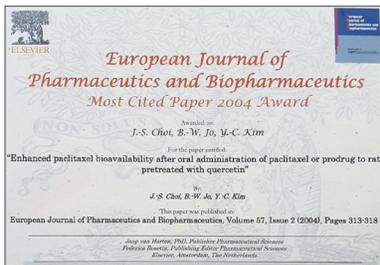
대한약학회 부회장(2003년)



대한약학회 약학연구상(2003년)



조선대 부총장 임명장(2006년)



EJPB 최다 인용상(2004년)



부총장 공로패(2007년)



대한약학회 가승약학상(2009년)



국제키와니스 부총재(2010년)



한국임상약학회 학술상(2011년)



대통령 훈장-황조근정(2012년)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또 서울에 있는 몇몇 교수님들이 도와줬지요. 임상약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은 약대 교수 400명 가운데 20~30명도 안 돼요. 그 와중에 이렇게 임상약학을 발전시키기까지 지방대학 교수로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판단력, 추진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국약제학회 학술상, 대한약학회 약학연구상, 조선대학교 백약학술상 등 많은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백약학술상은 우리 교수 700명 가운데 해마다 한 명에게 줍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약사 금탑상, 약업신문사에서 동암약의상, 유럽 학술지 EJPB라고 해서 생물약제학 및 약물동태학에 대한 유명한 학술지인데 최다 인용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대한약학회 가송약학상도 수상했는데 이것은 대한약학회 학술상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학술부분도 수상했고, 한국임상학회 학술대상, 약사 평론가상, 국가에서 정년 때 주는 황조근정훈장,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국제키와니스 미국 본부 총재가 전세계 최우수 봉사자로 저를 지목 해서 총재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시상을 해줬습니다.

기: 교수님, 그러면 왕성한 학계 활동 및 사회봉사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준식: 제가 1973년부터 학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국임상약학회 회장을 했고요. 한국약제학회 부회장을 했고요. 대한약학회 부회장을 했고, 또 한국임상약학회 회장을 했을 당시 한국약제학회 회장이 제 차례였어요. 그런데 한국임상약학회가 나에게 더 중요해서 약제학회 대신 임상약학회 회장을 하겠다고 약제학회 회장을 고사해서 후배에게 회장직을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6년제 발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약제학회인 AAPS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가서 논문을 발표했고요. 미국 임상약학회 ACCP 정회원으로 20년 이상을 꼭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으로는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 환경단체인 시민 생활환경회의 이사장, 국제 키와니스 한국지구 7지역 총재, 이것은 국제 봉사단체인데 세계적인

요드 결핍 환자를 퇴치하기 위한 봉사단체고요. 또 임신부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약사회 정책협의회 위원, 교육부 제도개편 추진위원, 광주광역시 시정자문위원을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가: 마지막으로 저희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것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제 교육 철학이 학생 중심, 소비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해 왔고, 또 약학 교육은 화학 중심이 아닌 임상약학 및 실무 실습 중심이어야 하고 여기에 맞추어 학제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30년 이상을 강조하여 드디어 그 뜻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약학대학협의회 회장 때 약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김창중 중앙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길수 교수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3번 방문하여 약학대학 6년제 학제 개편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8월 초에 공문으로 6년제 표준 교과 과정을 전체 약학대학 교수들의 합의와 결의하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약학대학이 6년제를 반대했습니다. 약 80%가 반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제로 6년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10월 30일까지 표준 교과과정을 합의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3개월 간의 난상 토론, 6차례의 학과장 회의, 학장 회의를 4회 한 후에 최종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대 9로 겨우 찬성을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당시 6년제 학년 개편을 국립대학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 찬성을 얻어내어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 6년제 교과 과정을 접수했고 2004년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임상약학 교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6년제가 가장 잘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을 방문 조사해서 6년제 도입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교육부에서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을 2010년부터 실시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학장 때 우리 재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모금을 한 것입니다. 마침 2004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동문들과 재직 교수들의 동참으로 약 6억 원에 가까운 발전기금(장학기금)을 모금 했어요. 가장 많이 내신 분이 서삼중 동문이었는데 1억을 기탁했고 그중 5천만 원은 개교 50주년 행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발전기금으로 현재 우리 재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약학대학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제가 정년을 2012년에 했는데 2011년, 정년을 1년 앞두고 설립했습니다. 그때 서울, 부산, 대전에 4군데 임상약학대학원이 있었는데 호남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약학대학원을 조선대학교에 개설해서 석사 과정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국 약사들, 병원 약사들의 임상약학 실력을 함양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제가 되니까 강의실 2개가 부족해요. 4년제에서 6년제로 늘어나니까 임상약학 교수를 3~4명 모셔야 되고 또 병태생리학 교수를 모셔야 되니까 연구실 3~4개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부총장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본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동문에서 10억, 대학 본부에서 26억을 내서 총 36억원으로 약대 강의동을 신축하기로 했고 그것이 바로 이 자리인 약대 3호관입니다. 2007년에 건축하기로 결정이 났고 건축기금을 모금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발전기금으로 6억 원을 모금했잖아요. 건축기금도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지요. 당시 우은란 학장이 모금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줘서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이처럼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06년, 2007년도에 부총장을 한 겁니다. 4년간 최근 연구업적이 최고인 저를 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제가 부총장 때 우리 대학의 연구 업적 순위가 무척 낮았습니다. 43위였어요. 100개 남짓 되는 4년제 종합대학에서 43위. 그때 교육부가 연구 중심을 강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업적을 어떻게 하면 상향시킬 수



그림 1. 의학신문 약사평론가상(2003년).



그림 2. 약대 50주년 모교방문날(2004년).



그림 3. 약대 개교50주년 기념식(2004년).

있을 것인가가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 요법으로 전체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조대 소식지에 공개해 버렸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불만을 토로했었죠. 그러나 그 결과로 2007년도 외국 학술지 논문이 101편 늘어나서 대학 순위가 43위에서 18위로 꺾뚝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대가 연구업적이 높은 대학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에 임상약학을 보급하기 위해 고민 끝에 한국임상약학회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제가 지방대학 교수 아닙니까? 지방대학 교수이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한국의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한국임상약학회를 창립해서 임상약학 교재를 출판했죠. 또 제가 1993년 미국 남가주 대학 임상약학교실에 가서 연구를 했을 때 미국의 6년제 커리큘럼 책자를 전부 모아서 1998년, 임상약학 제3판을,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약물치료학과 같은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약대 학장들에게 책을 보낸 결과 13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7개 대학에서 부교재로 채택하겠다는 해서 임상약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임상약학회는 큰 학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사명감과 감당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림 4. 학장시 약대건물앞에서.



그림 5. 대한약사회 약사금탑상(2006년).



그림 6. 부총장 집무실에서(2006년).



그림 7. 가족사진(2016년).



그림 8. 최준식 명예교수 구술 녹취 현장.



최준식 명예교수

학력

- 1970. 02.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1973. 06.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석사
- 1978. 06.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박사

경력

- 1973. 03.-2011.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교수
- 1982. 03.-1983. 0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환교수
- 1988. 09.-1989. 02. 조선대학교 보건진료소 소장
- 1990. 03.-1994. 03. 조선대학교 병원약국장
- 1992. 01.-2011.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회 위원
- 1993. 02.-1994. 02. 미국 남가주대학 약학대학 객원교수

- 1994. 01.-1996. 12. 한국임상약학회 부회장
- 1994. 03.-1995. 04. 조선대학교 학생처 처장
- 2002. 11.-2004. 11.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2003. 01.-2005. 12. 대한약학회 부회장
- 2003. 01.-2005. 12. 한국약제학회 부회장
- 2003. 06.-2004. 05.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
- 2004. 12.-2006. 05. 조선대학교 약학연구소 소장
- 2005. 01.-2007. 12. 한국 약제학분과회장
- 2006. 04.-2007. 11. 조선대학교 부총장
- 2010. 10.-2011. 09. 국제카와니스 7지역 총재
- 2012. 02.-현재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낙재인화(樂在人和): 즐거움 속에 인화가 된다

허인회

- 일시: 2022년 5월 2일
- 장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연구소 사무실
- 대담자: 손의동 명예교수, 황광우 학장, 최원석 박사
- 녹취 및 사진 촬영: 손의동 명예교수

손의동 교수(이하 손): 본인 소개하시고 가족 등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허인회: 1937년 5월 26일 아버지 허 윤(潤)자, 어머니 윤 갑(甲)자 례(禮)자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지금은 영창동)에서 출생했고, 본적지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439번지(지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서 유년을 보냈어요. 김포국민학교에 입학해서 2학년 당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고 계속 김포국민학교를 다니다 1950년 4월 김포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두 달 여 배우고 났을 때 6·25전쟁이 나서 학업은 중단되었고 피난 다니며 친척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이는 바람에 대가족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했어요. 1950년 9·28 수복과 더불어서 다시 중학교 학업이 계속되었는데, 전쟁 통에 배운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죠. 1951년 1·4후퇴 때는 형을 따라서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형들 밑에서 공부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환도와 더불어 다시 김포로 와서 중학교 학업이 계속되어서 졸업하고, 1953년 김포농고에 입학했습니다. 김포농고는 역사는 깊지만, 그 당시 열악한 분위기에 전시학교가 되어서 서울에 복귀 못 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어려움도 많았죠. 학교 교실은 다 부서지고 미군이 지어준 목사(나무로 만들어진 교실)에서 공부하고, 어렵게 1956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초·중·고 12년간 집에서 장릉(章陵) 고갯길을, 편도 4km 더 되는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중앙대 약대를 오게 된 이유는, 늘 우등생으로 성적표를 받았으나 의과대학을 가려니 실력도 모자랄 것 같고, 고등학교 당시에 화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약계에서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분이예요. 이승길 선생님이라고 한약에 밝은 본인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줬는지 생약학 원서를 옆에 끼고, 알칼로이드도 가르쳐 주시면서 약학을 선망하게끔 길잡이가 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약대를 지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중대 약대 경쟁률이 18대1이었어요. 특차에 18대1의 관문을 뚫어서 입학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김포농고에서 약대 간 것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약대에 들어와서 학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파이퍼홀(Pfeiffer Hall)이 지어지지 않았고 1학기 중에 완공이 되어서 그때 실험 실습을 신축 교사에서 하게 되죠. 새로운 실험실은 국내 최대의 자랑거리로, 훌륭했고 UNKRA에서 지원한 분석기기라든가 Spectrophotometer, Beckman pH Meter, 원소분석기, 현미경, 정제코팅팬 등 많은 기기들이 우리 중대 약대에 실험기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만큼 실험기기를 갖춘 학교는 적었을 거예요.

파이퍼홀을 설명하자면, Elmer H. Bobst 박사가 Gustavs Louise Pfeiffer 여사의 뜻을 받들어, 중앙대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10만 불의 거액을 기증하였어요. 당시의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이 한미재단을 대표해서 중앙대학교에 전달하여 1956년 4월 2,500여 평의 4층 건물인 Pfeiffer Hall의 준공을 보게 되었지요.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의 약대 건물(1,400여 평)로서 부대 실험시설만 하더라도 전국 제일을 자랑했습니다. 준공식 때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 준공 축하 메시지를 직접 챙기어서 중앙대학교에서 대통령을 맞이한 최초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 기부금으로 홍문화(1957년), 양형호, 고윤식(1958년), 김일혁, 손동현(1959년), 이은우, 홍순각(1960년), 김기호, 허인회(1965년) 교수에게 차례로 미국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입학 당시에 교재는 시원치 않았고,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때도 독일어 선생님이 철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대학에 들어오니 제 2외국어 독일어 시간에 유명한 독일어 선생님이 가르쳐주셔서 독일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약학과 조교 후, 시간강사로 약학 독일어를 가르치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학시절에 교과서가 없어 교수님이 판서하는 것을 겨우 베껴가면서 공부하였는데, 1학년 때 정성분석학을 우린근 교수님이 가르쳐주셨고, 2학년에 올라가자 홍문하 교수님이 미국에서 돌아와 무기제약학을 담당하시다가 서울대로 가시고, 그때 당시 유기화학은 신덕균 교수가 가르치다가 고윤식 선생님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유기화학 및 유기제약학을 고윤식 교수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주셨는지 밤을 새우면서 실험도 했습니다. 그 다음, 물리화학에 한치선 교수, 생약학은 류경수 교수, 후에 이선주 교수, 약학 독일어는 한구동 교수, 선택과목으로 항생물질은 한덕룡 교수, 약제학을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한테 배우다가 나중에 김종갑 교수님이 후반에 조금 가르쳐주셨죠.

그리고 3학년 때에는 양형호 교수가 생화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교과서도 없을 뿐 아니라 판서에만 의존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Krebs 사이클인가 TCA 사이클 그런 것도 그냥 판서에 의해서 했는데 받아쓰기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4학년에 들어와서 약물학은 연세대 의과대학 홍사석 교수가 가르쳐 주셨고, 1960년 2월에 약학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후 약사고시는 그때 당시에 주관식 문제로 5과목을 치렀는데 실습도 1과목이 있고 실습 시험은 생약학이고, 정량분석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50%가 불합격했어요. 거기에 다행히 합격해서 약사 자격증을 받고, 학교 진로는 바로 중대 대학원 약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손: 교수님 대학 시절, 군 생활과 대학원 생활이 궁금합니다.



그림 1. 1957년 대학 2년시절(이연수, 임기태, 박노일, 허인회).



그림 2. 1964년 석사학위를 받고서.

허인회: 대학 시절의 기억이라면 1학년 들어오자마자 실험 반을 김포 동향인 2회 선배님의 권고로 분석학교실을 지원하였어요. 그때 분석학 교실에 손동헌 교수가 4학년이었고 내가 1학년생으로, 동아리 겸 선후배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손동헌 교수가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계속 분석학 교실에서 실험하며 손동헌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실험을 도와주고 아주 끈끈한 정이 그때부터 손 교수하고 이어졌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화학연구소, 지금의 식약청 전신이죠. 거기에 연구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광화문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4·19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경찰 무기고 근처에서 총기 발사로 총성이 요란하였지요. 이런 혼란 속에서 근무하다가 대학원 1학기 중 1960년 6월 1일에 입대를 하였어요. 논산에서 훈련받고 그때 약대생이 많이 가서 마산 군의학교에서 약대 졸업생들만으로 구성된 반이어서 2개월로 단축 교육을 받고 주특기 824 약제병으로, 서울 이태원에 있는 육군 정훈학교 의무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치고 1963년 3월 만기 제대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대학원 수업을 들어 학점을 이수하고, 3월 제대 후 실험하여 논문을 제출하고 8월 석사학위를 받았습시다.

대학원 과정은 부대장의 허락하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교로 6개월 근무하게 돼요. 그때 조교의 월급이 월 2천 원이었어요. 그것을 받고 6개월을 하다가 1964년 시간강사가 되었죠. 그때 강의 과목이 약학 독일어와 약학 영어였습니다.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이 참으로 묘한 인연으로 약학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때 처음으로 동명사에서 『약학 독·영어』를 출판 하였습니다.

손: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그리고 후손은?

허인회: 1964년 봄 즈음에 길음동 약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인을 통해 소개받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 만나다가 결혼은 1967년 10월 14일에 전임 강사가 된 후에

했어요. 3년 연애했는데, 3년 중에 미국 가 있는 시간 1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하에 이남(二男)을 두었고 손자·손녀 세 사람이 잘 자라고 있어요. 장남은 약대와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유학, MBA를 이수하고 미국의 약사로 CVS에서 근무하고, 차남은 석·박사취득 후 베지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 미국은 언제 가셨는데요? 유학 시절에 일화가 더 있나요? 무슨 연구를 하셨어요?

허인회: 1965년부터 1966년, 김기호 교수와 함께 1년간 미국 롱아일랜드 약대에 가서 연구 생활하는데, 그 대학에는 박사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 과정으로 연구하다가 귀국을 했지요. 그때 롱아일랜드 약대 분석학 교실에서 손동헌 교수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킬레이트’예요, ‘메탈 킬레이트’. 킬레이트의 화합물에 관해서 새로 구입한 IR Spectrophotometer를 통해서 분자 구조를 주로 연구했죠. 그 후 1966년 귀국해서 그 다음 1967년 2월 약대에 전임 강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중대 약대의 교수진으로서 연구와 교육과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손: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몇 년 했고, 교육·연구·보직도 학생처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회 활동, 약물학 분과학회 활동 등 종합해서 교수 생활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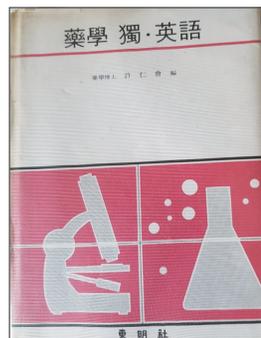


그림 3. 동명사 간 『약학 독·영어』.

허인화: 1967년 2월에 교수로 임용되어서 그때 당시에 주어진 과목은 약학 영어와 약학 독일어, 그리고 물리화학을 하게 되었어요. 물리화학을 하다가 1968년부터 약물학을 담당하게 됩니다. 1967년에는 물리화학을 가르치면서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 교실(주임교수 이우주 박사)에 가서 더부살이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1년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연세대로 출근하고, 그 후에 계속 약물학, 약물학실습, 독성학을 담당하게 돼서 2002년까지 약물학과 독성학을 강의하게 되고,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약물학에 관한 것을 하였습니다.

맹자의 군자삼락(君子三樂) 중 하나가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대학에 다행히 우수한 제자들이 많이 입학해서 졸업하게 되고 그 졸업생이 약대에 교수, 식약청 고위공무원,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흐뭇한 느낌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 보직을 했지만 1987년 중앙대학교 재단이 바뀌게 되죠. 제일교포 김희수 재단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9월부터 학생처장직을 하게 됩니다. 그 혼란 시기에 학교는 학교대로 시국에 대한 항거로 데모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때 어려운 보직을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2월에 끝나고 바로 중앙대 약학대학장으로 2년간 보직을 맡았지요.

1991년에서 1992년 2월까지 연구년(안식년)에 시드니 대학 약리학 교실에서 공부하고 귀국했습니다. 그 후 계속 약물학 강의하고 그 다음 1997년 전국 약대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죠. 이 준비를 위한 학장으로서 다시 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평가에 대해 준비해서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아서 교수 생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약학회 정회원이고 응용약물학회 부회장, 독성학회 회원, 호주 임상약학회 등의 회원으로서 활동했지요.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제약협회의약품 안전대책위원, 국립보건원 국가시험교정위원, 의료보험공단 진료비 심사위원, 대한약사회 학술위원, 한국마사회 약물검사 자문위원, 약사공론 모니터 위원 등으로 봉사했습니다. 대표적 기고문은 유한양행 버들블레틴, 월간약국의 기고문, 약업신문의 질병 치료, 동아약보 약물 연재, 약사공론의 질환 탐방, 신평제약 사보에 생활 속의



그림 4. 1986년 시드니 대학사진
(권광일 교수와 함께).



그림 5. 1989년 1월 학생처장 시절(로마).



그림 6. 1982년 약학회 학술상 수상.

명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손: 정년퇴직하시고 저술 활동 등, 후학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허인화: 2002년 8월까지 근 35년을 교수로 봉직으로 하고 명예교수로 퇴임하였는데, 퇴임 기념여행으로 손동헌, 김기호, 염정록, 임철부, 손의동 교수들과 동행해서 중국 昆明(곤명)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후임으로는 손의동 교수님이 계속 약물학 교실을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손의동 교수는 중대 약리학 교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브라운대에 가서 연구교수로서 봉직하다가 영남대로 와서 교수 생활하다가 중대에 제 후임으로 제안받아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손 교수는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교실, 학교 간의 유대를 통해서 대한약학회장을 맡았었죠. 그때 약학회 70주년 기념식을 위해 ‘창변득실(創變得實, 사진 참조)’ 글귀도 써 주었고, 약물학분과 명예교수와도 정년 후 끈끈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약리학 교실 석박사모임인 요산회(樂山會)가 있고, 등산을 즐기며 대학원생들과 많이 다닌 기억도 생생합니다.

후학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제가 보직할 시절에 겪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직 시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면 숙제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을



그림 7. 중국 여강 여행(2002년).



그림 8. 화갑집(1997년).



그림 9. 대한약학회 70년사 발간기념(2018년).

하였다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협동적으로 일하면 좋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낙재인화(樂在人和).’ 즐거움 락, 있을 재, 사람 인, 화합할 화. 즐거움이 있어야 사람이 인화가 되고 거꾸로 하면 인화가 되면 즐거움이 스스로 온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 간에 서로 낙재인화하는 정신,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상과, 학생들 간에서도 친구들 간에서도 서로 주고 도움이 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넓게 사회생활도 하고요….

저는 정년 퇴임 후에 취미를 살려서 한시를 읊고, 먹을 갈아 붓글씨를 쓰곤 합니다 [朝遊詩書圃, 夕憩翰墨場]. 호주의 Sydney 대학에서 연구년 연수 시 중국 당송(唐宋) 시대의 시선집(詩選集)을 한국어, 영어로 번역하는 집필에 관심을 가졌으며 당송 8대가 등의 시를 정리해서 팔순까지 12권의 詩選集 이백(李白), 두보(杜甫), 왕유(王維), 한산(寒山), 맹호연(孟浩然), 백거이(白居易), 도연명(陶淵明), 이상은(李商隱), 가도(賈島),



그림 10. 약물학 원로교수님 초대(2016년).



그림 11. 요산회, 약물학 분과 세미나 단체사진(2002년).





그림 12. 12개 시선집 모음(2002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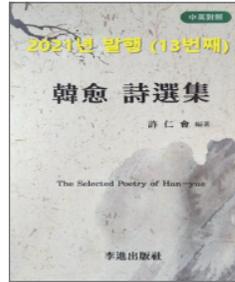


그림 13. 2021년 발행(13번째).

위응물(韋應物), 소식(蘇軾), 당(唐)시선집으로 편역 저술하였고 최근 2021년에는 『한유(韓愈)시선집』 출판으로 13권이 되었습니다. 책을 써 나누어 주는 것도 재미있고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2016년에 팔순 잔치도 해주어서 매우 흐뭇하였고 학문을 사랑하며 이때 까지 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미로 우표 수집도 했는데 우표는 당시 역사를 말 해 주는 자료이지요. 몸이 안 좋아 1974년부터 백남빌딩에서 외국인이 하는 physical fitness를 배워 평생 운동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인생오복수위선(人生五福壽爲先)이라 했지요. 사는 날까지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바라며... 회고하니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두서없이 말해 미안한 마음이고 이해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림 14. 허인회 교수 팔순잔치(2016년).



그림 15. 스승의 날 행사(2022년).



그림 16. 중앙대학교 허인회 명예교수 녹취현장(2022년).



허인회 명예교수

학력

1960. 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1963. 08.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1974. 02.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

경력

1963. 09.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
 1965.-1966. 미국 Long Island대학 연구원

1967. 02.-1977.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 부교수
 1977. 02.-2022. 0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1975. 01.-2022. 08. 보건복지부 중앙약심위원
 1987. 09.-1989. 02. 중앙대학교 학생처장
 1989. 02.-1991. 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
 1991. 09.-1992. 02. 호주 Sydney대학 교수
 1996. 03.-1998. 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 겸 의학식품대학원 원장
 2002. 09.-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안병준 교수의 연구 인생

안병준

- 일시: 2022년 6월 14일
- 장소: 삼복가든
- 대담자: 강종성 교수
- 녹취 및 사진 촬영: 강종성

강종성 교수(이하 강): 안병준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충남대학교의 학문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의 생애 경력 중에서 후학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안병준: 나는 1936년 5월 1일생인데, 호적으로는 1937년 3월 10일로 되어 있지. 한 살 적게 되어 있어서 정년을 늦게 했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면에서 태어났어.

강: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안병준: 우리 집사람하고 1964년도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

강: 교수님의 성장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안병준: 그냥 시골에서 초등으로 컸어. 소 먹이고 나무하고 그랬지. 그러다가 나하고 동갑내기들이 모두 중학교에 가는데 나도 중학교에 가야 하겠다 했지. 우리 집에서 한 오리쯤 되는 곳에 칠원 중학교 분교가 하나 생겼어.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데 그 분교에 3학년에 입학했지. 중학교는 1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강: 그럼 중학교를 1년밖에 안 다니신 거네요?

안병준: 1년 됐지. 1년 하고 바로 이제 부산으로 가서 부산 동주고등학교라는 데 야간부에 들어갔어. 1년을 다녔는데 동주고등학교가 폐교가 돼 없어졌어. 동주여고는 있었는데 동주고등학교 남자 학교는 없어서 버렸어. 그래서 전학을 가야 했는데 저녁이 다 되어 교장이 오더니 학생들을 줄을 세우고 고등학교 몇 개를 열거를 하고 어디 가고 싶은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산 동성고등학교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거기서 야간부 2학년에 들어갔지.

강: 거기서 2년을 다니신 거네요?

안병준: 2년 다녔지. 그때 부산에 조선방직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목화를 수입했다고. 목화 보관하는 창고에서 내가 창고지기를 했지. 밤에는 창고지기하고, 낮에는 학교 다니고. 2년을 그런 식으로 고학을 했지. 그때는 고학하는 게 일반적이었어. 요새 사람이면 굉장히 고생한다고 했을 텐데 그때는 대다수가 그랬지.

그때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함안 우리 집안의 학생 하나가 부산고등학교에 다녔어. 그 친구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어. 동성고등학교는 부산고등학교 비하면 수준이 솔직히 말해서 낮지. 그 친구하고 일 년쯤 같이 공부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 상대 갔거든. 내가 그 친구하고 비교해서 영어 단어라든지 수학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 같았어, 내 기분엔.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었지, 나도 서울대 간다라고.

그런데 나는 상대나 인문대는 안 되고, 고생하고 컸으니까 약대에 가서 졸업하고 약국을 하면 먹고사는 건 걱정안해도 될 것 같더라고.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최고였으니까. 실제로 약대 간 목적은 생계를 위해서였지. 그래서 서울대 약대 지원했더니 괜찮은 성적으로 합격이 됐어. 우리 갔을 때 약대는 동대문 시장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1년이 지나고 송인동으로 이사를 했지.

졸업하고 약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김영은 교수님이 동경대학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우리 대학으로 부임을 했다고. 그분이 글루카곤, 호르몬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구하는 게 더 재미가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대학원 갈 생각인데 받아 주실래요? 하니 받아 주셨어.

강: 그때 당시에 약사 페이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좋았던 편인가요?

안병준: 좋았지! 그때 졸업할 때는 취직을 하려면 얼마든지 좋은 데 할 수가 있었지. 서로 데려가려고 했으니까.

강: 그래서 졸업하고 독일로 가신 거죠?

안병준: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공해연구소로 갔지. 거기서 근무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조교로 취직했지. 서울의 공기 질 같은 거 조사하고, 공중보건의원들 박사 만드는 것도 해 주었지. 그런데 하루는 공해연구소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때 연희동에 살았거든) 버스 안에 라디오가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우리 과학기술자들 좀 교육해 달라고 리프케 독일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고, 열두 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당장 그 다음 날 서울대학교 문리과로 가서, (그 안에 본부가 있었거든) 어디서 하나 물어보고 덕성여대에서 시험을 쳤지. 21일로 기억을 하는데 4월인가 그랬을 거야. 그 당시 내가 취미로 학교 다닐 때 독일을 했어. 독일을 꽤 잘했다고. 시험을

국사하고 독일어를 보았지. 1등으로 붙었어. 40대 1이었는데, 그때 열두 명인데 합격이 10명밖에 안 됐어. 그래서 열 명이 독일에 갔는데 아켄공대에 몇 명, 보건대학에 두 명, 나머지는 다른 곳에 나누어 갔지. 아켄공대 주로 많이 갔어.

그래서 독일 가서 공부했지. 한 달에 400마르크, 그때 100불이었어. 그 정도면 그냥 살 수가 있었어. 학비 없고, 버스비 공짜고, 독일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 400마르크 가지고 같이 유학 생활하는 사람들에 인심도 쓰고, 비이너발트(Wienerwald)라는 치킨하는 데가 있었어. 그 집에 가서 치킨도 사 먹고.

1966년도 5월달에 내가 독일에 갔는데, 1969년도에 학위를 받고 도이체포르슘스게 마인샤프트(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데에프게(DFG)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한 4년 정도 학교에서 근무를 했다고.

안병준: 뷔센샤프트리헤 민아르바이터(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로 근무를 했지. 셰프(Chef, chief의 뜻)가 자기가 하는 강의를 줘서 스펙트로스코피(Spectroscopy)를 통해 천연물 구조 결정하는 강의를 하나 맡았지. 그때 독일도 NMR을 화학과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다 도입했는데 약대는 내가 학위하고 난 다음에 도입했지. 내가 NMR을 맡아 기기를 해석하는 거 강의도 하고, 스펙트로스코피 강의도 했지. 한국 돌아올 때 경력 쓸 때 뷔센샤프트리헤 민아르바이터를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 물어. 정확하게 하면 운터리히텐데(unterrichtende) 뷔센샤프트리헤 민아르바이터라 강의 조교인데, 미국식으로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와 같다고 했지. 독일은 제도가 달라서. 그래서 내가 이력서에도 그런 식으로 써놨어. 미국식으로는 조교수라고.

강: 독일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서울대 재학 시절에 뭐 재밌던 일이 혹시 있으신지? 그때는 데모를 했거나 그런 거는 별로 안 하셨나요?

안병준: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다녔으니까 가정교사 하는 거는 보통이었지. 그때 돈암동에서도 가정교사를 했는데, 3학년 때 4·19가 일어났어. 그래서 약대 학생들 전교생

1, 2, 3, 4학년들이 다 나와서 가운데 입고 의과대를 통해서 원남동으로 넘어갔지. 그때 약대 사람들 몇 명 다쳤어.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신문에 나기는 가운데 입고 의과대 학생들이 했다고 나왔어.

강: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다고...

안병준: 의과대학생들이 4·19 데모에 가담했다고 했어. 약대인 줄 모르고.

강: 흰 가운데 입고 있으니까.

안병준: 의대생들은 안 나왔지. 가운데 입으니 의대생인 줄 알았지. 그런 소동도 있었어.

강: 그러면 독일에서 조교수를, 어시턴트 프로페서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안병준: 그때가 1977년도였는데 한국 KIST에서 부서장급 한 사람이 연구원들을 데리고 독일에 순례를 왔어. 과학자들 만나서 유치하려고. 내가 그때 재구라파 과학기술자 협회장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모으고 했는데 그때 한 20~30명, 나를 포함해서, 유치를 당했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 외 것들을 다 해줄 테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KIST 들어온 사람도 있고, 과학원에 온 사람도 있지, 나는 화학연구소로 돌아왔어.

화학연구소 오니까 독일에서 쓰던 NMR보다 훨씬 좋은 게 있더라고. 독일에서 돌아올 때, 지말콥스키가 우리 셰프(치프)였는데, 내가 한국 돌아가면 문헌이 필요 할 테니까 독일 문헌을 좀 가져가야겠다고 했더니 신청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포르슁스케마 인샤프트(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에다가 신청 도서 목록을 쫓더니 답이 오기를 한국 화학연구소에 도서가 다 있다 하더라고. 대학 같으면 자기들이 지원하는데, 화학연구소는 그들이랑 비슷하게 다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독일 애들이 철저하더라고.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강: 그러면 연구소 연구원으로 오신 거네요.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안병준: 연구소에서 그때 의약품 개발 실장이었지, 화학연구소 제2 연구실. 그때 제일 급한 게 의약품도 의약품이지만 솔잎혹파리가 창궐해가지고 온 산림이 그냥 엉망이 됐지. 그거 잡는 게 국가적인 큰 과제였어. 우리 소장이 “안 박사 그거 어떻게 아이디어 한번 내 볼 수 없나”했지. 내가 천연물 했으니까 이놈이 소나무만 먹고 다른 이파리는 피하니, 자연 중에 기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한번 해본다고 해서 그때 정부에서 연구비로 3천만 원을 받았어. 요새 3억이나 마찬가지지.

강: 그때 당시에는 꽤 큰 거죠.

안병준: 계룡산에 삼군본부 있는데 흑파리 먹은 산을 하나 시험장으로 맞춰놓고, 식물들을 무작위로 갖다가 추출했지. 그때 임업시험장이 지금 한밭대학 자리에 있었는데 임업시험장에 물어보니까 솔잎혹파리를 기른다고 하더라고. 가보니까 새카맣게 날아 다니더라고. 식물 추출물 한 오십 개씩 해서 시험장에 갔지. 유리판에 솔잎혹파리들이 기어 올라가더라고. 유리판을 창가에 세우고, 중간에 추출물로 밴드를 만들어 냈지. 솔잎혹파리가 밑에서 올라가면서 밴드를 피하는지 그걸 봤더니 솔잎 중에서도 해송은 피하더라고. 해송은 맛이 없는 모양이야. 적송이나 육송은 그냥 기어 올라왔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추출해 보니까 시네올인가 정유 성분이 육송에는 있기는 있는데 육송에는 조금밖에 없고 해송은 많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도 없어. 천연물로는 어려울 것 같았어.

그래서 다음에는 천연물 빼고, 선반에 있는 화학 물질 가지고 했더니, 디하이드록시비페닐(dihydroxybiphenyl)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주문해서 에멀전을 만들었지. 화학연구소 바로 뒤에 능선이 있는데 거기 소나무에다가 솔잎혹파리를 울타리를 해가지고 번식시켜놨다고. 거기서 절반은 이 약 뿌리고 절반은 안 뿌렸는데

뿌린 데는 90퍼센트가 안 달라붙어.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삼군본부 시험림에, 한 1천 평 정도 되려나, 거기 가서 뿌렸다고. 절반은 놔두고 절반은 모델 시험장에서 한 것처럼 뿌렸는데 한 2주 정도 돼서 가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어. 넓은 데하고 모델 시험장 같이 좁은 데 하고 실험 결과가 다르더라고. 뿌려놨는데 보니까 솔잎혹파리가 처음에는 잘 안 올라오는데 조금 지나니까 숨어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이게 소나무 밑에 갈라진 틈에 숨어 있다가 조금 지나서 약효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쪽보다 심하지는 않은데 효과는 별로 없어서 결국 실패했지.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어. 그때 화학연구소가 성질 급해서 이까짓 솔잎혹파리 다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 다른 방제하는 사람들은 그걸 강원도나 지리산에 쪽 뿌리면 공해를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비판했지.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 디하이드록시비페닐 이 사람한테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이게 가소제로 쓰는 건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한 2년 만에 끝이 났어. 돈도 못 벌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결국 솔잎혹파리는 못 잡았어.

강: 화학연구소가 그러면 여기 대전에 있던 그때인가요?

안병준: 처음에 대통령이 연구단지를 조성해놓고 사람들은 KIST에서 먼저 내려오고. 화학연구소 해놓고 사람들 모집할 때 우리가 2차로 왔지. 대전에 연구단지 채우기 위해서.

강: 화학연구소가 대전에 내려와선 초창기였네요?

안병준: 초창기. 그때 우리 건물을 대전에 짓고 있었지. 처음에 와서는 서울대 법과대학교 쪽 옆에 종묘 쪽으로 보면 공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있었다고.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대전에 건물 짓는 거 보러 온다고 연구소에서 실장급 4명과 나 이렇게 다섯 명이 포니에 타고 화학연구소로 왔다 갔다 했어. 그때 제일 기억이 나는 곳이 충주 비료공장이야. 충주 비료공장에 있던 연구원들이 화학연구소에 와 있었어. 그래서 서울서

오면서 충주 비료공장을 둘러보고 그랬지.

강: 그러면 간흡충도 그때 하신 건가요? 그때도 화학연구소 재직 당시인가요?

안병준: 화학연구소 근무 당시 내가 전북대학교에 시간강사를 나갔어. 전북대에 내 동서가 있었거든. 그 친구가 조교였는데, 박사학위 테마가 간디스토마야. 그래서 내가 천연물을 한다니까 지도 교수가 같이 하자고 해서 내가 강의도 맡고, 연구도 같이했지. 화학연구소에서 시작해서 충남대학교에 와서 끝을 냈지.

강: 화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충남대학교로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떠셨나요?

안병준: 그때 차영복 박사가 부임을 했지. 내가 4년 끝날 때쯤 돼서. 차 박사가 가지 말고 같이 하자 했지. 차 박사도 뭇헌에서 공부했잖아. 독일 팀이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가지 말라 했지. 그래도 나는 연구소에서 흉내 내는 거 싫었어. 그때 폐결핵약 우리가 다 베끼고 그랬거든. 그때만 해도 베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기 싫고 대학 가서 기초연구 좀 해야 하겠다고 했지. 그때 세 군데가 들어왔지. 부산대에 와라, 그 다음에 중앙대에 와라.

강: 결국은 부산대나 중앙대를 안 가시고 충남대를 선택하셨네요.

안병준: 그래도 대전 살다 보니까 괜찮았어. 충남대도 그 당시 처음 만들었잖아.

강: 그때 당시 그렇죠.

안병준: 그 당시 유병태 교수가 충북대에 있다가 충남대를 만들어서 오고, 이천배 교수가

자연과학대학 확장하면서 약학과가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었거든. 그때 내가 들어갔지.

강: 충남대가 1979년도에 생긴 거죠?

안병준: 충남대 처음 들어온 애들이 3학년 때, 1982년도에 왔지. 오기 전에 내가 유기 화학을 가르쳤는데 당시 서명은 총장이 연락을 해서 충남대로 와라 이렇게 되었지.

강: 그러면 1982년도부터 충남대학교에서 근무하셨는데, 당시 연구 상황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병준: 그때 이계주 교수하고 배기환 교수가 와 있었고, 이순철 교수가 나보다 며칠 먼저 왔어. 내가 네 번째, 그 다음에 지용길 교수, 다음에 명평근 교수 이렇게 왔지. 유병태 교수는 학과장을 하시고, 그때 자연과학대학 약학과였으니까. 그때는 방들이 조그마해서 앉을 데도 소파밖에 없었어. 교수들 연구 환경 형편없었지, 뭐.

처음에 와서 화학과 실험실을 빌렸거든. 지금 약대 뒤쪽에 1호 관이 있잖아? 제일 왼쪽에 보면 실험실이 하나 있어. 그걸 약대에서 사용했는데 처음 오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배 박사하고 둘이서 사용했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됐지만 배 박사도 스펙트로스코피를 잘 모른다고 나보고 강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둘이 앉아서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했어. 그렇게 배 박사랑 천연물 연구를 시작했지. 유병태 학장한테 약학과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수도꼭지라든지 시약대 등을 용접해서 만드는 거지.

천연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크로마토그래피인데 모두 우리가 만들어야 했거든. 그래서 오븐하고 유리판하고 실리카겔은 내가 구해 올 테니까 하자. 그래서 화학연구소에서 오면서 내가 쓰던 Rotary Evaporator, 또 폐기되는 기구들을 가져왔지. 고쳐서 쓰려고. 칼럼 몇 개, 실리카겔 박막용 가루 등을 갖고 와서 시작을 했지.

강: 그 당시에 연구는 주로 천연물 쪽을 하셨어요?

안병준: 충남대에 와서 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오니까 또 나보다 먼저 온 류성호 박사가 있더라고. 과학원을 나와서 당시 조교로 있었는데 석사 때 암세포 죽이는 그런 걸 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 암세포 죽이는 거 한번 해볼까 하고 세포독성이 있는 물질을 뒤지기 시작했지. 실제로 류성호 덕을 좀 많이 봤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정경수 교수가 부임을 했지. 이력서를 보니까 쥐에 항암 실험을 했더라고. Sarcoma 180 암을 쥐에다가 넣은 뒤 구름버섯을 추출해서 주사하니까 암이 죽어. 그런 걸 하더라고. 아이고야 여기는 또 동물 가지고 하네. 동물 모델은 정경수가 하고 세포는 류성호가 가져오고 그렇게 항암제를 시작하게 되었지. 항암성 물질 개발에는 그 두 사람 공이 컸지.

강: 그러면 학생들이 와야 하는데,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주로 어떤 학생들이 왔나요?

안병준: 처음에 디스토마를 하고 있을 때지. 화학연구소에서 하다가 충남대에 갖고 왔는데, 관심이 있었던 여학생이 둘이 왔어. 하나는 류성호의 처제이고 하나는 그 친구인데 충남대 약대 졸업하자마자 둘이 들어온 거야. 1983년도인가? 첫 졸업생이?

강: 그렇죠. 그때 1983년이 첫 졸업생인 거죠.

안병준: 류성호도 디스토마 연구했지. 처제도 오고 처제 따라 친구도 같이 디스토마 연구했는데 여학생들이 오매에서 항디스토마 물질을 분리했다고. 오매는 매실 구운 것인데 회충약이거든. 물질을 분리했는데 굉장히 활성이 있는 알데히드가 있더라고. 단백질에 있는 질소 성분을 만나면 그냥 붙어. 작용원리는 이거구나 했지. 그냥 매실을 하나 까 활성이 굉장히 약한데 오매가 왜 그런 작용이 있나 그런 연구를 했지. 구우니까



그림 1. 학창시절 1959 경북서산 농촌봉사.



그림 2. 유학시절 동료의 결혼식.



그림 3. 교수재직시절 2002 붉은 악마.

알데히드가 생기더라고. 그걸 발표했는데 괜찮은 논문이었어. 독일 파마찌(Pharmazie)에도 실렸고.

그 다음에 김정숙이라는 친구지. 그 친구는 후박에서 물질을 분리했는데 디페닐에 틸렌이야. 양쪽에 메톡실기 붙어 있는데 그게 또 디스토마에 작용이 있어. 그걸 하고 있는데 KIST에서 독일 뉘스트에서 개발한 기생충 약을 합성했어. 이게 디스토마에 너무 좋아서 우리 연구가 죽었어. 그래도 독일 덕택에 디스토마는 다 잡혔어.

내가 디스토마 환자였어. 내 개인적으로 디스토마가 있었기 때문에 디스토마에 더 집착했는지도 몰라. 1965년도 독일 가기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했지. 그때 내 동기가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약국에 있었는데 검사 결과를 물어보았더니 “너 간은 하나도 없고 디스토마밖에 없더라”라고 해. 그러면서 “독일에 디스토마 약이 있다더라. 독일 뉘스트에서 개발한 헤톨이라고 동물 기생충에 쓰는데 너 독일 가면 그거 한번 실험해 봐라. 독하기는 한데 잘 듣는다”라고 하더라고. 독일 갈 때 내 서류에는 기생충 걸렸다는 기록은 빠졌더라고. 아마도 친구가 힘을 쓴지도 몰라. 그래서 독일 가는 게 통과가 됐어.

독일에 도착해서 의사한테 갔지. 헤톨이라는 약을 물어보니 있대. 그런데 왜 필요하냐고 묻더라고. 우리 동서가 수의과 학생인데 이거 가지고 논문 쓰려고 500g 만이라도 구해달라고 한다고 하니 당장 처방해주더라고. 그래서 기숙사 갖다 놓고, 동물 먹는 양의 절반으로 줄여서 먹었지. 한 다섯 번 정도 먹었더니 가뿐하더라고. 눈이 노랬는데 눈도 맑아지고. 대변 검사할 필요 없이 내가 느껴. 독일 의사들에게 대변 검사하자고 이야기하기도 싫더라고. 몇 톨 먹고 다 나아버렸어. 동서 논문도 논문이지만 내가 디스

토마에 관심을 가진 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강: 충남대학교에서도 중국인 학생을 받으셨잖아요. 상당히 일찍 받으신 거죠?

안병준: 그거는 1991년도. 한국 과학기술자들하고 북한 과학기술자들하고 연변에서 만나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이상섭 선생이 나도 발표할 거 있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인삼 가지고 세포 죽이는 성분과 이를 합성하는 거를 발표했지. 그 때 김광수하고 정상국이 와서 유심히 듣고 있더라고. 끝나고 나서 둘이 와서 한국에서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더라고.

강: 그때 당시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어려웠죠?

안병준: 중국인이 한국 올 수 있을지 그게 자신이 없었어. 한국 돌아와서 대전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중국은 공산권이라 안 된대. 그래서 법원 쪽으로 알아봤지. 처남이 대법관 했지만 직접 안 알아보고, 사돈이 법원 사무관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데려올 수 없냐고 물었지. 마침 그때 공산국가하고 교류하려고 우리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을 때야.

강: 그때 당시 중국하고 정식 수교는 없었던 건가요?

안병준: 수교가 1991년도 됐으니까 막 그때였어.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제 막 수교도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지. 정상국은 좀 늦게 오고 김광수는 좀 빨리 오고.

강: 당시 제가 1992년도에 왔으니까. 당시에 정상국하고 김광수하고 같이 한 기억도 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거죠?

안병준: 아, 그렇지. 특히 공산권에서는 김광수가 1호 박사였지. 그리고 나서 한 학기 늦게 포항공대에서 중국 학생도 냈더라고.

강: 교수님이 테이프를 끊으신 거네요. 그 이후로 이게 되는구나 해서 많이 한 거지, 그전에는 시도도 안 했던 거죠. 수교도 없었고 하나까.

안병준: 그전에는 전혀 올 수가 없었지. 수교 이후 물밑듯이 들어 왔지.

강: 그러니까 김광수가 대한민국에서 중국 학생으로서 박사 학위 1호네요?

안병준: 나는 그래 보고 있어. 졸업 후 김광수는 연변대학에 부교수로 바로 갔어. 지금은 정년퇴임했지. 그 당시에 그 친구도 중국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게, 김광수가 공산당 청년동맹 회장이어서 뺨이 있었지. 나도 여기서 뺨쓰고 해가지고 들어왔지. 이후 중국 학생들하고 교류가 물꼬를 텃지.

강: 그렇죠. 그 이후로 충남대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죠.

안병준: 그 다음은 공산권 중 베트남에서 왔지. 하노이 파마슈티칼 연구소의 Hong이라는 여자가 1년 정도 연수하고 싶다고 편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돈을 대가지고 데려왔지. 처음에 잘 때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재웠어. 옷도 우리가 주고. Hong이 가고 나서 하노이 약대랑 연결 돼서 Nam한테서 연락이 왔더라. 당신한테 가서 학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강: 그때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안병준: 베트남에서 온 학생도 그전에는 없었어. 내가 그것도 1호야.

강: 아 그래요.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안병준: 당시 김영호 교수는 베트남 과학원하고, 나는 하노이대하고 접촉은 거의 동시에 했지. 그런데 데려와서 교육시키려는 건 내가 먼저 했지. 김영호는 힘이 있는 쪽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교류가 굉장히 깊었지. 우리 실험실을 거쳐 간 베트남사람은 다섯 명인데 학위를 한 거는 Nam 하나야. 내가 마스크 같은데 자주 보면 Nam이 히트 치더라고.

강: 근래 Nam이 하노이 약학대학의 총장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번에 메일 보내서 충남대랑 교류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남보다 일찍 외국과 교류를 해서 좋은 인재를 많이 키웠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좋은 자리에 있죠.

안병준: 그것은 한병훈 교수 덕이 크거든. 한병훈 교수가 유네스코 동남아 쪽 회장을 하셨지. 그래서 유네스코 세미나를 충남대에서 유치했잖아. 그때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많이 왔어. 그래서 동남아하고 어울리게 된 거지.

강: 그때 유네스코 세미나를 성황리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으로 학교에서 보직도 하셨죠. 어떤 보직을 하셨어요?

안병준: 약대는 대학이 작으니까 보직이라는 게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약대는 순서대로 해왔지.

강: 본부에서 교무처장을 하셨죠?

안병준: 오덕균 총장이 당선되고 나서, 경상대학교의 유지영 교수가 “안병준 교수, 오덕균 총장 좀 안 도와줄래요? 교무처장 한번 해가지고 충남대 발전하는 데 좀 기여를 하세요”

하더라고. 나는 그런 취미 없다고 했는데 또 오덕균 교수가 직접 와서 부탁하더라고. “그럼 내가 교무처장 해도 내가 할 짓 다 할 겁니다.”하고 시작했지.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 하지만 시간을 지키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

강: 그 다음에는 대학원장도 하셨잖아요?

안병준: 대학원장은 윤형원 총장 때였는데 대학원장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필요했거든. 당시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뽑는데 정규 영어 점수가 필수야. 대전권이나 충청권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가 맹탕이야. 합격이 어렵지. 그래서 내가 이 공계로 들어오는 대학원생 영어는 전공 영어를 가지고 하자. 뽑는 사람이 시켜보고 영어 해석이 되면 그냥 뽑자고 했지. 그런데 윤 총장이 좀 과감하거든, 성질이 급해. 그래서 그 제도를 바로 시행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늘었어. 외국어 장벽이 낮아서 다 들어왔지. 그거는 내가 대학원에 공헌했지.

그때 외국 학생들 지원 문제가 나왔어. 외국인에 대해 등록금은 받지 말자 그러니까 일부 교수들이 우리 대학원생들 줄 돈 없는데 외국 대학원생을 왜 주느냐 하더라고. 그걸 내가 설득을 했지.

그래서 내가 공헌한 거는 두 가지야. 외국 애들 자유롭게 들어오고, 대학원생들 외국어 장벽 낮추고 한 거.

강: 이제 후학들에게 좋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안병준: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연구 특히, 약학이나 응용과학 분야는 기초 연구보다도 응용 쪽을 많이 해. 응용과학이라도 기초적인 연구가 있거든. 사실 그걸 대학에서 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응용과학 분야 교수들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응용 쪽을 많이 하더라고. 돈 되는 쪽으로 말이지.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도 되기는 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독일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기도 하고, 또 미국

에서 공부하는 우리 과학자와도 이야기 해보면 거기는 지금 우리처럼 안 해. 교수할 사람은 그냥 학교에서 연구하는 거고, 장사할 사람은 아예 나가고 그렇게 하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거기서 조교수나 부교수 하다가도 돈 버는 쪽에 취미 있으면 웨스트나 바이엘 쪽에 그냥 가버리더라. 학교에서는 학생들 교육이 있으니까 학문적인 쪽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강: 그런데 연구재단이나 정부에서는 융합연구라든지 산업화된 연구 이런 걸 또 강조하는 측면도 있기는 해요.

안병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돈이 될 만한 게 나오면 벤처로 해서 밀어주잖아. 그거는 흥내를 내는 게 아니고 학문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지. 기초 연구를 하다가 돈이 보이는 연구가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 새로운 걸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 후학들에게 학문적인 연구에 신경을 쓰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4. 충남대학교 안병준 명예교수 녹취현장.



안병준 명예교수

학력

- 196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 196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1969. 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 1965.-1966. 연세대학교 공해연구소 조교
- 1969.-1973. 서독 Bonn대학교 조교
- 1973.-1978. 서독 Bonn대학교 강의조교(조교수)
- 1975.-1977. 재구라파 과학기술자협회 초대회장
- 1978.-1982. 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의약품개발실장)
- 1982.-2002.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1985.-1987.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생과장

- 1987.-1989.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교무과장
- 1987.-1988. 보건사회부 약사심의위원
- 1989.-1991. 충남대학교 교무처장
- 1989.-1990. 문교부 학술진흥위원
- 1999.-2002. 한국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
- 1991.-1993.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 1991.-1992. 대한약학회 부회장
- 1992.-1994. 대한화학회 의약품화학 분과 회장
- 1992.-1995. 아시아 의약품화학연합회 한국대표
- 1997.-1998.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 2000.-2002. 보건복지부 약사심의위원
- 2001.-200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남북과학기술교류위원회 위원장
- 2003.-현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개신캠퍼스 60년을 회고하며

노재섭

- 일시: 2022년 6월 21일 오후 3시~6시
- 장소: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사무실
- 대담자: 한상배 교수, 정재경 교수, 유환수 교수, 윤재석 교수, 김지훈 교수, 한지민 교수, 송난 교수, 현순실 교수
- 원고정리: 황방연 교수
- 녹취 및 사진 촬영: 한상배, 심은경(조교)

약학대학 관련해서 교수님 본인 소개

노재섭: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모교이면서도 33여 년간 봉직했던 약학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또 초 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환수 전 학장님, 한상배, 정재경, 윤재석 교수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김지훈, 송 난, 한지민, 현순실 교수님 모두 만나 뵈게 되어 매우 반가워요.

대한약학회 창립 75주년 기념으로 전 대학이 참여하는 원로 교수 구술사를 편집하신다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신입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 우선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초창기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태동의 모태는 1951년에 설립된 2년제 청주초급농과대학입니다. 당시 이명구 도지사는 농업대학설립 기성회 회장을 맡아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제외하고

충북도민의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당 매년 봄에 보리쌀 한 되, 가을에 쌀 한 되씩을 내도록 결의하였고, 120만 도민이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청주초급농과대학은 농학과, 축산학과, 임학과 3개 학과만 있었습니다. 도민의 성금으로 설립된 대학이지요.

약학과는 1956년 4월 23일에 신설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농학뿐 아니라 특히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 의약품 개발에 이바지할 약사를 배출하자는 도민의 뜻이 성사된 결과로, 이는 청주농과대학에서 독립 충북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학과는 설립 당시 전국에서 13번째로 정원 40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교사는 현 청주농업고등학교 자리인 청주시 내덕동 산 1번지에서 시작되었으며, 9월에 청주시 개신동 신축 건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약학과는 강의실도 실험실도 없었습니다. 약학과의 강의 실험동이 준공되기에는 많은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약학과 1학년, 2학년 학생대표가 모여 시설 확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학장과 도지사에게 실험실 신축과 교수를 채용해서 강의를 충실히 하여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다시 중앙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험실 신축은 마무리되었으나 교수회의에서 주동 학생을 가려 제적이 4명, 무기정학이 4명, 무기근신이 2명이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처벌받은 학생은 다행히 유급되거나 다른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약학과의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희생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약학인에게 가슴 아픈 회한을 남겼습니다. 이런 시련을 거쳐서 31동(현재 S3동, 본부관리동)이 1958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약학과의 첫 강의 및



그림 1. 1950년대 충북대학.



그림 2. 1959년 약학과(S3동) 모습.



그림 3. 현재 S3동 모습.

실험실 건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3월에 약학과 제1회 졸업생 33명을 배출하였으며, 약사 국가고시에서 1회 졸업생 권한택 약사가 전국 수석의 영예를 얻는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었으나, 이후 약학과의 잠시나마 폐과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제가 1961년 4월에 약학과를 입학하였을 당시 4·19혁명, 5·16쿠데타로 학내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였고, 강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뜻하지 않은 비보가 날라왔지요. 그해 12월에 5·16쿠데타 정부의 대학 정비안에 의하여 충북 대학은 대전 충남대학교와 합쳐서 충청대학교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학과는 폐과되었지요. 어렵게 약학과에 입학하자마자 폐과되는 소식에 모두들 힘이 빠져 강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졸업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들하고 어수선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재학생들을 다른 대학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도 했었지요, 그러나 모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사실상 학생들 사이에선 교육 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자는 측과 약학과를 다시 살리자는 측 사이에 작은 내분이 있기도 했었어요. 다행이었던 것은 재학생의 경우 약학과 졸업은 할 수 있게 보장되었으며, 타 대학으로 전학이나 전과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전 교수 및 재학생들은 끊임없는 약학과 부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정계 요로에 진정서를 내고, 도민이 충북대학교 분리독립 투쟁위원회를 조직하면서까지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1963년 3월에 약학과가 부활 되었으나 입학정원 20명으로 감축되는 어려움을 겪었지요.

약학과 부활 운동에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은 투쟁위원장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박 철 지사장님의 노고와 충주 출신 이종근 최고위원의 노력이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학과 홍대현 교수님은 폐결핵으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관계의 요로를 왕래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노고가 있었고, 이러한 피로가 겹쳐서 분리되기 직전에 영면하는 슬픈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대학 부활 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수들은 자진하여 1인당 2,000환씩 각출하였고, 약학과 졸업생들도 약학과 부활 운동에 써 달라고 성금을 각출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림 4.

약학과가 부활 되었어도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학내 분위기가 심각하였으나, 약사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므로 교수님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학생들도 열심히 강의 받고, 실험 실습도 충실히 하여 약학과 4년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65년 2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공군 제55기 장교 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공군 기지 병원 의무행정 과장으로 4년 복무를 마치고 1971년 6월 30일 자로 공군 중위로 4년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제가 약학대학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공군 전역 후 1973년 2월에 대학원 약학과 입학원서를 제출하였지요. 한세호 주임교수님의 제의로 대학원 약학과에 편입하였으며, 이경순 교수님의 지도로 1974년 2월 대학원을 졸업, 약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 7월 1일 자로 약학과 조교로 발령받았지요. 학과 사무실에서 공문서 처리, 실험 실습 준비, 교수휴게실과 약초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약용식물학 교실에서 학생 실험 실습을 지도하였으며, 2년 후인 1976년 6월 1일 자로 전임강사 발령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시작으로 약학대학에서 33여 년간 봉직하고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본인 소개와 약학대학에 어떻게 입학하게 되었는지?

노재섭: 저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511번지에서 1941년 11월 18일에 출생하였습

니다. 청주시 중앙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며, 청주중학교 졸업하고, 청주고등학교를 1960년 3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당시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고 4형제 맏이로 대학 입학원서를 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외가댁에 있으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상 서울로 가기는 힘들고 해서 지방대학 중에서 학비가 저렴한 도립대학인 충북대학을 선택하였으며, 그 당시 농학과, 축산학과, 임학과, 약학과 4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적성 등을 생각해서 약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입학시험을 보았습니다. 운이 좋다고 할까요? 제가 충북대학교 수석 합격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떠하였으며, 재학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은?

노재섭: 1961년도에 약학과를 입학하여 대학을 다닐 때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다녔지요. 1학년 입학해서 과 대표를 맡았으며, 4학년 졸업반에서도 과 대표를 맡았습니다. 약학과 사무실에서 알리는 일을 전달하거나, 과제물과 실험 실습 리포트 검사 후에 반환 등을 맡아서 일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1학년에 교양과목 수강은 어려움이 없었으나, 약학전공에 관련된 과목으로 약용식물학과 무기화학은 어렵기도 하고, 실험 실습 리포트를 작성 후 제출하여 검사에서 통과되어야만 실험이 끝날 수 있어서 어려웠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2학년부서는 전공교과목 중 유기화학 및 유기제약학 과목이 제일 어려웠었다는 생각도 납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여서 야외실습 강의가 많았지요. 특히 약용식물학은 야외 채집을 나갔으며 식물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채집통에 담아온 식물을 표본도 만들고 한 즐거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무기화학 실험 리포트와 약용식물학 실험 리포트는 졸업 후에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충북대 역사관과 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입학 시 수석 입학할 한 부담감도 있고, 장학금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약학과장 추천으로 5·16 장학금을 3, 4학년 2년 동안 받아 등록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1학년 입학 시에는 여학생이

9명 입학했지만, 중도에 자퇴한 여학생이 4명 있었으며, 그 후에 편입한 여학생도 있어 모두 8명이 졸업하였습니다.

학생운동 등에 참여하기 보다는 친한 친구들과 대학 주변 막걸리 식당에서 대포 한 잔하거나, 실험 실습이 끝난 후에 조별로 같이 모여 막걸리 한 잔씩 하며 어수선한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진로 문제 등을 토론했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시내 다방(커피숍)을 가본 게 열 번도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교양과목 이외에 약학전공을 접할 수 있는 과목은 약용식물학 과목이었지요. 입학하기 전에 약으로 먹은 약초는 내 기억에 익모초와 면마 엑기스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골 고향에서 여름방학 때인가 몸에 열이 나고 헛배가 부르고 입맛이 없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익모초즙을 내어 주시어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맛이 무척 썼으며 바로 회복된 기억이 있지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 마디촌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무슨 엑기스라는 약을 구해오셔서 이 약을 먹고서 구충이 잘된 경험이 있었는데 약학과에 입학하여 약용식물학을 배우고서야 면마 엑기스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림 5. 약학과 6회 입학식사진.



그림 6. 장학생 1964년.



그림 7. 04동 앞에서.



그림 8. 약학과 6회 실험실앞에서.



그림 9. 약학과 6회 졸업기념 사진.

약용식물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신기한 것은 식물 세포를 배우면서 실습 시간에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세포를 관찰하는 실습이었지요. 처음 실습이 파의 줄기 표피를 벗겨서 그 일부를 취하여 slide glass 위에 놓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린 후에 cover glass를 덮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습이었지요.



그림 10. 1962년 약용식물 채집기념.

처음으로 식물 조직 세포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관찰하는 실습이니 고등학교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실험 리포트에 자세히 그려서 제출해서 검사에 통과되어야만 실험을 마칠 수 있었지요. 이런 실험을 시작으로 봄, 가을로 야외 식물 채집을 나가서 식물을 관찰하면서 무슨 과 식물인지, 잎의 생김새와 꽃의 형태 등 식물분류를 배우기 시작하여 자연히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채집한 식물은 표본을 만들어 관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약용식물은 채취하여 약초원에 심어서 현장 교육자료로 재배, 관리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지금 생각하니 생약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교수님은 몇 분 계셨나요?

노재섭: 약학과에 열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지요. 박정섭 교수님이 유기약품제조화학을, 김재완 교수님이 약리학을, 홍대현 교수님이 생약학을, 오유진 교수님이 위생화학을, 지형준 교수님이 약용식물학을, 김명운 교수님이 무기제약을, 원정희 교수님이 유기화학을, 이순호 교수님이 미생물학을, 한세호 교수님이 약제학과 정성분석화학을, 유병태 교수님이 정량분석화학을 강의하셨습니다. 1회 졸업하신



그림 11. 1970년대 약학대학 교수님.

동문 교수님으로 김학성 교수님이 약물학을, 이경순 교수님은 생약학을 열정적으로 강의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군대를 대학 마치고 가신 건가요?

노재섭: 약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대하진 않았습니다. 졸업할 당시 아버지께서 청원군 보건소에 근무하셨습니다. 의사이며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시니 관심을 가지고 아들 진로 상담을 하시었나 봅니다. 제 생각은 빨리 군 복무를 마치고 약국을 개업해서 가게를 도와야 할 형편이었으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 성격을 잘 아시니 보건 공무원 쪽으로 장래 진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제게 보건대학원 시험을 보도록 권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약사 국가시험을 마치고 바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입학시험을 응시하였는데, 약사 국가고시 합격과 더불어 보건대학원 입학시험에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연기하였지요.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서 군대를 가셨나요?

노재섭: 보건대학원 1학년 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진학해서 졸업논문 준비할 때 보건대학원 지도 교수이신 김인달 원장님께서 저에게 한국 기생충박멸협회에서 기생충 검사 기술 요원 훈련 과정을 마치고 지방에 내려가서 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원장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었지요. 바로 기생충 검사 기술 요원 훈련 과정 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1호 수료증을 받게 되었지요(1966. 4. 28.).

청주시 보건소 기생충박멸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청주시 및 청원군 초·중·고 학생 19,871명을 대상으로 196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인분 냄새를 맡아가면서 장내 기생충 감염을 검사한 결과 자료를 정리하여 “A Study on The

Helminth Infection Rate in One Area”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1967년 2월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 하자마자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육군에 입대하느냐 아니면 장교로 가느냐 고민 중에 선배의 권고로 공군 제55기 간부 후보생 시험을 보아 합격하였습니다. 그해 3월에 입교하여 4개월간의 후보생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에 1967년 7월 1일 자로 공군 소위로 임관되었습니다. 특기는 의무행정을 받아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 병원 의무행정과에서 의무행정 과장으로 4년 복무를 마치고 1971년 6월 30일에 공군 중위로 4년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군 전역하시고 교수가 되기까지는?

노재섭: 4년 4개월의 긴 군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후, 강원도 동해시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던 약학과 6회 임상혁 동창에게서 한번 시간 내서 다녀가라고 연락받고서 마음을 쉬려고 바로 밤 열차를 타고 강원도 동해시로 달려갔었지요, 파도치는 밤 바닷가, 열차 창가에 앉아서 동트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잠시 피로도 잊고 낭만에 젖어 버렸던 초행의 강원도 기차여행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갈 때는 잠시 쉬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떠났지만, 놀러왔게 되었지요. 주머니 속이 부족하니 잘되는 약국이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마침 강릉에서 관리 약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를 추천하면 어떠냐고 제의를 받게 되었지요, 부모님께 강릉에서 약국 근무와 조건 등을 말씀드리니 너무 멀지 않냐 걱정은 하셨지만, 반대는 하지 않으셔서 강릉에서 약국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 오시는 환자와 상담하면서 조제를 하여주고 나서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면 한편으론 약이 잘 들어 치료 효과가 나타나야 할 터인데 걱정하면서 잠을 설치기도 하였지요. 그렇지만 환자 보호자나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약사 선생님이 조제 하여주신 처방 약 효과가 좋아서 잘 나왔다고 인사를 받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며 피로도 모르고 마음이 편했지요. 약사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 이 자체가 약사의 본분임을 새삼 깨닫게 되고

마음 한편으론 흐뭇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처신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좋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며 나이 서른이 넘도록 성취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물론 고향을 그리며 가족을 보고 싶은 향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군에서 제대 한 지도 한 1년이 지났고, 소식을 전해드릴 겸 해서 대학 은사인 이경순 교수님께 지금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편지를 받아보시고 바로 답장을 주시었습니다. 내년에 대학원 신입생을 뽑으니 한번 응시하여 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여러 날 생각하다가 우선 청주로 가자, 가서 더 생각하기로 하고 강릉 약국 근무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대환영이셨습니다. 이때가 1972년 12월 경이었으니, 강원도에서 약사로 근무한 지 1년 반 만에 다시 청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고서 8년여 만에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대학 건물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은사님 중에 약물학 강의하시던 김재완 교수님이 덕성여대 약학과로, 약용식물학 강의하시던 지형준 교수님이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로, 무기제약을 강의하시던 김명운 교수님이 건국대학교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미생물학을 강의하시던 이순호 교수님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수로 정량분석 화학을 강의하시는 배영호 교수님, 무기제약을 강의하시는 민경락 교수님, 생물화학을 강의하시는 조항영 교수님, 물리화학을 강의하시는 정우태 교수님, 미생물학을 강의하시는 한성순 교수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생약학 교실 이경순 교수님을 찾아 인사드리고 대학원 입학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상의드렸습니다. 전공을 생약학으로 정하고 대학원 원서를 제출하였지요. 한세호 대학원 주임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뵈니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였으니 대학원 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서 약학과 대학원 2학년에 편입하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경순 교수님과 상의드렸더니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어 2학년으로 편입학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한세호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1973년 3월 대학원 2학년에 편입하여 부족한 학점은 1년 동안에 취득하였습니다. 이경순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Spiraea* 속 식물에 관한 생약학적 연구”를 해서 약학석사 심사 논문으로 제출하였어요. 그러나 논문 심사 과정에서 “*Spiraea* 식물의 내부형태학적 부견”으로 제목이 변경되어 논문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1974년 2월 26일 졸업식에서 약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북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1호 약학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생약학 교실로 출근하여 학생 실습을 지도하였으며, 마침 약학과에 조교 1명 정원을 배정받아 1974년 7월 1일 자로 조교 발령을 받았습니다. 조교는 약학과장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각종 공문서 처리, 시설물 관리대장 정리, 학생 지도 업무 보조 등의 일을 한 생각이 납니다. 조교 시절, 약학과장 원정희 교수께서 약학과 상조회장을 맡으시고 1975년 5월에 속리산 범주사로 부부 동반 교수연수를 갔을 때 조교인 지도 참석했었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림 12. 1975년 약학대학 교수연수.

그리고 유기제약교실 실험실에서 박정섭 교수님 지도하에 2-Aryl-3-(5-nitro-2-furyl) acrylamide 류의 합성을 도와 드리기도 했습니다. 박정섭 교수님은 이 합성 물질의 항균 작용에 관한 연구로 1975년 8월에 영남대학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조교 발령을 받은 지 2년 후, 1976년 6월 1일 자로 전임 강사 발령받았습니다.

약학대학 면학 분위기 진작과 약학박사 학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노재섭: 국립 충북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진작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공부하는 대학생과 연구하는 교수의 기풍 조성을 실천하였지요.

첫째, 학사경고 제도가 1976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시행되었어요. 학점 D급은 경고대상, E급은 재시험대상, F급은 낙제대상으로 하였으며, 2번의 경고를 받은 학생이 다시 경고를 받게 되면 제명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졸업 논문제와 졸업 시험제도는 1976년 졸업예정자부터 시행하였지요. 약학과는 졸업 시험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합격하여야만 졸업과 동시에 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교수재임용 제도가 1975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7809호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 충북대학교 대상자 122명 중 조교수 1명, 전임 강사 2명이 의원면직 결정이 났으며, 심사 전에 교수 1명, 전임 강사 1명이 자진 자퇴하였습니다.

넷째, 새로운 교원임용 규정과 조교임용 규정이 1977년 9월 1일 자로 특례규정이 제정 발표되었습니다. 신규임용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교수 채용 응모 자격은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석사 학위 소지자는 대학원 성적 평균 B 이상인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정책의 변화로 기존 대학의 전 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학대학에서도 원로 박정섭 교수님이 1975년 8월에 영남대학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김학성 교수님이 1975년 2월에 원광대학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이경순 교수님이 1980년 2월에 건국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민경락 교수님이 1979년 3월에 일본 동북대학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정우태 교수님이 1982년 8월에 건국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한성순 교수님은 1979년 8월에 중앙대학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각각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약학과 내 분위기로 저도 박사과정을 어느 대학으로 할까 걱정을 하던 중에 민경락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본 동북대학 약학부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982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는 “Sub-Regional Workshop on the Application of Radio-Immunoassay in Natural Products Chemistry” 워크숍에 일본 동북대학 약학부의 분석화학 교실 Dr. Toshio Nambara 교수가 초청 연사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민경락 교수님과 상의하여 워크숍 참석을 신청하였

습니다. 그리고 민경락 교수님의 소개로 동북대학 약학부에서 약학박사 학위 과정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귀국 후에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해 11월에 동북대학 학장 초청장으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1982년 12월 15일부터 1983년 3월 14일까지 3개월간 객원 연구원으로 ‘생체 내 스테로이드의 분석화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1984년 8월부터 1988년 7월까지 총 4회 동안의 방문 연구를 통해 강심성 스테로이드에 관한 한국산 두꺼비 독성분에 관한 연구로 해외 학회지에 5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Studies on Cardiotonic Steroid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Toad Venom”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1988년 6월 29일 자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림 13. 일본 동북대(1984년) 및 미국 Purdue 대학시절(1991년).

약학대학이 연구 활성화가 시작된 계기는?

노재섭: 약학대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충실히 시행하여 연구 활성화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국립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승격. 국립 충북대학교 약학과는 1979년 3월 1일 자로 정원 50명이 되면서 염원하던 약학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교수 정원도 늘어서 유능한 교수를 모실 수 있었고, 강의 및 연구 실험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지요.

둘째, 약학과 특성화 학과로 지정. 1983년 6월에 교육부는 특성화 분야의 선도적 연구로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교육의 균형 발전 및 특성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특성화 학과를 대학별로 1개 학과씩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그해 9월에 약학 계열에서 충북대학교 약학과가 특성화 학과로 선정, 발표되었지요. 그래서 약학과는 교수연수 기회 확대, 학술연구비 지원 확대, 각종 학술회의 참석경비 등 행정 재정 면에서 중점 지원을 받아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셋째, 제약학과 신설. 1991년 3월 1일 대학 정원 조정 결과, 약학과 25명, 제약학과 25명으로 각각 분과 신설되어 치료예방약학과 제조약학으로 분리되어 유능한 제약기술인의 양성과 약학교육의 균형적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지요.

넷째, 교수 해외연수 기회 확대. 최신 약학 연구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장려하였습니다. 배영호 교수님은 1970년 4월부터 2년간 일본 문부성 초청으로 동북대학 약학부에서 정량분석 연구를 하고 귀국하였으며, 1974년 6월에 일본 동북대학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학성 교수님은 1972년 2월부터 2년간 호주 정부 초청으로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스대 대학원 화학과를 수료하시고 Sydney 대학원 약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으며, 1975년 2월에 해동피 성분에 관한 연구로 원광대학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민정락 교수님은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아 일본 동북대학 약학부에서 1976년부터 3년간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Anti-inflammatory Effects of Colchicine and Progesterone in Acute and Chronic Inflammatory Responses” 논문으로 1979년 3월에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외국 차관으로 실습 기자재 확충. 약학대학은 1983~85년도 ECGD 교육 차관으로 약 356,000달러, 1988~90년 OECF 차관에 의하여 954,500달러, 또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제11차 IBRD 교육차관 1,185,000달러를 배정받아 교육용 실험기자재 100종 230점, 연구용 기자재는 54종 80점이 도입되어 합계 154종 310점의 실험 실습 기자재와 연구용 장비가 확충되었으며, 수십 종의 기기 장비들이 각 연구실에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문동철 교수님은 고가의 분석기기들은 중앙기기실에 설치, 가동하여 교육 및 연구에 크게 활용되도록 운영하시었으며, 약학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여섯째, 교실제 도입과 우수 교수 충원과 석·박사 학생 증가. 실험대학 실시와 종합 대학 승격을 계기로 교실제 도입과 각 교실에 2명의 교수정원을 배정받아 우수한 교수를 충원하도록 노력하였지요. 재학생들이 실험연구실을 선택하고 선택된 실험연구실 교수님이나 선배의 실험을 돕고 배우면서 연구 분위기를 익히게 되고, 본인의 장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실험연구실 활동이 대학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로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약학대학 발전기금 모금. 동문회 장학사업은 13대 이경순 회장이 1989년 11월에 동문회 장학규정을 제정하여 1억 원(1구좌 100만 원)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학금으로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 대여자장학금으로 운영하다가 기금목표액에 도달하면 무상장학금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순형 동문회장이 동문회 장학사업 위원장을 맡아 2004년도까지 1억3천여만 원의 장학기금을 모았습니다.

2006년 약학대학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약학기념관 건립기념사업으로 30억 모금액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장학기금이 씨앗이 되어 2020년까지 대학 본부 발전기금 재단 약학대학 지정 발전기금으로 7억 원이 기탁되었으며, 약학대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약학교육 및 연구에 필요로 하는 우수한 교수 충원, 대학원 학생 확보와 대학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과 특히 교수님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였으며, 신약 개발 분야의 창의적인 약학 연구를 창출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오송 바이오밸리(BioValley)에 제2의 약학대학 캠퍼스를 정착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명문 약학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회 활동 중에 기억에 남은 일은?

노재섭: 1999년 한국생약학회 28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천연물 연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9월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한, 대한약학회 천연물분과회 위원장을 2004년 1년간 맡았지요.

한국생약학회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1993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백두산 하계 생약자원조사에 참여한 일입니다. 7월 29일에 중국 천진 공항에 입국하여 북경 중약연구소 사종만(謝宗萬) 교수의 안내를 받아 중의연구원 중약연구소를 견학하여 연구소의 연혁 및 연구현황을 청취하였고, 7월 30일에는 북경시 만리장성, 자금성, 천안문광장 및 서점, 약국 등을 견학하고, 7월 31일 항공편으로 장춘시에 도착하여 야간열차로 새벽에 연길시에 도착하였지요. 8월 1일 아침, 버스로 출발하여 백두산 입구 비호 호텔에 도착한 후 바로 호텔에서 지프차로 분승하여 백두산 정상인 천문봉(2,622m)에 도착하였지요.

날씨가 좋아서 천지를 바라볼 수 있었고 백두산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자원을 관찰하였지요. 백두산 온천 부근과 호텔 부근에는 장백제비꽃, 비로용담, 두메양귀비, 톱잔대, 제비고깔, 두메냉이, 가시오가피, 동자꽃, 박새 등을 보고 사진을 찍고 관찰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신비의 절경인 백두산 천지는 cobalt-green 색상으로 찬란하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좋아 신비스럽고 오색찬란한 천지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정상지역의 식물분포를 조사하면서 장백폭포도 구경하였습니다. 폭포의 하류에는 장백온천이 있고, 온천물이 섭씨 82도 정도라 흐르는 물에서 생계란을 삶아서 판매하고 있었지요.

8월 2일에는 용정과 연길시에 도착하여 연변의학원 서의연구소를 견학하여 대학의 현황, 연구실, 약초원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두만강 두문시로 이동하여 두만강 국경 철로 다리를 구경할 수 있었지요. 8월 4일에는 장춘역에 도착하여 장춘 의과대학과 마지막 황제 촬영지인 영화제작소 등을



그림 14. 1993년 백두산 정상에서(이경순 교수님과).

견학하고, 야간 항공편으로 북경에 도착, 8월 5일 무사히 귀국한 생약자원조사 학술행사였습니다.

해외 유학 시절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노재섭: 일본에서 연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동문회지 Recipe 4호(1988년)에 일본 동북대학 약학부에 관한 글을 투고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부러워했던 일이 교수 연구실의 연구인력이었습니다. 약학부의 교수 연구실 직원현황을 조사해 보았지요. 그 당시 13개 교수 연구실에 교수 13명, 조교수 13명, 조교 27명(박사 24명, 석사 3명), 행정 및 실험보조원 22명(박사 4명, 석사 5명)으로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개 교수 연구실에 평균 5.7 명이 강의 및 실험연구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요원한 꿈은 아니겠지요?

일본 약학부의 학생 연중행사는 평상시 강의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진행합니다. 4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신입생 환영회, 6월에 각 교수 연구실 대상으로 테니스 대회, 9월에 야구대회, 10월에는 연구실별로 졸업 여행, 11월에 마라톤 대회, 1~2월에는 탁구대회 등을 하고서 3월 가서 종합성적을 발표하고 시상식으로 1년간을 마무리합니다. 4학년은 1학기(4월~7월)까지 전 교과과정을 모두 마치고 4학년 학생은 각 연구실현실로 배정되어 제2학기, 제3학기(당시에 일본은 3학기 제를 운영하였음) 기간 내에 졸업 논문을 준비하여 최종 졸업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0년 12월부터 1년간 교육부 해외파견 연수계획으로 미국 퍼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객원 연구교수로 1년간 Dr. Ching-Jer Chang의 의약화학 교실에서 천연물로부터 항암성분을 추출 분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퍼듀대학 캠퍼스의 특이점은 경찰서와 소방서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학내 주차관리 및 교통 위반차량 단속, 주야간 학내순찰,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 시 긴급출동 및 사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한국과 대조되는 대학 환경이었습니다.



그림 15.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기념사진.



그림 16. 충북대 대학원 약학과 졸업기념사진.



그림 17. Prof. T. Nambara 동북대 약학부.



그림 18. Chicago Botanic Garden.



그림 19. 일본 동북대 약학부 Nambara교수.



그림 20. 신약개발 심포지엄(2001. 5. 4.).



그림 21. 약학과 6회 동문 오시는 날 참석.



그림 22. 약학대학 창설 40주년 기념식 및 신약개발 심포지움.



그림 23. 제31회 생약학회 학술상 수상.



그림 24. 중국 북경 중의약원 생약학회 백두산.



그림 25. 생약학회 소백산 채집대회.



그림 26. 서울대 약대 약초원에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1년간 체류하면서 얼마나 느꼈겠느냐 하겠지만 놀라운 것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일년내내 첫 수업 시간이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추운 겨울에도 킁킁한 아침에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대학 강의실 등 청소하는 사람은 오후에 출근하여 밤 10시가 넘도록 청소를 하지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캠퍼스 내 도로나 주차장의 눈이 출근 전에 말끔히 치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휴일에는 슈퍼에서 술을 팔지 않고, 휴게소나 유원지가 금주로 되어 있으며 잘 지켜지고



그림 27.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50주년.



그림 28. 대야산 채집대회.



그림 29. BK21 바이오토피아 차세대 약학기술 사업단.



그림 30. 약학과 6회 졸업 30주년.



그림 31. 약학과 6회 졸업 20주년 사은회.



그림 32. 생약학교실 태백산 채집대회.



그림 33. 약대동문회 축구대회(2011. 10. 23).



그림 34. 천연물연구회 전주수목원.



그림 35. 철원 한탄강 자원조사.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운동경기를 즐깁니다. 인구 7만의 작은 대학도시지만 농구나 미식축구 경기가 일년내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좁은 소견이지만 이러한 미국인의 국민성이 건강한 사회, 나아가 자유세계의 선진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하여 봅니다. Purdue 약대 소개는 동문회지 Recipe 8호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림 36. 한국생약학회 30주년 국제심포지움.



그림 37. 약용식물학 마지막 강의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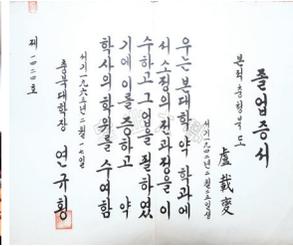


그림 38. 충북대학교 졸업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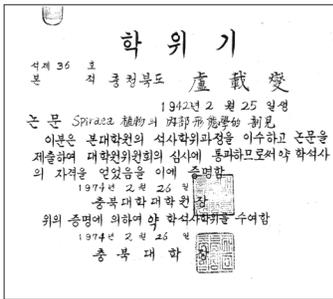


그림 39.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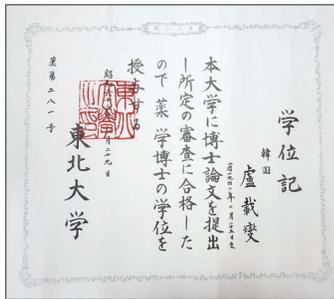


그림 40. 일본 동북대학 약학박사 학위기.



그림 41. 서울대 보건학석사 학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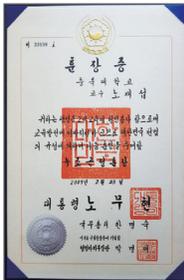


그림 42. 대통령 훈장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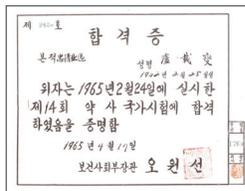


그림 43. 약사국가고시 합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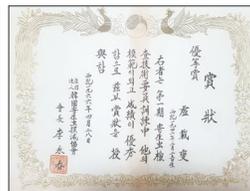


그림 44.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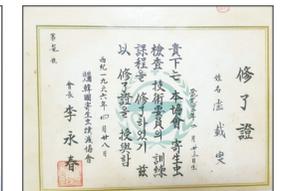


그림 45.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수료증.

기타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노재섭: 첫째로, 학창 시절에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만들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Mens sana in corpore sano)’라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만들어가야 100세 시대를 맞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리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젊음,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시간이 귀중하면 남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남의 시간을 자기 것인 양 마구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대학생 시절에는 남의 시간과 돈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내가 심심하다고 친구의 시간을 쉽게 빼앗지 말자. 친구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학생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대학의 많은 동아리 모임 중에 마음에 맞는 동아리에 참석하여 선후배 간의 우정을 키우고, 취미를 살리자.

마지막으로, 의로운 약학전공 전문인이 되십시오.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노재섭: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은 개신캠퍼스에서의 지난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뒤로하고, 2017년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오송캠퍼스로 약학대학이 이전하여 세계 유일의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지인 오송에서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명문 약학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약학대학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60년을 넘어 향후 100년을 향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가족 여러분!

교육, 연구와 봉사 잘하는 대학.

동문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하는 대학.

K-Bio를 선도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림 46. 충북대학교 노재섭 명예교수 녹취현장.



노재섭 명예교수

학력

- 1960. 03. 청주고등학교 졸
- 1965. 0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사
- 1967. 0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 1974. 02. 충북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
- 1988. 07. 일본 토호쿠(東北)대학교 약학부 박사

경력

- 1974. 07.-1976. 05.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조교
- 1976. 06.-1979. 1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강사
- 1978. 04.-1980. 03.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조사연구 부장
- 1980. 01.-1985. 03.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 1980. 05.-1985. 03. 충북대학교 보건진료소 보건부장

- 1985. 03.-1986. 04.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장
- 1985. 03.-1987. 0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부속약초원장
- 1985. 04.-1990. 03.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 1986. 04.-1987. 0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학생과장
- 1987. 03.-1989. 0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무과장
- 1989. 03.-1991. 0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학생과장
- 1990. 04.-2007. 02.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1990. 12.-1992. 01. 미국 Purdue University 연구교수
- 1994. 05.-1996. 05.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장
- 1994. 10.-1998. 12. 충청북도 약사심의위원
- 1997. 03.-1999. 02. 약품자원개발연구소장
- 1999. 한국생약학회 회장
- 2004.-2005. 대한약학회 천연물과학분과회 회장

편집후기

약계 원로를 모시고 구술을 받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떠오른 것은 2021년 봄이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만남이 정지되어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때였다. 당시 약학사분과학회에서는 손동헌 교수님과 송도약학대학 입학예정자 3인의 구술을 채록해서 『약학사회지』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구술사 작업을 진행해보니 약학 역사의 1차 사료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작업을 약계 전 분야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이런 구상을 약학사분과학회 임원들과 의논하면서 점차 구체화시켜 나갔는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이었다. 약학사분과학회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한약학회 홍진태 회장님과 상의하였다. 홍 회장은 사업 내용을 들어보고 흔쾌히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힘을 얻어서 자세한 추진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구술을 받을 대상을 약학대학 원로교수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고, 1980년대 초반까지 설립된 20개 약학대학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술은 각 대학 학장실에 연락해서 원로 교수님 선정 및 대담 녹취를 부탁하고 녹음 파일을 받은 후 녹취록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잘 진행되면 대한약학회 창립 75주년인 2021년 말에 책자를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시절이라서 만남 자체가 꺼려지던 때라 면담 일시가 늦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래저래 늦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약간 실망도 하였지만 코로나 시기여서 모든 것이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마음을 다잡고 보다 완성도를 높이는데 치중하여 잘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책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구술사 내용에 맞는 제목을 결정하는데 고심이 많았으나 여러분의 의견을 구해서 '한국 약학교육의 발자취'로 정했다. 제목의 글씨는 중앙대학교 염정록 명예교수님께 부탁드렸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다며 완곡히 거절하셨으나 심창구 명예회장의 간곡한 청을 뿌리치지 못하시고 결국 제자를 해 주셨다.

끝으로, 재난급 약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책이 나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책이 단순한 역사적 증언이나 회고를 떠나 후학들에게 미래 약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 약학교육의 발자취

한국 약학대학 원로교수 20인의 회고

인쇄일 2023년 7월 25일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편집인 김진웅, 박정일, 심창구, 주승재

발행처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

펴낸곳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42동 401호(02-880-4182)

인쇄처 동명사(031-955-7200)

ISBN 979-11-981264-3-6 03060

비매품

이 책은 대한약학회 후원으로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가 펴낸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 약학교육의 발자취』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 전국 20개 약대의 원로교수님들이 겪어 오신 우리의 현대사와 사회적 변화, 각 약학대학들의 역사, 그리고 그 당시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약학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온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직접 대담을 통해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약학계의 초창기나 각 약학대학 태동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며, 한편으로는 약학인이 가져야 할 약학계 역사에 대한 인식과 선배들의 헌신적 공헌의 역사의 바탕위에서 더 큰 미래를 이루어 나가야 할 사회적 사명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대한약학회 제52대 회장 홍진태

약학사분과학회는 고려나 조선시대 같은 먼 과거의 약학사를 연구함에 앞서 아직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생존해 있는 최근세 및 현재의 약학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이 책의 발간도 분과학회의 이러한 철학과 신조(信條)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고록이 지속적으로 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록 남기기' 작업이 교육·연구계를 넘어 범약계로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약학사분과학회 초대회장, 현 명예회장 심창구

본 단행본은 대한약학회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홍진태 회장님의 물심 양면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간 단행본의 발간을 위해 협조해 주신 20개 약학대학 원로 교수님과 전·현직 학장님 및 관련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술된 녹음을 녹취록으로 옮겨준 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역사관 박주영 학예사를 비롯하여 각 대학 녹취록 제작 담당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 회장 김진웅

